Company = "삼성전자"

Year = 2022

Article =

"""

반도체 실적 추락 등으로 경영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삼성 전 그룹 계열사 사장단이 26일 긴급회의를 열었다. 삼성의 전체 사장단이 한자리에 모여 경영 현안을 공유한 것은 2017년 2월 미래전략실 폐지 이후 처음이다. 이미 비상경영에 돌입한 삼성전자의 위기 상황을 전 계열사에 공유하고 그에 따른 그룹 차원의 대비책 마련이 주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저녁식사까지 포함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서는 2016년 말2까지 매주 수요일 그룹 전체 경영 전략을 가다듬었던 ‘수요 사장단 회의’가 6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전 부문 계열사 사장단은 전날 오전 경기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 모여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었다. 사장단은 반도체 경기 악화와 수요 위축, 고금리 등 경제 악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그룹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 참석자인 A 씨는 “삼성전자가 비상경영에 사실상 돌입한 만큼 나머지 계열사도 이를 공유하고 함께 상황을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10∼12월)와 내년 실적 전망치는 우울하다. 글로벌 수요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얼어붙고 있는 데 따른 영향이다. 스마트폰과 가전 판매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7조3390억 원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진 수치다. 내년 1분기(1∼3월)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수요 위축이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내년 D램과 낸드플래시 글로벌 매출이 올해보다 각각 18.0%, 13.7%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메모리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로서는 미국 인텔과 대만 TSMC 등 글로벌 경쟁사들에 비해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장단 회의는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도 언급됐다. 회의에 참석한 B 씨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고 장기적으로 기술과 인재를 확보해야 하는 점도 과제인 만큼 미래 먹거리를 어떤 기술을 통해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비상경영 상황에서 삼성의 전 계열사가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열사별 전략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미래 기후변화에 발맞춘 에너지 산업 변화와 관련한 전문가 강연도 이어졌다. 이어 단기적인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물론이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에너지 문제, 인구 등 폭넓은 주제와 관련해 토론도 이뤄졌다.

C 씨는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와 관련해 “미래 기술은 단기간의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뜻하는 게 아니다”라며 “먼 미래의 경영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논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삼성의 전 계열사 사장단이 한자리에 모여 경영회의를 진행한 건 약 6년 만이다. 국정농단 사태로 중단됐던 사장단 회의는 올해 이 회장 복권을 전후로 조금씩 부활 조짐을 보였다. 6월 20일 전자 계열사 사장단 25명이 모여 경영 활로를 모색했던 비상 경영진 회의가 대표적이다. 이 회장이 이틀 전 유럽 출장에서 돌아오며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한 후속 조치의 성격이었다.  
  
9월 26일에는 전자 계열사와 금융 계열사 사장단 40여 명이 모여 외부 강연을 듣고 최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 회장은 회의 직후 오찬에 참석하며 사장단과 경영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 회장 취임 후 두 달 만에 열린 사장단 회의가 앞으로 지속될지에 대해서도 재계는 주목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D 씨는 “앞으로도 주 1회까진 아니더라도 비정기적으로 전체 사장단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Company = “삼성전자”

Year = 2023

Article =

"""

새해 취임 3년차를 맞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연말을 앞두고 '신년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다. 취임 후 첫 새해였던 올해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던 이 회장은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한 2024년을 시작하는 시점에 새 경영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악의 부진을 겪은 반도체는 실적을 만회할 뿐 아니라, 경쟁사를 압도할 기술 로드맵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같은 돌파구 마련은 가전·모바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속되는 불확실성 속 이 회장이 새해를 앞두고 미래 기술, 인재 육성, 신사업 공략 등 '뉴삼성' 가속화 의지를 밝힐지 주목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재계는 올 한 해 숨 가쁘게 글로벌 강행군을 펼친 이 회장이 복합 위기를 돌파할 신경영 화두를 제시할 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이 회장은 12월 30일 9박 10일 간의 동남아시아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새해 계획을 대신했었다.

약속대로 그는 지난 365일을 3650일처럼 활용했다. 이 회장은 글로벌 정상들과 잇달아 만남을 갖고, 여러 삼성 계열사 사업장 및 협력사들을 찾아 격려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와 인재 확보에도 나서는 등 숨가쁜 시간을 보냈다.

이 회장이 다양한 경영 활동을 이어가며 여러 사업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던 지난 1년은 이건희 선대회장 '신경영'에 필적할 '뉴삼성'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했다.

그의 행보를 키워드로 정리하면 ▲글로벌 네트워킹 ▲초격차 기술 투자 ▲인재 육성 ▲삼성 생태계 강화 ▲문화 발전 기여 등으로 요약된다.

실제 이 회장은 미국·유럽·아시아·중동 등 주요 순방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하며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했다.

그 결과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중동에서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 물꼬가 트였고, 가장 최근 방문한 네덜란드에서는 '슈퍼 을'로 꼽히는 EUV(극자외선) 장비 제조사ASML과 삼성전자가 한국에 R&D센터를 신설키로 하는 등 값진 성과가 이어졌다.

글로벌 각국과의 협력이 활발해지려면 그만큼 남다른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차별화된 기술로 차세대, 차차세대를 주도할 로드맵 없이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기술 경쟁이 치열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 삼성은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Gate All Around) 기술을 통해 초미세 공정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청사진을 줄곧 공개하고 있다.

삼성은 현재 GAA 기반 3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1세대(SF3E)를 양산중이며, 2nm에서는 모바일향 중심으로 2025년 2nm 공정(SF2)을 양산하고, 2026년 고성능 컴퓨팅(HPC)향, 2027년 오토모티브향 공정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같은 계획이 적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매해 조 단위를 투자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은 평택과 테일러 등에 반도체 클린룸을 건설중으로, 올해 DS(반도체) 부문에서만 47조5000억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삼성은 2027년 기준 클린룸 규모가 2021년 보다 7.3배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13조에 달하는 반도체 적자(3분기 누계)를 내고도 48조원의 투자금을 쏟아부으려면 미래를 보는 눈과 과감한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로드맵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소재·부품·장비, 인력, 관련 인프라도 제 때 마련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인재 확보가 글로벌 단위로 확전된 상황에서는 역량있는 인재 발굴·육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삼성은 DS 부문장이 직접 나서 유수의 대학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외국인 경력 채용 등에도 취업 문을 여는 등 인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행보와 조직 혁신에 역량을 발휘해온 이 회장이 초유의 '반도체 한파'를 극복하는 동시에 반도체·디스플레이·모바일 등 주요 사업 영역에서 '초격차 기술 지위'를 이어갈 새 전략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적어도 글로벌 경기침체와 자금시장 경색 등 불확실성을 타개할 키워드를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경기 둔화 기조는 내년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글로벌 전망기관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반도체는 회복 시기가 기관마다 엇갈린다. AI(인공지능) '훈풍'에 꿈틀거리는 D램과 달리 낸드플래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흑자전환을 낙관하는 시각이 그리 많지 않다.

여기에 소비심리 위축, 고환율, 고물가 등 저성장 기조에 스마트폰·TV·생활가전 등 글로벌 생산·판매 전략을 공격적으로 수립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열린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에 모인 경영진들은 내년도 경기 전망을 보수적으로 바라보며 소비 여력이 단기간 내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그럼에도 경쟁사를 압도할 혁신 기술·차세대 제품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새해는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한 시장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녹록치 않은 경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재용 회장은 차세대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확보, 신성장동력 마련 등을 강력하게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그는 10월 찾아간 삼성전자 기흥/화성 캠퍼스에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술 리더십과 선행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지난 2월에는 천안/온양 캠퍼스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재 양성과 미래 기술 투자에 조금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이 같은 미래·기술 중시 경영은 연말 사장단·임원 인사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신사업 발굴을 위해 부회장급 조직으로 '미래사업기획단'을 신설하고 글로벌 대외협력 조직을 사장급으로 격상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모바일·가전과 반도체는 관록의 수장 한종희 부회장과 경계현 사장에게 맡기며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강화, 세상에 없는 기술 개발을 주문했다.

▲기술 ▲인재 ▲미래로 요약되는 키워드를 통해 이 회장이 삼성의 새 로드맵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형식 측면에서 신년사 보다는 사내용 메시지를 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등기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신년사 보다는,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도전 위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Company = “삼성전자”

Year = 2024

Article =

"""

[한국금융신문 김재훈 기자] 삼성전자가 새로운 경영지원실장·최고재무책임자(CFO)로 박순철 [삼성전자](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412292347063197dd55077bc2_18) DX부문 경영지원실 지원팀장(부사장)을 선임했다.  
  
박순철 부사장은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출신으로, 그룹 ‘재무통’으로 불린다. 회사 컨트롤타워는 물론 경력 대부분을 경영지원 조직에서 보낸 만큼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놓인 삼성전자 투자 전략 관리에 적임자라는 평가다.  
  
박순철 부사장은 1966년생으로 연세대(행정학과)를 나왔다. 삼성전자 영국법인 지원팀을 거쳐 미래전략실 전략팀에 몸을 담았다. 2015년 상무 승진 이후 경영지원실 지원팀, 무선사업부 지원팀(2018년) 등을 거쳤다. 전무로 승진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지원TF에 소속됐다.

2022년 부사장에 오른 그는 지난해까지 모바일경험(MX)사업부 지원팀장을,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는 경영지원실 소속으로 지원팀장을 맡았다.  
  
올해 11월 진행된 정기인사에서 기존 CFO인 박학규 사장이 사업지원TF로 이동하며 공석이 된 CFO 자리에 선임됐다.  
  
삼성전자 CFO 자리에 부사장급이 선임된 것은 2009년 이후 약 15년 만이다. 삼성전자가 올해 정기인사에서 증명된 리더십을 전방에 배치함과 동시에 미래 핵심 리더 후보들을 등용하며 세대교체 포석을 마련한 만큼 박순철 부사장 CFO 선임도 이 같은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박순철 부사장은 미래전략실과 사업지원TF 등 [삼성전자](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412292347063197dd55077bc2_18) 경영 컨트롤타워에 모두 몸담은 만큼 그룹 내 최고위층에게 두터운 신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경력 대부분을 개별 사업부 지원팀에서 보낸 것도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개별 사업부에도 별도 지원팀을 두고 있으며 지원팀은 경영목표 설정, 성과 평가 등 각 사업 경영진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또 [삼성전자](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412292347063197dd55077bc2_18) CFO는 사내이사로서 그룹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그룹 내 위상이 높은 자리다. 박순철 부사장은 각 사업별 전략들을 점검하고 투자 등 재무 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삼성전자는 주력인 반도체 사업이 부진하며 위기론에 휩싸였다. 내년에도 글로벌 경기침체가 유지되고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등 여전한 불확실성에 놓여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자금줄을 쥐게 된 박순철 부사장 역할이 막중하다.  
  
박순철 부사장 최우선 과제는 반도체 분야 투자 전략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발표에서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AI 반도체 경쟁력 회복, 파운드리 수율 개선, 엑시노스 등 시스템 반도체 반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HBM 투자는 확대하고. 파운드리 사업 등은 투자 효율화를 통해 반등에 성공한다는 의지다.  
  
삼성전자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재무 라인에 변화를 주며 박순철 부사장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대표적으로 전임 CFO인 박학규 사장은 그룹 컨트롤타워 격인 사업지원TF로 이동했다. 박학규 사장도 미래전략실 출신 재무 전문가로 [삼성전자](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412292347063197dd55077bc2_18) 핵심 경영진으로 손꼽힌다. 박학규 사장이 사업지원TF로 이동한 만큼 재무부서 역량을 보강해줄 수 있다.  
  
여기에 CFO 휘하 재경팀장에는 장기간 역량을 입증한 김동욱 부사장이 유임됐다. 김동욱 부사장은 상무 승진 이후 줄곧 재경팀에서 몸담았으며, 특히 반도체 사업이 부진한 가운데도 [삼성전자](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412292347063197dd55077bc2_18) 현금성 자산을 축적하는 등 견조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다.

최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47억4500만달러(약 6조9000억원)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확정한 것도 박순철 부사장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내년 들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해외 반도체 기업들에 보조금 지급을 반대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트럼프 체제가 들어서기 전 체결된 만큼 온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테일러시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등 오는 2030년까지 약 440억달러(약 60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412292347063197dd55077bc2_18) 최종 투자 대비 보조금 비율은 12.7%로 SK하이닉스(11.8%), TSMC(10.7%), 인텔(7.8%)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해 가장 높다.

"""

Company = “삼성전자”

Year = 2025

Article =

"""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 완전 납부가 임박하면서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이 회장의 지배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경영행보도 예상되고 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던 삼성전자 주식 583만5463주의 공탁을 해제했다. 해당 지분은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 담보로 법원에 공탁한 것이다. 앞서 2021년 4월부터 납부하기 시작한 상속세가 2026년 4월이면 납부가 완료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지분은 지난 2020년 10월 아버지인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으로 삼성전자 외에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 등의 지분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번에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공탁을 해지하면서 현재 법원에 남아있는 이 회장의 지분은 삼성물산 1263만8250주만 남아있다.   
  
이 회장이 내년에 상속세 납부를 완료하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도 강화될 수 있다. 현재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1.65%에 불과하지만,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 10.44%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의 지분 19.76%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분이 공탁 중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속세 납부와 함께 지분이 담보로 묶인 만큼 자유로운 주식 거래가 어려웠다. 상속세를 완납하게 되면 각 계열사 지분을 통한 배당금을 확보할 수 있어 지배력 강화는 물론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도 나설 수 있다.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통해 얻게 되는 배당금은 금융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1년에 1700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이 회장은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순환출자 형태인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 회장은 사법 리스크에서도 사실상 벗어난 만큼 책임경영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에 대한 재판이 장기화되며 등기이사 복귀가 미뤄졌다. 그러나 최근 부당합병 재판 1, 2심 모두 무죄가 나오며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원심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이 회장은 삼성전자 등기이사로 복귀해 책임경영에 나설 수 있다. 주요 그룹 총수 가운데 이 회장만 유일하게 미등기임원으로 활동한 만큼 삼성전자 안팎에서 등기이사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하게 되면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에 대한 수술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삼성글로벌리서치 경영진단실이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에 대한 경영진단에 착수해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삼성글로벌리서치 경영진단실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됐으며 삼성그룹 내 전략통으로 알려진 최윤호 사장이 실장을 맡고 있다.   
  
경영진단 결과가 나오면 이 회장은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반도체 사업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신약 개발 사업을 분할하면서 사업구조가 유사한 파운드리 사업의 분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파운드리와 CDMO는 투자 규모의 차이가 클 뿐 아니라 이 회장 역시 지난해 10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분사에는 관심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파운드리 사업을 중심으로 적자가 장기화되는 만큼 이 회장이 직접 나서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남아있다.   
  
특히 올해 1분기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대만 TSMC와 격차가 더 벌어졌고 3위인 중국 SMIC와 격차는 좁혀진 상태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TSMC의 올해 1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67.6%로 지난해 4분기보다 0.5%p 늘었다. 반면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 8.1%에서 7.7%로 0.4%p 하락했다. 중국 SMIC는 지난해 4분기 5.5%에서 올해 1분기 6%로 0.5%p 늘어났다. 매출 역시 1.8% 늘어나며 삼성전자와 격차를 좁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전영현 DS부문장과 노태문 DX부문장 직무대행 주재로 17~19일 사흘 동안 주요 경영진과 해외 법인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전략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하반기 HBM4 상용화를 앞두고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주도권 탈환을 위한 전략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Company = "SK하이닉스"

Year = 2022

Article =

"""

SK그룹 회장, 대한상의 회장에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지원 민간위원장까지 맡으며 ‘모자 3개’의 고충을 토로한 최태원 회장이 ‘여름 강행군’에 나선다. ‘집안 단속’을 위해 SK그룹 경영진들과 머리를 맞댄 뒤 나랏일을 하러 해외로 떠난다.

최태원 회장은 17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SK그룹 확대경영회의를 주재한다. 매년 상반기 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최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유정준 SK E&S 부회장, 장동현 SK(주) 부회장을 포함, 각 계열사 경영진 3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올해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으로 전 산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어 확대경영회의의 무게감도 여느 해와 다르다. 최근 SK그룹이 ‘BBC(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5년간 247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터라 계열사별 구체적 실행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최 회장은 SK그룹 회장으로서 확대경영회의를 마무리한 뒤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민간위원장’으로 모자를 바꿔 쓰고 해외로 떠난다.

19일 출국하는 최 회장은 프랑스 파리를 찾아 21~22일 열리는 제170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민간위원장으로서의 첫 공식 외교전이다.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출범식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부산엑스포 유치는 꼭 필요하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기업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와 하나된 팀플레이를 펼치겠다”고 다짐하는 등 엑스포 유치에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BIE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2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지원하는 한편, 총회를 전후해 BIE 사무총장과 각국 대사를 만나 교섭활동에 나선다. 주불동포가 참여하는 ‘부산엑스포 결의대회’에도 참석한다.

특히 아직 지지국가를 정하지 않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공략하는 데 있어 최 회장이 가진 기업인으로서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내달 13~15일에는 최태원 회장의 머리에 ‘대한상의 회장’ 모자가 얹힌다. 최 회장은 3년 만에 열리는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해 국내외 저명인사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제주포럼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컨트롤 타워인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정책강연과, 애덤 투즈 컬럼비아대 교수, 신용석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교수 등 해외 석학들의 기조강연이 예정돼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창업 1세대가 물러나면서 한동안 소원해졌던 재계 총수들간 교류가 최태원 회장을 구심점으로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신기업가정신 선언이나 사회적 가치, ESG경영에 기업들이 동참하고, 어려운 대외 경영환경에 우리 기업들이 공동 대응하며, 부산엑스포 유치와 같은 국가적 중대사에 힘을 모으는 일에 최 회장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

Company = “SK하이닉스”

Year = 2023

Article =

"""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SK그룹 최고 경영진이 15일 한자리에 모여 그룹의 주요 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전략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SK그룹은 이날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최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장동현 SK㈜ 부회장, 박정호 SK하이닉스[000660]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096770] 부회장 등 최고 경영진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확대경영회의를 개최했다.

확대경영회의는 8월 이천포럼, 10월 CEO 세미나와 더불어 SK그룹 최고 경영진이 모여 경영 전략을 논의하는 중요 연례행사 중 하나다.

회의에서는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인 'BBC'(배터리·바이오·반도체) 업종의 하나인 반도체가 심각한 침체에 빠진 가운데 이와 관련한 대내외 여건을 점검하고,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최태원 회장의 화두인 '파이낸셜 스토리'를 지속적으로 구현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SK그룹의 파이낸셜 스토리란 매출과 영업이익 등 일반적 재무 성과에 더해 시장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목표와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은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 고객,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공감을 끌어내는 전략을 일컫는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반도체 수요 위축으로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에도 3조원대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위기가 한국 반도체업계에 지속적으로 불확실성을 안기는 상황 등이 주된 화두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SK그룹이 선도하고 있는 탄소중립 비전을 포함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이행 상황과 목표를 재점검하는 시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휴일에 운동 중 아킬레스건을 다친 최태원 회장은 이날 다리에 깁스를 하고 직접 목발을 짚은 채 회의장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SK에 이어 삼성전자[005930]도 이달 하순 경영진과 해외법인장 등 주요 임직원이 온오프라인으로 모여 경영 현안을 공유하고 하반기 전략을 논의하는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 예정이다.

"""

Company = “SK하이닉스”

Year = 2024

Article =

"""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고대역폭메모리(HBM) 핵심 요소기술인 TSV(실리콘관통전극) 개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김춘환 SK하이닉스(000660) 부사장(R&D공정 담당)은 2일 "요소기술을 적기에 개발하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속해서 도전하고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사장은 이날 SK하이닉스 뉴스룸 인터뷰를 통해 "신규 요소기술 정의부터 기술 개발 착수, 안정적 제품 양산까지 전 과정에서 조직이 하나 되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사장은 32년간 메모리 반도체 연구에 매진하며 첨단기술 개발을 이끌었다. 특히 HBM의 핵심인 TSV 요소기술 개발 선행 단계부터 참여해 15년간 연구를 이어오며, HBM 공정의 기틀을 마련했다. TSV는 여러 개의 D램 칩에 미세한 구멍을 뚫고 이를 수직 관통 전극으로 연결해 HBM의 고용량, 고대역폭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김 부사장은 TSV 개발 초기인 2008년을 회상하면서 "고도의 정밀성과 미세한 제어가 요구되다 보니 난도가 정말 높았는데, 특히 금속층 증착과 회로 패턴 형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컸다"고 말했다.

당시 개발진은 치열한 협업으로 △R&D의 요소기술 개발 △제조/기술의 양산 품질 고도화 △패키징으로 이어지는 개발 모델을 완성했고, HBM 시장이 열리는 시점에 맞춰 제품을 내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품이 곧바로 실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초기에는 높은 공정 비용 대비 시장 수요가 적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김 부사장은 "그럼에도 경영진의 확고한 믿음과 지원이 있어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 있었다"며 "TSV 공정 기술 안정화와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연구 개발에 더 매진했고, 모든 성과의 단초였던 TSV는 현재 MR-MUF와 함께 HBM의 핵심 경쟁력이 됐다"고 했다.

김 부사장은 이뿐 아니라 10나노급 5세대(1b) D램 미세 공정에 극자외선(EUV) 장비를 도입해 업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고 이를 6세대(1c) D램에도 확대 적용했다. 또 HKMG 기술을 D램에 적용해 메모리 성능·효율을 높이는 등 선단기술에서 성과를 냈다.

낸드 분야에서도 웨이퍼 본딩 등 초고층 낸드 생산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확보했다. 아를 통해 SK하이닉스는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 도약할 수 있었다.

김 부사장은 "R&D 조직은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원가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수많은 조직이 참여해 전사 기술 방향을 논의하는 등 견고한 협업 체계가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

Company = “SK하이닉스”

Year = 2025

Article =

"""

SK그룹이 철저한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최고경영자) 2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다.

SK 경영진은 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데 공감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SK그룹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왔다.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이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수펙스(SUPEX·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이다.

"""

Company = " DB하이텍 "

Year = 2022

Article =

"""

[뉴스워치] DB그룹이 1일 김주원 DB하이텍 미주법인 사장을 그룹 부회장 겸 그룹 해외담당 부회장에 선임하고, 고원종 DB금융투자 사장(CEO)을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다.

김주원 부회장은 1973년생으로 김남호 DB그룹 회장의 누나이자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의 1남1녀 중 장녀로 서울예고와 연세대를 졸업했다. 2021년부터 DB하이텍 미주법인 사장으로 해외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DB그룹 관계자는 김 부회장 선임에 대해 "대주주 책임경영의 일환이며 그룹 해외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이다"고 말했다.  
  
고원종 부회장은 1958년생으로 성동고와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2010년부터 DB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으로 회사 경영을 이끌어 왔다.

"""

Company = “DB하이텍”

Year = 2023

Article =

"""

DB그룹이 사업구조 개편을 단행하며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지주사 전환' 이슈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사실상 지주역할을 맡고 있는 DB아이엔씨(Inc.)가 DB메탈을 흡수합병하는 이유가 자산을 늘리기 위함이라는 지적이다. 단 회사 측은 이번 합병을 통해 영업, 생산, 구매, 자금조달 등 다방면에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DB그룹의 지주사 전환 이슈 중심에는 DB하이텍이 존재한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B하이텍은 DB그룹 제조업 부문의 핵심이다.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DB그룹은 제조업 부문이 크게 축소됐고 대부분의 주요 사업이 금융업에 집중됐다.  
  
DB하이텍 또한 과거 장기간 적자로 '돈 먹는 하마' 취급을 받았으나 수년 전부터 성장을 거듭하며 그룹 내 든든한 캐시카우로 자리 잡았다. 2021년에는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돌파했으며 지난해에는 매출 1조6753억원, 영업이익 7687억원을 거두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실적 성장과 함께 주가도 고공 행진했다. 이에 'DB그룹 제조업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동시에 그룹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주가가 상승하며 DB하이텍의 공정가액이 크게 증가했고 이는 곧 DB아이엔씨의 자산총액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특정 기업의 총 자산이 5000억이 넘고 자회사의 지분가치가 전체 자산의 50% 이상일 경우 지주사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지주사로 전환된 이후에는 상장사인 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DB아이엔씨가 관련 기준을 충족해 지주사로 전환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당시 DB아이엔씨의 자산은 6104억원, DB하이텍 공정가액은 4008억원으로 전체 66%에 달했다.  
  
단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DB하이텍의 주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현재 DB아이엔씨는 지주사 전환 부담을 벗어난 상태다.

DB그룹이 지주사 전환 숙제를 풀지 못한 만큼 이번 DB메탈 흡수합병도 업계에서는 '지주사 전환 회피'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올해 초 DB하이텍이 팹리스 부문 물적분할에 나섰을 당시에도 소액주주들은 지주사 전환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DB그룹은 현재 지주사 전환 의무가 사라졌으나 DB하이텍 주가가 상승할 경우 언제든지 지주사 전환 부담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6월말 기준 DB아이엔씨의 자산총계는 6053억원으로 다시 5000억원을 뛰어 넘었으며 DB하이텍의 공정가액도 3479억원으로 지주비율 57.5%에 달했다. DB 입장에서는 지주사 전환을 피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했던 셈이다.  
  
DB아이엔씨는 DB하이텍의 지분 12.42%를 보유 중이며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맞추려면 수천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DB그룹이 DB아이엔씨와 DB메탈 합병을 통해 자산 규모를 늘리는 방법을 택했다고 분석한다. DB아이엔씨의 자산총액을 키워 DB하이텍의 공정가액이 어느정도 늘어나도 지주비율 50%를 넘기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단 주주들은 DB하이텍 지분 추가 매입 부담을 피해가기 위한 근시악적 지배구조 개편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DB하이텍 3대 주주인 KCGI는 "DB하이텍 경영진이 지난 3월 밝힌 비전과 같이 DB하이텍의 기업가치가 6조원으로 커지게 되면 다시 한번 DB아이엔씨의 지주사 전환 이슈가 불거질 것"이라며 "주가가 저렴할 때 DB하이텍 지분을 추가 매입하거나 자사주 소각을 통해 DB하이텍 지분율을 높여 지주회사 전환을 대비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임시방편적 지배구조 개편을 마치 회사의 미래를 위한 것처럼 포장하는 행태는 DB그룹 전반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원론적으로는 지주사 체제가 우리나라 지배구조에서 가장 투명한 구조"라며 "하지만 이 경우 기업들이 자회사 지분을 확보해야 하고 자금이 많이 소요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지주사 전환이 힘들다면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끌며 지속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

Company = “DB하이텍”

Year = 2024

Article =

"""

[DB하이텍](https://markets.hankyung.com/stock/000990)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 KCGI가 DB하이텍 지분 일부를 DB 측에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2일 오전 10시 56분 기준 DB하이텍은 전 거래일 대비 4000원(6.83%) 하락한 5만4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장 마감 뒤 KCGI는 DB아이엔씨(DB Inc.)에 DB하이텍 주식 250만주(지분 5.6%)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매각 금액은 총 1650억원으로, 주당 6만6000원이다. DB아이엔씨는 DB그룹 지주사 역할을 한다. 이번 블록딜로 DB하이텍 최대주주인 DB아이엔씨의 지분율은 12.42%에서 18%로 늘었고, KCGI의 지분율은 7.05%에서 1.42%로 줄었다.  
  
DB하이텍은 경영권 안정화와 중장기 투자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지분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친화정책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경영혁신 계획도 발표했다. KCGI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주주의 요구사항에 변화로 화답해준 DB하이텍 이사회와 경영진의 전향적인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KCGI는 지난 3월 주주활동에 나서면서 DB하이텍 지분 7.05%를 사들였다. KCGI는 'DB하이텍 기업가치가 저평가됐다'며 자사주 소각,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당시 KCGI가 본격적인 주주활동에 나서자 DB하이텍 주가는 급등한 바 있다.

"""

Company = “DB하이텍”

Year = 2025

Article =

"""

각종 투자 지표에서 호평을 받은 DB하이텍이 후진적 지배구조 이슈에 발목을 잡혔다. 지배구조 등급 평가가 이뤄진 시점 전후로 일반주주 이해관계를 고려치 않고 자회사 물적분할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과 오너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점 등이 지배구조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종합 점수에 악영향을 미쳤다.  
  
THE CFO는 지난 달 31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코스피·코스닥 기업 125개 사를 조사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순자산비율(PBR) △총주주수익률(TSR) △ROE 증분(△ROE) △PBR 증분(△PBR) △지배구조 등급 (한국ESG기준원) 등 총 6개 요소를 기준으로 점수를 책정했으며 각 항목 당 만점은 20점(총점 120점)으로 책정했다.  
  
지배구조 항목의 경우 한국ESG기준원이 지난해 10월 책정한 등급을 활용했다. A+를 20점 만점 기준으로 등급이 한 단계씩 낮아질 수록 4점씩 차등을 뒀다. A등급이 16점, B등급이 12점, B등급이 8점 C등급이 4점, D등급은 0점이다. 지배구조 등급 책정 시기 기준 상장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지배구조 등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밸류업 공시를 이행한 코스피 상장사 103곳(금융회사 포함) 중 지배구조 등급이 C등급 이하인 곳은 DB하이텍과 KG스틸, KG케미칼, 한미약품, 파라다이스 등 5개 기업이었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C등급 이하인 곳이 조사대상 밸류업 공시 기업(22곳)의 70% 비중(15곳)에 육박, 코스피 상장사에 비해 지배구조 등급이 열악한 모습을 연출했다.  
  
DB하이텍은 밸류업 공시 코스피 상장사 중 유일하게 지배구조 영역에서 0점을 받았다. ROE(자기자본이익률) 점수가 16.34점, PBR(주가순자산비율) 점수가 10.24점으로 해당 영역에서는 중상위권 점수를 취득했지만, 지배구조 점수를 받는 데 실패하면서 종합 점수가 38.29점에 그쳤다. 밸류업 공시 코스피 상장사 83곳 중 하위 10위 수준이다.  
  
한국ESG기준원은 기업 이사회 구성과 운영 현황 등을 바탕으로 정량평가를 실시한 다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해 최종 등급에 반영한다. DB하이텍의 지배구조 등급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결과로 한국ESG기준원이 해당 평가 시점 기준 최근 1년 간 이 기업 지배구조 면면을 분석한 결과다.

눈에 띄는 점은 김준기 창업회장과 그 아들 김남호 회장이 미등기임원에 나란히 이름을 올려놓은 것이다. 김 창업회장 부자가 2023년 한 해 DB하이텍에서 수령한 보수는 각각 34억원과 31억원. 성범죄 혐의로 회장직을 내려놓은 김 창업회장의 경우 미등기임원으로 고액 연봉을 받으며 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2023년 말 당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점과 사외이사후보추천원회에 경영진 사내이사가 참여하고 있던 점 역시 지배구조 등급에 마이너스 요소였다. 여기에 오너 일가가 지분 전체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계열사가 그룹 내부거래 등을 통해 성장했다는 의혹이 시장 안팎에서 불거져 온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설계사업을 자회사 형태로 물적분할키로 한 점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도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DB하이텍 지분 7.05%를 보유하고 있던 사모펀드 KCGI는 알짜 사업부문을 떼내기로 한 결정을 비난하며 회사의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KCGI는 같은해 말 DB하이텍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DB하이텍이 밸류업 정책을 발표한 것은 그 직후다. DB하이텍은 향후 5년 간 주주환원율을 30%대로 유지하고 배당성향을 최대 20%까지 끌어올린다는 취지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장기 투자자를 유치하고 주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후진적 지배구조 이슈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등급 C등급을 받은 한미약품도 작년 한해 경영권 분쟁으로 시끄러웠던 기업 중 한 곳이다. 한미약품그룹은 2023년 OCI홀딩스와 결합을 추진했다가 해당 의사결정에서 오너가 일부 일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현재는 모든 상황이 종료됐지만, 평가 시점 기준 해당 이슈는 진행 중이었다.

"""

Company = "하나마이크론"

Year = 2022

Article =

"""

시설투자를 늘리고 있는 하나마이크론이 사모채 시장에서 500억원을 조달했다. 이자율이 급등했지만 당장 현금 확보가 필요해 자본시장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마이크론은 2년 만기의 사모채 500억원어치를 지난 9일 발행했다. 표면이율은 연 6.5%에서 결정됐다.  
  
지난해 11월 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P-CBO) 2년물 250억원어치를 발행한 이후 7개월여 만이다.

당시 P-CBO 발행금리는 연 3.120%였다. 조달 비용이 두 배 이상 뛴 셈이다.  
  
그럼에도 하나마이크론이 자본시장에서 조달을 늘리는 데는 투자자금 소요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하나마이크론은 2018년 이후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설비투자(CAPEX)를 진행해왔다. 지난해에는 비메모리 테스트 장비 도입 등으로 1800억원을 쏟아부었다.  
  
올해도 패키징부문 생산능력 증설, 해외법인 설비투자, 하나머티리얼즈 생산설비 증설 등으로 3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서강민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하나마이크론은 영업현금흐름을 초과하는 투자지출로 단기적으로 차입금 부담이 재차 증가할 전망"이라며 "진행 중인 투자로 인해 차입금 의존도는 40%, 부채비율은 15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 이후 증설이 일단락되면 경상적인 투자액은 상각전 영업이익(EBITDA) 규모를 하회할 것"이라며 "차입금 감축으로 레버리지 비율도 내려갈 것"이라고 했다.  
  
하나마이크론은 반도체 후공정 조립 및 검사 전문기업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반도체 패키징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3월말 기준 최대주주 최창호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지분 27.9%를 보유하고 있다.

"""

Company = “하나마이크론”

Year = 2023

Article =

"""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및 테스트 전문기업 하나마이크론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에서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인증으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10년 이래 매년 선정하고 있다.

하나마이크론은 2022년 168명을 신규 채용해 전년 대비 20%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내대학을 통해 임직원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또 TEST지원센터를 설립해 TEST솔루션과 인프라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그 외 가족 초청 행사, 기념일 지원, 건전한 회식문화를 위한 112운동, 건강관리실 운영, 남녀고용평등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업무 숙련도와 기여도가 높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업무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하나마이크론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Company = “하나마이크론”

Year = 2024

Article =

"""

하나마이크론은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테스트·패키지(OSAT) 기업이다. 반도체 제조사에 패키지와 테스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있다.  
  
주요 종속회사로는 하나머티리얼즈(지분 32.89%)와 하나마이크론비나(지분 100%)를 두고 있다. 하나머티리얼즈는 코스닥 상장사로 반도체 식각 공정에 쓰이는 실리콘카바이드(SiC)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하나마이크론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견제기능과 구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하나마이크론 이사회 의장은 이동철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고, 사외이사 추천은 이사회가 맡는 등 이사회 독립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CFO는 평가 툴을 제작해 '2024 이사회 평가'를 실시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와 올해 발표된 반기보고서 등이 기준이다. △구성 △참여도 △견제기능 △정보접근성 △평가 개선 프로세스 △경영성과 등 6개 공통 지표로 이사회 구성과 활동을 평가한 결과 하나마이크론은 255점 만점에 88점을 받았다.

하나마이크론은 6개 지표 중 4개 지표에서 2점 이하 점수를 얻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경영성과 지표도 2.5점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지표는 견제기능(1.2점)이다. 별도의 감사위원회나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하나마이크론의 감사업무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선임된 상근감사가 맡고 있다. 또 이사회 추천을 이사회가 전담하고 있다는 점도 점수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  
  
이사회 규모가 작고 이사회 의장을 이동철 대표가 맡고 있는 만큼 구성 지표도 낮은 평가(1.3점)를 받았다. 2024년 반기 기준 하나마이크론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외에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김동현 부사장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이 이사회 독립성을 떨어뜨렸다.  
  
평가개선프로세서 지표는 평균 1.9점을 기록했다. 이사회 활동에 관한 평가가 기재되지 않아 평가개선프로세스 7개 문항 중 5개 문항에서 1점을 받았다. 다만 한국ESG기준원 ESG등급에서는 C등급(2023년 기준)을 획득해 ESG 등급 관련 문항에서는 3점을 획득하며 개선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다.  
  
정보접근성 지표의 경우 평균 2점을 획득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없다는 점과 주주환원 정책을 모호하게 작성했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이사회의 활동 내역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관련 2개 문항에서 5점과 3점을 획득했다.

경영성과 지표는 평균 2.5점을 얻었다. 하나마이크론의 이사회 평가 지표 중 가장 높은 점수다.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률, 총주주수익률(TSR), 매출성장률 문항에서 모두 5점을 받았다. 특히 2023년 매출성장률은 8.23%를 기록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2022년) 대비 44.08% 줄어 영업이익성장률 문항에서 1점을 기록했다.  
  
참여도 지표에서도 평균 2.3점을 받아 타 지표 대비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하나마이크론은 지난해 이사회를 45회, 올해 반기 기준 총 19회 개최했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들의 출석 여부를 모호하게 표시했다는 점에서 이사회 구성원들의 출석 여부 관련 문항에서 1점을 획득했다. 하나마이크론은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등에서 사외이사를 제외한 이사진들의 출석 여부를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

"""

Company = “하나마이크론”

Year = 2025

Article =

"""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전문 기업 하나마이크론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7.55% 올라 1만 183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주가는 단기 박스권에서 벗어나 60일 이평선을 돌파하고 있다.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 친화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 행보에 박차를 가하면서 주가에 훈풍을 불어 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하나마이크론은 IR(Investor Relations)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주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며 시장과의 신뢰 구축에 힘쓰고 있다.  
  
 그동안 실적 발표, 기업 설명회 등 정례적인 IR 활동 외에도, 주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더욱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주주와의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주 소통 강화의 핵심적인 방안 중 하나로, 하나마이크론은 경영진과 주주들이 직접 만나 회사의 경영 현황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주주 간담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소통 채널 마련은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영진의 책임 경영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주 간담회는 단순히 일방적인 정보 전달을 넘어, 주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경영 활동에 반영하는 쌍방향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주주들은 회사의 주요 경영 전략 및 투자 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회사는 주주들의 신뢰를 확보하여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주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회사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 채널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IR 자료, 공시 정보, 기업 설명회 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질의응답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주주들과의 소통 편의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동종 종목인 리노공업 윈팩 에이직랜드 어보브반도체  매커스,  텔레칩스, SFA반도체, 오픈엣지테크놀로지,  칩스앤미디어, 시그네틱스, 아진엑스텍, 큐알티 삼성전자 LB루셈  케이알엠 네패스 에이디테크놀로지 아나패스 LB루셈 아이에이 미래반도체 아이앤씨 코아시아 큐알티 케이알엠 아진엑스텍 아이앤씨 시지트로닉스 지니틱스 에이디칩스 LX세미콘 리노공업  SK하이닉스 테크윙 코아시아 자람테크놀로지 에이디테크놀로지 앤씨앤 넥스트칩 아이텍 아나패스 아이텍 오디텍 이미지스 에이직랜드 에스앤에스텍 아이씨티게이 네패스아크 가온칩스 고영 네패스 파두 한미반도체 디아이 사피엔반도체 피에스케이 케이알엠 LB세미콘 DB하이텍 오디텍 피에스케이 아이텍 두산테스나 라닉스 에이엘티 퀄리타스반도체 아이앤씨 지니틱스 파두 넥스트칩에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소통 채널 강화는 소액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에게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주주 중심 경영을 실현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마이크론의 주주 소통 강화 노력은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주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고, 이는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 및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마이크론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해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주주들의 의견을 경영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Company = "성우테크론 "

Year = 2022

Article =

"""

[내외경제TV] 최재호 기자=성우테크론이 앞으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율 상향 소식에 관련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윤 정부는 정부 출범후 대선공약에 맞춰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하고 반도체 설비투자비의 최대 40∼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경쟁국과 동등하게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해온 바 있으며 이번에 윤 정부가 관련 안건을 들어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같은 소식에 반도체 검사기, FFC, 케이블, 리드프레임, PCB, 반도체생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성우테크론이 강세를 보이는 모양새다.

한편 14일 오전 9시 33분 성우테크론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29% 상승한 5,820원에 거래되고 있다.

"""

Company = “성우테크론”

Year = 2023

Article =

"""

[핀포인트뉴스 이경선 기자] 성우테크론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6분 현재 8.73% 올라 4545원에 거래되고있다.  
  
주가는 바닥권에서 벗어나 60일 이동평균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외국인은 20거래일 매도공세를 펴고 있다.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눈에 띄게 개선될 전망이 나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우테크론은 반도체 검사장비의 제조 및 반도체 부품 제조를 하고 있다.  
  
주요 사업의 내용은 부품사업부문, PCB사업부문, 완제품 매출인 장비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도체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기 때문에 다기능성 가공장비, 고도의 분석능력을 보유한 검사장비를 생산하기 위해 장기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산업이다.  
  
같은 시간 반도체장비 관련주인 서플러스글로벌 제우스 저스템 에이팩트 레이저쎌 이오테크닉스 넥스틴 리노공업 원익IPS 네오셈 등도 동반 상승중이다.

"""

Company = “성우테크론”

Year = 2024

Article =

"""

성우테크론 주가가 시간외서 급등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 거래일 종가보다 9.34% 올라 345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최근 반도체  업황 호조에 매수세가  몰리며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검사장비의 제조 및 반도체 부품 제조를 주업으로 하고 있다.  
  
반도체 검사장비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나 반도체 칩의 결함을 검사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데 사용된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매우 정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 철저한 검사가 필수이다.

"""

Company = “성우테크론”

Year = 2025

Article =

"""

[헤럴드경제=증권부] 성우테크론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1억8399만원으로 전년대비 흑자전환했다고 18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16억8706만원으로 23.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 역시 22억5036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

"""

Company = "이오테크닉스"

Year = 2022

Article =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레이저 기술을 보유 중인 [이오테크닉스(039030)](javascript:;) 주가가 11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 52주 최저가인 9만300원을 기록한 뒤 연일 상승가도를 달리는 셈이다. 회사가 제1기 소부장 으뜸기업인 만큼 한국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의 성장세가 재평가를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오테크닉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92%(1000원) 오른 10만9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5일 이래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수급별로는 기관이 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이오테크닉스는 지난 1989년 설립돼 200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다. 반도체 레이저마커와 레이저응용기기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며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성규동 대표이사가 지분율 28.35%(349만2121주)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회사의 연결 기준 매출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매출액 3908억6018만원, 영업이익 781억3635만원을 달성해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나 영업이익의 경우 지난 2020년 384억8539만원 대비 103% 증가, 두 배 수준을 기록하며 호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이달 10일에는 IBK기업은행과 1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계약 기간은 오는 9월12일까지이며 취득 목적은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다. 이에 당일 주가가 4% 뛰기도 했다.  
  
이처럼 파죽지세를 이어가는 데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센 대형주와는 다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의 성장세가 재평가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도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한국 소부장 업체들은 사이클과 무관하게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구조적인 장기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문하기도 했다. 이오테크닉스는 제1기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소부장 으뜸기업에 대해 앞으로 5년간 기술 혁신은 물론 사업화와 해외진출, 규제해소 등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해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 취약성을 완화하는 정책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올해 실적 전망 또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이오테크닉스의 올해 연결 실적은 매출액 4656억원, 영업이익 976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6%, 21%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 분야에서 성장 가시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내다봤다.

"""

Company = “이오테크닉스”

Year = 2023

Article =

"""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철강·기계업계의 남초(男超) 분위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직원 비율이 타 업종에 비해 현저히 낮았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기계업종 내 8개사 모두 한 자리 대 여직원 비율이었다. ESG 경영의 전환에 있어 '다양성'도 요구하고 있어, 업계 차원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ESG행복경제연구소가 분석한 '시총 200대 기업 업종별 ESG 통계자료'에 따르면 철강·기계업종은 15개 업종 가운데 △여직원비율(13위) △사외이사비율(11위) 등의 항목이 하위권을 기록했다. △ESG위원회 설치(10위) △직원평균연봉(9위) △등기 임원과 직원 간 보수 비율(9위) 등 항목 역시 좋지 않았다.  
  
◆女직원 비율, 전체 평균 '3분의 1' 수준..."남성 위주 분위기 아직 존재"  
철강·기계업계의 사회 부문에서 여직원 비율(8.26%)과 직원 평균 연봉(8713만원) 등이 200대 기업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여직원 비율은 전체 평균(25.21%)보다 3배가량 낮았다. 반면 △직원 평균 근속연수(11.79년) △비정규직 고용률(5.25%) △장애인 고용률(2.01%) △매출액 대비 기부금(0.74%) 등 항목은 전체 평균을 윗돌았다.  
  
다만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장애인 고용률과 달리 철강·기계 업종 내에서 3개사(두산밥캣·현대엘리베이터·이오테크닉스 등)가 장애인 고용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장애인 고용률의 경우 현재 고용노동부가 300인 이상 기업에 장애인 의무 고용(3.1%)을 규정한 만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낮은 여직원 비율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업종 특성이라 볼 수 있는 남성 위주 분위기가 아직 존재한다. 그래서 여성 비율이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별로 이오테크닉스의 사회부문 지표는 좋지 않았다. 비정규직 고용률(3.7%)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에서 모두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직원 평균 근속연수(7.9년) △평균 연봉(6615만원) △매출액 대비 기부금(0.007%) 등이다. 여직원 비율의 경우 9%로 업계 평균은 넘었지만, 200대 기업 평균에는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현대로템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률'(7.9%)과 '여직원 비율'(2%) 항목이 전체 기업 내에서 뒤처졌다. 매출액 대비 기부금 역시 0.007%로 사회 공헌도가 업종 내 다른 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직원 비율이 4.5%'인 고려아연 측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기존 직원이 150명에서 1년 동안 18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면서 여직원 비율도 늘리고 있다. B2B(기업 대 기업)를 많이 하다보니 직원 채용 자체가 없기도 했다. 현재 남녀 성비를 맞춰 직원 채용에 있다"며 "ESG 지표를 신경쓰면서 적극적 대응하고 있다. 달라진 수치는 상반기 ESG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지배구조 핵심지표, 전체 평균 아래...'ESG위원회·女등기임원無' 이오테크닉스 유일  
철강·기계업계의 지배구조 부문에서 '사외이사비율'과 '지배구조 핵심지표' 항목이 좋지 않았다. 사외이사 비율은 평균 51.89%를, 지배구조 핵심지표 미준수 건수는 평균 5.1건을 기록했다.   
  
반면 '등기 임원과 직원간 보수 비율'(10.44배)과 '최대주주 지분율'(26.98%) 항목은 양호한 편이었다. 최대주주 지분율의 경우 통상 20~40%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기업별로는 두산밥캣·이오테크닉스·현대두산인프라코어 등 3사가 여성 등기임원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ESG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은 기업은 이오테크닉스가 유일하다.   
  
이오테크닉스의 다른 지배구조 부문에서도 타 기업에 비해 현저히 뒤처졌다. 사외이사비율은 25%로 전체 기업 내에서 가장 낮았다. 주주 배려를 위한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공고'도 준수하지 않았다.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 여성 등기임원은 뒀지만 ESG위원회는 설치하지 않았다. 주주 배려 차원의 '주주 총회 4주 전 소집 공고'와 '전자투표' 모두 준수하지 않은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다. 그밖에 사외이사 비율(42.9%)과 등기 임·직원 간 보수 비율(12.9배)은 전체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ESG 경영 전환을 위해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

Company = “이오테크닉스”

Year = 2024

Article =

"""

이오테크닉스는 코스닥 시장에서 반도체 레이더 대장주로 거론된다. 1989년 성규동 회장이 창업해 레이저 광학 기술 분야에서 한 우물을 팠다. 최근 HBM(고대역폭메모리) 시장 개화와 함께 실적 기대감도 커졌다.  
  
하지만 이사회 평가 결과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다르다. 창업자의 강력한 리더십에 따르는 경영 방식 탓인지 좋은 성적을 받기 힘든 이사회 체계를 갖추고 있다. 유일하게 호평을 받은 것도 경영 성과다.  
  
**◇구성·견제기능·평가개선 '1점대' 머물러**  
  
THE CFO는 자체 평가 툴을 제작해 '2024 이사회 평가'를 실시했다. 2023년 사업보고서, 2024년 반기 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오테크닉스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았다. 6대 공통지표(△구성 △참여도 △견제기능 △정보접근성 △평가 개선 프로세스 △경영성과)로 이오테크닉스의 이사회 운영 및 활동을 분석한 결과 255점 만점에 102점으로 산출됐다.

대부분의 지표에서 부진한 성적을 면하지 못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지표는 이사회 구성이었다. 평균 1점을 받는데 그쳤다. 평가상 최하점이 1점이니 모두 1점을 받은 셈이다.  
  
이오테크닉스는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성규동 회장을 포함해 3명의 사내이사를 선임한 상태다. 반면 사외이사는 정정주 한양대 전기생체공학부 교수 1명뿐이다. 이사진 구성 자체가 단출하니 이사회 내에 별도의 소위원회도 없다. 감사위원회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사회 견제기능은 그 다음으로 점수가 낮다. 평균 1.4점을 획득했다. 마찬가지로 사외이사 자체가 적어 견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웠다. 경영진이 참여하지 않는 사외이사 회의가 진행되기 어려운 여건이다. 감사위원회도 없어 하나은행 지점장 출신 임종재 감사가 홀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사회 평가 역시 부재했다. 평가개선 프로세스 지표의 평균 점수는 1.7점이었다. 이오테크닉스는 코스닥 기업이기에 아직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사회 평가가 알려지기 어려운 여건이다. 따라서 평가 절차를 통한 이사 재선임에 반영될 수 없는 구조다.  
  
외부 평가기관에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ESG기준원은 이오테크닉스에 대해 D등급을 매겼다. 환경 영역에선 C등급을 얻었지만 사회·지배구조에선 D등급을 받았다. 한국ESG기준원은 7개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D등급이 가장 낮은 점수다. 매우 취약한 지속가능경영 체제를 구축해 체제 개선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10%' 부채비율, 눈에 띄네**  
  
그나마 총점을 끌어올린 건 경영성과다. HBM이란 훈풍을 타고 지난해 압도적 주가 상승세를 보였다. KRX300 소속 비금융기업이 작년 한 해 동안 평균 26%의 주가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오테크닉스는 2배 넘는 135% 올랐다.  
  
지난해 매출은 3164억원, 영업이익은 2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 29%, 69%씩 줄어들면서 수익성 지표에 소폭 아쉬움을 남겼다. ROE와 ROA도 각 6.61%, 5.93%로 ROE는 KRX300 비금융기업 평균을 하회했지만 ROA는 이를 훌쩍 넘어섰다.  
  
무엇보다 돋보이는 건 압도적인 재무건전성이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8%를 나타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총차입금보다 현금이 더 많은 순현금 체제를 이어왔다. 차입금이 적으니 이자 지급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자보상배율이 80배를 넘는다.

"""

Company = “이오테크닉스”

Year = 2025

Article =

"""

한스경제=신연수 기자] 이오테크닉스와 HPSP가 첫 ESG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오테크닉스는 거버넌스 부문 성과는 좋았으나 나머지 부문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HPSP 역시 모든 부문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환경 부문은 업계 내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ESG행복경제연구소의 2025년 시총 250대기업 ESG평가 결과 이오테크닉스(66.69점)와 HPSP(61.29점)는 미흡에 해당하는 종합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오테크닉스, 거버넌스(G) 양호...홈페이지 ‘제한된’ 정보 공개  
  
이오테크닉스는 환경(61.50점)·사회(67.15점) 부문 C등급, 거버넌스 부문은 양호인 B등급(73.15점)을 받았다.  
  
이오테크닉스는 반도체 마킹장치 전문생산 회사다. 반도체 마킹장비란 반도체칩 등 각종 전자부품에 제조회사의 상표나 로고를 새기는 레이저시스템을 말한다. 회사는 반도체 레이저마커, 레이저응용기기 제조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반도체에 적용되는 ‘펜 타입 레이저마커’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최근에는 펨토초 레이저 그루빙 장비를 대만 ASE, 미국 앰코, 중국 스태츠칩팩에 공급했고, 일부는 라인에 설치돼 가동을 시작했다. 아울러 막 양산을 시작한 애플 반도체 M5 패키징 공정에도 이오테크닉스의 장비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ESG경영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특히 환경 부문이 가장 부진했다.  
  
이오테크닉스는 ‘전략 및 공시’ 분야에서 ▲공시 형식 및 시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기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충실도 등에서 2.5점(5점 만점)을 받았다. ‘경영체계’ 분야에서는 ▲순환경제 ▲친환경 관련 인증 및 기구 가입 ▲친환경 공급망 관리 등에서 3점을 받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E1(환경 경영)에 포함되는 ‘활동 및 성과’ 분야에서 ▲에너지 사용량 ▲미세먼지 배출량 ▲용수 재활용률 ▲폐기물 재활용률, E2(환경 성과)에 포함되는 ‘개선도’ 분야의 모든 지표가 업계 평균(E1 4점, E2 3.52점)을 밑돌며 C등급으로 평가됐다.  
  
이오테크닉스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보면 2023년 4232톤(이산화탄소환산톤)으로 2022년(4280톤) 대비 1.12% 감축했다. 올해까지 2021년 대비 29.3%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감축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 부문은 ‘전략 및 공시’의 ▲리더십 및 전략 ▲공시 형식 및 시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기준, ‘경영’ 분야의 ▲사회적 책임 인증 및 기구 가입, ‘직원’ 분야의 ▲고용 및 근로 조건 ▲고용평등 및 다양성 ▲급여 및 복지 지표의 점수가 낮았다.  
  
다만 긍정적인 것은 이오테크닉스가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이 아님에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해 모범적으로 이행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으면서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사회 부문이 0.1점 가점됐다.  
  
거버넌스 부문은 대체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배구조’ 분야의 리더십 및 전략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그 외 분야에서는 3~4점을 받으며 B등급으로 평가됐다. 특히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감사기구의 독립성 ▲감사기구의 전문성 ▲내부감사기구 경영정보 접근성에서 만점을 받았다.  
  
또한 성규동 이오테크닉스 회장이 안양과천상공대상에서 상공대상을 받은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돼 0.1점 가점되며 B등급으로 평가됐다.  
  
다만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은 것과 홈페이지에 ESG 정보가 부족했던 점은 아쉬웠다. 이오테크닉스 홈페이지를 보면 사회 부문에 해당하는 사회공헌 관련 데이터와 환경 부문인 온실가스 데이터만 공개돼 있고, 그 외 데이터는 확인할 수 없었다.  
  
◆ HPSP, 환경 ‘최하위’...정보 공개도 ‘No'  
  
HPSP는 환경 부문에서 최하위인 D등급(58.30점), 사회(63점)·거버넌스(63.55점)는 각 C등급을 받았다.  
  
HPSP는 반도체원판(웨이퍼)에 회로를 형성하는 전공정 중 열처리를 뜻하는 어닐링(Annealing) 장비를 제조한다. 세계 최초로 첨단공정용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개발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 TSMC 등 초미세 공정을 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거래처로 두고 있다.  
  
최근에는 HPSP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가 HPSP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가장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오테크닉스와 마찬가지로 ESG경영에는 소홀했다. 특히 환경 부문이 업계 내에서 가장 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부문 점수는 대부분 3점대에 머물렀다. 그중 ‘전략 및 공시’ 분야가 가장 낮은 2.5점을 받으며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친환경 경영활동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D등급을 받았다. 실제로 HPSP 홈페이지에는 환경 관련 데이터가 공개돼 있지 않다. 그 어디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확인할 수 없다.  
  
사회 부문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오테크닉스와 마찬가지로 사회공헌 지출액을 제외하고 대부분 3~4점을 받았으며, ‘전략 및 공시’ 분야의 점수가 가장 안 좋았다. 구체적으로 ▲리더십 및 전략 ▲공시 형식 및 시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기준 등이 최저 점수를 받았고, ▲정책 목적 달성 정보공시 ▲고용 및 근로 조건 ▲이해관계자 소통 및 지원 ▲사회공헌 활동 등 지표가 그 뒤를 이었다.  
  
거버넌스 부문은 5점 만점을 받은 지표는 없었다. ▲리더십 및 전략 ▲컴플라이언스의 점수가 가장 낮았고, ▲여성 임원 비율 ▲사외이사 비율 등 항목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실제로 HPSP의 이사회를 살펴보면 6명 중 사외이사는 2명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고, 여성 사외이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공시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거버넌스 부문만 0.1점 가점됐다.  
  
이오테크닉스와 HPSP 모두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고, 해외 시장에도 진출해 있다. 이오테크닉스는 필리핀, 미국 싱가포르, 대만, 독일 등에 진출해 있고, HPSP는 마이크론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IFRS의 ISSB, 유럽연합(EU)의 CSRD, 미국의 SEC 기후공시규칙이 확정되면서 세계적으로 ESG 정보 표준화 기반과 의무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지만, 이오테크닉스와 HPSP는 ESG경영에는 소극적이다.  
  
특히 우리나라도 내년 이후부터 ESG 공시 기준이 의무화되는 만큼, 두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ESG경영의 시작은 정보공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투명한 정보 공개도 필요하다.  
  
ESG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ESG경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경영환경 흐름에 뒤처지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  
  
업계가 2026년 ESG 공시 기준 의무화 이전 선제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과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이오테크닉스와 HPSP도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며, 그동안의 성과와 전망을 공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Company = "에이디테크놀로지"

Year = 2022

Article =

"""

【뉴스퀘스트=박정식 주식디자인연구소 대표 】 2002년 8월 ‘㈜에이디테크놀로지’로 설립돼 반도체소자 설계 및 제조(ASIC, 주문형 반도체)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로,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ODM을 위주로 사업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   
  
  
2014년 12월 코스닥 상장 이후 아이엠아이, 아르고, 이씨큐, 에스앤에스테크놀로지, 파인스 등을 자회사로 매입해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까지 원스톱 턴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솔루션을 구축했다.  
  
핵심 기술인 시스템 반도체 설계는 디지털 신호 처리, 아날로그 신호처리, RF 등의 기능을 위한 시스템을 단일 반도체 칩에 구현하는 기술이며, 시스템 반도체 개발을 원스톱 솔루션으로 수행하기 위해 SoC, 플랫폼, IP 임베디드 메모리, 라이브러리 개발, 품질 관리 등 전문화된 조직을 구성 및 관련 서비스까지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개발과 안정적인 양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초미세 공정 등 다양한 공정에 대한 제품 개발 실적과 임베디드 Flash, 고전압, RF 등에 특화된 공정을 개발한 이력이 있으며, 10Gbps대 직렬/병렬 송수신기, 5Gbps PICIe, 3.7Gbps Vx1, 1,866Mbps DDR3, 24-bit ADC 등 고(高)사양의 IP들이 내장된 시스템 반도체 개발 성공 및 양산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1억 게이트 이상의 고집적도 반도체 개발에 성공하는 등 고사양/고집적도 시스템 반도체 개발에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저전력 시스템 반도체 개발을 위한 저전력/고성능 라이브러리 및 임베디드 SRAM 개발 인프라를 확보했다.  
  
에이디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의 ASIC 디자인 파트너로 선정된 이후 본격적인 사업 실적 확대를 위해 박준규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파인스’ 인수 및 반도체 설계 인력 대규모 확보를 추진하는 등 첨단 미세공정의 대표 디자인 업체로서 발돋움할 계획이다.  
  
반도체소자 설계 및 제조(ASIC) 단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5G 등 지속적인 수요처 발생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19일 독일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문 기업 비딘티스(Videantis)사와 첨단 자율주행 반도체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반도체는 2025년부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5나노(㎚·10억분의 1m) 공정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에이디테크놀로지는 Arm 중앙처리장치(CPU)의 5나노 칩 설계자산(IP)과 비딘티스의 영상처리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 자율주행 레벨4 수준 고성능 반도체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비딘티스 영상처리 플랫폼 ‘v-MP6000UDX’는 특화된 코어가 인공지능(AI), 신호처리, 비디오 코딩 등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동작한다. 운행 중 연산해야 하는 복잡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제품 성능은 자동차 생산 업체들의 검증을 마쳐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는 회사 측 설명이다. 비딘티스는 콘티넨탈 등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와 협력한 이력이 있다.  
  
비딘티스와 에이디테크놀로지가 협력해 설계한 차량용 반도체는 2025년부터 삼성전자 5나노 라인에서 생산한다. 여기서 만든 칩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사에 공급돼 2025년부터 5년 간 약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TSMC를 기반으로 SK하이닉스에 주력하였으나 신규 거래처 확보에 따른 기존사업자 이탈 전망이 된다. 다만 현재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양산 매출은 향후2년간은 지속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비메모리 디자인에서 칩리스가 담당하고있는 설계를 신규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따라서 2024년까지는 기존 거래처를 통해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2025년부터는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Company = “에이디테크놀로지”

Year = 2023

Article =

"""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의 약 60% 수준을 장악하고 있는 대만 TSMC의 저력을 분석할 때 늘 거론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강력한 생태계다. 그중에서도 TSMC가 세계 각지에 거느린 수많은 고객사를 관리하는 디자인하우스파트너(DSP)는 최근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성공의 열쇠로 인식되고 있다.

대만반도체협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만 현지에만 총 235개의 디자인하우스가 포진하고 있다. 이 중 세계 1위 디자인하우스로 꼽히는 글로벌유니언칩(GUC)은 TSMC 최대 협력사이기도 하다. GUC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와 TSMC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 최첨단 공정을 바탕으로 고객사를 유치하기도 하고, 주요 고객사들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박준규 에이디테크놀로지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전통적으로는 디자인서비스파트너, 즉 디자인하우스는 고객들이 설계해 온 것을 받아 파운드리로 넘기는 가교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디자인하우스의 역할이 훨씬 더 커졌다”며 “칩이 너무 커지고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설계 과정부터 모든 프로세스를 (디자인하우스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설립된 에이디테크놀로지는 디자인하우스 중에서도 TSMC, 삼성전자 양쪽 진영을 모두 경험해 본 드문 회사다. 회사 설립 이후 15년 동안은 TSMC의 파트너였고, 2019년 이후로는 삼성전자 최대 협력사 중 하나가 됐다. 올해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의 디자인하우스이기도 하다. 박 대표는 “TSMC를 떠난 것은 회사의 향후 성장성을 모색하던 중 에이디테크놀로지와 삼성 파운드리의 전략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TSMC와 경쟁을 위해 강력한 디자인하우스 생태계에 투자해 왔고 지난해부터 결실을 하나씩 보고 있다. TSMC의 협력사들이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고객사를 유치해 TSMC에 가져다주는 것처럼, 에이디테크놀로지 역시 지난해 말부터 오토모티브, 에지(edge), 고성능컴퓨팅(HPC)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굵직한 수주 건을 따내기 시작했다. 삼성 파운드리가 목표로 해온 선순환 구조에 돌입했다는 신호다.

에이디테크놀로지는 여타 디자인하우스와 달리 직접 최선단 공정 설계를 비롯해 3D 패키징 같은 차세대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박 대표는 “에이디테크놀로지 연구소에서는 제조 쪽에 특화한 부서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5㎚(나노미터·1㎚=10억분의 1m), 7㎚ 등 선단 공정을 직접 다룬다”며 “최근 반도체 업계 최대 화두인 3D 패키징의 경우 삼성 반도체와 직접 기술을 공동 개발해 왔으며 그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대표와 일문일답.

에이디테크놀로지와 디자인하우스에 대해 설명해달라.  
“2002년에 회사를 설립했으니 이제 대학생 정도 됐다고 생각한다. 핵심 인력은 모두 삼성 반도체 출신이며 창업 후 15년 정도는 TSMC와 일을 했다. 이후 2019년에 삼성 파운드리의 디자인서비스파트너(DSP)로 일을 시작했다. 삼성 파운드리로 전환하면서 인공지능(AI), 에지, 오토모티브 등을 주력 분야로 삼게 됐다.

디자인하우스의 고객은 통상 팹리스나 시스템 반도체 회사, 혹은 자기 반도체를 직접 개발하는 회사들이다. 칩이 커지고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제조 과정에 많은 엔지니어가 필요하게 됐다. 고객사들이 원하는 아이디어나 알고리즘을 모두 칩으로 구현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 디자인하우스의 역할이 커진 것은 이 때문이다. 칩 사이즈가 너무 커지고, 다양해진 만큼 이제는 설계 과정부터 모든 것을 디자인하우스들이 함께하게 됐다.”

TSMC를 떠나 삼성 파운드리를 선택한 이유는.  
“고민이 깊었다. 회사의 규모를 키워야 하는데 TSMC 생태계에서는 현상 유지 혹은 작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큰 결정을 내렸다. 특히 그 시기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전략적으로 키우던 시기였다. 회사 창립 멤버들이 삼성 출신인 만큼 삼성을 잘 알고 있기도 했고, 삼성전자가 TSMC의 전략을 참고해 디자인하우스파트너들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었다. 에이디테크놀로지 역시 TSMC 파트너에 속한 경험이 있었다. 여러 조건이 시기적으로 잘 맞아떨어졌다.”

에이디테크놀로지가 디자인하우스로서 가지는 특장점은.  
“우리의 경쟁력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지향해야 할 좌표는 더 강력한 에너지 효율성을 가진 칩을 만드는 것이다. 여타 디자인하우스와 달리 에이디테크놀로지의 경우 오토모티브, 에지, 슈퍼컴퓨팅 분야 고객사가 많다. 그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특성이 전성비다. 에이디테크놀로지도 창업하면서부터 그 부분을 노렸다. 에이디테크놀로지가 가진 기술은 특화된 파운데이션 라이브러리로 타사 대비 5%에서 10% 수준 전성비를 발휘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개발 비용을 지불하고 똑같은 퍼포먼스를 내는데 더 높은 전력 효율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ARM과 협력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도 강점이다. ARM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플랫폼을 개발해서 고객이 쉽게 칩을 설계하도록 돕는다. 가령 특정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엔지니어가 통상 300명이라면 에이디테크놀로지의 경우 50명 미만으로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에이디테크놀로지와 ARM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최대 디자인하우스파트너다. 성과가 삼성 파운드리의 사업 성패와도 연결되는가.  
“우리가 하는 일은 파운드리가 가진 기본 경쟁력에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이다. TSMC의 경우 대부분 고객을 TSMC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하우스가 관리한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파운드리 회사가 가진 역량에 플러스로 부가가치를 올려서 특성이 더 높은 반도체를 개발하는 역할을 디자인하우스가 하는 것이다. 2019년부터 TSMC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작년 말부터 결실을 보고 있다. 에이디테크놀로지가 직접 계약을 하고 엔지니어링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디자인하우스를 통해 파운드리의 부가가치를 올렸다는 의미가 있다.”

디자인하우스의 역량이 파운드리 회사의 제품 생산 속도나 수율에도 영향을 미치나.  
“에이디테크놀로지는 고객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충실히 이해한 상태에서 제품을 같이 개발한다. 칩을 직접 생산하기 전까지 많은 변수를 고려한다. 이 같은 엔지니어링이 선행되는 과정에서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고, 분명히 수율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칩을 개발하는 비용과 속도 측면에서 디자인하우스의 역할이 크다. 준비가 잘돼 있는 분야의 칩은 그냥 가져다 써도 될 정도다. 고객사가 원하는 디자인을 필요에 따라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칩을 개발하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

삼성 진영에 합류한 이후 현재까지 성과는.  
“TSMC 진영을 떠나 삼성전자에 합류한 이후 첫 2년 동안은 삼성전자의 공정을 이해하는 데 주력했다. 이제 어느 정도 직접 계약을 따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따낸 계약이 지난해 유럽의 한 오토모티브 시스템온칩(SoC) 회사 건이었다. 그 이후로 대용량 서버용 제품 수주를 따내기도 했다. 해당 제품은 전성비와 퍼포먼스 모두를 잡아야 하는 제품이었다.

최근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도 미국 고객사들과 개발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협의하거나 더 의미 있는 협력 논의를 진행했다. 3㎚ 기반의 HPC 수주 건도 곧 계약이 이뤄질 전망이다. 3㎚ 계약을 따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세계적으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큰 칩이며 모든 엔지니어링 방법론이 투입되는 고난도 기술이다.”

"""

Company = “에이디테크놀로지”

Year = 2024

Article =

"""

에이디테크놀로지가 AI(인공지능), HPC(고성능컴퓨팅) 반도체 개발 지원을 위해 혁신적인 칩렛(chiplet) 플랫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나노 공정 기반의 HPC 플랫폼 'ADP620'을 활용한 칩 개발도 시작했다.

박준규 에이디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Arm 테크 심포지아'에서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박 대표는 '액셀러레이팅 이노베이션 위즈 에이티디테크놀로지&Arm: AI·HPC, 칩렛 너머(Accelerating Innovation with ADTechnology & Arm: HPC/AI, Chiplets, and Beyond)'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 대표는 "향상된 AI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머신러닝용 가속기, CPU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것 외에도 칩렛 기술이 해답이다"라며 "칩과 칩을 연결하는 사이에 전력손실이 발생되는데, 칩렛이 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고성능과 저전력 소자들을 효율적으로 조합할 수 있어 전체적인 제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원하는 기능에 따라 다양한 칩을 선택적으로 조합할 수 있어, 맞춤형 솔루션 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칩렛은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반도체를 제조하고 하나의 칩으로 이어붙이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다. 이 기술은 칩 설계와 제조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각광받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AI 반도체 시장은 2023년 530억 달러에서 연평균 24.3% 성장해 2028년 1천59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같은 기간 칩렛 시장은 2023년 65억 달러에서 2028년 1천480억 달러로 연평균 80% 성장률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앞서 에이디테크놀로지는 지난해 Arm과 네오버스 CSS의 반도체 설계자산(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HPC, AI 등 고성능 칩 만드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에이디테크놀로지는 칩렛 설계 기술력을 인정받아 리벨리온, 삼성전자, Arm과 함께 'AI CPU 칩렛 플랫폼'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에이디테크놀로지가 Arm의 '네오버스 컴퓨팅 서브 시스템(CSS) V3'를 기반으로 CPU 칩렛을 설계하고, 리벨리온 AI 가속기 '리벨(REBEL)'과 에이디테크놀로지가 설계한 CPU 칩렛을 통합한다. CPU 칩렛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최첨단 2나노 공정 기술에서 생산되는 방식이다.

에이디테크놀로지는 HPC, 엣지서버, AI 시장을 타겟으로 'ADP' 6 시리즈 플랫폼을 만들어 공략하고 있다. 이날 박 대표는 ADP600과 ADP620을 소개했다.

박 대표는 "ADP600은 Arm 네오버스 N2 코어 베이스로 되어 있다면, ADP620은 네오버스 V3 코어로 되어있다"며 "ADP620은 현재 RT를 받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내년 세션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내년 2나노 공정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이다.

이어 그는 "칩렛 기술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제품뿐 아니라 고성능 네트워킹 제품으로 확장할 수 있다"며, "파운데이션 라이브러리와 메모리를 경쟁력 있게 개발해 칩렛 솔루션의 컴퓨팅 기능을 강화하고, 고객의 실리콘에 경쟁력을 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Company = “에이디테크놀로지”

Year = 2025

Article =

"""

에이디테크놀로지는 2003년 설립된 반도체 IP 개발 및 설계 전문기업으로, 국내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왔다.  
  
첨단 반도체 IP, SoC 설계, 디지털 라이브러리 개발,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이 회사는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재무제표에 따르면, 회사는 심각한 영업손실과 현금흐름 악화에 직면해 있다. 에이디테크놀로지 최대주주는 김준석 대표이사로 17.77%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무배당으로 주주가치 환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2년 4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174억 원, 2024년에는 17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제품 매출은 2024년 191억 원으로 2022년 대비 84.6%나 감소했고, 영업활동현금흐름도 2022년 321억 원의 유입에서 2024년 135억 원의 유출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에이디테크놀로지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매출 구조의 급격한 전환이다. 2022년에는 제품(양산) 매출이 1,238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75.38%를 차지했으나, 2024년에는 191억 원으로 급감해 전체 매출의 17.92%에 불과했다. 이는 불과 2년 만에 제품 매출이 1,047억 원, 비율로는 84.6%나 감소한 것이다.  
  
반면 용역(개발) 매출은 2022년 389억 원(23.69%)에서 2024년 824억 원(77.30%)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총매출액은 2022년 1,642억 원에서 2024년 1,065억 원으로 35.1% 감소해 전반적인 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매출 구조 변화는 단순한 사업 방향 전환이라기보다는 제품 사업의 급격한 경쟁력 약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20년부터 파운드리 파트너를 TSMC에서 삼성 파운드리로 교체한 것이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TSMC의 파트너로서 국내 사업 한정이라는 제약이 없이 삼성 파운드리의 DSP 파트너로서 전세계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제2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회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에이디테크놀로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익성 악화다. 2022년 4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174억 원, 2024년에는 17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최근 2년간 344억 원의 누적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2022년 56억 원의 흑자에서 2023년 163억 원, 2024년 15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3년간 누적 당기순손실은 259억 원에 이른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2022년 2.68%에서 2023년 –17.38%, 2024년 -15.91%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은 판매비와관리비의 증가와 매출 구조 변화로 인한 매출총이익 감소로 보인다.  
  
2022년 매출총이익은 264억 원(매출총이익률 16.05%)이었으나, 2024년에는 117억 원(매출총이익률 10.98%)으로 감소했다. 반면 판매비와관리비는 2022년 220억 원에서 2024년 287억 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에이디테크놀로지의 또 다른 우려 요소는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에는 최대 고객사에 대한 매출이 311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19%였으나, 2024년에는 주요 4개 고객사에 대한 매출 합계가 638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객별 매출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A고객사의 경우 2023년 7억 원에서 2024년 178억 원으로 매출이 25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B고객사는 2023년 311억 원에서 2024년 207억 원으로 33.4% 감소했다.  
  
이러한 특정 고객 의존도 심화는 고객사의 사업 상황이나 발주 정책 변화에 따라 회사의 매출과 수익성이 크게 영향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고객별 매출의 큰 변동성은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에이디테크놀로지의 자산 효율성과 투자 수익률도 크게 악화되고 있다. 2022년 말 자산총계는 2,341억 원이었으나 2024년 말에는 2,449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매출액은 1,642억 원에서 1,065억 원으로 35.1% 감소했다. 이는 자산 회전율이 크게 저하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유형자산은 2022년 말 459억 원에서 2024년 말 779억 원으로 69.7% 증가했다. 유형자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수익성이 오히려 감소한 것은 투자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었음을 보여준다.  
  
자산수익률(ROA)은 2022년 2.40%에서 2024년 -6.20%로, 자기자본수익률(ROE)은 2022년 3.35%에서 2024년 -11.53%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에이디테크놀로지의 긍정적 요소 중 하나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다. 연구개발비는 2022년 0.9억 원에서 2023년 32억 원, 2024년에는 4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도 2022년 0.06%에서 2024년 5.59%로 대폭 상승했다.  
  
특히 "10 nm 공정이하 반도체설계용 디자인라이브러리 개발", "Neoverse N2 기반 고성능 엣지서버 플랫폼 개발", "차세대 HPC SoC Architecture 및 Design 플랫폼 개발", "Neoverse V3 기반 데이터센터용 AI/HPC 하이앤드서버 플랫폼 개발" 등 첨단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2023년 ARM의 토탈디자인프로그램(Total Design Program) 파트너로 선정되며, 네오버스 컴퓨트 서브시스템 (CSS) 기반의 고성능 칩 개발 및 공정 최적화를 위한 역량을 확보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AI, 네트워킹, 서버, 슈퍼컴퓨팅과 같은 고성능 컴퓨팅(HPC) 인프라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국내외 수주를 가속화할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에이디테크놀로지는 현재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 2년 연속 영업손실과 매출 감소, 현금흐름 악화는 회사의 존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일부 긍정적 요소가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역부족이다.  
  
회사가 생존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제품 경쟁력 강화, 고객 다변화, 용역 사업의 수익성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특정 고객사들에 대한 의존도가 60%에 육박하는 현 상황은 매출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된다.  
  
향후 분기별 실적 발표에서 수익성과 현금흐름 개선 여부가 회사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

Company = "어보브반도체"

Year = 2022

Article =

"""

국립금오공과대학교(총장 곽호상)가 어보브반도체(주)(대표이사 최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일 교내 본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금오공대 곽호상 총장과 이현권 기획협력처장, 전자공학부 신경욱 교수, 장영찬 교수(전공장), 어보브반도체(주)의 최원 대표이사와 곽선아 인사팀장이 참석했다.  
  
금오공대와 어보브반도체(주)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적자원 역량 강화 △산학연관 협력사업 공동 참여 △연구·개발 과제 공동 참여 △특별강의, 세미나의 교육서비스 제공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이어 어보브반도체(주)는 우수 학생으로 선발된 전자공학부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금오공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설명회 및 특강 시간을 가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연구 및 장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2006년 충북 청주에 설립된 어보브반도체(주)는 다양한 종류의 마이크로콘트롤러(MCU) 뿐만 아니라 논리집적회로(Logic IC)의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팹리스 반도체 기업이다.  
  
MCU 분야의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고성능 아날로그 IP를 자체 개발했으며, 소비자 가전용 MCU 분야 강점을 통해 센서, 블루투스 LE Soc(시스템온칩) 등을 제공하고 있다.  
  
최원 어보브반도체(주) 대표이사는 “반도체 산업은 전략산업으로서 그 성공의 핵심은 인재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오공대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양성된 인재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그 성장이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호상 금오공대 총장은 “디지털 전환의 시기를 맞아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경쟁력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교육현장에서도 기업의 목소리를 들으며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Company = “어보브반도체”

Year = 2023

Article =

"""

어보브반도체가 삼성전자와 대규모 반도체칩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내년에 추가될 MCU(마이크컨트롤러유닛) 물량은 3000만개 이상이다.  
  
18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어보브반도체는 최근 삼성전자와 대규모 MCU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어보브반도체는 내년부터 삼성전자에 3000만개의 MCU를 추가 납품할 예정이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어보브반도체와 파격적인 공급계약을 맺은 이유는 가전제품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어보브반도체는 국내를 대표하는 팹리스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 기업이다. 삼성전자에 가전제품, 핸드폰 등에 들어가는 두뇌 역할을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는 삼성전자 냉장고를 비롯해 사물인터넷(IoT)에 MCU를 납품하고 있다.  
  
이번에 양사간 계약 역시 가전제품에 필요한 IoT와 관련이 있다. △고장예측 △디바이스간 연결 △AI(인공지능) 기능 향상 등 기능을 가진 MCU를 추가 생산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어보브반도체와 협력 강화를 위해 추가 지분투자를 검토 중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으나, 추가 투자가 확정된다면 삼성벤처투자가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SVIC 56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어보브반도체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35억원, 1.8%)에 참여했다. 해당 펀드는 삼성전자(594억원) 및 삼성벤처투자(6억원)가 출연해 만들어졌으며, 삼성벤처투자가 대표주주다. 해당 펀드의 일부 자금이 어보브반도체로 투자됐다.  
  
이 밖에도 지난 6월 최원 대표이사 체제에서 최원 및 김경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 김경호 대표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출신으로, 삼선전자 시스템 LSI사업부에서 근무했다.  
  
데일리한국은 MCU 추가납품과 지분투자에 대해 문의했으나 어보브반도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

Company = “어보브반도체”

Year = 2024

Article =

"""

충남대학교와 ㈜어보브반도체가 4일 오전 10시 30분, 대학본부 2층 리더스룸에서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 분야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우수 전문 기술 인력과 고부가가치 산업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혐약식은 김정겸 충남대 총장과 김경호 어보브반도체 대표이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도를 위한 핵심 기술 공동 연구개발 ,우수한 전문 기술 인력 양성 ,상호 활발한 인적 교류 및 우수 인력의 적극적 채용 ,기술 교류와 정보 공유 및 보안 유지 의무 이행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김정겸 총장은 “충남대에는 ‘충청권역 반도체공동연구소’는 물론, 우수 인프라를 보유한 각종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주변에 자리 잡고 있어 특성화된 반도체 연구 개발이 가능한 최적의 장소”라며,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어보브반도체와 적극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우리가 마주한 반도체 관련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ompany = “어보브반도체”

Year = 2025

Article =

"""

2006년 1월 설립된 어보브반도체(최원,김경호 각자대표)는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 전문 팹리스 기업으로 가전, 산업용 MCU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왔으나, 최근 2년 연속 영업적자와 함께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2009년 6월 코스닥 상장 이후 성장가도를 달렸던 이 회사는 최원 대표이사(18.65% 지분 보유)를 최대주주로 하고 있으며, 패키징 사업 가동률이 2022년 74.0%에서 2024년 30.4%로 급락하는 등 실적 부진이 심화되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보브반도체의 2024년 연결기준 영업손실은 51억 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당기순손실은 181억 원으로 적자폭이 전년 334억 원에서 다소 축소됐으나, 여전히 큰 폭의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 기능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Consumer 부문이 1,161억원 으로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했으나, 이는 2022년 1,348억 원에서 상당히 감소한 수치다. 특히 가전용 MCU 수요 감소와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매출이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  
  
MCU 사업부문의 원재료 매입액도 2022년 607억 원에서 2024년 393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여 생산 및 판매 활동이 위축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의 침체 영향과 더불어 어보브반도체의 경쟁력 약화를 시사한다.  
  
2024년 말 기준 총차입금은 1,115억 원으로 자본금(89억 원)의 12.5배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기차입금 660억 원, 유동성장기차입금 189억 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16억 원, 교환사채 187억 원, 장기차입금 55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교환사채 187억 원을 신규 발행하는 등 외부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이자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금융비용은 123억 원으로 전년 114억 원 대비 증가했으며, 이는 당기 영업손실 51억 원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연결회사의 순차입금비율도 45.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자금조달 비용 상승과 차입금 상환 부담이 향후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적자 상황에서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 신규 투자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어보브반도체의 2024년 패키징 사업 가동률은 30.4%로 2022년 74.0% 대비 크게 하락했다. 테스트 사업 가동률 역시 2022년 27.5%에서 2024년 14.5%로 급격히 떨어졌다.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패키징 부문의 경우 2024년 생산능력은 542,177 KPCS인데 비해 실제 생산실적은 165,027 KPCS에 그쳤다. 테스트 부문도 생산능력 350,212 KPCS 대비 실제 생산실적은 50,781 KPCS로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생산 설비 활용도 저하는 고정비 부담 증가로 이어져 수익성 악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고가의 장비 투자가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 특성상 설비 가동률 저하는 기업 경쟁력에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2024년 매출원가는 2,117억 원으로 매출액 2,321억 원의 91.2%에 달해 매출총이익률이 8.8%에 불과했다. 이는 2022년 매출총이익률 23.3%에 비해 크게 악화된 수치로, 생산 효율성 저하가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반도체 시장 수요 회복 여부에 따라 실적 개선 가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낮은 가동률과 높은 고정비 구조는 단기간 내 수익성 회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어보브반도체는 재고자산 관리 효율화를 통해 일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재고자산은 2023년 335억 원에서 2024년 240억 원으로 감소했으며, 재고자산 평가손실도 2023년 9억 원 손실에서 2024년 5억 원 환입으로 전환됐다.  
  
재고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제품, 원재료, 재공품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 특히 재공품이 2023년 189억 원에서 2024년 131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생산 공정 관리와 재고 회전율 개선을 위한 회사의 노력이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2024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70억 원으로 2023년 324억 원보다는 감소했으나, 2022년 –24억 원에서 크게 개선되었다.  
  
어보브반도체는 2006년 창사 이후 가전 MCU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해왔으나, 최근 경영환경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생산 가동률 급락과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의 지속은 기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자본규모에 비해 높은 차입금 부담은 재무건전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재고자산 관리 최적화와 부채비율 개선 등 일부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고 있어, 경영진의 적극적 대응 여부에 따라 향후 실적 개선 가능성도 열려있다. 어보브반도체가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와 함께 경영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Company = "LX세미콘"

Year = 2022

Article =

"""

“시장의 변화를 읽어내는 역량을 확대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속도감 있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구본준 LX그룹 회장의 2022년 신년사)  
  
LG그룹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마친 구본준 LX그룹 회장이 미래 판짜기에 분주하다. 구 회장은 LG그룹 시절부터 애착을 가졌던 반도체 분야를 성장동력으로 낙점하고 적극적인 M&A(인수합병)를 검토하고 있다. 향후 LX세미콘을 종합 반도체 회사로 키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구 회장은 지난해 LG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해 LX그룹을 세웠다. LX그룹은 LX홀딩스를 중심으로 LX인터내셔널, LX하우시스, LX세미콘, LX MMA 등 5개의 자회사로 구성돼 있다. 구 회장은 독립 출범한 LX그룹의 외형을 확장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그룹 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LX인터내셔널은 수십 년간 무역업을 운영해왔던 만큼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000억~20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거뒀으며 지난해에는 자원 가격과 해운 운임 상승 등 효과로 656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최근 LX인터내셔널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포트폴리오 전환을 꾀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유리공업을 인수하며 업계 1위 KCC글라스를 추격하고 있다.  
  
계열사별로 몸집을 불리고 사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지만, 물류업이나 건축자재 사업이 미래에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보기엔 어렵다. 또 다른 계열사 LX MMA는 일본 스미모토화학공업·일본촉매와의 합작사인데, 사업을 확장하는데 제한이 있다.  
  
결국 LX그룹 계열사의 포트폴리오에서 성장이 유력시되는 사업은 반도체뿐이다. LX그룹도 반도체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LX세미콘은 지난해 267억원을 투자해 텔레칩스 지분 10.93%를 확보하고, 지난 5월 매그나칩반도체의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코로나19 펜트업 수요로 인해 IT 제품 수요가 늘면서, LX세미콘은 LX그룹의 새로운 ‘캐시카우’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LX세미콘의 매출은 1조8989억원으로 전년 대비 63.4%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696억원으로 292.3% 급증했다.  
  
LX그룹은 LX세미콘의 몸집을 키워 종합반도체(IDM) 기업으로 성장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LX세미콘이 지난해 지분 투자한 텔레칩스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설계 사업을 운영한다. LX세미콘은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등에 적용하는 디스플레이 구동칩(DDI) 설계 사업을 주력으로 한다. 양사의 포트폴리오가 다른 만큼 향후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LX세미콘은 지난 5월 매그나칩반도체의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매그나칩반도체는 과거 SK하이닉스에서 분사된 기업으로, DDI와 차량용 전력 반도체의 설계·생산을 하고있다. LX세미콘과 사업 영역이 유사하며, 인수가 성사될 경우 LX세미콘은 전력 반도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다만 1조5000억원 수준으로 거론되는 매그나칩반도체의 인수가는 부담이다. 상반기 연결기준 LX세미콘의 현금성 자산은 4727억원이다. 인수를 위해서는 1조원 가량의 대규모 차입이 필요하다. 현재 LX세미콘은 시장 상황을 관망하고 적절한 인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구 회장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애착도 남다르다. 구 회장은 1997년 LG반도체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1998년 현대그룹에 반도체 사업을 강제로 넘기는 과정을 함께 한 마지막 대표다. 특히 구 회장은 LX세미콘 양재 캠퍼스에 별도 집무실을 꾸려 출근할 정도로 반도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구본준 회장은 LG그룹에 일할 때부터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며 "LX그룹으로 분가하면서 반도체를 이전과 확 다르게 키우겠다는 포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Company = "LX세미콘"

Year = 2023

Article =

"""

현대자동차가 5일 열리는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 최고 수출의 탑인 ‘300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다. 또 손보익 LX세미콘 대표·전세호 심텍 회장·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대표, 윤종찬 비엠티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게 됐다.

한국무역협회(KITA·회장 구자열)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올 한 해 세계 교역 둔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을 극복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 무역 업계와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한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한 무역의 날은 1964년 11월 30일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 ‘수출의 날’로 제정된 후 1990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됐다. 2011년 12월 5일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부터 무역의 날을 12월 5일로 바꾸고 기념하고 있다.

‘수출 입국 60년,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올해 기념식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수출 300억 달러로 최고 수출의 탑을 수상한다. 수출의 탑은 단일 법인이 달성한 수출실적이 특정 구간을 넘어서는 신기록을 경신할 때 수여한다. 현대자동차는 지속적인 수출시장 확대 노력으로 수출액이 전년보다 30% 상승했다.

기아는 200억 불 수출의 탑을, LG이노텍은 100억 불 수출의 탑, 삼성 SDI는 60억 불 수출의 탑을 각각 수상하는 등 총 1천704개 기업이 수출의 탑을 수상한다.

올해 수출의 탑 수상 기업의 91%는 중소기업이 차지했으며, 산업군 별로는 자동차·이자전지 관련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수출 유공자 부문에서는 손보익 LX세미콘 대표, 전세호 심텍 회장,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대표, 윤종찬 비엠티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596명이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앞장선 공로로 정부 포상과 표창을 받는다. 한국무역협회장 표창도 80명에게 전달된다.

"""

Company = "LX세미콘"

Year = 2024

Article =

"""

구본준 LX그룹 회장의 반도체 계열사 LX세미콘이 내년 초 열리는 세계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 출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사 이래 첫 CES 참가로 계열분리 후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성과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1일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팹리스(반도체설계) 기업 LX세미콘은 내년 1월7~10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5에 참석해 프라이빗 전시를 진행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LX세미콘은 일반 관람객이 아닌 고객사 대상으로 전시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추진한 신사업 성과를 알리고 기업 네트워킹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LX세미콘이 CES 2025에서 고객사들에게 선보일 구체적인 품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DDI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와 방열기판 등 다양한 신사업 성과를 고객사들에게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LX세미콘은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 대전(SEDEX 2024)’에 참가해 디스플레이 프로세서(T-Con)’를 비롯해 △차량용 모터 구동에 필요한 ‘마이크 컨트롤러 유닛(MCU)’ △전기차 인버터 모듈에 쓰이는 ‘방열기판 기술’ 등 다양한 기술력을 선보였다.  
  
LX세미콘의 이번 CES 참가는 1999년 창립(당시 사명 실리콘웍스) 후 처음이다. 과거 LG그룹 계열사 시절과 경영환경이 달라진 만큼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LX세미콘은 전신인 실리콘웍스때부터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드라이버IC(DDI)’ 설계·공급을 주력 사업으로 삼았다. 전사 매출 대부분이 DDI에서 나왔고 LG디스플레이 매출비중은 80~90%에 달했다.  
  
이후 지난 2021년 LG로부터 계열분리하면서 중국 BOE 등과 거래량을 늘리고 DDI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사업 육성에 속도를 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LG그룹 매출비중을 약 절반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DDI 매출비중은 90%에 달했다.  
  
지난해 LX세미콘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0.3%, 58.5% 감소했다. 전방산업인 TV·IT기기 시장수요가 감소하자 제조사들의 DDI 주문도 줄어든 영향이다.   
  
또 올해부터는 대만 DDI 전문업체 노바텍이 LX세미콘의 텃밭을 위협하고 있다. LX세미콘은 지난해까지 모바일용 DDI를 LG디스플레이와 중국 BOE의 아이폰향 P-OLED 패널에 독점 공급했다. 그러나 LG디스플레이는 올해부터 노바텍을 모바일용 DDI 공급사로 추가했고 BOE도 내년 DDI 공급망을 이원화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구원투수로 영입된 이윤태 사장은 조직개편 등 체질개선에 나섰다. 또한 마이크로컨트롤러(MCU)와 전력관리반도체(PMIC)에 더해 통신용 반도체 분야로 포트폴리오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

Company = "LX세미콘"

Year = 2025

Article =

"""

구범준 회장이 이끄는 LX그룹의 핵심 계열사, LX세미콘이 흔들리고 있다. 기업 가치 평가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오히려 밸류업에 역행하며 '코리아밸류업지수'에서 제외된 것이다. 과감한 투자전략을 보여왔던 이윤태 LX세미콘 대표이사의 경영전략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만큼 올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X세미콘은 지난달 코리아밸류업지수에서 제외됐다. 이 지수는 금융당국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지표로 시장 신뢰도와 투자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LX세미콘 주가는 최근 저점에 머물러 온 만큼 이같은 소식에 더 출렁이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금일 주가는 6만1700원에 장을 마쳐, 지난해 7월 고점(8만4500원) 대비 약 27% 하락한 상태다.

올해 2분기 실적 전망도 밝지 않다. 시장조사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한 4383억원, 영업이익은 36.7% 줄어든 355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실적 부진 원인으로는 디스플레이 구동칩(DDI)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꼽힌다. DDI 매출 비중은 전체의 약 90%에 달해 업황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최근에는 관세 갈등, 중국발 저가 공세, 공급망 불확실성 등으로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이 위축됐고, 국내 업황 또한 일부 회복 조짐은 있지만 뚜렷한 반등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LX세미콘 매출은 코로나19 시기, 가전 수요 급증 수혜를 입으며 2022년 2조원을 돌파했지만, 이후로는 3년 연속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37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1700억원대로 반 토막 났다.

해외법인 실적도 불안 요인이다.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일본·대만 법인은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기존 미국·중국 법인은 올 1분기 총포괄손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5.5%, 40% 감소했다.

LX세미콘은 이러한 부진의 늪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구원투수로 현 이윤태 대표를 선임했다. 이 대표는 앞서 삼성전기에서 과감한 구조조정과 신규 투자로 실적을 이끈 바 있다.

다만 현재 LX세미콘에서의 신사업은 이렇다할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차량용 방열기판과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MCU)이 대표적이다. LX세미콘은 2021년 일본 방열소재 업체 지분을 인수한 데 이어, 2022년 경기 시흥에 생산공장을 설립해 지난 4월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했다. MCU는 국내 가전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사업은 아직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매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반도체 벤처 뉴라텍과 손잡고 초연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와이어리스 커넥티비'사업도 추진 중이지만, 조용하다.

게다가 전기차 시장의 성장 정체(전기차 캐즘)와 자율주행 상용화 지연 등 외부 변수도 많아 단기간 내 실적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

Company = "텔레칩스"

Year = 2022

Article =

"""

DS투자증권은 14일 차량용 반도체 특화 팹리스 기업 [텔레칩스](https://markets.hankyung.com/stock/054450)에 대해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만8000원을 유지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텔레칩스는 국내 상장된 팹리스 기업 중 유일하게 안정적인 규모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다"며 "차량용 반도체 수급의 안정화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체의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이미 7개 분기 동안 연속 실적 성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텔레칩스는 올해 3분기 주력 제품인 자동차용 반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늘어난 378억원을 기록하며 호실적을 달성했다. 차량용 반도체 중에서도 인포테인먼트(인포메이션+엔터테인먼트)용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가 텔레칩스 매출의 핵심으로 꼽힌다.  
  
자동차용 반도체가 성장을 견인하자 올해 3분기 총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6%, 87.4% 늘어난 390억원, 41억원을 기록했다.  
  
김 연구원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정상화로 텔레칩스의 실적이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면서 "관계사로 지분을 확보하고 있던 '칩스앤미디어'의 보유지분을 매각해 494억원의 지분매각이익이 반영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텔레칩스에 따르면 지분 매각을 통한 이익은 제품 개발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제품의 고도화를 위해서 매년 매출액의 30% 수준을 연구개발비로 투입해 개발을 지속해왔다.  
  
김 연구원은 "사업 초기부터 주력해 온 발신자 정보 표시 칩,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AVN) 제품에 이어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용 반도체 등 후속 칩들을 지속 개발 중"이라며 "자동차가 '커넥티드화' 되며 차량에서 연산이 필요한 영역이 증가하는 것으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안정화로 올해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2% 성장한 1557억원을,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대비 83.2% 급증한 14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3.2% 늘어난 1762억원, 16.8% 증가한 173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

Company = "텔레칩스"

Year = 2023

Article =

"""

텔레칩스는 2004년 코스닥 시장 상장 후 꾸준하게 배당을 실시해왔다. 다만 손실 연도에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실적 상승 시에도 배당 수준을 급격하게 늘리지는 않았다. 주주친화보다 성장에 방점을 찍은 다소 '보수적인' 기조를 유지했다.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자동차 산업의 업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사업다각화와 기술 고도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경영 방침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텔레칩스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거뒀지만 주당 배당금은 크게 늘리지 않아 직전 연도와 비교해 현금배당 성향이 급격히 낮아졌다. 지난해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478억원을 거뒀고 주당 130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이에 따른 배당금 총액은 18억원, 현금배당 성향은 3.7%를 나타냈다.  
  
직전연도(2021년)에는 당기순이익 70억원을 기록했고 주당 120원의 배당을 실시해 배당금 총액은 15억원, 현금배당성향은 21.5%를 보였다. 이 기간 당기순이익은 약 6.8배 늘어났지만 배당금 규모에선 큰 차이가 없어 배당성향이 급감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텔레칩스는 코스닥 시장에서 차량용 반도체 대장주로 꼽힌다. 대장주답게 2004년 상장 이후 일찌감치 정관에 의거한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꾸준한 배당을 실시해 왔다. 텔레칩스의 최근 12년간 평균 현금배당 성향을 보면 30.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철저하게 손익을 기준으로 배당을 실시해 적자 연도엔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꾸준한 배당보다는 지속 성장에 방점을 찍은 경영 기조의 영향이다. 대표적으로 2013년과 2020년엔 각각 173억원, 9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이 시기엔 별도의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2016년과 지난해엔 각각 105억원, 478억원 등 견조한 수준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배당엔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배당 성향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텔레칩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자동차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칩 개발과 판교 사옥 이전 등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래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 등에 투자하기 위해 배당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찍겠다는 경영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 자동차 산업의 업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특성도 보수적인 배당정책 수립의 배경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텔레칩스는 제품 다각화와 기술 고도화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4월 자회사인 칩스앤미디어의 지분 26.5%(약 583억원)를 한국투자파트너스에 매각했고, 그해 5월에는 LX세미콘에 텔레칩스 지분 약 10.64%(약 267억원)를 넘겼다.  
  
텔레칩스는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적용한 ADAS 칩을 개발하는데 투자하고 있다. ADAS는 운전 중에 발생하는 돌발 상황을 차량 스스로 인지 장치를 제어하는 기술로 자율주행 레벨이 높아짐에 따라 필수적인 기술로 꼽힌다. 텔레칩스 전체 매출에서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8.6%였는데 지난해 43.4%까지 높아졌다.  
  
또 2020년부터 판교 신사옥(지상 12층, 지하 5층 건물) 건설을 위해 부지 매입과 건축비 등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다. 지난 1월에는 대구시와 협약을 맺고 수성 알파시티내 337억 원을 투자해 20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대구연구소를 건립할 계획을 세운 만큼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텔레칩스는 정관에 의거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배당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배당 규모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 세전이익의 20%를 목표로 잡았다. 이밖에 경영 실적, 투자재원, 재무구조, 시장 상황 및 주주가치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지난해 말 기준 별도의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다.  
  
꾸준한 배당의 수혜는 최대 주주인 이장규 대표이사가 누리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말 264만2695주(지분율 19.07%)를 기준으로 배당금 약 34억원을 수령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지분 투자를 통해 2대 주주에 올라선 LX세미콘도 지난해 말 보유한 151만5000주(10.93%)를 기준으로 약 20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했을 것으로 보인다.

"""

Company = "텔레칩스"

Year = 2024

Article =

"""

텔레칩스는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레이다 전문 기업 '오라인텔리전트시스템(AURA)’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단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인 지분율과 규모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AURA는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수행하는 차세대 레이다(RADAR) 기술개발 전문 회사다. 레이다 기술은 카메라, 라이다(LiDAR)와 상호보완 혹은 개별 채택으로 자율주행 성능과 안전성을 높인다.

AURA의 특허기술은 기존 레이더가 높은 원거리 측정 정확도, 낮은 가격이라는 장점에 반해 전파 간섭에 취약해 이미징 인식률이 낮다는 치명적 한계를 극복했다.

AURA의 ‘고신뢰성·고해상도 센싱’ 기술은 본격적인 자율주행(레벨3) 진입에 앞서 카메라와 라이다의 단점은 상쇄하고 장점은 뛰어넘는 획기적인 대체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해당 기술이 상용화되면 카메라, 라이다 등 다양한 센싱 장비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포지셔닝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이정아 AURA 대표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AURA 이미징 레이다 기술은 Autonomous Mobility(AM)의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다"며 "텔레칩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AURA 원천기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리노이 대학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벨 연구소의 최고위연구원, 삼성전자 전무로 다년간 근무하며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연구를 리드한 바 있다. 또한 레이다 이미징, 무선 통신 관련 40개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디지털 이미징 레이더 분야에서 다년간 연구개발 경험을 한 권위자다.

이장규 텔레칩스 대표이사는 "성공적인 자율주행 시장 진입 및 차세대 반도체 고도화 전략에 따라 AURA의 원천기술과 특허가 선보일 향후 미래 성장성이 기대된다”며 “이번 출자를 통해 특히, 인공지능(AI)을 적용한 고성능 비전 프로세서 ‘엔돌핀(N-Dolphin)’, AI 엑셀러레이터 ‘A2X’ 등 당사 AI 반도체 칩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사업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텔레칩스는 내달 4월 9일부터 11일까지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리는 ‘임베디드 월드(Embedded World) 2024’에 참가해(홀4-561) AI 반도체, 고성능 컴퓨팅(HPC), 마이크로컨트롤러(MCU), 네트워크 칩(NWG) 등 자사 차량용 종합 반도체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

Company = "텔레칩스"

Year = 2025

Article =

"""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기업 텔레칩스가 국내 최초 차량용 인공지능(AI) 가속기 'A2X(TCA2000/TCA1000)'를 출시했다.  
  
6일 텔레칩스에 따르면 A2X는 센서 인터페이스, 데이터 전처리, AI 가속 기능을 하나의 칩셋에 통합한 혁신적인 AI 가속기다. AI 연산 성능을 극대화하면서도 제조사의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시스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국내 출시된 차량용 AI 가속기 중 가장 큰 규모의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탑재해 차량 내 AI 제어기의 성능은 물론 시스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독보적 성능을 갖췄다.  
  
기존 자율주행 및 ADAS 제어기 구조는 센서 데이터 입력부터 이미지 전처리, AI 연산, 차량 예측 및 제어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단일 SoC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흐름의 비효율성, 연산 부담 증가, 필요 이상의 고성능 SoC 의존도 상승 등의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는 전력 소모와 비용 증가, 시스템 설계의 복잡성을 초래해 자동차 제조사들의 개발 부담을 가중시켰다.  
  
A2X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100TOPS급 NPU, 100K/50K DMIPS CPU를 기반으로 강력한 AI 연산 성능을 제공한다. 또한 카메라 입력 영상에 대한 De-warp, Multi-scaler 및 Lidar 입력에 대한 Point Cloud Accelerator 등 주요 전처리 기능을 하드웨어 블록 구조로 고정 탑재했다. 이를 통해 메인 SoC의 연산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AI 처리 성능을 극대화한다.  
  
또한 ADAS 및 IVI 프로세서와의 유연한 연결을 지원해 자동차 시스템의 확장성을 높이고, SDV의 성능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온디바이스 AI를 위한 LLM/sLLM도 지원할 계획이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인포메이션에 따르면 2023년 198억9000만달러(약 29조원)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30%에 가까운 성장률이 예상된다.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해외 경쟁사들은 AI 가속기보다 AI 기능이 포함된 고성능 SOC에 주력해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텔레칩스는 이번 A2X 출시를 계기로 국내외 시장에서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전개해 차량용 AI 가속기 시장의 화이트스페이스를 선점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회를 창출할 계획이다.  
A2X는 오는 4월 1일부터 고객사에 엔지니어링 샘플(ES)을 제공하며 본격적인 양산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장규 텔레칩스 대표이사는 "A2X는 유연한 아키텍처 확장성과 강력한 AI 연산 성능을 갖춘 혁신적 솔루션으로,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어 고객의 로드맵 실현을 앞당기는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며 "AI 반도체 기술이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텔레칩스는 차량용 AI 가속기 시장을 선도하며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텔레칩스는 SDV향 AI 제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8TOPS NPU 성능을 지원하는 AI 비전 프로세서 'N-Dolphin'을 출시한 바 있다.

"""

Company = "주성엔지니어링"

Year = 2022

Article =

"""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한국발명진흥회 제20대 회장에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선임돼 13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취임식을 했다.  
  
황철주 신임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50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재산 전문기관의 회장직을 맡게 돼 영광이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발명진흥회가 우리나라 성장동력과 희망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 지식재산 시장의 성장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 졸업하고 같은 대학서 명예공학 박사를 받았다.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일운과학기술재단 이사장, 한국무역협회 비상근 부회장이며 총 4번에 걸쳐 한국 100대 CEO로 선정된 기업인이다.  
  
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발명진흥사업의 체계·효율적 추진 및 발명가의 이익증진 도모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973년 설립됐다.  
  
그동안 고 구자경 LG 명예회장,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 등 주요 경제인들이 회장직을 역임했다.

"""

Company = "주성엔지니어링"

Year = 2023

Article =

"""

국토면적이 전 세계의 1%도 안 되는 나라. 천연자원도 거의 없는 나라.  
  
황철주 회장이 우리나라를 정의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라고 한다.  
  
황철주 회장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https://mbnmoney.mbn.co.kr/stock/item?code=053620)광 등 3개 부문에서 탄탄한 실적을 쌓아가고 있는 [주성엔지니어링](https://mbnmoney.mbn.co.kr/stock/item?code=036930)의 창립자다.  
  
지난 30년간 무일푼이었던 그가 ALD(원자층증착공법) 기술로 세계 1등이 되기까지의 과정엔 어떤 저력이 있었을까?  
  
황 회장의 성공전략은 의외로 간단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은 그 어떤 경쟁력도 발휘하지 못하며 오직 '남보다 더 빨리 잘 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  
  
다른 말로는 '혁신'과 '기업가정신'이라고 한다. 실제로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연구개발 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주성엔지니어링](https://mbnmoney.mbn.co.kr/stock/item?code=036930)의 약 67%에 달하는 임직원이 모두 R&D 인력인데,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비율이라고. 이밖에도 평소 어록 제조기란 별명을 가진 황철주 회장이 뽑은 '베스트 어록'은 무엇이고, 직원들이 잔소리처럼 듣지는 않냐는 질문에도 어떤 명쾌한 답을 내놓았는지 직접 들어보자.

"""

Company = "주성엔지니어링"

Year = 2024

Article =

"""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이 독자 기술로 국산 반도체 장비의 세계화를 성공시킨 경영 철학에 대해 “창업가의 혁신 1%와 구성원의 신뢰 99%가 결합될 때 새로운 성장이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한국무역협회(KITA)가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개최한 ‘제183회 KITA CEO 조찬회’에 연사로 나서 “새로운 성장은 새로운 기준 위에서 가능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새로운 성장 1%와 99%?’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그는 신뢰를 가장 빠르게 구축하는 방법으로 ‘공유’를 꼽으며 “신뢰가 없으면 리더십도 없다”고 신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황 회장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오직 기술 혁신에 달려있다”면서 “정보와 기술이 빛의 속도로 공유되는 오늘날, 세계 면적의 0.07%와 세계 인구의 0.64%에 불과하고 천연자원조차 부족한 우리 대한민국이 더 잘살고 행복해질 길은 오직 기술 혁신뿐”이라고 역설했다.  
  
황철주 회장은 1세대 벤처기업으로 꼽힌다. 1993년 설립된 주성엔지니어링은 1997년 국내 기업 최초로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수출하며 도약했고, 1998년 세계 최초로 D램 커패시터용 ALD 장비 양산에 성공했다. 이후 회사는 주력 제품인 ALD 장비를 메모리 뿐 아니라 로직 반도체의 주요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회원사 간 지식 공유 및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KITA CEO 조찬회’를 개최하고 있다. 조찬회 연사로는 정부 고위 정책담당자, 유력기업 CEO, 경제·문화·사회·예술 분야 저명인사가 참여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비롯한 무역협회 회장단과 이사상사 및 회원사 대표 200여명이 참석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은 “도전과 혁신으로 세계적 성공 신화를 만든 주인공이 전하는 깊은 통찰과 지혜는 변화의 시대를 헤쳐 나갈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오늘 강연을 통해 참석자들이 새로운 성장을 이끄는 1% 리더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Company = "주성엔지니어링"

Year = 2025

Article =

"""

주성엔지니어링이 황철주 회장 단독 대표 체제에서 3인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한다.  
  
주성엔지니어링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이우경 부회장, 황은석 사장을 대표에 선임한다고 밝혔다. 기존 황 회장과 함께 3인 각자 대표로 바뀌는 것이다.  
  
대표들의 업무 영역은 △연구개발(R&D) △경영관리 및 전략기획 △영업·운영으로 나눴다.  
  
황 회장은 반도체·태양광·디스플레이 장비 R&D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또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사 비전 및 미래 계획을 제시하고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체 운영을 주관한다.  
  
황 회장의 아들 황은석 사장은 경영관리 및 전략기획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ASML코리아 대표 출신인 이우경 부회장은 영업·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황 사장은 2018년 서울대 재료공학부 박사 학위를 받고 같은해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주성엔지니어링에는 지난해 합류했고 올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됐다. 우선 내부 살림을 맡으며 단계적으로 이 부회장과 함께 사업 전면에 뛰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주성엔지니어링은 이날 1분기 잠정실적도 발표했다. 연결기준 매출은 1208억원, 영업이익 33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3.4%와 384.3%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28.1%에 달했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외 반도체 매출 증가에 힘입어 전체적인 실적이 증가했다”며 “세계 최초, 유일 기술 혁신을 통해 아시아, 미주, 유럽 등 모든 지역에서 고객을 지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Company = "지니틱스"

Year = 2022

Article =

"""

시스템반도체 전문기업 지니틱스의 새로운 인수자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수백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공작기계 제조사 에이비프로바이오로 보이지만, 면면을 뜯어보면 그리 간단치 않은 지배구조라는 분석이다. '투자법인-투자조합-에이비프로바이오-지니틱스'로 이어지는 출자구조의 최상단에는 필룩스의 전 대표이사인 안원환 씨**(사진)**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이비프로바이오는 지니틱스와 총 370억원 규모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지난달 26일 체결했다. 오는 11월 8일 지니틱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인수자가 지명한 이사진 선임이 완료되면, 잔금을 납입하고 새로운 최대주주에 오르게 될 예정이다.

에이비프로바이오의 전신은 2004년 4월 법인이 설립된 공작기계 제조업체 '다사'다. 이후 2008년 8월 '이노메카텍'을 흡수합병하며 사명을 '유지인트'로 변경했다. 2015년 4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2019년 8월부터 현 사명을 사용하고 있다. 2019년 10월에는 미국 신약개발 회사가 연구개발 중인 약물에 대한 '지적소유권' 및 '사업화 권리'를 인수하며 신약개발 사업에 진출한 바 있다.

회사 실적은 수년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 11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을 마지막으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에는 4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순손실은 2016년부터 6년째 이어지는 중이다. 지난해에는 105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올 상반기에도 34억원의 영업손실과 3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기조를 탈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에이비프로바이오의 최대주주는 창업자인 이현우 전 회장이었으나, 2016년 6월 주식양수도 계약을 통해 딜던쉐어즈로 변경됐다. 이후 2019년 8월 약 143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단행되면서 최대주주가 딜던쉐어즈에서 베리타스투자조합으로 또 한차례 바뀌었다. 현재 베리타스투자조합은 에이비프로바이오 지분 4.46%를 보유 중이다. 지분율이 낮은 편이지만 최대주주 변경 후 이사진을 교체하는 등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지배구조 최상단에는 안원환 씨가 위치하고 있다. 베리타스투자조합의 최대주주는 지분 50.92%를 보유한 원진파트너스인데, 이 투자법인의 최대주주가 지분 100%를 보유한 안 씨다. 안 씨는 베리타스투자조합 지분 또한 21.67%를 보유하고 있다. 원진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3월 설립된 투자법인이며 자본금은 1000만원 수준이다.

안 씨는 과거 삼일회계법인과 교보증권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회계 전문가다. 2020년 5월부터 에이비프로바이오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며 경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의 이력 중 눈에 띄는 것은 코스피 상장회사인 필룩스 대표이사 경력이다. 안 씨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년 7개월 가량 필룩스 대표를 역임했다.

재임 기간 동안 미국 바이오기업 2곳의 지분 인수를 주도했다. 항암치료제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미국 바이오기업 '바이럴진'의 지분 62.34%를 약 375억원에 인수했고, 같은해 6월 미국 신약 연구개발업체인 '리미나투스파마' 지분 100% 또한 161억원에 인수했다. 이로 인해 증권시장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으며 회사 주가도 탄력을 받았다. 안 씨의 대표이사 취임일(2018년 3월 6일) 종가 기준 1만600원이었던 주가는 같은해 4월 30일 최고 2만8657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듬해 3월 자회사 리미나투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소식'이 전해지며 필룩스 주가는 급락했다. 여기에 바이럴진 마저 리미나투스에 매각하게 되면서 주가는 추가로 하락했다. 결국 안 씨가 퇴임한 2019년 10월 8일 필룩스 주가는 4475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취임일 당시보다 57.8% 하락한 수치다. 결과적으로 리미나투스의 나스닥 상장도 실패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지니틱스 인수에 안 씨가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인수·합병(M&A) 업계 관계자는 "안 씨가 회계 전문가라는 점과 과거 바이오기업 인수 경험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딜 역시 초기검토 단계부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며 "인수 이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들도 세부적으로 마련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필룩스 대표이사 재직 당시 인수한 미국 바이오회사들이 모회사에 긍정적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며 "이번 M&A 딜을 통해 추후 실질적 성과를 내는 지가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Company = "지니틱스"

Year = 2023

Article =

"""

시스템반도체 전문 설계기업인 지니틱스(대표이사 호경근)가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교내 창업기업인 나노게이트(대표이사 김태완)와 금속다층박막 전류센서IC의 공동개발에 나선다.

지니틱스는 12일 양사가 협약식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세종대 엄종화 부총장, 지니틱스 호경근 대표, 나노게이트 김태완 대표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진행됐다. 지니틱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로봇/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류센서IC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나노게이트가 지난 10여 년동안 개발해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금속다층박막 홀소자 기술과 지니틱스의 홀센서 IC 기술을 접목해 신재생에너지, 로봇,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전류센서 IC의 공동 개발 및 사업화를 목표로 한다.

전류센서는 전류의 흐름을 홀소자를 이용해 감지하는 센서로 나노게이트는 수 나노미터(㎚) 두께의 금속성 자성 박막을 적용한 금속 기반 자발 홀 소자를 개발해, 기존 반도체 기반 홀소자와 비교해 △5배 이상의 감지 거리, △250도 이상의 작동 온도, △1/100 이하의 출력잡음 등의 우수한 특성과 양산체계를 확보했다.

호경근 지니틱스 대표는 “현재 지니틱스는 터치, 햅틱, AF/OIS, DC-DC, MST IC 등 모바일부문 위주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번 계약을 통해 세계최초 금속다층박막 홀소자 기술이 적용된 경쟁력 있는 전류센서 IC를 개발해, 신재생에너지, 로봇,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의 사업영역 확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부분 외산 제품들을 적용하고 있는 글로벌 전류센서IC(약30억 불 규모) 시장에서 지니틱스가 전류센서IC의 국산화에 성공해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발전과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하고 싶다” 는 포부를 밝혔다.

김태완 나노게이트 대표는 “금속다층박막 홀소자의 양산성 확보를 위해 지난 10여 년간 개발에 매진한 결과 이제야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 이번 지니틱스와의 공동개발 계약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류센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홀소자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두 회사의 협업을 통해 해외 기업들이 독점해 온 새로운 산업분야로의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Company = "지니틱스"

Year = 2024

Article =

"""

지니틱스은 기존 모바일 및 웨어러블 기기의 터치 IC 제품 공급 경험을 기반으로, 노트북 및 태블릿 북커버의 터치패드 모듈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진출을 선언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지니틱스는 터치, 햅틱, 파워 IC와 같은 스마트 기기 특화 제품을 통해 한국을 넘어 중국,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 왔다. 특히, 삼성전자뿐 아니라 샤오미, BBK 등 주요 글로벌 제조사에 웨어러블 IC를 공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노트북 및 태블릿 북커버용 터치패드 모듈 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삼성전자 및 글로벌 제조사에 탑재된 터치패드 모듈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니틱스는 삼성전자 노트북 및 태블릿 북커버 터치패드 분야에서 경쟁력을 입증했으며, 최근에는 중국 태블릿 북커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다년간의 모바일 기기용 터치 및 햅틱 IC 양산을 통해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UX) 혁신의 핵심인 햅틱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 중심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지니틱스가 스마트 기기 및 IT 디바이스 분야에서 한 단계 도약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지니틱스 권석만 대표는 “지난 8월, HMI(헤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가 지니틱스의 최대 주주로 참여한 이후, 글로벌 시장 확대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해 조용히 준비해 왔다”며, “모바일과 웨어러블 제품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노트북, 가전, 자동차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니틱스는 AI 노트북 등 노트북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주목해 왔으며, 이번에 터치패드 모듈의 진출은 그 첫 발걸음이다. 앞으로는 노트북 시장을 넘어 가전제품 및 전기차 시장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자사의 시스템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

Company = "지니틱스"

Year = 2025

Article =

"""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지니틱스가 최대주주인 중화권 자본과의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며 핵심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니틱스는 지난해 8월 중화권 반도체 기업인 헤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Halo Microelectronics International Corporation·HMI)을 새로운 최대주주로 맞이했다. 이후 새로운 경영진 체제로 전환되며 체질 개선에 나섰고, 그 결과 지난해 매출 540억 원, 영업이익 흑자전환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삼성전자 출신인 권석만 지니틱스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한 국내 이사진은 주요 고객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해 말에는 사업 다각화 및 신규 시장 진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4월 HMI 측이 돌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표면화됐다. 최대주주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기존 이사진 전원을 해임하고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를 이사진으로 선임하겠다는 입장이다.  
  
HMI 측이 제안한 신규 이사 후보는 타오 하이(TAO HAI) HMI 대표이사, 웨궈 하이(YUEGUO HAI) HMI 이사, 홍근의 헤일로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코리아 대표이사 등이다. 이 중 타오 하이 이사와 웨궈 하이 이사는 중국 국적의 인사로, 국내 상근 이사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 경영진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지니틱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에 접근하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기술 및 고객 네트워크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이사진을 전면 교체하려는 움직임은 기술 유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 자본의 국내 기술 기업에 대한 지분 확보와 경영 개입이 잇따르며 기술 유출과 산업 주도권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져 왔다.   
  
지니틱스 역시 중화권 자본이 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국내 대표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 외국 자본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당하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재 경영진이 이탈하게 되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과의 신뢰 기반이 흔들릴 수 있으며, 이는 지니틱스가 보유한 핵심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지니틱스는 삼성전자의 1차 밴더로, 기술력뿐만 아니라 거래 안정성과 기밀성이 중요한 경쟁력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주가 하락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한 일반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   
  
경영권 분쟁이 기술 보호를 넘어 기업의 존속과 투자자 보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셈이다.  
  
IB업계 관계자는 “현 경영진은 국내 시장과 고객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실적 개선을 이뤄냈지만, 중국 측 인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은 삼성전자 등 핵심 파트너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니틱스의 기술력과 거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사 교체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

Company = "두산테스나"

Year = 2022

Article =

"""

두산테스나가 두산그룹의 새로운 미래먹거리의 중심축으로 떠올랐다. 두산은 올해 4600억원을 투자하며 두산테스나의 새로운 주인이 됐다. 과거 중후장대 위주 사업을 벌였던 두산은 최근 한계를 실감하고 신재생 에너지, 첨단IT 등 신사업을 확대했다. 로봇과 드론, 수소전지 사업으로 운신의 폭을 확대한 가운데 이번 두산테스나 인수로 미래산업의 구심점인 반도체에도 손을 뻗었다.  
  
두산테스나는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외주기업(OSAT) 중에서도 반도체 테스트에 특화된 '테스트 하우스'다. 글로벌 OSAT 산업의 연간 테스트 매출에서 10위권 안팎에 위치한다. 현재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TSMC의 후광을 등에 업은 대만업체로 두산테스나는 이들을 제치고 5위권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투자를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파운드리 물량 증가 등이 전제돼야 하지만 목표는 제법 현실적으로 평가받는다. 글로벌 최상위 3개 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기업이 두산테스나와 비슷한 수준의 연간 매출을 기록하고 있거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두산은 인수 직후 두산테스나에 대한 1조원 규모 투자와 증설 계획을 신속하게 발표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산테스나, 부활한 두산의 승부수 '반도체가 미래다'**  
  
두산은 3월 8일 이사회를 통해 테스나 인수를 확정했다. 이전 최대주주인 에이아이트리 유한회사로의 전량인 지분 38.7%를 4600억원에 가져왔고 4월 두산테스나의 출범이 공식화됐다. 최근 두산은 수소 연료전지, 협동로봇 같은 신사업 확장에 집중하는 기조를 보였다. 이번에는 국내 반도체 테스트 분야 1위인 두산테스나를 인수해 반도체 분야로도 발을 넓히며 기존 사업에 새로운 색을 섞겠다는 의지를 한 번 더 강조했다.  
  
과거 두산은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DST처럼 건설기계, 방산 등 중후장대 사업체 위주의 구조를 가졌다. 하지만 국가별 정책과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양적 성장도 제한적인 중후장대의 특성에 한계를 느껴 체질 개선을 모색해왔다. 장기간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새 출발에 나선 두산은 차세대 에너지와 산업기계에 이어 반도체 및 첨단IT를 3대 사업축 중 하나로 내세웠다.

특히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그룹 반도체 사업의 출발점인 두산테스나에 막대한 관심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6월 두산테스나 사업장을 방문한 당시에도 반도체가 두산의 새로운 승부처로써 기존 핵심 사업과 더불어 또 다른 성장의 축이 될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두산테스나가 향후 두산의 미래사업계획에서 중요한 입지를 가지게 될 것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두산 관계자는 "박정원 회장은 수소 연료전지와 협동로봇, 드론, 물류자동화 등 에너지 및 첨단 IT 사업 진출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며 "앞선 산업에서 발생 중인 메가트렌드의 궁극적인 종착지가 반도체 기술의 발전 및 수요 증가라는 판단 하에 두산테스나 인수로 반도체 사업 진출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OSAT 중 테스트 매출 5위 진입' 출사표, 글로벌 경쟁 기업 들여다보니**  
  
두산그룹은 두산테스나를 인수하면서 '반도체 테스트 분야(OSAT 업체 중) 매출 글로벌 5위 진입'을 출사표로 던졌다. 지난해 두산테스나의 반도체 테스트 매출은 2076억원 규모로 국내에서 1위다. 반면 글로벌에서 두산 테스나의 위치는 10위권 안팎으로 5위 도달까지는 몇 계단을 올라서야 한다. 쉽지 않은 목표로 보이지만 글로벌 OSAT, 테스트 하우스가 거두는 반도체 테스트 매출을 들여다 보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테스트 분야에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업체는 ASE, KYEC, 엠코(Amkor, 미국)다. 대만 국적의 비중에서 알 수 있듯 글로벌 반도체 테스트 분야에서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대만 업체다. 이들은 연간 반도체 테스트로만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업계 선두인 ASE는 종합 OSAT 업체로 전체 매출의 9%가 반도체 테스트 사업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기준 ASE 실적 발표 자료에 따르면 매출은 5700억대만달러(24조8350억원)로, 반도체 테스트 매출은 513억대만달러(2조2350억원)다. 2위 KYEC는 테스트 전문 업체로 지난해 337억6000만대만달러(1조472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3위 엠코는 매출 비중이 13%인 반도체 테스트 사업에서 8억6000만달러(1조500억원)를 벌어들였다.

반면 4위권 이하 기업의 매출은 최상위 3개 기업과 차이가 크다. 그나마 연간 매출 규모가 큰 JCET(중국)나 PTI, 아덴텍(Ardentec)도 5000~6000억원 정도다.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2000억원이나 1000억원 또는 그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두산테스나의 연 매출 규모와 큰 차이가 없는 만큼 투자 여부에 따라서 4~6위권을 충분히 넘볼 수 있는 셈이다.  
  
두산은 20% 수준의 연평균성장률(CAGR)을 목표로 두산테스나에 1조원 규모에 이르는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6월에는 미국 업체로부터 1240억원 규모의 테스트 장비를 추가로 들여왔다. 2024년 말 준공 목표로 신규 공장 건설도 추진 중이다. 매년 20%의 성장폭을 달성한다면 두산테스나가 현재 세운 목표인 글로벌 5위권 수준의 5000~6000억원대 매출은 2026년 또는 2027년에 달성 가능할 것으로 계산된다.

"""

Company = “두산테스나”

Year = 2023

Article =

"""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이 꼽은 미래 신사업 ‘반도체 후공정’ 기술 수익성이 기대에 못미치며 아쉬움을 남겼다. 두산 품에 안긴 지 1년을 갓 넘긴 ‘신형 엔진’ 두산테스나의 올해 1분기 수익성은 반도체 경기 침체로 하락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두산테스나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46억원과 11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대비 매출은 24%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20% 줄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20%, 영업이익은 52% 감소했다. 두산테스나의 1분기 가동률을 보면 웨이퍼 테스트 분야 63.2%, PKG 테스트 분야는 30.6%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평균 생산시설 가동률(웨이퍼 테스트 71.1%‧PKG 테스트 46.4%)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두산테스나는 두산이 지난해 3월 지분 100% 자회사 두산인베스트를 통해 인수한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전문 기업이다. 중공업 분야에 몰두해온 두산이 반도체 기업을 인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후 두산은 반도체·첨단소재 사업을 기존 사업군인 친환경에너지·기계, 자동화 부문 외에 두산의 사업 포트폴리오 한 축으로 삼고 육성하고 있다.  
  
수익성 6개월만에 '뚝'..."중장기 성장성 봐야"  
  
두산테스나는 인수 첫 해인 지난해 24.2%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인수 전인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23.1%, 26%의 영업이익률을 보였다. 매출은 2020년 1325억원, 2021년 2076억원, 2022년 2777억원으로 증가했고 영업이익 역시 2020년 306억원, 2021년 541억원, 2022년 672억원으로 상승그래프를 그렸다. 주력 사업인 웨이퍼 테스트 생산실적을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키우며 두산의 ‘캐시카우’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수익성 하락은 의외다. 모바일 수요가 부진하면서 생산시설 가동률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실적에 대한 시장의 분석이다.  
  
두산테스나의 올해 1분기 실적은 기대치에 못 미쳤지만 시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남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모바일 수요 약세"라며 "시스템온칩(SoC) 내 모바일프로세서(AP), 이미지센서(CIS) 실적 모두 하락 폭이 컸다"며 "2분기에는 매출 755억원, 영업이익 124억원을 거둬 1분기보다 각각 1.2%, 4.9%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궁 연구원은 "뚜렷한 실적 개선세는 2분기가 아닌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이라며 "차량용 반도체 실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부회장은 “신사업의 방점은 반도체에 찍혀 있다”고 언급할 정도로 두산테스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박 부회장은 올해 2월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반도체 후공정은 아웃소싱을 많이 하는데, 이와 관련한 기술 개발은 (반도체 생산)본업을 굉장히 도와줄 수 있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두산테스나는 지난해에만 약 2790억원을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할 정도로 적극적인 시설 투자에 나서고 있다. 박정원 두산 회장 역시 지난해 6월 두산테스나를 ‘글로벌 톱5 기업’으로 이끌겠다며 5년간 1조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두산테스나의 기술력과 인프라는 기대요인으로 꼽힌다. 두산테스나의 테스트 품목은 웨이퍼·PKG 두가지로 나뉘는데, 주력은 웨이퍼 테스트 분야(국내 점유율 1위)다. 이 회사의 웨이퍼 테스트 생산능력은 2020년 1870억원에서 2년만에 3615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실 생산실적도 1160억원에서 2569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PKG 테스트 가동률은 다소 떨어졌지만, 수익성 높은 웨이퍼 테스트를 중심으로 전박적인 생산 실적이 증가한 셈이다.  
  
또 두산테스나는 2분기 들어 경기 평택시에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새로운 공장을 증설하기로 결정하고 착공에 들어갔다. 기존 두산테스나 공장 중 가장 큰 경기도 서안성 공장과 맞먹는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테스나는 비메모리 테스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지난해 7월에는 평택에 1200억원, 지난해 말에는 평택 및 안성 공장에 1000억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등 사업 확장을 적극 추진해왔다.  
  
다만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한계로 볼 수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고객사로부터 모바일 AP(어플리케이션프로세서, CIS(CMOS 이미지센서) 등의 테스트 수주를 받는데, 삼성전자 수주 물량이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또 스마트폰 비메모리 테스트에 집중하고 있어 전장용 매출 비중은 15~20% 선에 그친다. 일각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테스트 물량 확보로 매출과 이익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장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올해 760억 달러(약 97조원)에서 2029년 1430억 달러(182조원)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삼성전자가 완성차 제조사와 차량용 반도체 협력을 논의하는 등 사업 확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두산테스나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두산테스나 관계자는 "테스트 분야 경험과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넘버원 파트너'를 지향점으로 나아갈 계획"이라며 "테스트 장비·첨단 패키징 등 반도체 생태계 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추가 진출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후공정을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

Company = “두산테스나”

Year = 2024

Article =

"""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반도체를 신사업으로 낙점하고 육성해온 두산테스나가 그룹의 알짜 계열사로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 업황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테스나를 인수한 박 회장의 선택이 적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산테스나는 앞으로 두산그룹 성장의 한 축을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연구개발(R&D)과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 반도체 업황 회복에 '미소'…실적·생산능력 '상승세'  
  
11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테스나는 두산그룹의 신성장 동력 중 하나인 웨이퍼(반도체 원판) 후공정(테스트) 사업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올해 두산테스나가 별도 기준 매출 4049억원, 영업이익 73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대비 매출은 19.6%, 영업이익은 20.6% 증가한 수치다.  
  
박정원 회장은 2022년 4월 반도체를 그룹의 새 성장 축으로 삼고 반도체 테스트 기업 '테스나'를 인수했다.  
  
㈜두산은 테스나를 4600억원에 인수한 뒤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며 후공정 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박 회장이 반도체 사업이 그룹의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크지 않음에도 성장성을 보고 과감히 투자한 것으로 재계는 평가한다.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 설계자산(IP)만 전문 개발하는 'IP 업체'와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업체', 외부 업체로부터 위탁받아 칩 생산만을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 업체', 가공된 웨이퍼를 조립하거나 패키징 또는 테스트만을 전문으로 하는 '패키징·테스트 업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종합 반도체 업체(IDM)'로 구분된다.  
  
테스트 사업은 통상적으로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웨이퍼 단계의 테스트와 패키징 후 마지막 출하 전 테스트의 2회 테스트를 수행한다. 두산테스나는 웨이퍼 테스트와 패키징 테스트 모두 수행한다.  
  
두산테스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주요 테스트 제품은 스마트 기기의 두뇌와 눈·귀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카메라이미지센서(CIS), 무선통신칩(RF) 등이다.  
  
두산테스나는 현재 평택 본사, 안성공장, 서안성공장을 운영 중이며, 평택에 신공장을 짓고 있다. 신공장은 지하 1층을 포함해 총 5개 층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전망된다.  
  
두산테스나 관계자는 "평택 사업장에서 웨이퍼 테스트 관련 R&D를 진행 중"이라며 "연구소는 웨이퍼 테스트와 패키지 테스트의 R&D를 동시에 주관하고 있고, 삼성전자 외에 여러 팹리스 업체용 제품에 대한 테스트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두산테스나의 웨이퍼 테스트 생산능력은 2022년 3615억원에서 지난해 4640억원으로 28.4%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는 1328억원을 올려, 지난해 연간 기록을 뛰어넘을 태세다.  
  
이와 함께 두산테스나는 이미지센서(CIS) 반도체 후공정 전문 기업 '엔지온'을 인수하며 시너지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엔지온은 테스트를 마친 이미지센서 반도체 웨이퍼에서 양품의 칩을 선별해 재배열하는 공정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엔지온은 이미지센서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구동칩(DDI), 지문인식센서(Touch IC)를 비롯해 최근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 반도체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확보하고 있다. 업계에선 두산테스나가 추가 인수합병(M&A)을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두산테스나가 올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1700억원의 자본적지출(CAPEX)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를 전장용 '단일 칩 시스템(SoC)' 테스트를 위한 장비 매입에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경 하나증권 연구원은 "두산테스나는 고객사 내 전장용 SoC 테스트의 솔벤더(단독 공급사)로서 국내 완성차 업체의 자체 SoC 개발에 따라 내년 말부터 2026년까지 물량 증가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Company = “두산테스나”

Year = 2025

Article =

"""

두산테스나는 두산그룹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인수한 반도체 테스트 기업이다. 미래 청사진을 책임질 후보인 만큼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다. 이를 지휘하고 있는 건 김윤건 부사장이다. 30년 넘게 두산그룹에 몸담은 김 부사장은 두산테스나 신규 CFO이자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중공업부터 유통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재무 경험을 살려 두산테스나의 성장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다만 최근 모바일 업황 부진에 따라 수익성이 꺾이면서 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향후 보수적인 설비투자로 전략을 변경하고 재무 안정성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산업차량·유통 거쳐 반도체까지 맡은 '팔방미인'**  
  
김윤건 CFO는 1968년생으로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직후 두산식품에 1991년 입사해 두산그룹 생활을 시작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우물을 판 인사다.  
  
2010년부터는 두산 지주부문 상무로 승진해 재무 관리를 맡았다. 이후 두산의 동박적층판을 만드는 두산전자BG로 이동해 경영총괄을 맡았다. 재무를 포함한 운영 전반을 이끌었다.  
  
이후 성과를 인정받은 그는 5년 만에 전무로 승진해 산업차량BG로 자리를 옮겼다. 2021년에는 부사장 직급으로 두산 사업부문 경영전략 담당과 유통BU장을 맡았다. 중공업부터 면세 등 유통까지 다방면에서 활약했다.

그에게 두산테스나 대표이사 겸 CFO라는 중책이 맡겨진 것은 2022년 4월부터다. 두산그룹이 삼성전자 협력사로 유명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기업인 테스나를 품에 안으면서 김 부사장이 두산테스나를 진두지휘하게 됐다.  
  
채권단 관리 체제를 벗어난 두산그룹이 향후 캐시카우로 반도체 사업을 점찍은 만큼 초대 CFO인 김 부사장의 역할이 중요했다. 당시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5년 간 1조원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히며 공격적인 투자에 돌입했다.  
  
김 부사장을 주축으로 두산테스나가 성장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특히 장치 산업인 반도체 테스트 분야는 보유한 장비가 늘어날수록 매출로 직결되는 구조다. 두산테스나의 외형 확장을 위해 꾸준히 대규모 설비투자(CPAEX)가 이뤄졌다.  
  
취임 첫 해인 2022년 두산테스나 CAPEX는 2566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2분기까지만 해도 신규 CAPEX는 370억원이었는데 3분기에는 517억원, 4분기에는 1007억원 규모 CAPEX가 발생했다. 고객사 수주에 맞춰 신규 테스트 장비를 늘려나갔다.  
  
이러한 투자활동은 꾸준히 이어졌다. 두산테스나의 유형자산 취득에 따른 현금 유출 규모는 2023년 1718억원, 2024년 1832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에 따라 2년 만에 매출액은 2776억원에서 3731억원으로 34% 증가했다.  
  
**◇유동비율 '90%→62%' 하락, 해외 고객사 확보 총력**  
  
다만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는 점은 문제다. 두산테스나는 2024년 영업이익 380억원, 순이익 36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각각 전년 대비 37.6%, 25.1% 감소한 수치다. 모바일 업황 부진에 따라 고객사 제품의 재고조정이 이뤄진 영향이다.  
  
향후 김 부사장은 업황을 고려해 두산테스나 설비투자 규모를 줄이고 재무 안정성에 집중할 전망이다. 후공정 분야가 올해도 어려운 만큼 시설투자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난 2년 간 투자를 늘려왔기 때문에 당장 추가 장비 투자 없이도 수주 물량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2024년 연말부터 이미지센서(CIS) 가동률이 60% 이하로 하락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 2년 간 투자를 지속해 온 만큼 차입부담이 커지고 있다. 2022년 39%를 기록했던 유동비율은 2023년 90%로 상승했다가 2024년 62%로 다시 하락했다. 유동비율이 100% 미만이라는 것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보다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이 더 많다는 뜻이다.  
  
따라서 김 부사장은 보다 보수적인 재무 전략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차입규모를 조절하며 현금을 비축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말 두산테스나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650억원을 기록했다.  
  
동시에 이익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만 등 해외 고객사 확보에 매진한다. 2024년 2월 인수한 CIS 반도체 후공정 기업 엔지온을 활용해 물량에 대응할 계획이다. 두산테스나가 엔지온 흡수합병을 마친 만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Company = "ISC"

Year = 2022

Article =

"""

글로벌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기업 아이에스시(ISC)가 지난 19일 성남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TALK to YOU’를 주제로, 회사에 대한 임직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열린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아이에스시(ISC) 김상욱·김정렬 각자 대표는 물론, 입사 1년 미만의 신입사원부터 10년 이상의 장기 근속자까지 다양한 세대와 직급의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생활의 고충 ▲업무상 애로사항 ▲회사에 바라는 점 ▲사내 제도 개선 ▲조직문화 아이디어 등 회사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사안이 자유롭게 논의됐다.

특히 모든 질의가 오픈 채팅을 통해 익명으로 진행돼 참여에 대한 부담감 없이 누구나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다. 조직문화 관련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현재의 조직문화에 대한 직원들의 생각과 제안을 공유하는 등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발전적인 대화도 이뤄졌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아이에스시(ISC) 신입사원은 “평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대표님과 대화하는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 새로운 경험이었고, 접하기 힘든 경영진의 생각과 경영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값진 시간이었다”며, “나의 작은 아이디어가 회사와 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회사가 추진하는 사항에 관심을 두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이에스시(ISC) 김상욱 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경청하며 실무 측면에서의 고충을 알게 되고 직원들과의 간극이 좁혀져 더욱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사내 소통창구로서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이어가며 사내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발전에 힘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에스시(ISC)는 올해 ‘GO, STOP, CHANGE’ 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바나나 캠페인, 원데이 클래스 등 사내 조직문화 활성화에 주력해 왔으며, 내년에는 더욱더 활발한 조직문화 활동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Company = “ISC”

Year = 2023

Article =

"""

반도체 테스트 장비업체 ISC가 SKC 출신 경영진을 새로 맞이한다. 박원철 사장을 필두로 SKC 측 임원들이 ISC의 이사회를 채울 예정이다. 인수작업이 완전히 끝나기에 앞서 경영진을 교체하며 인수 후 통합(PMI) 작업을 선제적으로 실시, 반도체 소재 계열사와 시너지 확대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ISC는 오는 16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SKC 및 계열사 출신 사내이사 4인을 신규 선임한다. SKC의 대표이사인 박원철 사장과 김종우 SK엔펄스 대표, 김선혁 SKC BM혁신그룹장, 이동훈 SK엔펄스 경영지원본부장이 ISC 이사회에 참여하게 된다. SK엔펄스는 SKC의 자회사다.  
  
SKC가 ISC 지분 취득을 위해 남은 잔금 3328억원을 9월 27일 지불할 예정이다. 최대주주 변경 및 이사진 교체도 이 시점에 실시된다. 이사진 재정비에 선제적으로 나서며 인수 후 통합(PMI) 작업에 속도를 내려는 모습이다.  
  
ISC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이 이루어짐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선임 안건"이라며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사 선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인수가 완료되면 SKC의 지분율이 45%, 헬리오스PE의 지분율은 2~3%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임시 주총에서 안건이 결의되면 기존 경영진이 물러나고 새로 선임된 SKC측 임원들이 이사회의 주류가 된다.  
  
**◇'신사업 전문' 박원철 사장, 영향력 확대**  
  
ISC의 대표이사는 임시 주총 이후 진행되는 이사회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신규 선임될 SKC 측 사내이사 중 대표이사가 선출될 전망이다. 다만 박 사장이 ISC 대표이사 직책을 겸직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SKC는 물론 SK그룹 전체적으로 봐도 모회사 대표이사가 자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 사장(**사진**)이 대표이사를 맡지는 않더라도 이사회에 참여해 의장 직책을 수행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현재 박 사장은 SKC의 자회사인 SK넥실리스·SK엔펄스·앱솔릭스(Absolics Inc.)·SK피아이씨글로벌의 이사회에 의장으로 참여 중이다. ISC 이사회에도 입성하게 된 만큼 의장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자회사들을 아우르는 역할을 하며 SKC의 신사업 추진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모습이다. SKC는 이차전지 소재와 반도체 소재를 미래 사업의 양대 축으로 보고 있다.  
  
박 사장이 의장을 맡은 자회사 중 SK넥실리스가 이차전지 소재인 동박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SK엔펄스, 앱솔릭스 및 이번에 인수하는 ISC가 반도체 소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실제 박 사장은 2018년부터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글로벌 성장과 사업 발굴을 맡아 온 신규 사업 전문가로 다수의 글로벌 투자를 주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딥체인지 '동분서주'하는 BM혁신실**  
  
SKC는 2019년 이래로 고강도 사업재편을 진행 중이다. 그간 SKC는 SKC솔믹스 및 SK텔레시스의 사업 전환 및 합병, SKC코오롱PI 지분 매각, SK바이오랜드 지분 매각에 더해 회사의 근간인 필름 사업까지 매각했다.  
  
이와 더불어 SK넥실리스, 앱솔릭스 등에 대한 과감한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화학사에서 이차전지·반도체 소재로 변모하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조직으로는 BM혁신추진실 등이 지목된다.  
  
BM혁신추진 관련 조직에 소속됐던 임원들 중 자회사에 내려가 SKC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BM) 추진을 지원하는 인물들이 많다. ISC 이사회에 참여하게 된 김종우 SK엔펄스 대표도 2021년까지 SKC에서 BM혁신추진단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또 현재 SKC의 BM혁신그룹장을 담당하고 있는 김선혁 그룹장도 ISC 경영에 관여하게 됐다.  
  
SKC의 신규 BM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들이 ISC 이사회에 참여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ISC는 반도체 소재 사업을 펼치고 있는 다른 SKC 자회사들과 시너지를 고려한 통일성있는 성장전략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K엔펄스는 CMP패드, 블랭크 마스크 등 반도체 전공정 분야 제품을 생산한다. 앱솔릭스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패키징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반도체 글라스 기판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ISC 인수로는 반도체 후공정 사업을 강화할 수 있다. ISC의 주력 제품인 테스트용 소켓은 반도체 후공정의 핵심 소모품으로 꼽힌다.

"""

Company = “ISC”

Year = 2024

Article =

"""

아이에스시(ISC)는 신임 공동대표로 SKC의 유지한 경영지원부문장(CFO)이 취임했다고 6일 밝혔다.  
  
신임 CFO로는 박진우 SKC 재무본부장이 임명됐으며 사업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회사 측은 이번 개편은 의사결정 속도와 실행력을 제고해 주력사업의 본원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사업 확장을 통한 스케일업 추진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신임 공동대표로 취임한 유지한 대표이사는 SKC 경영지원부문장(CFO)을 겸직해 반도체 후공정 사업 간 시너지를 확대한다.  
  
또 ISC가 최근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언급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스케일업 작업도 진두지휘한다.  
  
ISC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 및 신임 경영진 인사로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분야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Company = “ISC”

Year = 2025

Article =

"""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기업 ISC는 회사 유지한 대표가 장내매수를 통해 회사 주식 2150주를 매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약 1억원 규모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글로벌 빅테크, ASIC(맞춤형반도체) 고객사 양산 테스트 소켓 시장 진입으로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했으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에 대한 경영진의 자신감을 시장에 표명하기 위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ISC는 지난해 메모리 및 논(Non)-AI(인공지능) 시장의 감산 기조에도 AI 반도체와 비메모리 부문의 높은 매출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며 사업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적극적인 후공정 테스트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주력 사업의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어 ISC의 실적은 이번 1분기를 저점으로 연말까지 우상향하며 매출, 영업이익 모두 최대치 달성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ISC 관계자는 "이번 자사주 매입은 단순히 주가 부양을 넘어 회사의 실적 성장 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책임감 있는 경영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지속 창출하고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최대 실적이라는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Company = "젬백스"

Year = 2022

Article =

"""

 젬백스는 현재 회생 진행 중인 바이오빌이 젬백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사건에 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 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제기된 민사소송은 지난 2012년 바이오빌과의 거래에 대하여 바이오빌 이사회 결의가 형식적 흠결이 있어 그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소송이다. 소송을 제기한 바이오빌은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바이오빌은 전임 대표이사 및 경영진이 횡령 및 배임으로 1심에서 2~3년 판결을 받았으며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된 바 있다.  
  
바이오빌은 이전 회생 진행중에도 과거 경영진에게 수차례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혐의가 없다고 밝혀졌다.  
  
젬백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바이오빌이 제기한 민사 소송으로 젬백스가 책임질 일은 없다"며 "당시 젬백스는 바이오빌과의 거래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오빌이 반복적이고 무책임한 민사소송으로 젬백스에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을 할 것이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사업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

Company = “젬백스”

Year = 2023

Article =

"""

코스닥상장사 젬백스링크 소액주주들이 주가 하락과 방만 경영을 두고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차례 전환사채(CB)를 발행한 탓에 주가는 급락했지만, 경영진은 주가 방어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주들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조직하고, 경영진 교체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젬백스링크는 상장 후 총 13차례 CB를 발행했으며, 이 가운데 김상재·서영운 대표가 경영을 맡은 2017년 3월 29일 이후에만 7차례 CB를 발행했습니다. 무분별한 CB 발행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상재·서영운 대표가 경영을 맡은 2017년 3월 30일 당시 주가는 4935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1431원(14일 종가)으로 무려 71% 하락한 상태입니다. 또 김상재·서영운 대표 취임 전 발행된 주식수는 3965만6564주였지만, 그 후 5년 8개월 동안 주식수는 8374만7117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결국 CB 남발로 총 주식수가 늘면서 주가는 떨어졌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18일 공시된 정정 분기보고서를 보면 미상환 CB 규모는 총 216억원에 달합니다. 2021년 6월 30일 발행된 제12회 50억원과 같은 날 발행된 제13회 166억원입니다.   
  
12회와 13회 CB 모두 만기일은 2024년 6월 30일입니다. 분기보고서 상 자금사용 내역은 운영자금 및 물품구매대금입니다. 반면 비대위 측은 CB 발행 목적과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사업보고서를 봐도 2021년 6월 CB를 발행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전히 회사는 CB 발행에만 몰두할 뿐 주주 가치에는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2018년 5월을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IR도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 측은 자금을 미래사업과 위기 대응에 활용할 것이라 했지만, 그동안 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젬백스링크는 지엘케이에쿼티인베스트(옛 크리스에프앤씨인베스트), 젬백스링크아이, 젬백스인베스트 등 계열사를 두고 있는데 이 계열사들이 미래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젬백스링크의 손자회사인 지엘케이앤대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미래사업이나 미래위기 대응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심지어 법인등부등본상 벤처투자나 기업 M&A 중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엘케이에쿼티인베스트가 29억원어치의 미술품을 구입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비대위는 주식 공동보유 약정(주주 42명)을 맺은 상태이며, 6.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의 주식 공동보유 약정으로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최대주주인 젬백스엔카엘(23.46%)과 비대위 두 곳이 됐습니다. 비대위는 주총 표대결을 통한 경영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문경영진으로 교체해 경영과 주가를 정상화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젬백스링크는 최근 경영진에 변화를 줬습니다. 젬백스링크는 지난 1월 16일 김상재·서영운 대표이사 체제에서 김상재·황정일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했습니다.

"""

Company = “젬백스”

Year = 2024

Article =

"""

첨단 자율주행사업 진출을 알린 젬백스링크(064800)가 신사업의 본격화 및 미래 성장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경영진 영입에 나섰다.

8일 젬백스링크에 따르면 최근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통해 세계적인 자율주행 기업 포니에이아이(Pony.ai)의 제임스 펑(James Peng) 회장을 비롯해 티안 가오(Tian Gao) 부사장, 레오 왕(Haojun (Leo) Wang)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앞서 젬백스링크는 포니에이아이와 기타투자자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 소식과 함께 각각 50%의 지분을 투자한 국내 합작법인 설립추진을 통해 한국에서의 첨단 자율주행사업 진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신임 이사로 선임될 예정인 제임스 펑 회장은 포니에이아이의 설립자이자 CEO다. 제임스 펑 회장은 2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한 개발자이자 경영인으로, 구글과 바이두와 같은 글로벌 IT 회사에서 자율주행, 인프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티안 가오 부사장은 뉴욕과 중국 변호사 협회에 속한 법률 전문가로, 미국 대형 로펌인 클리어리 가틀립(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의 변호인단으로 구글, 바이두, 레노보, 소니 등 글로벌 기업들을 대변했으며, 중국 상위 10위권 투자회사인 호니 캐피털(Hony Capital)에서 법률 국장을 맡았다.

포니에이아이 창립 멤버이기도 한 레오 왕 최고재무책임자는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가진 재무전문가이다. IBM 실리콘 밸리 연구소에서 빅데이터 정보 시스템 개발과 분석 프로젝트 등에 참여했고, 바이두에서 자율주행차 개발을 이끌며 미국에서 바이두 자율주행차 초기 모델의 도로주행 테스트를 성사시켰다.

전문성을 갖춘 포니에이아이 주요 인사가 젬백스링크 경영진으로 합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 시장 진출 및 자율주행 분야 시장 확장에 대한 양사의 진정성 있는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포니에이아이는 레벨4(고도 자동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자율주행 전문기업이다. 제임스 펑 회장은 글로벌 IT업체인 구글, 바이두의 엔지니어출신으로 자신이 설립한 포니에이아이를 세계적인 자율주행 전문기업으로 이끌었다.

포니에이아이의 경쟁력은 레벨4 단계의 자율주행차량을 가장 먼저 상용화시킨 독보적 기술력이다.

포니에이아이는 중국 내 주요 도시인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선전에서 완전 무인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한 최초의 기업이며, 베이징에서는 현재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완전 무인 택시(RoboTaxi)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젬백스링크 관계자는 "젬백스링크의 핵심 역량과 새롭게 영입될 이사진의 특화된 역량 및 경험에 기반한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문성을 갖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한국에서의 자율주행사업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자료(ASTI Market Insight)에 따르면, 현재 세계 자율주행 통합솔루션 시장은 2024년 28조7200억원(217억8600만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21.7% 성장해 2028년에는 62조9600억원(477억6700백만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 또한 올해 1조4400억원(10억9200만달러)에서 연평균 16.2% 성장세를 보이며 2028년 2조6200억원(19억89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

Company = “젬백스”

Year = 2025

Article =

"""  
젬백스앤카엘(이하 젬백스)의 최대주주이자 전 회장인 김상재 고문이 채무 면탈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17일 확인됐다. 김 고문이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는 젬백스가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담보물 변경을 신청하다 보니, 과연 바이오빌이 채권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젬백스와 바이오빌은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식 매수를 두고 12년째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1심에서 젬백스가 일부 패소했다.

지난해 12월 젬백스는 바이오빌에 담보물 변경 신청을 했다. 신청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김상재 고문이 과거 판결에 따른 채무를 면탈해 기소된 바 있음이 새롭게 확인됐다.

그는 과거 판결로 인해 발생한 채무 67억원을 정 모 씨에게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탈해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드러난 것이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젬백스 관계자는 “위 사안은 회사와 관련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고문은 작년 초 젬백스 경영진에서 물러났으나, 현재도 고문직을 맡아 회사에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젬백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 고문을 제외한 주요 이사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 퇴직위로금과 관련해 젬백스는 “지속적 유대강화를 위해 7억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그의 회사 내 영향력이 여전함을 시사한다.

이 같은 상황이다 보니 젬백스의 담보물 변경 신청은 그의 과거 전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바이오빌과 젬백스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일어난 배경은 김 고문이 깊이 개입돼 있다.

지난해 11월 재판부는 젬백스 측에 175억원과 이자 108억원 포함해 총 283억원을 바이오빌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상재 고문이 바이오빌의 대표이사인 시절, 젬백스의 대표이기도 했다. 해당 거래가 있던 시기 원고 바이오빌과 피고 젬백스의 대표이사를 겸임 중이었다는 의미다.

2012년 바이오빌은 한국줄기세포뱅크 지분을 젬백스로부터 인수했다. 바이오빌은 인수 대가로 젬백스에게 전환사채(CB) 175억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해당 거래는 최대주주인 젬백스가 보유한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기에 이사회 특별승인 사항이었다. 하지만 바이오빌은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2012년 6월 25일 이사회에서 이사 총 7명 중 4명(김상재, 김택근, 최영석, 이해청)만 출석해 주식양수도계약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 김상재 등은 바이오빌의 이사로서 상법 398조를 위반해 원고의 이사회에서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을 승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거래는 무효다. 그렇기에 원상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되돌아가야 할 CB가 없다보니 젬백스는 바이오빌에 그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만약 그가 대표이사로서 주의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채무"라면서 “그의 부주의가 스노우볼이 돼 젬백스에 부담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그는 “김 고문이 회사에 영향력을 끼칠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채무 면탈로 실형 선고도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면서 “그렇기에 담보물 변경이 된다면 바이오빌이 채권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Company = "제우스"

Year = 2022

Article =

"""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및 로봇 전문기업 ㈜제우스(079370, 대표이사 이종우)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30억 원(누적 316억 원)을 기록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제우스가 14일 공시를 통해 2022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제우스의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은 연결 매출액 3,602억 원, 영업이익 316억 원, 당기순이익 243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6.7% 성장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27.2%, 96.9%로 대폭 증가했다.  
  
제우스 관계자는 “지난 2분기에는 신제품 연구개발 비용이 집중 투입되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일부 지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 영향으로 반도체 장비 납품이 지연되며 실적이 기대보다 다소 미진했었다”며, “3분기에는 성공적으로 신제품 개발을 마무리하고 일부 지연됐던 반도체 장비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적극적인 국내외 영업 활동으로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용 로봇과 공정 장비 등 전 사업 부문의 매출이 크게 늘어 호실적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3분기 호실적을 달성하고도 제우스의 수주잔고는 4,955억 원에 달해 향후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또한 회사는 현재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며 반도체 부문 신제품도 단계적 결실을 맺고 있는 상황이다. 자체 개발 로봇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로, 다양한 중장기적 먹거리를 확보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제우스 관계자는 “주요 제품인 배치타입(Batch-Type) 반도체 장비와 함께 싱글타입(Single-Type) 장비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부문 신제품을 양산 준비 중이며, 자체 개발한 산업용 로봇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도 예상된다”며, “제우스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3분기 성장 추세를 올해 온기 실적까지 이어가는 것은 물론 견조한 장기 실적을 전망하고 있어, 이를 통해 회사가치를 증명해낼 것”이라고 전했다.

"""

Company = “제우스”

Year = 2023

Article =

"""

반도체 및 로봇 제조 전문기업 제우스(대표이사 이종우)가 '에이트테크'(대표이사 박태형)와 폐기물 자동화 선별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에이트테크' 서울지사에서 박태형 대표와 황재익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사는 이번 MOU 체결로 혼합 폐기물에서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솔루션 개발을 통한 성능 향상을 이룬다는 목표다. 딥러닝 기반 객체인식(Object Detection) 기술과 객체분석(Object Analysis) 기술을 탑재한 '에이트테크'의 '에이트론' 로봇에 제우스의 '제로 델타' 로봇을 연동해 기술 구현에 나설 계획이다.

'에이트론'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재활용 폐기물을 직접 분류해내던 기존 방식을 자동화한 스마트 자원 순환 로봇이다. 컨베이어벨트 위를 지나가는 재활용 폐기물을 카메라로 인식해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로봇 팔로 자동 선별 및 분류한다. 회사는 '에이트론'에 제우스 로봇을 탑재함으로써 기존 사람이 1분당 30~40개 선별하던 양을 90개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를 이룰 계획이다.

제우스 황재익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우스와 에이트테크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에이트테크가 지향하고 있는 자원 순환 솔루션 비즈니스 전반에 제우스 제로 로봇을 적용해, 폐자원의 재활용 순환고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제우스와 에이트테크는 국내 자원 선별 라인 자동화에 필요한 로봇과 추가 설비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동 개발한 로봇은 우수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여러 지자체와 민간자원회수센터, 경서동 로봇자원선별센터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Company = “제우스”

Year = 2024

Article =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제2회 중견기업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컨퍼런스를 열고, 50년 역사의 반도체·디스플레이·로봇 장비 전문기업 제우스의 혁신 전략 및 성장 노하우를 공유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컨퍼런스는 롤모델 중견기업의 성장 스토리·위기 극복 노하우·혁신 전략을 오너가 직접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매년 2회 개최한다.

지난 3일 컨퍼런스에서 이종우 제우스 대표이사는 '제우스 50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끈 기업가 정신' 주제 강연을 통해 "조부인 이겸로 선생께서는 위 상(上)이 아래 하(下)를 떠받치는 형상의 바를 정(正)이 경영의 정도라고 가르쳤다"며 "기업 존립의 근본은 모든 임직원이라는 인식 아래 겸손과 배려의 태도를 견지하려는 노력이 제우스의 성공 노하우"라고 소개했다.  
  
제우스는 디스플레이 열처리 장비 HPCP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최근 산업용 로봇 '제로(ZERO)' 시리즈를 출시,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한철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지원과장은 “대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지속성장가능성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중견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성장걸림돌 규제를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된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은 성장의 폐기가 아닌 지속가능한 형태의 새로운 성장 전략에 대한 요청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컨퍼런스'를 통해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혁신 성장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우수 중견기업의 위기 극복과 성공 노하우를 확산함으로써 기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일PwC와 공동 개최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동아엘텍, 삼익THK, 갑을합섬, 금문철강 등 중견기업 대표 및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

Company = “제우스”

Year = 2025

Article =

"""

제우스 는 13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를 통해 2024년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회사의 지난해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액 4908억원, 영업이익 492억원, 당기순이익 43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21.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88.2%, 당기순이익은 330.0%로 각각 큰 폭으로 성장했다.

회사의 수익성 개선 전략이 효과를 내며, 영업이익률도 약 10%를 기록했다. 제우스 관계자는 “AVP(첨단패키징)에 필요한 HBM(고대역폭메모리) 관련 반도체 장비를 지난해 본격적으로 출하하면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다"며 "시장 수요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수익 상향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제품군 외에도 TBDB(Temporary Bonding&Debonding)와 챔버 내 가압을 통해 적은 양의 케미컬로도 높은 온도와 고식각 성능을 구현하는 PEP(Pressurized Etch Process)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조속히 개발 완료해, 제품군 다각화를 통한 지속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로봇사업부도 대형 고객사들과 현재 개발 완료된 다관절 로봇에 매니퓰레이터(로봇 팔)가 부착된 모델의 납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년 간 로봇 개발 프로젝트의 결실을 곧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우스는 이사회에서 1주당 1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다음달 31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 승인 시 14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제우스는 지난해 1주당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진행하고, 자사주신탁계약을 체결해 약 80억원의 자사주를 취득하는 등 다양한 주주친화정책을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Company = "제주반도체"

Year = 2022

Article =

"""

제주반도체는 올해 상반기 별도기준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액이 전년 769억원보다 18% 늘어난 910억원이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6억원에서 238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26%에 달했다.  
  
제주반도체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확산할 당시만 해도 전 세계적인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반도체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후 예상을 뒤엎고 화상회의, 비대면(언택트) 관련 제품 수요와 함께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판매량 역시 빠르게 증가하면서 회사 실적 역시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이 기간 실적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었다”며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제주반도체는 반도체 개발만을 하고 생산은 외주(파운드리)에 맡기는 팹리스 업체다. IoT(사물인터넷)용 통신기기와 컨슈머, 모바일 네트워크 등에 들어가는 복합응용 메모리반도체인 ‘멀티칩패키지’(MCP) 등에 주력한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 중 MCP 비중은 71%에 달했다. 제주반도체는 MCP 외에도 △낸드플래시 △D램 △C램 등 다양한 메모리반도체 제품군을 보유했다.

특히 전체 매출액 중 90% 이상을 수출로 벌어들이는 전형적인 수출주도형 강소기업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이 92%에 달했다. 여기에 그동안 통신기기와 컨슈머 등에 국한됐던 메모리반도체 적용 범위가 최근 자동차 전자장치(전장) 분야로 빠르게 확대하면서 실적 상승세를 도왔다는 분석이다.  
  
제주반도체는 올 하반기에도 자동차용 반도체 등 신사업을 강화해 실적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관계자는 “올 하반기 들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전 산업군에 걸쳐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자동차용 반도체 등 신사업 강화 전략을 구사해 견조한 실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Company = “제주반도체”

Year = 2023

Article =

"""

제주반도체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 거래일 8.67% 올라 1만 37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5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외국인은 10거래일 대량매물을 쏟아내고 있다.  
  
온디바이스 AI 열풍에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반도체는 휴대폰 등 모바일 응용기기에 적용되는 메모리반도체를 개발해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제조 생산라인을 보유하지 않고 전문 파운드리회사에 위탁 생산한다.  
  
통신장비와 사물인터넷 등에 들어가는 메모리반도체 일종인 ‘멀티칩패키지’에 주력함. 매출액 중 NAND MCP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이날 오전 10시 22분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인 HPSP 두산테스나 오픈엣지테크놀로지 퀄리타스반도체 가온칩스 에이디테코놀로지 텔레칩스 심텍 대덕전자 제주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제주반도체 네패스 리노공업 칩스앤미디어 HPSP 태성은 크게 출렁이고 있다.  
  
증권 전문가들은 "퀄컴 메타 삼성 등은 온디바이스 AI 개발에 적극 뛰어 들고 있다"며서 "투자자들은 이들 주가의 등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Company = “제주반도체”

Year = 2024

Article =

"""

제주반도체는 저용량·저전력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국내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꾸준히 성장해왔다. 기술 혁신과 시장 확대뿐 아니라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특히 제주에 본사를 둔 특수성에 맞게 제주 지역사회 지원과 함께 장학금 후원, 취약계층 등에 대한 배려가 두드러진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주반도체는 지난 2000년 설립한 이후 메모리반도체 사업에 주력해왔다. 제주반도체를 창업한 박성식 대표는 과거 삼성전자에서 일본 주재원으로 활동했다.

그가 삼성전자 일본 법인에서 근무하던 1990년대 당시만 해도 일본은 전 세계 전자산업을 주도했다. 이에 일본 현지에 있으면 일본뿐만 아니라 북미와 유럽 등 글로벌 반도체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박 대표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 미국이 주도하는 메모리반도체 시장. 여기에 대만 중소·중견기업들이 다수 진입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업체는 반도체 개발만을 전문으로 하고 생산은 철저히 외주에 맡기는 팹리스 업체들이었다.  
  
대기업이 '소품종 대량생산'인 고용량 메모리반도체에 주력하는 반면, 대만 팹리스 업체들은 대기업이 채산성이 맞지 않아 생산하지 않는 '다품종 소량생산'인 저용량 제품에 주력했다. 박 대표는 이렇듯 대만 팹리스 업체들이 활동하는 저용량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파악해보니 전체 메모리반도체 시장 중 10%가량을 차지했다. 박 대표는 대만보다 우수한 한국 메모리반도체 연구 인력을 활용하면 승산이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  
  
메모리반도체 틈새시장을 확인한 박 대표는 국내로 돌아와 2000년 창업의 길로 들어섰다. 당시에도 한국은 전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 1위를 내달렸던 덕에 관련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제주반도체 거래처는 현재 국내외 200곳 이상이다.  
  
메모리반도체 제품군 역시 △멀티 칩 패키지(MCP) △낸드플래시 응용제품 △D램 △C램 등 다양하게 확보했다. 제주반도체는 지난해 기준 매출액 1618억원, 영업이익 191억원을 올리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제주반도체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동운아나텍, 픽셀플러스 등과 함게 '글로벌 스타팹리스'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제주반도체는 회사 성장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꾸준히 확대하는 중이다. 우선 제주도 내 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 학생들의 학업을 돕고 있다.  
  
특히 제주대와는 장학금 지급과 함께 산학협력, 취업연계 등 활발한 협력을 이어간다. 제주대는 올해 초 제주대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학생 10명에 총 2500만원 장학금을 전달했다. 제주대 장학금 후원은 올해로 19년째 진행했다. 제주반도체트랙은 제주대 전자공학과와 통신공학과, 제주반도체가 산학 공동으로 운영하는 산업체 맞춤형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다.  
  
참여기업인 제주반도체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19년째 제주대에 장학금을 지원한다. 대학에서는 트랙 사업을 통해 참여 학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산업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우수 학생들이 해당 분야 진출을 돕는다.  
  
제주반도체트랙이 제주 지역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으면서 성공적인 산학협력 모델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제주반도체 입장에서는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 받을 수 있으며, 제주대는 산업체 지원과 함께 학생 취업률을 높이고 장학금도 지원 받아 상호윈윈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제주반도체는 매년 제주대 전자공학과, 통신공학과 졸업생들을 꾸준히 채용한다.  
  
제주반도체는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제주대 전자공학과와 산학협력을 통해 맞춤형 인재 양성에 많은 부분을 기여한다.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며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제주도 내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사업도 운영한다. 지난 2020년에는 제주도 내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창호 교체 사업을 후원해 저소득층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선과 직업 체험 투어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해왔다.  
  
제주반도체는 지역 내 문화 예술과 스포츠 활동도 지원한다. 지난 2021년 제주메세나협회에 가입한 뒤 매년 지역 문화 예술 지원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한다. 이를 통해 지역 예술가들의 성장을 돕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한국여자야구연맹을 후원하며 여성 스포츠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귀포시청이 주최한 걷기 챌린지에 참여해 사회복지 시설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 활동을 전개했다. 걷기 챌린지에 참여한 제주 시민은 목표 걸음 수 21만보를 달성하면 탐나는전 카드로 매월 1만원 포인트를 적립 받는 방식이다. 10개월 이상 달성하면 3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연간 15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반도체 관계자는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환경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Company = “제주반도체”

Year = 2025

Article =

"""

제주반도체는 6월 13일 코스닥 시장에서 전일 대비 3.71% 하락한 13,24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고가는 13,960원이었으나 하락세가 이어지며 저가 13,140원까지 밀린 뒤 소폭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 거래량은 약 46만 주로 비교적 활발했다.  
  
이날 하락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은 전일에도 순매도를 보였으며, 이날도 5만 주 이상 순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관 역시 최근 3거래일 중 2거래일에서 매도 우위를 보였다.  
  
실적 측면에서는 올해 1분기 매출이 484억 원, 순이익은 43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증가했으나, 영업이익률은 7.64%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주당순이익(EPS)은 126원, PER은 27.65배로 동종 업종 평균(9.35배)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투자 의견과 목표주가 공시는 부재한 상태이며, 외국인 보유율도 0%로 나타나 기관 및 개인의 매매 주도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

Company = "와이씨"

Year = 2022

Article =

"""

"""

Company = “와이씨”

Year = 2023

Article =

"""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설 명절 기간 여수를 방문한 박 회장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가 아닌 고향(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고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박 회장의 기부는 지난 17일 여수시 소외계층을 위한 1억5000만원 기부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박 회장은 올해 처음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응원하면서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에도 가입했다.

그는 "고향 여수를 항상 응원하고 있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여수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최고액을 기부해주신 박수관 회장님과 여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기부하시는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ompany = “와이씨”

Year = 2024

Article =

"""

반도체 웨이퍼 테스터 제조사 '와이씨(옛 와이아이케이)'가 국내 반도체 검사장비 섹터에서 처음으로 삼성전자향 HBM(고대역폭메모리) 관련 테스터 공급에 성공하면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고객사가 지분 투자한 상황에서 JDP(공동개발) 형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와이씨 독자개발로 장비의 영업권을 확보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삼성전자 외에도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연내 후속 PO(구매주문)도 기대된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와이씨는 삼성전자와 1017억원 가량의 '반도체 검사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납기를 준비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7월 28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다.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삼성전자의 의뢰를 받고, 지난해부터 HBM 검사용 장비(테스터)를 개발하기 시작한 와이씨는 5월 최종 퀄(품질인증)을 마치고, 삼성전자와 2개월 간 ASP(공급단가) 등 구체적인 계약 사항을 협의했다. 모델명은 'MT8311'이다.  
  
와이씨는 ASP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MT8311의 대당 단가는 약 30억원 전후로 형성돼 있는 걸로 파악된다. 총 40대 가량의 초도 물량이 평택(P4) 양산 라인으로 입고된다. 와이씨 관계자는 "화성 라인이 아니라 평택으로 입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평택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삼성전자가 평택 P4 라인에 낸드, 범용 D램 양산 투자를 최근 발표하면서 삼성전자가 5세대 HBM3E(12단 적층) 양산 거점을 평택으로 낙점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힘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와이씨가 제조하는 MT8311 장비가 현 8단 HBM(4세대) 양산을 넘어 5세대 HBM3E와 6세대 HBM4 웨이퍼 테스트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삼성전자는 최근 엔비디아의 4세대 HBM 퀄을 획득하고, 5·6세대 선단 공정에도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를 넘어서기 위해 칼을 가는 상황에서 향후 수율싸움의 전방에 와이씨를 배치하는 그림이라는 이야기다.  
  
와이씨의 MT8311 장비는 EDS공정(Electrical Die Sorting) 공정에 적용되는 웨이퍼 테스터 솔루션이다. EDS 공정은 전기적 특성검사를 통해 개별 칩들의 불량, 양품 여부를 테스트하는 수율검사의 기초 '게이트키퍼'다. 와이씨는 웨이퍼 EDS 테스터 부문의 명가로 꼽히는 제조사다. D램 적층 구조인 HBM의 적층 패키지 이전 단층 상태의 웨이퍼 상태에서 개별 칩의 전기적 특성을 검사한다. 고대역폭 D램의 고속 EDS 테스트에 특화됐다는 평가다.

이후 적층 구조로 패키징(AVP)된 출하 직전의 HBM의 경우 일본의 어드반테스트(ADVANTEST)가 삼성전자 HBM 양산라인의 테스트를 담당한다. EDS/AVP 테스트가 층위가 다르긴 하지만, 국내 제조사에 양산 PO를 내면서 테스터 공급사를 이원화한 모양새다. 다만 여전히 삼성전자가 HBM 수율과 관련 고심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후공정 라인을 보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테크윙은 '큐브프로버'라는 신규 장비를 앞세워 해당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양산 공급 국면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와이씨의 신규장비 개발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2020년 7월 473억원을 투자해 와이씨의 지분 12.6%를 인수했다. 소폭 희석돼 현재 11.70% 수준이다. 와이씨의 2대주주다.  
  
통상 삼성전자가 SI(전략적 투자) 지분투자를 단행해 관계사로 편입한 경우 주요 장비는 JDP(공동개발) 형식으로 R&D를 진행, 타사 영업권이 제한되는데 이번 MT8311의 경우 와이씨가 독자적으로 개발해 이런 제한이 없다. 삼성전자를 포함해 타사에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와이씨는 AI 반도체 개화 국면에서 MT8311의 마케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와이씨는 9월 혹은 10월 삼성전자의 장비심의위원회발 추가 PO를 기대하고 있다. 이 심의위의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5세대, 6세대 HBM 투자의 향배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5·6세대 HBM 양산 경쟁에서 경쟁사를 대상으로 칼을 갈고 있기 때문에 최근 PO를 넘어서는 물량이 나올 공산도 크다. 와이씨는 고객사 대응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500억원의 차입을 결정했다.  
  
와이씨 관계자는 "고객사 반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 공급계약액 중 약 3분의 1 가량은 올해 매출액 산입될 전망"이라면서 "3분기 고객사 장비심의위 결정에 따라 후속 PO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Company = “와이씨”

Year = 2025

Article =

"""

와이씨 주가가 폭등중이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 현재 10.25% 올라 1만 1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하락추세에서 급반전 하고 있다. 10거래일 기관은 대량매도, 외국인은 폭풍매수를 하고 있다.  
  
와이씨가 사업 목적에 '사업 관련 투자 관리 및 운영 사업'을 추가하며 사업 다각화 및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서면서 주가에 훈풍을 불어 넣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테크윙 코스텍시스 주성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DB하이텍 사피엔반도체 디아이 덕산하이메탈 마이크로투나노 퀄리타스반도체 큐에스아이 워트도 상승중이다.  
  
사업 목적 추가는 와이씨가 단순 제조 기업에서 투자 관리 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와이씨의 사업 확장 및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유망한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 및 관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와이씨는 반도체, 2차전지,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투자는 와이씨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 목적 추가는 와이씨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

Company = "동진쎄미켐"

Year = 2022

Article =

"""

동진쎄미켐의 아들 형제가 부회장으로 재선임됐다.

동진쎄미켐은 25일 충북 음성공장에서 제49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준혁 부회장과 이준규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이준혁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뽑혔다. 이준혁 부회장이 경영을 총괄하고 이준규 부회장은 발포제 사업부를 맡는다.

동진쎄미켐 측은 “이준혁·이준규 부회장은 동진쎄미켐의 사내이사로서 회사 사업과 조직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동진쎄미켐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면서 회사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부섭 동진쎄미켐 회장의 아들이다. 1967년생인 이준혁 부회장이 동생, 이준규 부회장은 1964년생으로 형이다. 이 회장과 이준혁 부회장이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나왔다. 이준규 부회장은 연세대를 졸업했다.

동진쎄미켐 이사회는 사외이사 1명을 포함해 총 4명이다. 사외이사를 제외하면 이 회장과 부회장 형제로 이뤄진 가족 이사회다.

이사 보수 한도는 총 50억원이다. 이 회장이 지난해 19억4천54만원의 보수를 챙겼다. 이준혁 부회장은 11억1천만원, 이준규 부회장은 10억9천103만원을 받았다.

"""

Company = “동진쎄미켐”

Year = 2023

Article =

"""

‘후방기업’으로 불리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은 대개 시장의 등락과 전방기업 실적에 큰 영향을 받는다. 구조적으로 이를 타파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이 같은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소부장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 있는 기술을 꾸준히 발굴하고, 변화하는 산업 흐름에 맞춰 선제적으로 매출원 다변화에 나서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 같은 측면에서 동진쎄미켐은 좋은 본보기로 꼽힌다.

반도체 소재 업계에선 유명하지만, 대중에겐 다소 낯선 이름이었던 동진쎄미켐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건 2019년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였다. 이는 한국의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반도체 핵심 공정소재(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에 대해 일본 정부가 수출 장벽을 쌓아 업계에 타격을 준 사건이다. 약 4년간 이어진 이 일은 국내 반도체 업계에 위기감과 더불어 소부장 국산화, 독립 필요성에 큰 도전을 남긴 사건이었다.

동진쎄미켐은 그 중 반도체 노광공정의 주요 소재인 포토레지스트(PR, 감광액) 국산화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낸 업체로 주목받았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반도체 기판)에 도포하는 감광액(빛에 반응하는 액체)이다. 고성능 반도체를 제작하려면 웨이퍼에 미세회로를 각인해야 하는데, 이때 반도체 노광장비의 빛에 포토레지스트가 반응하면서 회로가 그려진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전까지 첨단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의 소수업체가 세계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었다. 동진쎄미켐은 이들에 이어 1989년 세계 4번째로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한 회사다. 수출 규제 이전까지는 포토레지스트 중 주로 파장이 긴 불화크립톤(KrF·248mm)을 3D 낸드플래시용 제품으로 주로 판매했다.

이를 노하우 삼아 수출 규제 사태 이후 동진쎄미켐은 불과 3년만에 불화크립톤보다 파장이 훨씬 짧은 극자외선(13.5mm)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하는데 성공한다. 반도체는 회로가 미세할수록 웨이퍼 생산성과 성능 양면이 개선된다. 다만 10nm 미만 초고성능 반도체 공정 수행에는 EUV(극자회선) 노광장비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EUV 포토레지스트가 필수다. EUV 노광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이 독점하고 있으며,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수출 규제 당시 일본 기업들의 전유물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동진쎄미캠의 EUV 포토레지스트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양산라인 일부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일본 수입 의존도 100%에 금이 생겼다. 당시 제품이 삼성의 신뢰성 시험을 통과한 뒤 1년도 걸리지 않은 시점에 적용된 것으로, 완성도가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방증한다.

또한 동진세미켐은 최근 차세대 반도체 노광장비인 ‘하이 NA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 이상 일본에 선수를 내주지 않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동진쎄미켐은 이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 2020년 김영선 ASML 코리아 대표를 고위 임원인 부회장으로 영입하고 연구개발(R&D)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회사의 경상개발비도 2020년 41억원, 2021년 47억원, 22년 53억8000만원 등 매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꾸준한 R&D는 동진쎄미캠의 중요한 성장 발판으로 꼽힌다. 1967년 설립 당시 발포제의 첫 국산화를 시작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첨단전자 소재와 대체 에너지 소재를 개발·양산해왔다. 2010년엔 대형TV용 절연막을 국내 최초로 개발, 양산에 나섰다.

초기 매출원은 발포제가 주력이었지만 기술 변화에 보폭을 맞춘 선제적 R&D 성과로 지난해 매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52.9%)을 차지한 건 포토레지스트를 포함한 ‘국내전자재료’ 사업이다. TFT LCD 화학제품을 포함한 ‘해외전자재료’ 매출 비중도 37.1%로 적지 않다.

이어 지난해 카본나노튜브(CNT) 도전재 슬러리를 개발해 2차전지(배터리) 시장으로 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유럽의 배터리 제조사 노스볼트를 고객사로 확보했다. 배터리용 실리콘 음극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세계 전기차 시장이 내연기관차를 대신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도 향후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2021년 동진쎄미캠은 연간 기준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돌파했으며, 지난해에도 1조4500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영업이익도 2000억원을 넘어섰다.

한편 동진쎄미켐은 1967년 이부섭 회장이 ‘동진화학공업사’로 창업하고 2018년부터는 차남인 이준혁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 대표는 1967년생으로 서울대 화학공학과 졸업 후 미국 MIT 공과대학 화학공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1994년 동진쎄미켐 입사 후 요직을 거쳐 현재 부회장 자리에 올랐다. 현재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한국공업화학회 고문,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이사, 한국공학한림원 이사 등을 겸하고 있다.

"""

Company = “동진쎄미켐”

Year = 2024

Article =

"""

동진쎄미켐은 감광액과 반사방지막, 발포제 같은 전자재료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전방산업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업황에 따라 실적이 오르내리는 구조다. 최근에는 연구기술개발(R&D)을 통해 2차전지로도 사업 영역을 넓히는 추세다.  
  
장기간 오너 중심 경영 체제를 이어왔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이사회 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이사회 구성과 위원회 구축, 평가체계 구성 면에서 미흡한 점이 컸다. 경영효율성 지표에선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실적 면에선 전방산업 악화에 따른 낮은 점수를 받았다.

THE CFO는 평가 툴을 제작해 '2024 이사회 평가'를 실시했다. 5월 발표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2023년 사업보고서, 2024년 반기보고서 등이 기준이다. △구성 △참여도 △견제기능 △정보접근성 △평가 개선 프로세스 △경영성과 등 6개 공통지표로 이사회 구성과 활동을 평가한 결과 동진쎄미켐은 255점 만점에 94점을 받았다.  
  
특히 이사회 구성은 평균 1.1점으로 대부분 항목에서 최하점을 기록했다. 이사회 의장을 창업주이자 오너인 이부섭 공동 대표이사 회장이 맡고 있다. 동진쎄미켐 이사회 인원도 4인에 불과하고,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도 25%에 그쳤다.

감사위원회를 비롯한 위원회를 1개도 설치하지 않았다. 동진쎄미켐은 별도기준 자산총액 1조3000억원이라 상법상 필수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원회 부재는 경영 기능을 이사회 1곳에 모두 집중시켰다는 뜻인 만큼 평가하락을 피하기 어렵다.  
  
이사회 구성원 다양성도 부족하다. 이사회 4인 중 여성, 외국인 이사는 전무하고 연령대도 대부분 50~60대 이상이다. 가장 젊은 인물이 1967년생인 이준혁 공동 대표이사 부회장인 실정이다. 이승종 사외이사의 코팅솔루션포유 사내이사 경험 보유 덕에 간신히 최저점을 받진 않았다.  
  
낮은 구성 부문 평가를 받은 만큼 견제기능에서도 좋은 저조한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이 없기에 이와 관련된 견제기능 평가 항목 다수에서 최저점에 머물러야 했다. 이외에도 주주가치제고 성과 연동 보수 지급이나 부적격 임원 선임 방지 정책, 최고경영자승계정책도 마련돼있지 않았다.  
  
등기이사 대비 미등기임원 보수 비율이 크게 낮아 최고점을 받긴 했으나 이는 착시효과에 가깝다. 이사회에서 활동 중인 이 회장의 보수총액이 연간 30억원 수준으로 유독 높은 영향이기 때문이다. 이 회장 보수총액은 미등기임원 1인 평균 급여의 17배 이상에 해당한다.

다른 부문 대비 비교적 높은 경영성과 점수는 자기자본이익률(ROE), 총자산이익률(ROA)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기준 동진쎄미켐의 ROE는 16.08%, ROA는 8.29%다. KRX300 소속 비금융기업 평균치인 ROE 6.82%, ROA 3.76%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동진쎄미켐이 보유자본, 자산을 기반으로 제법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이어왔다는 의미다.  
  
여기에 주가수익률도 29%를 기록했다. KRX300 소속 비금융기업 평균치인 25.74%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역시 고점으로 평가받았다. 총주주수익률(STR)도 29.4%로 평균 수준 점수를 받아 경영성과 점수 보전에 일조했다.  
  
다만 매출성장률은 -10.11%, 영업이익성장률은 -18.55%를 기록해 최근 실적 성장에 문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진쎄미켐은 전방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공정상 필요한 전자재료를 주력으로 삼는다. 지난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특히 LCD의 전반적인 업황침체로 인한 직격탄을 맞은 모양새다.  
  
수치상 불안정한 재무구조도 동진쎄미켐 경영성과 점수의 한계를 만든 주된 요인이다. 이자보상배율과 부채비율이 평균치보다 상당히 낮은 7.08배, 92.3%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점에 해당하는 수치로 현재 동진쎄미켐의 재무구조가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성과 다음으로 높은 참여도 부문은 연간 12회 이상 이사회 개최, 이사회 구성원 연간 출석률 90% 이상 달성으로 최고점을 받은 게 주효했다. 하지만 의안 관련 자료 제공 시점과 부족한 사외이사 교육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꼽힌다.

"""

Company = “동진쎄미켐”

Year = 2025

Article =

"""

이준혁 동진쎄미켐 부회장이 '회장'직에 올라섰다. 이부섭 창업회장 유고에 따른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이 단독 대표이사 회장에 올라섬에 따라 회사 계열 분리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발포제 사업부문은 이 창업회장의 장남인 이준규 부회장이, 전자재료 사업부문은 이준혁 회장이 맡는 구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준혁(**사진**) 부회장이 이달 1일 회장으로 승진했다. 2018년 부회장에 오르고서 7년 만의 승진이다. 이 회장 단독 대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동진쎄미켐은 그동안 오너 일가인 이부섭 창업회장, 이준혁 회장, 이준혁 부회장 삼두체제로 운영돼왔다. 이부섭 회장이 경영을 총괄하고 장남인 이준규 부회장이 발포제 사업을, 차남인 이준혁 회장이 전자재료 사업 도맡아 왔다 삼두체제는 이 창업회장의 별세로 마무리됐다. 이 창업회장은 2월 25일 향년 87세로 세상을 떠났다.  
  
동진쎄미켐은 최근 이 회장의 단독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준규 부회장의 사내이사 사임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준규 부회장은 연임 5회 만에 사내이사 자리를 내려놨다. 지난달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된 김성일 사장과 김재현 사장은 전자재료 사업부문 임원으로 이준혁 회장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동진쎄미켐이 상속을 마친 뒤 인적 분할 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52기 주주총회에서 "발포제 사업 (분할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적절한 결정 사항이 나오면 바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증권 업계에서는 동진쎄미켐이 인적분할을 마치면 주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부가 사업인 발포제 사업을 분리함에 따라 디레이팅 국면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이와 동시에 동진쎄미켐은 회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트폴리오 재편을 진행하고 있다. 노스볼트 파산으 여파로 공장 가동을 멈춘 스웨덴 소재 자회사 '동진스웨덴AB(Dongjin Sweden AB)'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진스웨덴AB는 2020년 5월 동진쎄미켐이 유럽 배터리 소재 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다. 당시 유럽 배터리 기업 노스볼트에 탄소나노튜브(CNT) 도전재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었다. 공장도 노스볼트ETT 인근에 건설했다. 두 공장의 직선거리는 불과 1km에 불과하다.  
  
이 계획은 지난해부터 어그러졌다. 고객사인 노스볼트가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이후 노스볼트는 위기 타개를 위한 자금조달 등을 강구했지만 회사 정상화에는 실패했다. 노스볼트는 3월 중순 현지에서 파산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동진쎄미켐은 동진스웨덴AB의 장부가액을 전액 손상차손 처리했다. 동진스웨덴AB의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본 셈이다.  
  
동진쎄미켐 고위 관계자는 동진스웨덴 AB에 대해 "동진스웨덴AB는 앞으로 적절한 구매자가 있을 시 매각할 생각"이라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임대나 청산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Company = "솔브레인"

Year = 2022

Article =

"""

솔브레인 목표주가가 높아졌다.  
  
올해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솔브레인의 모든 사업부에서 실적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26일 솔브레인 목표주가를 기존 31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높여잡았다. 투자의견은 ‘매수(BUY)’로 유지됐다.  
  
25일 솔브레인 주가는 26만6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박 연구원은 “솔브레인이 올해 2분기에 반도체분야에서 출하량 증가를 바탕으로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에도 모든 사업부의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실적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바라봤다.

솔브레인은 삼성디스플레이 등 고객사가 생산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소재 공급을 주력사업으로 한다.  
  
솔브레인은 2022년 2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2777억 원, 영업이익 592억 원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2021년 1분기보다 매출은 14%, 영업이익은 37% 늘어나는 것이다.  
  
매출은 반도체사업이, 수익성은 2차전지 사업이 각각 이끌 것으로 파악된다.  
  
반도체사업은 에천트 분야에서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2분기 1502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됐다. 2021년과 비교해 14.96% 증가하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2분기 반도체사업에서 삼성전자의 평택 3기공장 초기 가동효과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업이익은 2차전지 사업에서 전해액 원재료(LiPF6) 가격이 최근 지속 하락하고 있어 수익성 개선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솔브레인은 올해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박 연구원은 “3분기에도 반도체 사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신규공장 가동에 따른 매출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도 대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가동률 상승, 씬글래스도 고객사의 중저가 스마트폰 신규 판매 확대 등으로 사상 최대 실적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바라봤다.  
  
솔브레인은 2022년 연결기준으로 매출 1조1444억 원, 영업이익 2390억 원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2021년보다 매출은 12%, 영업이익은 27% 증가하는 것이다.

"""

Company = “솔브레인”

Year = 2023

Article =

"""

솔브레인이 지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 인적분할 전후 솔브레인의 비재무적 경영 상태를 참고할 만한 첫 지표에서 'C(취약)' 등급을 받았다. 적극적인 지역사회 기부·봉사 활동으로 사회 부문에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등급을 받았으나 지배구조가 발목을 잡았다.  
  
한국ESG기준원(옛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솔브레인은 지난해 11월 공표된 ESG 평가에서 종합 'C(취약)' 등급을 받았다. ESG 등급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비재무적 척도로 평가한 것으로 유가증권상장사와 150개 코스닥 상장사가 점수화 대상이다.  
  
지난해 받은 ESG 등급은 분할 이후 솔브레인의 현황을 가늠하게 해주는 지표다. 솔브레인은 2020년에도 한국ESG기준원에서 종합 C등급을 받았으나, 당해 7월 솔브레인이 솔브레인홀딩스로부터 분할돼 출범했기에 양사의 ESG 평가등급이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2021년에는 한국ESG기준원에서 솔브레인홀딩스만 ESG 평가를 받았다.

분할 전후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회와 지배구조 부문이다. 사회 등급의 경우 'B(보통)'에서 'B+(양호)로 등급이 한 단계 상향됐다. 재단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솔브레인은 지난 2013년 솔브레인 나눔재단을 신설하고 본사가 위치한 충남 공주시 내에서 청소년 물품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출산용품 지원 등 각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배구조 등급은 반대의 길을 걸었다. 이전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변경, 지배구조가 취약하단 평가를 받았다. 이는 솔브레인홀딩스도 동일했다. 지난해 글로벌 기준에 맞춰 보다 깐깐해진 지배구조 문항(ESG 평가 모범규준)이 적용된 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위권 기업이 하위권으로 대거 이동, 과반의 상장사가 C와 D 등급을 받았는데 솔브레인도 이를 피하지 못했다.  
  
사외이사가 단독 사외이사로 축소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솔브레인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1인 총 3인으로 구성돼 운영됐다. 기존 김홍갑 사외이사가 지난해 3월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 사임하면서 이사회 멤버가 총 4인에서 3인으로 축소된 것이다.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를 중도 충원하지 않고 1년간 이 상태를 유지해왔다.  
  
솔브레인은 이 리스크를 올해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9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농협중앙회 지점장 출신의 양길호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솔브레인 관계자는 "지난해는 지배구조 평가 기준이 엄격해져서 많은 기업들이 강등되는 등의 변화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충원해서 지배구조 등급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솔브레인은 한국ESG기준원뿐만 아니라 서스틴베스트를 통해서도 ESG 평가를 받고 있다. 서스틴베스트에 따르면 2021년 'BB등급(ESG 성과가 다소 우수한 종목)'이었던 솔브레인의 종합 평가 결과는 'B등급(ESG 성과 보통 종목)'으로 한 단계 내렸다. 솔브레인 측은 "고객사마다 참고하는 ESG 평가기관이 달라서 고객사 요청에 의해 여러 곳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회사 차원에서 ESG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솔브레인은 2013년을 끝으로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다. 올해는 간소화된 ESG 보고서를 발간해 투자자의 이해를 돕겠단 계획을 전했다. 솔브레인 관계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까지는 아니지만 올해는 ESG보고서 팩트 북을 발간해 ESG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Company = “솔브레인”

Year = 2024

Article =

"""

솔브레인홀딩스는 2차전지 전해액과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용 화학재료, 바이오 영역의 진단시약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소재전문기업이다. 최근 전방산업인 전기차, 배터리 시장 확대에 힘입어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다만 지배구조 면에선 개선이 시급하다. 실적에 바탕을 둔 경영성과 부문을 제외하면 인원 구성과 위원회 구축, 승계·평가 정책 전반에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너인 정지완 회장이 이사회를 이끌고 있어 견제 수준이나 독립성도 낮았다.

THE CFO에서 진행한 2024 이사회 평가에 따르면 솔브레인홀딩스는 총점 255점 만점 중 105점을 받았다.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한 부문은 3.3점을 받은 경영성과였다. 2.3점의 참여도가 뒤를 이었고 △평가개선프로세스 △정보접근성 △견제기능 △구성 순으로 점수가 매겨졌다.  
  
경영성과의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는 주가수익률과 실적 성장성, 낮은 부채비율 등에서 비롯됐다. 솔브레인홀딩스의 주가수익률은 81.39%다. KRX300 소속 비금융기업의 지난해 평균치인 25.74%의 3배 이상이다. 총주주수익률도 82.2%로 나타나 최고점 기준보다 50%p 가까이 높았다.

매출성장률과 영업이익성장률도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솔브레인홀딩스는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매출성장률 17.07%, 영업이익성장률 64.58%를 기록했다. KRX300 소속 비금융기업의 지난해 평균치가 각각 4.7%, -2.42%인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수치다. 솔브레인 홀딩스 주 사업영역이 2차전지, 반도체 소재인 만큼 업황 호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보유 자산을 영업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했는지 알 수 있는 총자산수익률(ROA)도 높다. 솔브레인홀딩스 ROA는 4.8%로 2024 이사회 평가의 최고점 기준보다 우수했다. KRX300 소속 비금융기업의 지난해 평균치 대비로는 1%p 가량 높은 점수다.  
  
솔브레인홀딩스는 기업 자본 중 차입급 같은 부채 의존도를 나타내는 부채비율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41.49%로 통상 표준비율로 인식되는 100%의 절반 미만이다.

경영성과와 달리 구성, 견제기능은 거의 대다수 평가항목에서 최저점을 기록했다. 오너인 정 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체제가 강력하게 구축된 탓이다. 정 회장이 솔브레인홀딩스 이사회 이장을 맡고 있다. 이사회도 4인에 불과한 규모이며, 인원 중 사외이사도 1명으로 비중이 25%에 불과하다.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 등은 물론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도 없다. 솔브레인홀딩스 총자산이 1조8699억원으로 상법상 의무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위원회가 하나도 없는 것은 큰 약점이다.  
  
이사회 다양성도 전부 남자이며 30~40대 이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김흥갑 사외이사가 타 기업 경력을 보유한 덕분에 간신히 최하점을 받는 것을 면했다. 아울러 별도 이사회 지원 조직이나 이사회 역량을 살필 수 있는 BSM도 마련하지 않았다.  
  
절대적인 사외이사 수가 부족하고 감사위도 없는 만큼 견제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외 부적격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한 방안이나, 주주가치제고 성과를 고려한 보수 연동 시스템도 전무하다. 별도 이사 추천 방식이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도 부족한 상태다.  
  
정보접근성과 평가개선프로세스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이사회 활동 내용을 공시, 홈페이지에 투명히 공개하고 이사회 인원의 사회적 물의·사법이슈 연루 사례가 없는 점은 장점이다. 하지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주주환원책, 사외이사 후보추천경로 공시가 모호하다. 사외이사 평가 체계도 마련하지 않아 개선안 마련 환경을 갖추지 못했다.  
  
참여도 부문 역시 이사회 정기 개최 22, 평균 100% 출석률을 제외하면 대부분 최하점을 받았다. 이 역시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를 하나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사회에 상정되는 안건 관련 통지 역시 구체적인 기간을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하지 않고 있다.

"""

Company = “솔브레인”

Year = 2025

Article =

"""

솔브레인 창업주 정지완 회장(69)의 딸 정문주 부사장(41)이 지주사 공동대표로 올라섰다. 입사한 지 4년 만에 초고속 승진하며 2세 경영 시작을 알렸다.  
  
솔브레인홀딩스는 지난주 이사회를 열고 정문주 전략기획실장 부사장을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회사 관계자는 “전문 경영인인 정현석 대표와 정문주 대표가 함께 회사를 이끌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공동대표는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졸업하고 코오롱FnC에서 근무하다 2021년 비전전략부문장 상무로 입사했다. 이어 2023년 전무, 2024년 부사장으로 연이어 승진했다. 지난해 이사회에 합류했고 1년 만에 공동대표에 오르게 됐다.  
  
당초 정 회장은 장남인 고(故) 정석호씨를 상대로 경영수업을 진행했으나 2020년 불의의 사고로 작고했다. 정 공동대표가 이듬해 회사에 합류한 가장 큰 이유로 해석된다. 정 회장은 2022년 지주사 대표직을 내려놓고 이사회 의장직만 유지하고 있다.  
  
정 부사장이 단기간 공동대표에 오르면서 승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회장의 지주사 지분율은 55.89%이며, 정 공동대표 지분율은 아직 1.09%에 불과하다.  
  
솔브레인홀딩스는 2020년 솔브레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며 설립됐다. 솔브레인 지분 31%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비롯해 45개 계열사(상장 6개사·비상장 39개사)를 거느리고 있다.  
  
정 공동대표는 솔브레인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보다 신사업을 발굴하고 그룹 포트폴리오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경영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실적 반등이다. 솔브레인홀딩스는 연결 기준 지난해 실적으로 매출 5156억원, 영업이익 85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2.1%, 29.1% 감소한 수치다. 고객사 반도체 생산라인 가동률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력 사업 대응과 신사업 발굴 등이 숙제로 보인다.  
  
솔브레인은 1986년 테크노무역상사가 모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에 필요한 정밀 화학 소재를 개발·생산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용 고순도 [불산](javascript:;)을 포함한 각종 재료를 국산화했고, 이차전지에 필요한 전해액, 첨가제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정 공동대표가 솔브레인에서 맡고 있는 직책은 없다. 솔브레인은 2021년부터 삼성SDI 출신 노환철 대표가 이끌고 있으며, 부친 정 회장도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 공동대표는 그룹의 화학 소재 사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헬스케어부문 육성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2015년 제닉을 시작으로 아크 다이어그노스틱스, 시어 등 다수의 헬스케어 기업에 투자해왔다.

"""

Company = "유진테크"

Year = 2022

Article =

"""

유진테크 주식 매수의견이 유지됐다.  
  
올해 반도체 제조장비 매출이 늘고 새로운 장비 출시도 앞둬 중장기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8일 유진테크 목표주가 5만6천 원, 투자의견 매수(BUY)를 각각 유지했다.  
  
유진테크 주가는 17일 4만45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송 연구원은 “유진테크는 SK하이닉스가 M16, M15 라인의 D램과 낸드 투자를 재개함에 따라 기존 단일타입 저압화학 증착장비(LP CVD), 대형 배치타입(Batch type) 반도체 증착장비(ALD)의 매출에 더해 소형 배치타입 증착장비(MBT ALD)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로부터 낸드 박막장비(QXP) 매출도 추가되겠다”며 “하반기에는 비메모리의 소형 배치타입 증착장비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겠다”고 덧붙였다.  
  
유진테크는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로 미래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됐다.  
  
유진테크는 2023년에도 대형 배치타입 저압화학 증착장비, 대형 배치타입 플라즈마 반도체 증착장비의 적용부문을 D램에서 낸드로 늘리고 비메모리 부문에서 새로운 금속 반도체 증착장비(Metal ALD) 출시를 앞두고 있다.  
  
송 연구원은 “유진테크의 꾸준한 신장비 확보 노력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진테크는 2022년 연결기준으로 매출 4370억 원, 영업이익 1260억 원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2021년 추정치보다 매출은 34.6%, 영업이익은 70.8% 각각 늘어나는 것이다.

"""

Company = “유진테크”

Year = 2023

Article =

"""

유진그룹 지주사인 유진기업이 보도전문채널 YTN의 새주인이 될 전망이다.

23일 투자업계(IB) 등에 따르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YTN 매각 최종 낙찰자로 유진기업을 선정했다. 유진기업은 최종 입찰가로 3200억여원을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진그룹은 유진자산운용,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금융과 유진테크 등 5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이다.

이번에 인수한 YTN 지분은 한전KDN 소유 21.43%과 한국마사회 9.52%를 합친 총 30.95%다.

유진그룹은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 변경 심사를 받아야 최대 주주 지위를 누릴 수 있다.

방통위는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 보호 ▲대기업·언론사·외국인 등에 대한 방송사 소유 규제 등을 주요 사항으로 고려해 심사할 방침이다.

만약 심사에서 승인받지 못하면 차순위 낙찰 없이 재입찰에 돌입한다.

최종 입찰에는 유진그룹을 비롯해 한세실업, 글로벌피스재단(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이 참가했다.

한세실업은 의류 수출전문기업으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조업자 개발 생산(ODM) 등을 주로 한다. 시총은 81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글로벌피스재단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창시자인 고(故) 문선명 총재의 3남인 문현진 이사장이 이끌고 있다. 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는 YTN 인수를 위해 만든 법인이다.

한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핵심 자산인 YTN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고, 그해 1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YTN 지분매각 계획을 확정했다.

"""

Company = “유진테크”

Year = 2024

Article =

"""

유진테크는 2000년 설립된 반도체 공정장비 전문기업이다. 반도체 웨이퍼 처리공정 가운데 기판 위에 박막을 형성하는 장비를 제조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D램 양산 장비를 개발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국내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면서 함께 외형을 키웠다. 오너이자 이사회 의장인 엄평용 대표의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발판삼아 성장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엄 대표의 안정적인 지배구조가 이사회 발달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사회 구성원이 총 3명으로, 오너와 대표 중심으로 구성된 데다 사외이사도 한명뿐이라 견제기능도 발달하지 못한 편이다. 다만 올해 5~6월 주가가 치솟으면서 경영성과 지표는 상대적으로 고득점을 받았다.

더벨은 자체 평가 툴을 제작해 ‘2024 이사회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 5월에 나온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2023년 사업보고서, 2024년 반기보고서를 기준으로 삼았다. 6대 공통지표(△구성 △참여도 △견제기능 △정보접근성 △평가 개선 프로세스 △경영성과)로 유진테크의 이사회 구성과 활동을 평가한 결과, 255점 만점 대비 107점으로 산출됐다.  
  
이사회 구성 부문 평균점수가 1.1점으로 가장 낮았다. 9개 중 8개 항목에서 1점을 받으면서다. 먼저 엄평용 대표이사가 최대주주이면서 이사회 의장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오너가 의장을 맡을 경우 이사회의 독립성 측면에서 최하점을 부여한다. 이사회 구성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이 낮은 점도 감점 요인이었다. 유진테크의 이사회는 엄 대표를 포함해 신승우 대표이사(사장)과 남기만 사외이사로 구성됐다. 사외이사 비율이 50% 미만으로 최하점을 받았다.  
  
소위원회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유진테크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소위원회가 1개도 없다는 점에서 여러 항목에서 감점을 받았다. 이외에도 감사 지원조직은 있으나 이사회 지원조직은 따로 없었고, BSM(Board Skills Matrix)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사항이었다.  
  
참여도 부문 평균점수는 2.0점을 기록했다. 이사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이사회 구성원들이 성실하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감사위원회 회의나 사외이사 후보 풀에 대한 관리활동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다만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가점 요인이었다.

견제기능 부문에서는 임원진 보수 항목의 점수가 높았다. 평균 점수는 1.9점으로 낮았지만, 스톡옵션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유진테크는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원, 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등기이사의 평균 보수가 2억4000만원으로 미등기임원의 평균보수 8100만원보다 높다는 점도 후한 점수를 받았다. 등기임원이 책임경영을 한다는 차원에서다.  
  
정보접근성 부문은 평균 점수 2.0점으로 참여도와 함께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이사회와 개별 이사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접근성을 높였다. 다만 사외이사추천위원회가 없고, 주주환원정책을 따로 공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소였다.  
  
유진테크는 평가개선 프로세스 부문에서 평균 1.9점을 받았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아서다. 유진테크는 이사회에 대한 내부 평가 및 이에 대한 개선안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 이사회 활동에 대한 평가는 외부, 내부 평가 모두 이뤄지지 않아 1점이 부여됐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 없다는 점은 5점을 받았다.  
  
경영성과 부문은 평균 점수가 3.5점으로 가장 높았다. 올해 상반기 주가가 급등하면서 주가 관련 지표가 개선된 영향이 컸다. 유진테크는 올해 초 주가가 3만2000원 수준이었으나 5월 말 한때 6만원을 터치했다. 이에 주가순자산비율(PBR)이나 주가수익률, 총주주수익률(TSR)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매출성장률, 영업이익성장률의 경우 평균치보다 낮은 성적을 거뒀다.

"""

Company = “유진테크”

Year = 2025

Article =

"""

반도체 장비 업체 유진테크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611억7700만원으로 전년 보다 151.5% 증가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매출은 22.2% 늘어난 3380억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순이익은 157.6% 확대된 654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한편 유진테크는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삼성전자를 거쳐 삼성전기에서 부사장으로 일했던 안정수 현 수석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한다.   
  
안정수 수석사장은 지난해 7월 영입됐다. 최고기술마케팅책임자(CTMO) 역할을 맡아왔다.

"""

Company = "다이아"

Year = 2022

Article =

"""

[디아이](https://markets.hankyung.com/stock/003160)가 자사주 소각 소식에 5% 넘게 올랐다.  
7일 디아이는 전 거래일 대비 290원(5.74%) 오른 5340원에 마감했다. 장중 600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오름폭을 줄이며 장을 마감했다

이날 디아이는 자사주 319만6785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시했다. 소각예정금액은 약 91억5116만원이며 소각 예정일은 오는 14일이다.

회사 측은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 기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이므로 자본금 감소는 없다"며 "주가 부양과 주주가치 제고의 측면에서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은 유통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배당금이 높아질 뿐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소각 이전보다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어 기업들이 주가 관리 수단으로 자주 이용하는 방법이다.

코스피 상장 반도체 검사장비업체 디아이가 전체 주식 수의 10%가 넘는 주식을 소각하기로 했다. 디아이는 가수 싸이(박재상)의 아버지인 박원호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다.7일 공시에서 디아이는 보통주 319만 6785주(10.15%)를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 주가로 계산하면 160억원 규모다.디아이는 자사주가 560만주(17.77%)에 달했다. 올해 주가가 작년 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것이다.자사주가 소각되면 기존 주주들은 보유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박원호 회장은 지분율이 13.49%에서 15.01%가 된다. 2대 주주이자 박 회장 동생인 박원덕 부회장 지분율은 12.81%에서 14.25%가 되는 식이다.박 회장 형제 보유 지분의 27%에 달하는 225만주(7.14%)가 담보로 잡혀있다.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담보권이 실행될 가능성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앞서 한미반도체, 디지털대성, 메리츠화재 등이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바 있다. 자사주 매입에 비해 소각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자사주 매입이 소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어 자사주 매입의 주가 부양 효과가 적다"고 지적했다.자사주를 매입하면 이를 주가가 오른 뒤 되팔 수 있다. 또한 자사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도, 우호 세력에게 빌려주거나 파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사용할 수도 있다.

"""

Company = "디아이"

Year = 2023

Article =

"""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CXL(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 시장이 삼성전자의 관련 상표 출원을 계기로 본격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최근 삼성전자에 DDR5용 차세대 번인 테스터(Burn-in Tester)를 공급이력이 있는 디아이 주가가 강세다.  
  
14일 오후 2시22분 디아이 주가는 전일 대비 160원(2.58%) 오른 6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삼성전자는 삼성(Samsung) CMM-D, 삼성 CMM-DC, 삼성 CMM-H, 삼성 CMM-HC 등 총 4개의 상표를 한 번에 출원했다. 지정상품은 '반도체 메모리장치, 칩(집적회로), 데이터 저장장치' 등이다.  
  
CXL은 중앙처리장치(CPU) 또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메모리 반도체 간 데이터 전송 속도를 대폭 향상시키는 DDR5 D램 기반의 기술이다. PC 등 물리적 한계가 있는 공간에서는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D램 등을 장착하는 데 제약이 따르지만 CXL을 활용하면 대용량 데이터도 병목현상 없이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다.  
  
특히 CXL은 기존 D램과 공존하면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대역폭과 용량을 확장할 수 있어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 고속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차세대 컴퓨팅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기존 D램의 한계를 CXL을 통해 확장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장 잠재력도 크다. 시장조사업체 욜그룹에 따르면 글로벌 CXL 시장은 오는 2028년 150억달러(한화 약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삼성전자는 2021년 5월 세계 최초로 CXL 기반 D램 기술을 개발하고 지난해엔 업계 최초로 고용량 512GB(기가바이트) CXL D램을 선보였다. 올해 5월월에는 CXL 2.0을 지원하는 128GB CXL D램을 개발했다며 연내 양산 계획을 밝혔다.

"""

Company = "디아이"

Year = 2024

Article =

"""

디아이(003160)의 주가가 급등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디아이의 주가는 오후 3시 6분 기준 전일 대비 15.51% 상승한 1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디아이의 주가 상승 배경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설비투자와 장비 발주를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국내 반도체 업계 수혜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디아이는 최근 자회사 디지털프론티어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SK하이닉스에 반도체 검사장비를 공급계약 체결을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각각 166억원과 1237억원 규모로 합산하면 지난해 디아이 연간 매출액 2145억원의 65.41%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한 지난 24일 삼성전자와도 반도체 검사장비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소식을 공시했다. 검사장비는 HBM4용 웨이퍼 번인테스터로 반도체의 내구성을 검증하는 장비이다. HBM과 같이 고성능 메모리의 경우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공정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디아이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수주한 물량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인식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반도체 업계의 보수적인 투자 기조에도 디아이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디아이는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꾸준히 수주를 확보하며 후공정 검사장비 업체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디아이는 1961년 설립된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업체로, 매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반도체 장비 사업 외에도 전자부품 사업, 수(水)처리 관련 환경사업, 음향·영상기기 사업, 2차전지 장비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Company = "디아이"

Year = 2025

Article =

"""

"""

Company = "네온테크"

Year = 2022

Article =

"""

자동화설비(FA)시스템업체 네온테크 주가가 장중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반도체사업은 물론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드론사업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
| --- |
|  |

23일 오후 2시20분 기준 네온테크 주가는 직전 거래일보다 28.89%(1300원) 오른 5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네온테크 주가는 직전 거래일보다 8.78%(395원) 오른 489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내 매수세가 몰리며 9시10분경 상한가에 도달했다.  
이후 상한가 이하로 떨어졌다 다시 상한가에 도달했다를 반복하며 상한가 근처에서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네온테크 주가는 이날 장중 한때 상한가까지 오르며 지난해 11월12일 세운 사상 최고가 기록(5600원)도 약 6개월 만에 새로 썼다.  
반도체와 드론사업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한국 방문 기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만나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에서 양국의 협력을 더욱 단단히했다.  
정의선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 이후 자동차뿐 아니라 미국 내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로보틱스 등 미래 먹거리분야에서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네온테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등에 쓰이는 각종 자동화설비를 유통하고 일부 제품의 경우 직접 제작해 공급하는 업체로 신사업으로 드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네온테크는 지난해 드론사업에서 매출 2억3천만 원을 올렸다. 전체 매출의 0.5%에 이른다.  
네온테크는 1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110억 원, 영업이익 3억 원을 올렸다. 지난해 1분기보다 매출이 43% 늘고 영업이익을 내면서 흑자 전환했다.  
네온테크는 지난해에는 연결기준으로 매출 499억 원, 영업손실 29억 원을 냈다. 2020년보다 매출은 27% 늘었지만 영업손실을 내면서 적자로 전환했다.

"""

Company = "네온테크"

Year = 2023

Article =

"""

어링과의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수금액은 205억 원이며, 이번 인수합병으로 네온테크의 매출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차 전지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1994년도 설립된 구일엔지니어링은 경북 구미에 위치한 LCD, OLED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기업으로 2022년도 매출액 872억 원을 달성했다. LG디스플레이 협력사로서 ▲OLED ▲LCD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초대형 In-Line 물류 및 자동화 장비 ▲정밀 Resin 도포·합착 장비 등의 사업을 영위하며 신규사업으로 2차전지 사업을 위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왔다.

네온테크 관계자는 "구일엔지니어링은 코로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으나 2021년도 영업이익률 약 1.5%에서 2022년도 8.0%로 큰 개선을 보였다. 또한, 신성장동력인 2차전지와 방위산업 분야 역량도 꾸준히 키워오고 있다"며 "특히 미사일의 발사체 사업에 참여해 자동화 조립라인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 구일엔지니어링의 향후 성장성과 지속성을 높이 평가하여 이번 인수를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구일엔지니어링은 이미 구미5공단 부지를 매입해 2차전지 사업을 위한 공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네온테크는 2차전지 사업의 인력과 사업화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이에 당사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요건을 갖추게 되어 2차전지 사업 진출을 가시화하게 됐다"며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당사가 영위하는 장비사업과 FA사업 규모를 확장 및 구매력 상승을 통한 원가 감소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더 나아가 당사의 드론사업과 구일엔지니어링의 국방사업 간의 국가 사업으로서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네온테크는 정부 핵심 전략기술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 드론, 2차전지, 방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게 되어 기업 성장의 가속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Company = "네온테크"

Year = 2024

Article =

"""

네온테크 자회사 구일엔지니어링은 이광노 구일엔지니어링 부사장이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대표는 금오공과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해 오리온전기 생산기술팀 과장, 구일엔지니어링 사업부 전무, 구일엔지니어링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구일엔지니어링에서 17년 동안 근무하며 TFT LCD, OLED, 플랙서블 디스플레이 등 부품, 장비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회사 측은 이 대표가 공정장비의 국산화와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이광노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달성! 3030비전'을 주제로 회사의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매출 3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사업 다변화를 통한 매출 다각화 △선행개발실 설립 기반의 핵심 기술 내재화 △적극적 우수인재 확보 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기술력 강화와 적용분야 확대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힘 쓸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내실있는 기업 구일엔지니어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반도체·자동화 장비 전문기업 네온테크가 전략적투자자(SI)로 구일엔지니어링 지분 66.13%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했다. 현재 DB금융투자와 올해 하반기 중 상장을 준비 중이다.

"""

Company = "네온테크"

Year = 2025

Article =

"""

영업이익 역시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35억원을 기록했다.  
네온테크는 올해부터 드론 및 푸드테크 사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시장 입지를 확대해 본격적으로 성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롯데 GRS에 보글봇 자동화 튀김기 최초 공급 이후 더터치온, BBQ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푸드테크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넓히며 사업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드론 산업에서의 입지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포천시와 국방무인기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네온테크](https://search.mt.co.kr/?kwd=306620&search_type=m) (2,490원 ▲25 +1.01%)는 13일 지난해 누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104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창사 이래 최초로 매출 1000억원 이상을 달성했다.

영업이익 역시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35억원을 기록했다.  
네온테크는 올해부터 드론 및 푸드테크 사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시장 입지를 확대해 본격적으로 성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롯데 GRS에 보글봇 자동화 튀김기 최초 공급 이후 더터치온, BBQ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푸드테크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넓히며 사업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드론 산업에서의 입지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포천시와 국방무인기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Company = "미코"

Year = 2022

Article =

"""

없음

"""

Company = "미코"

Year = 2023

Article =

"""

미코그룹은 현재 에너지, 바이오, 반도체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계열사인 미코파워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수소 연료전지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개발에 성공했다. 수소산업의 가장 핵심인 원천기술을 순수 국내 기술로 획득한 것이다. SOFC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세계적으로 미코파워와 더불어 블룸에너지(미국), 세레스 파워(영국), 솔리드 파워(독일), 교세라(일본) 등 5곳에 불과하다.

"""

Company = "미코"

Year = 2024

Article =

"""

전선규는 2024년 6월30일 기준으로 미코 주식 504만3528주(15.0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전선규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7인이 19.92%의 지분율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전선규의 배우자 노현영씨도 58만3947주(1.75%)의 지분을 들고 있다.  
  
미코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사업, 연료전지 사업 등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은 반도체 제품이 약 9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외 매출 비중은 내수가 약 70%로 대부분 국내 수요에 의존하고 있다.  
  
2002년 1월1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미코는 2024년 6월30일 기준으로 15개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두고 있다. 상장사가 1개, 비상장사가 14개다.

미코의 계열회사는 상장사 2개, 비상장사 16개 등 총 18개다.  
  
상장사는 코미코와 미코바이오메드다. 바이오헬스케어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비상장사 16개는 연결대상 종속회사 14개와 의료진단 기업 스페클립스, 에이치제일호 사모투자합자회사 등이다.  
  
미코의 이사회는 3명의 사내이사와 1명의 사외이사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내이사 3명은 전선규와 이석윤 대표이사, 하태형 부회장이다. 사외이사는 최운화 Quantum Advisors LLC. CEO다.  
  
미코는 감사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상근감사 1명을 두고 있다.  
  
감사는 이광열씨다. 이광열씨는 DB 금융투자에서 CFO(재무담당 최고책임자), 인사담당, 준법감시인으로 재직했다.

"""

Company = "미코"

Year = 2025

Article =

"""

"""

Company = "네오셈"

Year = 2022

Article =

"""

네오셈은 글로벌 1위 SSD(Solid State Drive) 테스터 기업으로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또 반도체 검사 장비인 MBT(Monitoring Burn In Tester)와 D램 모듈 자동테스트 장비를 제조해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제품별 매출을 보면 ▲SSD 테스터 81% ▲Burn-in 테스터 12% ▲상품 및 용역 등 6% 등으로 구성돼 있다. 네오셈는 SSD 테스터 분야 시장점유율 1위로 전세계 4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세계 11개국 61개 기업과 거래하고 있다.   
  
특히 SSD는 고성능, 저전력, 고용량 등 다양한 부분에서 HDD를 압도하고 있다. 최근 주목받는 빅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등에서도 SSD 채택이 급증하면서 데이터 스토리지 전분야에서 SSD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네오셈은 올해 4, 5세대 SSD 테스터 투자를 통한 매출 확대가 점쳐지고 있다. 인텔 Sapphire Rapids 출시 예정일을 감안하면 올해 Engineering 장비를 시작으로 하반기 양산장비 시장의 개화가 전망된다. 아울러 국내 Burn-in 테스터의 신규 거래선 진입 효과, 자동화 솔루션의 관심도 증가에 따른 수주 규모의 확대도 기대된다.  
  
특히 네오셈은 삼성전자에 SSD 에이징 테스터 부문에서 세컨 벤더에 대한 추가 모집에 제안을 넣은 상태다. 삼성전자는 포스트 공정에 대해서 이미 공청회를 진행했고, 네오셈이 2건을 제안했고, 결과발표는 이달 예정이다.

"""

Company = "네오셈"

Year = 2023

Article =

"""

반도체 테스트 전문업체 ㈜네오셈(대표이사 염동현)은 미국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이하 마이크론)로부터 Assembly and Test Capital 장비 분야에서 최우수 협력사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론은 매년 자사의 수천 개의 글로벌 협력사들을 12개 카테고리로 나누고, 개별 협력사를 대상으로 비용 효율성, 납기준수, 품질, 기술혁신 등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카테고리별 1위 최우수 기업 12개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네오셈은 12개의 최우수 기업 중 Assembly and Test Capital 부문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하여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네오셈 염동현 대표는 "이번 대상 수상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여 전세계시장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게 됐다"며 "향후 더욱 경쟁력 있는 회사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

Company = "네오셈"

Year = 2024

Article =

"""

네오셈은 차세대 반도체 검사 장비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201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네오셈은 SSD 검사 장비와 MBT(Monitoring Burn-In Tester)를 주력으로 생산,  글로벌 SSD 검사 장비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 SSD 제조사에 장비를 공급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CXL 1.0, 2.0 메모리 검사 장비와 CPU 기반 Gen5 SSD 검사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며 차세대 반도체 검사 장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반도체 시장에 적응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

Company = "네오셈"

Year = 2025

Article =

"""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 기업 네오셈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18분 현재 16.24% 올라 1만 16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삼중 바닥에서 벗어나 갭상승을 하고 있다. 사상 최대 실적 기록전망이 주가에 힘을 불어 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오셈은 SSD, 서버 DIMM, CXL 메모리 등 고성능 검사장비의 매출 증가에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15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서버 DIMM은 서버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다. 일반적인 데스크톱 컴퓨터에도 DIMM이 사용되지만, 서버 DIMM은 서버 환경에 특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

Company = "신성이엔지"

Year = 2022

Article =

"""

[신성이엔지(011930)](javascript:;)가 ‘2022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퓨어루미는 신성이엔지가 40년 이상 축적한 공조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천정형 공기청정기다. 천장 중앙에 설치해 기존 스탠드형 공기청정기와 비교해 공간 활용성과 관리 편의성을 높였다.  
  
퓨어루미는 360도 센터청정기술을 접목해 실내 공간 사각지대 없이 청정한 공기를 공급, 청정 효율을 높일 수 있다. 3중 필터 시스템으로 극초미세먼지를 99.95% 제거하며 유해가스, 냄새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한국공기청정협회(KACA)가 부여하는 CA 인증도 받았다.

신성이엔지가 지난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556억원, 영업이익 78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고, 흑자 전환했다. 3분기 누적 매출은 46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늘었고, 영업이익은 209억원으로 역시 흑자로 돌아섰다.  
  
클린룸과 드라이룸 사업 부서인 클린환경(CE) 사업부와 태양광 사업을 담당하는 재생에너지(RE) 사업부 동반 성장이 호실적 배경이다. 신성이엔지는 4분기에 반도체와 2차전지 기업으로 클린룸·드라이룸 수주를 확대하고, RE사업부는 내년 매출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리겠단 계획이다.  
  
이 회사의 지난 3분기 CE사업부 매출은 1263억원으로 전년 동기(848억원) 대비 4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49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23억원)보다 113% 늘었다.  
  
신성이엔지의 3분기 말 수주잔고는 3123억원으로 전년 동기(2043억원) 대비 약 53% 늘었다. 앞서 신성이엔지는 지난 3월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인도네시아 배터리 합작공장(177억원 규모), 4월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276억원), 7월 두산테스나의 안성 공장(85억원) 클린룸 수주를 따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회사는 4분기에도 삼성전자 평택 공장,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법인 등으로 클린룸 및 드라이룸 수주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5월 미국 애틀란타에 현지 법인을 추가 설립하기도 했다.  
"""

Company = "신성이엔지"

Year = 2023

Article =

"""

엄 상무는 2020년 전라북도 김제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표준 공장에 신성이엔지가 태양광 모듈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M10 모듈 생산라인을 안정화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고출력, 친환경 모듈 생산 및 수율 향상을 이뤄 국내 태양광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 공로를 인정 받았다.

엄수봉 상무는 "국내 태양광 산업의 제조 경쟁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는데 이를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신성이엔지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성이엔지가 입주해 있는 김제 자유무역지대는 입주 기업에게 무관세 혜택, 조세 특례,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을 통해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신성이엔지는 국내 태양광 1세대 기업으로 2020년부터 김제 자유무역지대 표준공장에 태양광 모듈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김제 및 새만금 지역 고용확대 및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

Company = "신성이엔지"

Year = 2024

Article =

"""

신성이엔지가 기존 안윤수·이지선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이지선 대표 단독체제로 전환한다고 21일 공시했다. 안 대표가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최대주주인 이 대표이사의 책임경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경영 효율성 강화에 방점을 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회사 창업주인 이완근 회장의 차녀로, 서강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해 2002년 신성이엔지에 입사했다. 회사에서 재무, 홍보, 기획 등 주요 업무를 두루 거쳤다.   
  
2011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았으며, 2017년 대표직에 올랐다. 현재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다.  
  
안 부회장은 1984년 평사원으로 입사해 대표이사까지 오른 베테랑 전문경영인이다. 현재 신성이엔지의 주력 사업인 클린환경(CE) 부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인물로 평가된다.  
  
안 부회장의 승진으로 신성이엔지는 지난 2016년 신성솔라에너지·신성에프에이와의 회사 합병 이후 유지해온 각자 대표 체제를 8년 만에 단독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이와 함께 신성이엔지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무 1명, 상무 3명의 2024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회사는 전문성 강화와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원인사에서는 경영지원부문 재무실과 구매실에서 각각 전무 1명과 상무 1명, 사업부문에서 2명의 상무 승진자가 나왔다. 재무실에서는 이준용 전무가, 구매실에서는 박준수 상무가 승진했다. 사업부에서는 클린환경 사업부문 하이테크사업부에서 전상훈 상무가 승진했으며, 2차전지 사업부문 미국법인에서 전성호 상무가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Company = "신성이엔지"

Year = 2025

Article =

"""

신성이엔지는 이지선 대표가 제42회 안양시 상공의 날을 맞아 안양과천상공회의소로부터 '상공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혁신적인 기업 경영과 사회공헌 활동으로 상공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라는 설명이다. 상공대상은 안양과천상공회의소가 매년 상공업 진흥에 공헌한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신성이엔지는 클린룸 핵심 장비인 FFU(Fan Filter Unit)를 국내에서 처음 국산화하며 최첨단 공기제어기술로 세계 산업용 공기청정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첨단 클린룸 솔루션과 스마트 팩토리 기술로 국내 반도체 산업 혁신을 이끌며, 친환경 혁신 소재 개발과 탄소중립 실천에도 적극 참여해왔다.

"""

Company = "칩스앤미디어"

Year = 2022

Article =

"""

칩스앤미디어가 최근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로 반도체 설계자산 (Intellectual Property) 수요가 증가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반도체 IP 전문업체인 칩스앤미디어가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어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3개월간 1만5000원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는 주가가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칩스앤미디어는 시스템 반도체 IP 개발 및 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반도체 IP 전문업체이다. 2003년 3월 설립됐으며, 2015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반도체 설계자산은 반도체 칩에 삽입되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블록으로, 일반적으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도체IP 또는 ‘IP’라고 통칭한다.   
  
칩스앤미디어가 반도체 칩 제조사에 비디오 IP를 라이선스하면 반도체 칩 회사는 칩스앤미디어의 비디오 기술 및 자체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TV,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설계 및 개발한다.  
  
칩스앤미디어의 매출은 고객사에 IP를 공급할 때 받는 라이선스와 고객사가 이를 활용해 만든 반도체칩을 판매할 때 받는 로열티 그리고 유지보수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구분된다. 2021년 기준 칩스앤미디어의 매출은 라이선스 41.5%, 로열티 53.6%, 용역 4.8%으로 이루어져 있다.

"""

Company = "칩스앤미디어"

Year = 2023

Article =

"""

국내 연구진이 상온에서 대규모 양자 얽힘 현상을 구현할 수 있는 양자 소재 후보 물질을 확인했다는 소식에 지난 2016년 ISP 반도체설계자산(IP) 전문 업체 비트리에 지분 투자를 단행한 칩스앤미디어 주가가 강세다. 비트리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손잡고 세계 최초 양자난수생성 칩셋 상용화에 성공한 바 있다.  
  
24일 오전 9시36분 기준 칩스앤미디어 주가는 전일 대비 2350원(6.91%) 오른 3만6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김재욱 첨단양자소재연구실 선임연구원 연구팀이 터븀인듐산화물(TbInO3)이 양자컴퓨터 소자 등에 쓰일 수 있는 양자스핀액상(QSL) 물질이 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QSL 후보 물질 중 하나인 터븀인듐산화물(TbInO3) 단결정에서 이를 실험적으로 확인하는 데 최초로 성공했다. 실험은 극저온에서 상온에 이르는 넓은 온도 범위와 다양한 자기장, 주파수 대역에서 진행됐다.  
  
그 결과 특정 영역에서 광학전도도가 정확히 주파수 제곱에 비례함을 실험적으로 입증됐다. 영상 27도 수준의 실온에서도 광학전도도 비례 현상이 나타났다.

"""

Company = "칩스앤미디어"

Year = 2024

Article =

"""

칩스앤미디어는 2003년에 설립된 반도체 설계자산(IP) 회사다. 2015년 코스닥에 입성했다. IP는 반도체 칩에 삽입돼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설계도다. 칩스앤미디어는 비디오 IP에 특화됐다. 비디오 IP의 경우 멀티미디어 반도체 칩에 삽입돼 동영상 녹화나 재생 기능을 담당한다. 모바일 기기부터 시작해 영상가전, 자동차 등 광범위한 범위에 적용되고 있다.

작년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NPU IP인 'CMNP'를 개발했다. 저화질 영상을 고화질로 변환하는 슈퍼레졸루션(SR)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타사 제품 대비 크기가 80% 작아 전력 소모가 적고 효율성이 높다. 올해 9월 중국의 인공지능(AI) 시스템반도체(SoC) 개발 기업과 첫 계약을 이룬 바 있다.

김 대표는 "우리의 NPU는 영상에 최적화돼 화질을 높일 때 사용되는데 온-디바이스 AI에 많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가전과 카메라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업 중"이라며 "자동차 쪽으로도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과 자율주행에서 영상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디어라는 것은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Company = "칩스앤미디어"

Year = 2025

Article =

"""

칩스앤미디어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53억7000만원, 영업이익 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4%, 2065.8% 오른 수치다.  
  
회사는 매출 증가의 배경으로 중국 합작법인의 성과를 꼽았다. 회사는 "인공지능(AI) 분야 라이선스 계약이 크게 늘었다"며 "이번 분기 라이선스 매출은 30억5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상현 칩스앤미디어 대표이사는 "인공지능(AI) 시스템온칩(SoC)과 신경망처리장치(NPU) 지식재산(IP) 등 고부가가치 기술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지속되면서 라이선스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글로벌 고객 확대와 NPU IP 프로모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사는 반도체 IP에 대한 사용권 계약 중심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완제품 수출 중심의 기업들과 달리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러한 구조적 강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 안정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주목받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AI와 NPU 분야에 대한 고객사의 기술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IP를 중심으로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

Company = "해성디에스"

Year = 2022

Article =

"""

해성디에스가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기판 수요 증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17일 "해성디에스는 IT제품의 수요둔화가 하반기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성디에스는 중장기적으로 자율주행기술 발달과 전기차 전환추세에 힘받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바라봤다.

|  |
| --- |
|  |

해성디에스는 반도체 칩을 올려 부착하는 금속기판인 리드프레임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리드프레임은 반도체 칩과 외부회로를 연결하는 전선(Lead)역할과 반도체 패키지를 전자회로기판에 고정시켜주는 버팀대(Frame)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핵심재료다.  
  
임 연구원은 "2022년 상반기 리드프레임 기판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로 3위에 올랐다"며 "가치사슬에 얽혀있는 부품회사를 쉽게 교체하지 않는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차량용 반도체 기판에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임 연구원은 "해성디에스의 매출은 IT제품과 서버, 차량용 반도체가 각각 1/3씩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2022년 들어 IT제품의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하반기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점은 불안요소다"고 짚었다.

삼성증권은 해성디에스가 2022년 연결기준으로 매출 8680억 원 영업이익 2130억 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보다 매출은 32.5%, 영업이익은 147.6% 늘어나는 것이다. 조장우 기자

"""

Company = "해성디에스"

Year = 2023

Article =

"""

반도체 부품 전문 제조기업 해성디에스(대표이사 조병학)가 27일 공시를 통해 2023년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해성디에스의 2023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555억원, 영업이익은 194억원, 당기순이익은 172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불황이 지속되면서 해성디에스의 3분기 매출액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차량용 반도체 리드프레임 및 DDR5 기판 관련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로 영업이익률은 업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글로벌 경기둔화 심화 등으로 반도체 시장의 침체국면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지만, 차량용 반도체 및 메모리 반도체 중 DDR5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내년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본격 회복할 것이라 업계에서 전망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반도체 IDM 및 OSAT 고객사들과 제품개발 논의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성디에스 관계자는 "내년에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순차적으로 회복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어 반도체 업사이클에 따른 수혜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차량용 반도체 부문 신규 고객사 점유율을 늘리고 DDR5로의 패키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25년 완공 예정인 3880억원 규모의 증설 투자는 설비 발주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신규 매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실적 개선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성디에스가 작년 하반기에 인수한 필리핀 전력반도체 소자(Discrete) 사업장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생산준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글로벌 주요 전력반도체 고객사 들을 통해 시장진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Company = "해성디에스"

Year = 2024

Article =

"""

반도체부품 전문 제조기업 해성디에스가 이사회 구성 측면에서 아쉬운 평가를 받았다. 대표이사가 아닌 오너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등 사외이사 독립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자산 규모 2조원 미만 기업으로 이사회 내에서 사외이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이 되지 못했다.  
  
해성디에스 사내이사는 이사회 내에서 과반을 차지한다. 게다가 단재완 회장의 두 아들인 단우영 부회장과 단우준 사장 모두 사내이사로 선임돼 오너 일가가 이사회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보인다. 다만 소위원회를 설치 모

THE CFO가 실시한 '2024 이사회 평가'에서 해성디에스는 총 255점 중 145을 받았다. 이사회 평가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2023년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구성 △참여도 △견제기능△정보접근성 △평가 개선 프로세스 △경영성과 등 6개 분야에서 이사회 구성 및 활동 내역이 평가됐다.  
  
'구성' 분야 평균 점수는 2.2점으로 집계됐다. 9개 평가 항목에서 20점을 받았다. 구성 분야 평가 항목은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여부, 사외이사 비율, 사외이사 소위원회 위원장 선임 여부, 이사회 규모, 이사회 내 위원회 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BSM(Board Skills Matrix) 활용 여부, 다양성, 지원조직 유무 등이다.두 사외이사로만 채워 경영진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

Company = "해성디에스"

Year = 2025

Article =

"""

반도체 부품 전문 제조기업 해성디에스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로부터 ‘최우수 공급업체 상(Supplier Excellence Award)’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2022년에 이은 두 번째로, 해성디에스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공급 안정성 및 기술 협력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TI는 전 세계 1만여 개 이상의 공급업체 중 철저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소수의 우수 업체를 선정해 매년 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전 세계에서 단 19개 업체만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성디에스는 그중 하나로, 기술력과 품질, 원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다.

반도체 부품 전문기업 해성디에스가 올해 1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최종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BNK투자증권은 해성디에스에 대해 목표 주가를 기존 3만6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전 거래일 해성디에스의 종가는 2만2200원이다.

올해 1분기 해성디에스는 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11% 감소한 1375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98% 급감한 4억원이었다. 각각 증권사 평균 전망치 대비 7%, 96%씩 밑돌았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장용은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테스트(OSAT) 고객 수요는 양호했음에도 종합반도체기업(IDM) 수요 감소가 훨씬 컸고, 패키지 매출은 메모리 감소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12%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올해 2분기에는 전략 고객향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패키지 공급이 재개되고, 북미 신규 고객향으로 리드프레임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은 내년에 일어날 것으로 보았다. 그는 "낮아진 실적 전망에도 현재 주가 과매도 상태"라며 "실적 흐름 방향성에 변화가 올 때까지 긴 호흡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Company = "SFA반도체"

Year = 2022

Article =

"""

SFA반도체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매출은 2020년 5731억원에서 2021년 6411억원으로 올랐다. 올해 상반기는 3607억원으로 전년대비 성장이 기대된다.  
  
김 대표는 "웨이퍼레밸패키지(WLP) 및 어드밴스드 패키지 등 고부가 사업을 가속화하고 시스템반도체 영역도 꾸준히 확대할 것"이라고 SFA반도체 비전을 공유했다. SFA반도체는 글로벌 OSAT 산업에서 11위(매출 기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첫 톱10 진입이 가시화한 상태다.  
  
모회사인 에스에프에이는 기존 디스플레이 위주에서 배터리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했다. 새 핵심인 배터리 설비 부문은 물류와 후공정에서 전공정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올해 스태커(적층), 노칭기(양·음극판 절단), 전해액 주입기 등을 상용화했다. 전극 공정에서 쓰이는 코터(코팅 및 건조)도 내년 개발 완료 및 사업화할 계획이다. 현재 고객사와 테스트 관련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김 대표는 "(에스에프에이가 준비 중인) 코터는 경쟁사 제품 대비 생산성은 높이 사이즈는 대폭 축소한 신개념 설비"라며 "회사가 신규 개발하는 장비는 기술집약도가 높은 프리미엄 제품군"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유통 라인 장비도 공략 대상이다. 반도체는 메인 팹 물류시스템 시장 진입과 국내외 웨이퍼 제조사 및 시스템반도체 고객사 확대 추진에 나선다. 유통은 스마트 장비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에스에프이이는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 8130억원 영업이익 923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동기대비 12.9%와 22.3% 늘어난 수치다. 별도기준으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956억원, 395억원이다. 전년동기대비 6.6% 및 3.6% 확장했다. 상반기 매출에서 비디스플레이(배터리·반도체·유통 등) 비중은 65%로 2020년(42%), 2021년(56%) 대비 상승했다.

"""

Company = "SFA반도체"

Year = 2023

Article =

"""

디스플레이에서 2차전지(배터리), 반도체, 유통물류(스마트팩토리) 등으로 사업다각화에 나서고 있는 종합장비업체 [에스에프에이](https://comp.fnguide.com/svo2/fncompany.asp?gicode=A056190&cId=CB)(21,050원 ▼ 300 -1.41%)(SFA)가 3분기 별도 기준 매출 2181억원, 영업이익 88억원으로 부진한 성적표를 내놨다.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이어오던 SFA는 이 기간 영업이익률이 4.1%로 떨어졌다.

연결 기준으로는 주요 종속회사인 [SFA반도체](https://comp.fnguide.com/svo2/fncompany.asp?gicode=A036540&cId=CB)(3,035원 ▼ 115 -3.65%)가 전방 업황 악화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적자 전환해 상황이 더 안 좋다. 매출 3804억원, 영업이익 22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14일 실적 발표 후 경기도 화성시 SFA 사업장에서 만난 김영민 대표는 "장비산업은 수주부터 매출 인식까지 1년이 넘게 걸리는데 그 사이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영향으로 수주 시점보다 실제 투입 제조원가가 증가해 수익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한국 등을 중심으로 벌이던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을 2차전지, 스마트팩토리 등으로 다변화하면서 활동 무대가 유럽, 미주 등으로 확대됐고 초기 안정화에 비용이 들어가면서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수주 실적이 매출에 본격 반영되는 4분기에는 3000억원 중반대의 매출(별도 기준)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반도체, 2차전지 업황이 개선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익성에서도 확실하게 반전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

Company = "SFA반도체"

Year = 2024

Article =

"""

1998년 세워진 에스에프에이(SFA)반도체는 후공정 전문 기업이다. 패키징(조립)과 테스트 서비스를 주로 하는 대표적인 OSAT 업체다. SFA반도체 매출 중 80% 이상은 메모리가 차지하고 있다. '편식' 현상을 깨기 위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으로 먹거리를 다양화하고 있다.  
  
SFA반도체의 지난해 실적에는 전방산업 부진 영향이 그대로 반영됐다. 평소 30% 전후로 관리하던 양호한 부채 비율이 경영성과 점수를 받쳐줬다. 다만 전체적인 평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대다수 영역의 평균 점수는 1점대에 그쳤다. 자산총액이 낮아 엄격한 이사회 운영 의무가 없다는 점이 영향을 줬다.  
  
**◇전반적인 이사회 점수 '저조'**  
  
THE CFO는 평가 툴을 제작해 '2024 이사회 평가'를 실시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와 올해 발표된 반기보고서 등이 기준이다. △구성 △참여도 △견제기능 △정보접근성 △평가 개선 프로세스 △경영성과 등 6개 공통 지표로 이사회 구성과 활동을 평가한 결과 SFA반도체는 255점 만점에 95점을 받았다.

'경영 성과'를 제외한 모든 항목의 평점은 1점대를 기록할 정도로 낮았다. 가장 낮은 항목은 '구성'이었다. 구성은 이사회 멤버들이 다양하게 채워졌는지 등을 평가한다.  
  
SFA반도체의 구성 항목 점수는 45점 만점에 11점이었다. 이사회 의장이 대표이사(2점)인 것과 이사의 다양성(2점) 외에 모든 항목이 최하점인 1점이었다. 5점 만점인 평균 점수는 1.1점이었다.  
  
이사회는 총 세 명이다. 이 중 사외이사는 고범상 이사 뿐이다. 나머지 이사는 김영민 SFA반도체 대표와 허준 기타비상무이사(SFA 상무)다.  
  
소위원회는 없다. 자산 총액 2조원 미만인 법인은 소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다. 지난 13일에 공시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SFA반도체의 올 3분기 별도 기준 자산총액은 4895억원이다.  
  
'평가개선 프로세스'와 '정보접근성'이 나란히 하위 2등을 차지했다. 각각 평균 1.2점이다. 평가개선 프로세스는 35점 만점에 12점, 정보접근성은 30점 만점에 10점이었다.  
  
평가개선 프로세스 항목은 이사회의 자정 능력을 살핀다. SFA반도체 이사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아 만점을 받았다. 하지만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는 수행되지 않았다. 이사회 전체에 대한 평가도 진행되지 않아 두 문항 모두 최하점을 받았다.  
  
정보접근성 항목은 이사회 회의 내용 등 관련 정보를 주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SFA반도체 이사회는 개별 이사의 활동 내역을 전자공시(DART)를 통해 공유했다. 회의 내용도 어떤 주제로 논의됐는지 파악될 수준으로 기재해 3점을 받았다. 다만 기업지배구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구체적인 이사회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어 1점을 받았다.  
  
견제기능 역시 평균 1.8점으로 저조했다. 이규영 감사가 유일하게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감사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회계사로서 전문 역량을 갖춰 5점을 받았다. 다만 사외이사가 1명이기 때문에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회의 자체를 열 수 없었다. 부적격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한 정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경영성과, 안정적인 재무 관리 '유일한 2점대'**  
  
SFA반도체의 성적표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따라 좌우된다.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를 대신 해주는 OSAT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이다. 매출의 80%는 메모리가 차지한다. 전방 산업에 취약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로 인해 지난해 SFA반도체의 연결 기준 매출은 4376억원으로 전년(6999억원) 대비 37.4% 감소했다. 2022년 629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지난해 167억원의 영업적자로 돌아섰다. 반도체 시황 악화로 인해 수주가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실적 악화는 평가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매출성장률, 영업이익성장률 평균에 미치지 못해 1점을 받았다. 각 문항의 평균은 4.7%, 2.42%다. 당기순손실(140억원) 영향으로 SFA반도체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94%다. 6.82%인 평균보다 낮다.  
  
재무건전성 지표는 5점을 받아 위안이 됐다. 지난해 SFA반도체의 부채 비율은 29.72%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실적이 좋았던 전년(39.5%)보다도 개선됐다. 순차입금을 상각전영업이익(EBITDA)로 나눈 항목은 0.6배다. 순차입금이 EBITDA에 비해 적다는 의미다. 1점대로 가라앉을 수 있었던 경영성과 점수를 2.8점으로 밀어올린 원동력이 됐다.

"""

Company = "SFA반도체"

Year = 2025

Article =

"""

에스에프에이는 ‘원진 부회장→디와이홀딩스(최대주주)→에스에프에이(SFA)’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로 짜여져 있다.  
  
김영민은 2024년 9월30일 기준으로 에스에프에이 주식 1만8685주(0.05%)를 보유하고 있다.  
  
김영민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12인이 총 43.89%의 지분율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최대주주는 비상장 계열사 디와이홀딩스로 40.98%의 지분을 들고 있다.  
  
에스에프에이는 스마트팩토리솔루션사업과 반도체패키징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매출비중은 각각 54%, 23% 정도다.  
  
2001년 12월1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에스에프에이는 상장사 4개, 비상장사 10개 등 총 14개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두고 있다.  
  
에스에프에이의 종속회사는 정밀기계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장비 판매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계열회사는 상장사 5개, 비상장사 15개 등 총 20개다.  
  
계열 상장사 5개는 에스에프에이, SFA반도체, 에스엔유프리시젼, 씨아이에스, SFA SEMICON 필리핀 법인 등이다.  
  
에스에프에이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내이사는 김영민과 원진 부회장이 맡고 있다.  
  
정송 KAIST(한국과학기술원) AI대학원 교수,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유상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사외이사로 있다.  
  
감사위원은 사외이사 3명이 겸하고 있다.  
  
△스웨덴 계열사 파산으로 영업적자 전환  
에스에프에이는 2024년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매출 1조5703억 원, 영업손실 381억 원, 당기순손실 136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2023년 같은 기간 매출 1조1758억 원, 영업이익 494억 원, 당기순이익 181억 원에 견줘 매출은 33.55% 늘어난 반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스웨덴 계열사 노스볼트의 파산으로 인한 손실이 일시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에스에프에이는 2023년에는 연결 매출 1조8812억 원, 영업이익 855억 원, 당기순이익 476억 원의 실적을 거뒀다.  
  
이는 2022년 매출 1조6844억 원, 영업이익 1609억 원, 당기순이익 1060억 원보다 매출은 11.69% 는 반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6.88%, 55.06% 줄었다.  
  
2021년 이후 매출은 꾸준히 규모를 늘리고 있으나 영업익과 순이익은 상당한 꺾임 폭을 보이고 있다.  
  
에스에프에이의 영업익 실적이 이 시점 이후 급감한 건 인플레이션으로 제반 제조원가 부담이 커진데다 해외 현지 인프라 구축 비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에스에프에이는 업황과 실적급감을 감안해 디스플레이 중심에서 이차전지·반도체 등으로 사업 범위를 넓혀 실적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Company = "에이팩트"

Year = 2022

Article =

"""

11일 에이팩트(대표 이성동)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2022년 3분기 매출액 135억원 영업이익 1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기대비 18.6% 전년동기대비 7.2% 상승했다. 영업이익은 전기대비 13.9% 전년동기대비 35.5% 늘었다

에이팩트는 메모리 테스트를 위탁 수행 업체다. SK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다.  
  
에이팩트는 "최근 세계적인 반도체 소비 위축과 D램 가격 하락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며 "번인(Burn-In) 테스트 장비 운영능력 기반으로 서버용 D램 비중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에이팩트는 에이티세미콘과 실무 협의 중인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사업 영업양수 계약이 완료되면 SK하이닉스 국내 외주사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에이팩트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불황에도 실적이 향상됐다"며 "패키징 사업 인수를 잘 마무리하면 4분기부터 관련 부문 실적이 반영돼 반도체 후공정 사업에서 연매출 1500억 원을 상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Company = "에이팩트"

Year = 2023

Article =

"""

이성동 에이팩트(2,260원 ▼ 105 -4.44%) 대표는 지난 18일 경기 안성시 에이팩트 사무실에서 조선비즈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2020년 패키징 사업을 위해 충북 음성에 제2공장을 준설했고 2022년엔 패키징 기업인 에이티세미콘과의 영업 양수도 계약을 통해 충북 진천 공장까지 인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고객들은 테스트와 패키징 분야 별로 각각 다른 기업과 거래를 하면 거래구조가 복잡해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고충을 겪게 된다"며 "패키징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해 후처리 공정을 모두 도맡는 식으로 고객의 고충을 덜어주고 회사도 수익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다.

에이팩트는 반도체 테스트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통해 이미 이름을 알린 업체다. 이 대표는 "에이팩트는 ‘하이브리드 번인’이라는 독자적인 테스트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반도체를 초고온 상태에 두고 전류를 흘려 극한 상황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 테스트 하는 기술이다"라 말했다. 극한 상황속에서 제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자동차, 우주선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품질 보증을 위해 만든 테스트라는 설명이다. 하이브리드 번인은 고객사의 수요에 맞춰 장비를 별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SK하이닉스 물량 80%가량을 받아 사업 구조가 안정돼 있는 에이팩트는 이를 해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독자적인 기술을 통해 고객도 더 늘릴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

Company = "에이팩트"

Year = 2024

Article =

"""

코스닥 상장사 ‘에이팩트’가 경영권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반도체 후공정 서비스 기업으로 오로라파트너스가 경영권을 인수한지 3년 만이다. 지난해 매각 시도가 한차례 불발됐으나 최근 다시 매각 절차에 시동을 걸면서 새 주인의 품에 안길지 주목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이팩트는 최근 국내외 투자은행(IB)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매각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절차를 거쳐 국내 한 회계법인이 매각주관사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에이팩트는 반도체 후공정 서비스 기업으로 2007년 설립된 하이셈이 모태다. 하이셈은 당시 SK하이닉스 협력업체 협의회에서 공동 출자해 설립됐다.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한 건 2020년이다. 코스닥에는 2014년 12월 상장했다. 설립 당시부터 꾸준히 SK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  
  
최대주주는 올해 3월 말 기준 특수목적법인(SPC) '뮤츄얼그로우쓰'로 지분 약 55.33%(2344만780주)를 보유하고 있다. 뮤츄얼그로우쓰는 사모투자펀드(PEF) 오로라파트너스가 에이팩트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한 SPC다. 2007년부터 동진쎄미켐 외 3인으로 구성됐던 최대주주는 2017년 3월 말 팬아시아세미컨덕터서비스로 넘어갔다가 2021년 3월 뮤츄얼그로우쓰로 변동됐다.  
  
오로라파트너스는 2021년 설립된 신생 PE로 에이팩트 인수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설립 이후 조성된 펀드도 에이팩트 인수를 위해 조성된 오로라 동반 성장 프로젝트 펀드 제1호와 2호 총 2개뿐이다.  
  
오로라파트너스가 설립한 펀드에는 OCI 계열사인 유니드와 유니드글로벌상사가 최대 출자자(LP)로 참여했다. 유니드글로벌상사는 2021년 9월 오로라 동반 성장 프로젝트 펀드 제1호에 300억원을 출자해 펀드 지분 58.14%를 보유하고 있다. 유니드는 제2호 펀드에 400억원을 출자해 지분 79.8%를 확보했다.  
  
유니드글로벌상사의 최대주주는 OCI 오너2세인 이화영 유니드 회장이다. 이 회장은 유니드 지분도 9.34% 들고 있다. 유니드 대표이사인 이우일 대표도 유니드글로벌상사 지분 35.71%, 유니드 지분 3.3%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오너일가→유니드글로벌상사→유니드→뮤추얼그로우쓰'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셈이다.  
  
오로라파트너스가 에이팩트 매각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두산테스나와 경영권 매각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논의가 결렬되며 매각은 이뤄지지 못했다.  
  
에이팩트 측은 경영권 매각 사실을 부인했다. 에이팩트 관계자는 "매각과 관련해 진행되는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

Company = "에이팩트"

Year = 2025

Article =

"""

에이팩트(200470)가 미국 AI(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통제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분 에이팩트는 코스닥 시장에서 전일 대비 24.34%(650원) 오른 33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AI용 반도체를 우방국에만 수출하고 나머지 국가는 구매 양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데이터센터 들어갈 AI 반도체의 판매를 제한함으로써 AI 개발이 우방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미국의 기준에 맞추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눠 수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소수의 미국 동맹으로 구성된 최상위층은 근본적으로 미국산 반도체를 지금처럼 제한 없이 구매 가능하다.

반면 적대국들은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나머지 국가는 수입할 수 있는 총 연산력(computing power)에 상한 설정된다. 이들 국가는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에 따르기로 동의할 경우 국가별 상한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다는 게 블룸버그의 보도다.

에이팩트는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는 후공정 전문기업이다. 회사는

AI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DDR5, GDDR6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테스트 양산 본격화했다.

더불어 비메모리 반도체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BGA, FC 등 고부가가치 패키징 기술을 강화했다.

한국은 우방국으로, 관련주인 에이팩트의 수혜 기대감이 커져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

Company = "하나머티리얼즈"

Year = 2022

Article =

"""

반도체소재회사 하나머티리얼즈 주식 투자의견이 매수로 제시됐다.  
  
고객사 바변화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  |
| --- |
|  |

김경민 하나금융투자 수석연구위원은 28일 하나머티리얼즈 투자의견을 매수(BUY)로, 목표주가를 9만6천 원으로 새로 제시했다.   
  
직전 거래일인 25일 하나머티리얼즈 주가는 5만26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하나머티리얼즈는 반도체에서 전류가 통과하는 부분인 전극 가운데 음극용 소재와 반도체 식각공정에서 원형의 실리콘웨이퍼 주변을 감싸는 실리콘링을 주력으로 생산한다. 이 부품들은 반도체 식각회사에 공급된다. 

하나머티리얼즈는 기존 고객기업인 도쿄일렉트론에 매출 대부분을 의존했으나 올해부터 이 밖의 고객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반도체 식각회사들이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소모품 조달기업을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머티리얼즈 매출에서 도쿄일렉트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3분기 기준으로 76%에 이른다.   
  
하나머티리얼즈가 북미 고객기업에서 거둬들이는 매출은 2021년 100억 원 미만이었으나 올해는 300~400억 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소재 산업은 반도체 수요 확대로 해마다 평균 24%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과 낸드플래시 감산 영향으로 2019년 국내 반도체 소재기업의 매출도 감소했으나 그 뒤로는 반도체 산업의 투자 규모 감소에도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하나머티리얼즈를 포함해 티씨케이, 원익QnC 등 국내 6곳 반도체 소재기업의 매출이 올해 1조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나머티리얼즈는 2022년에 개별기준으로 매출 3395억 원, 영업이익 1062억 원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과 비교해 매출은 25.2%, 영업이익은 29.1% 증가하는 것이다. 차화영 기자

"""

Company = "하나머티리얼즈"

Year = 2023

Article =

"""

이베스트투자증권은 5일 하나머티리얼즈(166090)에 대해 아산 2공정 증설로 현 생산능력(Capa) 기준 2배 확장되는 동시에 업황 회복 및 도쿄일렉트론(TEL)의 신규 장비에 따른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6만3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하나머티리얼즈는 반도체 건식식각에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하며 주요 제품으로는 가스가 균일하게 내려오도록 하는 일렉트로드(Electrode)와 웨이퍼의 고정 및 가스가 균일하게 분포되게 하는 링(Ring)이 있다.

하나머티리얼즈는 램리서치, TEL 등 식각장비사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제조업체에게 납품하는 비포 마켓 업체다. 비포 마켓 업체들의 경우 제품을 납품하는 식각 장비 업체들의 엔드 유저 내 점유율에 실적이 영향을 받는다. 하나머티리얼즈는 TEL, 티씨케이는 램리서치, AMAT의 매출 비중이 높다.

차용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6월 TEL이 2세대 극저온 식각장비를 공개했다. 삼성전자가 2025년 양산 예정인 V10(400단 이상) NAND 식각은 3스택(Stack)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TEL의 신규 장비로는 2스택만에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삼성전자는 V6(128단) NAND 생산 시 2스택을 사용한 경쟁사들과 달리 1스택만에 식각해 경쟁 우위를 누린 경험이 있어 TEL의 신규 장비를 적극 채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또한 낸드(NAND) 주요 공정인 채널 홀 에칭(Channel Hole Etching) 장비는 램리서치의 점유율이 대부분이어서 장비 이원화의 필요성도 존재한다"며 "주요 식각 공정 내 TEL의 점유율 확대에 따른 동사의 매출 성장을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차 연구원은 하나머티리얼즈의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각각 21.2% 늘어난 3092억원, 50.7% 성장한 824억원(영업이익률 26.7%)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의 감산 규모 확대로 링 업체들의 실적은 올해 4분기를 저점으로 내년 1분기부터 회복할 것이지만 내년 낸드 신규 투자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내년 4분기 이후 TEL의 장비 점유율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폭이 더욱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

Company = "하나머티리얼즈"

Year = 2024

Article =

"""

하나머티리얼즈(166090, 대표 김현주)를 향한 증권가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지난 달 BNK투자증권이 하나머티리얼즈에 대해 낮은 실적을 전망하며 목표주가를 29% 하향 조정한데 이어, 이달 신한투자증권이 4만5000원으로 32.8% 하향 조정하며 눈높이를 크게 낮췄다.  
  
  
오강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하나머티리얼즈의 고객사 수요가 감소한 것을 고려해 목표주가를 기존 6만7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32.8% 하향했다.   
  
앞서 BNK투자증권 이민희 연구원은 지난달 20일 목표주가를 7만6000원에서 5만4000원으로 29% 하향조정한 바 있다.   
  
당시 이 연구원은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하반기에도 낸드플래시 수요 약세로 계절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밋밋한 실적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오강호 연구원은 "고객사 수요 감소 영향으로 하반기 추정치를 조정했다"며 "2024년 실적은 2023년 IT 수요 둔화에 따라 부진했던 실적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성장 포인트로 수요 개선, 영업이익률 20% 이상 수익성 기록이 주가 반등의 핵심으로 판단한다"면서도 "고객사 가동률 조정에 따른 실적 변동성 확대는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나머티리얼즈는 일본 도쿄일렉트론(TEL)이 새로 개발한 하이브리드 옥사이드 식각장비를 삼성전자가 도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혜주로 떠올랐던 기업이다.  
  
TEL 장비 도입이 본격화되면 하나머티리얼즈가 2020년에 개발한 반도체 식각공정용 소재 신제품 실리콘카바이드(SiC)링 매출도 동반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돼 왔다.  
  
그러나 최근 낸드 수요가 약해지고 있으며, 고객사의 중국 공장 수요가 줄며 실리콘카바이드(SiC)링 매출도 줄어들면서 주가가 꾸준히 하락세에 있다.  
  
하나머티리얼즈 주가는 지난 7월 2일 52주 최고가인 6만9300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250원(3.89%) 상승한 3만33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

Company = "하나머티리얼즈"

Year = 2025

Article =

"""

나마이크론이 인적 분할을 통해 지주사 전환을 추진한다. 반도체 순수 후공정(OSAT) 사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및 브랜드 사업을 분리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단 명분을 내세웠다. 산업계 안팎에서 2세 승계를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힘을 얻는다.  
  
김준식 하나마이크론 전략기획팀장(부사장)은 13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개인주주 대상 인적 분할 및 지주사 전환 관련 기업설명회에서 "(이번 지주사 전환 추진이) 승계와 관련 있단 것을 부정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경영 효율화가 주된 목적이며, 승계를 위해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게 우리 회사 상황에선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사장은 "언젠가는 승계가 되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상속이 있을 때 상속세를 내면서 할 일이지, 그 전에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하나마이크론은 오는 7월 인적 분할을 추진한다. 올 초 투자회사 겸 지주사 역할을 맡을 하나반도체홀딩스(존속법인)와 OSAT 사업을 담당할 하나마이크론(신설법인)으로 인적 분할하는 안건을 이사회를 통해 의결했다. 6월 주주총회를 거쳐 8월 변경상장 및 재상장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마이크론의 주주 현황을 보면, 창업자 최창호 회장이 16.08%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상장 자회사인 하나머티리얼즈가 9.78%를 갖고 있다. 나머지 67%는 소액주주 몫이다. 또 하나마이크론도 하나머티리얼즈의 32.5%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상호출자 구조가 형성됐다.  
  
회사는 지주사 전환을 통해 상호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장기 성장 전략에 집중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단 입장이다.  
  
이동철 하나마이크론 대표이사 사장은 "경영의 안정성이 우선 확보돼야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한편으론 공정거래법상 기본적으로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형태로 권고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그간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라며 "지주사 전환을 통해 하나마이크론 입장에서도, 하나머티리얼즈 입장에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보완해나가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라고 말했다.  
  
지주사 전환을 통해 승계 작업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크다. 최 부사장은 지난달 기준 하나머티리얼즈의 11.42% 지분을 보유해 하나마이크론(31.91%)에 이어 2대 주주에 올라 있다.  
  
최 부사장이 인적 분할 이후 주식 스와프(맞교환)로 지주사인 하나반도체홀딩스 지분을 확보할 경우 사업회사인 하나마이크론까지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다. 회사는 인적 분할 이후 지주사 하나반도체홀딩스와 사업회사 하나마이크론의 분할 비율을 각각 33%, 67%로 산정했다.  
  
김 부사장은 "승계를 얘기할 때 하나머터리얼즈의 2대 주주로 있는 가족(최한수 부사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머티리얼즈의 주주로서 오래전부터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주식 일부를 취득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지주회사 성립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하는 것"이라며 "승계를 목적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건 전혀 고려하진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배구조 개편이 최 부사장 경영권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

Company = "에스앤에스텍"

Year = 2022

Article =

"""

에스앤에스텍이 200억 규모의 신규시설 투자에 나선다는 소식에 상승세다.

3일 오후 1시48분 에스앤에스텍은 전거래일 대비 2250원(7.89%) 상승한 3만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스앤에스텍은 이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일대에 EUV(극자외선) 펠리클 양산을 위한 신규 공장 신축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투자금액은 2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2.16%에 해당하는 규모다. 투자기간은 이날부터 12월31일까지다.

회사 측은 "이번 투자내역의 투자금액은 공장 신축 및 부대시설 공사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라며 "기소유 토지에 공장을 신축함에 따라 토지 취득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

Company = "에스앤에스텍"

Year = 2023

Article =

"""

에스앤에스텍(101419)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블랭크마스크를 제조하고 EUV용 펠리클 양산을 준비 중인 업체다.  
  
블랭크 마스크는 반도체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의 원재료이며, 제한된 공간에 미세한 공정이 진행되기에 높은 품질이 요구되는 제품에 해당한다.  
  
지난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385억원(+22.1%, YoY), 영업이익은 57억원(+16.5%, YoY, OPM 12%)이 발생했다.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455억원, 255억원으로, 17%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96%의 매출을 차지하는 블랭크마스크에서 중국이 미 제재에 대비한 DUV 장비 확보로 실적이 꾸준히 성장한 것이다.  
  
다만 삼성전자가 658억원 규모로 투자한 EUV 펠리클 개발은 완료됐지만 주요 고객사 진입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EUV용 블랭크 마스크가 특정 회사의 독과점 수준 상태인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이원화라는 목적이 이루기 위해서는 동사의 제품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용인 신규공장 착공 후 공사도 진행 중이다.  
  
EUV용 펠리클에서 TSMC는 자회사를 통해 일부를 양산 라인에 적용해 보고 삼성전자 또한 양산용 일부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난 10월 메탈(Metal Silicide) 기반 펠리클 기술 발표에서 400W급에서 업계에서 요구하는 최소 투과율 90% 이상을 보여줬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이상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율 측면이 확인되면 가파른 점유율을 나타낼 것이다. 또한 중국 쪽에 팹리스가 증가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자체 칩 설계로 필요한 포토마스크 수요가 늘어난 것이 매출액이 증가한 주요인이 됐다.  
  
이러한 성장세는 2024년도에 숫자로 나타날 것이며, 글로벌 파운드리 업황의 회복세를 예상할 수 있다.

"""

Company = "에스앤에스텍"

Year = 2024

Article =

"""

에스앤에스텍(101490)이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반도체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신규 시설 투자를 발표한 가운데, 4일 주가가 7.3% 상승하며 2만3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 시설 투자는 극자외선(EUV)용 블랭크마스크의 양산 준비를 위한 것으로, 약 417억원의 회사 유보 자금이 투입된다. 에스앤에스텍은 투자 목적을 "EUV용 블랭크마스크 검사 장비 도입 및 시설 확장을 통해 증가하는 시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EUV 블랭크마스크는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웨이퍼에 나노 단위의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데 필수적인 핵심 부품으로, 첨단 반도체 기술의 핵심으로 평가받는다​​​​.  
  
이와 관련해 에스앤에스텍은 대구 사업장에서 현재 수요를 대응하며, 용인 공장은 2025년 준공 목표로 양산 생산라인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로 용인 사업장은 용인 반도체 벨트에 위치한 고객사의 요구를 충족하고, 반도체 업계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투자는 지난 2020년부터 약 4년간의 연구 개발의 성과로, EUV 공정 분야의 시장 진입 신호탄으로 평가되고 있다. 회사 측은 "본 투자로 고도화된 반도체 기술 시대에 대비해 생산 역량을 크게 끌어올릴 것"이라며 향후 고부가가치 제품 공급을 확대할 의지를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 3명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투자를 결의했으며, 감사를 포함한 투자 관련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기간은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됐다. 이번 투자금은 자기자본 대비 18.9%를 차지하며, 에스앤에스텍은 대규모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에스앤에스텍은 반도체 및 TFT LCD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노광 공정의 핵심 재료인 포토마스크의 원재료, 즉 블랭크마스크를 제조 및 판매하는 전문 기업이다. 블랭크마스크는 패턴이 노광되기 전에 사용되는 마스크로, 이 제품은 회사 매출의 약 98%를 차지할 정도로 주력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동사는 System LSI, LCD, OLED 등 국내 고부가가치 산업의 확대에 발맞추고, 동시에 중국 패널업체들의 전방 산업 투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고객 기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 패널업체들의 수요 증가에 따라 신규 공장을 증설하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Company = "에스앤에스텍"

Year = 2025

Article =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지난 13일 첨단 EUV 반도체 부품 전문기업인 에스앤에스텍(주)을 방문하여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초미세 반도체 공정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EUV 반도체 부품 개발을 선도하는 에스앤에스텍(주)과의 소통을 통해 산업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특허 심사관들의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 에스앤에스텍(주)은 자사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 우선심사 제도와 특허기반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비롯한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안내했다. 또한, EUV 반도체 노광 기술 산업 및 특허 출원 동향을 공유하며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

Company = "코미코"

Year = 2022

Article =

"""

반도체 장비 세정·코팅 전문업체 코미코가 미국 생산거점을 잇따라 확대하고 있다. 올해 중순 미국 오리건주 힐즈버러에 신규 공장을 완공한 데 이어, 최근 기존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코미코는 최소 3000만 달러(한화 약 390억원)를 투자해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을 증축할 계획이다.  
  
코미코는 국내 최초의 반도체 세정·코팅 전문업체다. 반도체 팹이 가동되는 동안 내부의 장비들은 미세오염이 발생하거나, 각종 화학물질 및 플라즈마에 노출돼 손상을 입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비 및 부품에 주기적으로 세정·코팅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인텔, TSMC, 마이크론 등 해외의 주요 반도체 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오스틴 팹(SAS)의 경우 코미코가 사실상 대부분의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코미코는 2006년께 오스틴 공장을 확보하고, SAS에 에칭, PVD·CVD 등 세정·코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미코의 추가 증설투자는 최근 현지 시의회로부터 인센티브 관련 승인을 받았다. 기존 공장 바로 옆에 신규 라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완공 시 기존 대비 1.5배 수준의 캐파 확대가 예상된다. 투자 완료 목표 시기는 2025년 말이다.  
  
이번 투자는 삼성전자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약 17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테일러시에 최선단 파운드리 팹을 신규로 건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팹 건설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진행 중이다.  
  
앞서 코미코는 올해 중순 미국 오리건주 힐즈버러에 신규 공장을 완공하기도 했다. 해당 지역은 코미코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인 인텔의 D1X 팹이 위치한 곳이다. 최근 인텔은 약 30억 달러를 들여 D1X 팹에 초미세 공정 및 최첨단 트랜지스터 구조를 연구하는 시설을 추가하는 등 현지 반도체 기술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

Company = "코미코"

Year = 2023

Article =

"""

반도체·연료전지·바이오 소재·부품 기업 미코가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반도체 장비용 세라믹 부품을 생산하는 자회사 미코세라믹스 지분을 또 다른 자회사 코미코에 넘기는 방식으로 수직계열화를 한다. 미코세라믹스 지분 양도를 통해 유입되는 1300억원가량의 자금을 통해 신사업 투자에도 나선다. 반도체 후공정 장비부품,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용 전해질 등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미코는 31일 자회사 미코세라믹스 지분 48%를 또 다른 자회사 코미코에 1325억원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지분 양수도 예정일은 오는 7월3일이다. 이를 통해 미코그룹은 '미코-코미코-미코세라믹스'로 그룹 지배구조를 수직계열화 형태로 재편된다. 미코세라믹스 지분을 인수하는 코미코는 반도체 사업 부문의 실질적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코미코는 미코세라믹스 지분 인수 후, 반도체 장비 세정·코팅 부문의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미코세라믹스와 사업구조를 상호 보완할 계획이다. 또, 기존 해외 네트워크와 영업력 활용, 신규사업 확대, 투자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미코는 이번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확보된 투자 재원을 신사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부품,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용 전해질, 방열기판, 태양광 셀 제조 설비부품 등 자체 신성장동력 사업에 대한 투자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후공정 본딩장비용 펄스 히터(Pulse Heater)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펄스 히터 장비는 패키징 공정에서 온도 조절에 사용된다. 미코 측은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등 고객사 니즈에 맞게 크기를 빠르게 바꿔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펄스 히터 장비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확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코 펄스 히터 장비는 삼성전자의 퀄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코는 펄스 히터 장비 외에도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용 산화물계 전해질과 세라믹 방열기판 등에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용 산화물계 전해질은 현재 국내 및 해외에 특허출원을 완료했으며, 세라믹 방열기판은 국내 연구기관과 협력해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

Company = "코미코"

Year = 2024

Article =

"""

20일(현지시간) 애리조나 상무청에 따르면 코미코는 현지 기업인 '7300 이스트 햄튼'과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애리조나주 메사시 슈퍼스티션 스프링스에 12.5에이커(약 5만585㎡) 부지 내 12만5000ft²(약 1만1612㎡) 규모 건물을 매수했다. 향후 약 5000만 달러(약 700억원)를 투자해 클린룸과 첨단 장비 등을 갖춘 반도체 장비 세정·코팅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2026년부터 가동을 시작해 200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다.

장성수 코미코 미국 총괄(사장)은 "코미코는 실리콘 데저트를 미국에서 가장 진보된 반도체 제조 지역으로 만들고자 메사시와 협력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샌드라 왓슨 애로지나 상무국 사장은 "코미코의 신공장은 애리조나주의 역동적인 반도체 생태계에 추가된다"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도체 공급사를 환영하게 돼 자랑스러우며 코미코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코미코는 신공장을 토대로 미국에 거점을 둔 삼성전자와 인텔, 마이크론 등 고객사들과 활발히 소통한다. 미국은 '칩스법(CHIPS Act)'을 통해 반도체 제조 기업들에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오스틴에 이어 테일러에도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인텔도 미국 4개 주에 걸쳐 1000억 달러(약 130조원) 규모로 공장을 건설한다. 마이크론은 후 20년간 미국 내 증설에 최대 1250억 달러(약 170조원)를 투입한다. 미국 반도체 산업 협회(SIA)는 칩스법에 따라 미국 반도체 제조능력이 2032년까지 현재의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반도체 투자가 활기를 보이며 코미코도 미국을 핵심 생산 거점으로 키우고 있다. 이미 오리건주 힐스버러와 텍사스주 오스틴에도 생산시설을 구축했다.

한편, 코미코는 국내 최초의 반도체 장비 세정·코팅 전문 업체다. 각종 화학물질과 플라즈마에 노출돼 손상되지 않도록 반도체 장비와 부품을 주기적으로 세정·코팅하는 작업을 한다.

"""

Company = "코미코"

Year = 2025

Article =

"""

 반도체 장비 세정·코팅 전문기업 코미코가 미국 텍사스 주정부로부터 200만 달러(약 30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획득했다. 3600만 달러(약 520억원)를 투자해 공장 증축을 추진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주요 고객사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보인다.

10일 미국 텍사스 주정부에 따르면 코미코는 텍사스 반도체 혁신 펀드(TSIF)를 통해 2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수령한다. TSIF는 반도체 연구·설계·제조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조성된 기금이다.

코미코는 텍사스 공장을 증설하는 대가로 지원금을 받게 됐다. 이 회사는 3600만 달러를 쏟아 텍사스주 라운드록 소재 공장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4만 ft²(약 3700㎡) 이상 확장해 세정·코팅 공정 설비를 추가한다.

에벗 주지사는 "코미코는 추가 투자로 텍사스의 칩 생산 증가를 지원한다"며 "코미코와 같은 업계 리더들이 텍사스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덕분에, 텍사스는 앞으로도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며 더욱 강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성수 코미코 미국 총괄(사장)은 "우리는 혁신을 주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더욱 밝은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며 "코미코의 지속적인 성장과 텍사스 중부 지역에서의 확고한 입지는 지역 사회의 번영을 지원하고, 텍사스가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미코는 텍사스에서 생산량을 늘려 현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오스틴에 이어 테일러에도 투자했다. 370억 달러(약 53조8000억원)를 투입해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추가 투자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시사하며 대만 TSMC는 1000억 달러(약 145조4300억원) 상당의 투자를 예고했다. 삼성전자도 트럼프의 압박을 못 이겨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은 지난 2022년 텍사스 주정부에 제출한 중장기 투자 계획에 2034년부터 11곳의 공장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

Company = "GST"

Year = 2022

Article =

"""

스크러버 및 칠러 장비 전문업체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GST)가 미국 테일러시에 신규 법인 설립 준비에 나섰다. 현지에 신규 파운드리 팹을 착공할 예정인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GST는 미국 테일러시에 CS(Customer Support) 업무를 위한 신규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최근 GST는 테일러시 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3분기 중으로 부지를 최종 확보한다. 건물 정비를 통해 장비 유지보수와 서비스 등 CS 업무를 담당할 법인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GST의 이번 신규 법인은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다. GST는 스크러버, 칠러 장비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국내 업체와 미국 마이크론, 중국 YMTC, CXMT 등 해외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 중 삼성전자가 GST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 1분기 기준 41% 수준이다.  
  
앞서 GST는 국내와 중국 시안, 미국 오스틴 등 삼성전자의 팹이 위치한 전 지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CS 업무를 제공해왔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가 약 20조원을 투입해 테일러시에 신규 파운드리 팹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GST도 향후 늘어날 유지보수량을 고려해 신규 법인을 설립하게 됐다.  
  
신규 법인의 본격적인 운영 시기는 이르면 내년 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테일러시 부지 평탄화 작업을 마무리 지은 상황으로, 올 하반기 기초 공사에 들어가 내년 말부터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스크러버 및 칠러는 인프라적 성격이 강한 장비로서 다른 메인 장비들보다 먼저 팹에 투입되어야 한다.  
  
스크러버는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가스, 화합물 등을 정제하는 역할을 한다. 칠러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에서 챔버 내에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는 온도조절장치다. 이들 장비는 부식성 물질을 비롯한 화학약품을 다뤄야 하는 제품 특성 상, 부품 교체·코팅 등 꾸준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GST의 최근 5개년간 전체 매출에서 유지보수 등 기타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5% 수준에 달한다.

"""

Company = "GST"

Year = 2023

Article =

"""

반도체 장비업체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GST) 2분기 실적이 주력 제품인 스크러버 확대에 힘입어 상승할 전망이다.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는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초를 기점으로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GST 매출은 3365억원으로 전년(3128억원) 대비 7.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도 573억원으로 전년(569억원) 보다 소폭 오를 전망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기업분석부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발주가 자꾸 이월되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장비업체들의 실적이 좋지 않은데, GST의 경우 삼성전자 비중을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괜찮았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수주가 들어오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내년에는 실적 개선세가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GST가 경쟁사 대비 준수한 실적을 이어간 데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3공장(P3) 스크러버 점유율을 확대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스크러버는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유독가스를 정화하는 가스 처리 장치로, 반도체 제조회사들의 친환경 측면이 강조되면서 수요가 급증한 제품이다.  
  
GST는 지난 1분기 기준 스크러버 매출 내수 비중을 43%까지 끌어올렸다. 이전까지 내수 비중은 20~30% 수준에 그쳤다. 분기 기준 스크러버 매출액은 384억2800만원으로, 전년 동기(281억6800만원) 대비 36.4% 증가했다. 전체 매출액은 685억8800만원으로 20%가량 성장했다.  
  
GST 관계자는 "경쟁사 대비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낮았는데 P3 점유율이 올라갔다"고 밝혔다.   
  
GST는 그간 스크러버에서 수출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평택에 새 공장을 가동한 삼성전자 비중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회사는 향후 삼성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처를 더욱 다각화해 TSMC, 인텔 등 빅테크 진출을 확대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ST 관계자는 "스크러버라는 장비가 유해가스를 처리하다 보니 부품 부식 관리라던가 세정 등이 주기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서비스 용역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편"이라며, "해외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탑티어(Top tier)급 킹메이커 업체들로부터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친환경 장비인 칠러 해외 진출 확대도 꾀하고 있다. 스크러버가 유해가스를 처리한다면, 칠러는 제조공정상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해 공정효율을 높여주는 장치다. GST는 이 두 제품을 주력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해외에서 이미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한 스크러버를 교두 삼아 전기식 칠러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삼성의 미국 텍사스 진출 시기에 맞춰 칠러 유지보수 센터와 CS(고객 서비스)센터를 건립하는 등 법인을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GST 관계자는 "전기 칠러의 경우 냉매를 사용하지도 않을뿐더러, 쿨런트(냉각수) 사용량 자체도 기존 냉동기식보다 적게 들어가는 등 이점이 있어서 기후환경에 관심이 많은 유럽과 미국을 포함해서 해외쪽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

Company = "GST"

Year = 2024

Article =

"""

반도체 장비업체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GST)가 기존 주력 제품인 스크러버에 이어 전기식 칠러 해외 진출도 속도를 낸다. 올해 처음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 장비 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보인다. GST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미국 마이크론, 중국 YMTC, CXMT 등을 거래선으로 두고 있으며, 비메모리 영역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26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GST는 약 2년 전부터 TSMC에 전기식 칠러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칠러는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해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하는 데 쓰이는 고성능 냉각 장치다. 공정효율을 높여주는 필수 장비로 분류된다.  
  
시장조사업체 QY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칠러 시장 규모는 지난 2022년 6억7910만달러(약 9093억원)에서 5.6%의 연평균성장률로 2029년까지 9억8120만 달러(약 1조 31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TSMC는 미국 ATS 등 칠러를 사용한다.  
  
GST 관계자는 "2022년까지 매출를 다변화에 힘을 실어 왔고, 작년에 이어 올해는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칠러 해외 확장에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탑티어급 중 TSMC와 칠러 데모 테스트를 진행 중으로 발주가 나오면 연내 매출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GST는 칠러와 함께 주력 제품인 스크러버도 TSMC의 데모 테스트 기회를 잡기 위한 시도를 추진 중이다. GST 전체 매출 중 스크러버와 칠러의 비중은 지난해 3분기 기준 각각 61%, 20%에 달한다.

"""

Company = "GST"

Year = 2025

Article =

"""

코스닥 상장사 GST가 TSMC에 자사 전기식 칠러 제품을 공급한다. 칠러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해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하는 고성능 냉각 장치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인텔 등 글로벌 기업에도 공급 확대가 이루어져 주가 상승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GST는 TSMC와 전기식 칠러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초도 물량으로 약 30대를 공급한 뒤 최대 200대까지 납품할 계획이다. 대당 가격이 약 1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계약 규모는 2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GST 관계자는 "TSMC와 제품 데모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 물량에 대한 구매주문서(PO)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GST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과 오랜 기간 거래를 통해 기술력과 신뢰를 쌓아왔으며, 이번 TSMC와의 계약은 이러한 경쟁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실제로 GST는 TSMC와의 수주 계약을 목표로 2년 전부터 전기식 칠러 데모 테스트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

Company = "원익QnC"

Year = 2022

Article =

"""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은 반도체 제조사(칩 메이커)에 먼저 기술과 제품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과 함께 기술 로드맵을 고민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장기 계획도 수립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기술 방향을 미리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홍주 원익QnC 대표는 반도체 소재·부품은 계속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공정 변화에 맞춰 새로운 소재·부품을 지속 개발하는 것이 소부장 기업의 '업(業)'이라는 말이다. 백 대표는 "결국 반도체 제조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고객 요구를 반영해 제품을 개발하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행보이며 고객의 미래 로드맵에 동기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988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30년 넘게 반도체 업계에 몸 담았던 백 대표는 올해 초 업계 1위 쿼츠 기업인 원익QnC 대표로 선임됐다. 삼성전자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는 소재·부품 기업 대표로서 반도체 제조사 요구와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역량으로 탈바꿈했다. 그는 "반도체 기술이 3나노, 2나노 싸움으로 넘어가면서 디자인(설계)만으로는 승부하기 어렵게 됐다"며 "결국 소재를 기본으로 한 부품 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원익QnC를 누구보다 강력하고 전문화된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원익QnC가 쿼츠 내구성을 강화, 수명 주기를 늘린 제품과 신소재 개발에 집중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Company = "원익QnC"

Year = 2023

Article =

"""

오강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원익QnC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1791억원, 영업이익은 64% 줄어든 133억원을 기록했다"며 "반도체 수요 둔화 영향으로 3분기 연속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중"이라고 밝혔다.

오 연구원은 "주요 제품인 쿼츠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559억원, 세정이 11% 줄어든 203억원을 기록했다"며 "실적 체력의 기반인 자회사(모멘티브)도 978억원으로 성장이 둔화된 점이 특징적"이라고 짚었다.

이어 "내년에는 실적과 주가 반등이 기대된다"며 "IT 세트 수요 회복과 어플리케이션 다변화가 가동률 증가, 소모품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주요 고객사 수요 개선이 기대되는 내년 하반기 본격적인 실적 반등을 예상한다"면서 "내년 3분기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133% 증가한 309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

Company = "원익QnC"

Year = 2024

Article =

"""

원익QnC는 지난 2003년 원익에서 분할 설립됐다. 원익쿼츠로 시작했지만 2012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주력사업은 쿼츠, 세라믹스, 세정 등이다. 원익QnC는 원익에서 분할됐을 때부터 쿼츠 중심의 사업을 하고 있었다. 지금도 매출 중 대부분이 쿼츠 사업에서 나온다.   
  
쿼츠 사업의 최근 5년간 연도별 매출은 △2019년 1885억원 △2020년 4595억원 △2021년 5500억원 △2022년 7105억원 △2023년 7456억원 등으로 매년 상승세를 보였다. 원익큐앤씨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이 6744억원, 영업이익 98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1.71%, 32.63% 증가했다. 내부매출을 합하면 7105억원으로 이 중 쿼츠 사업부문이 86.47%를 차지했다.

원익QnC가 MOMQ를 인수한 것은 2019년 5월이다. 628억원을 출자해 모멘티브의 쿼츠 사업부문인 MOMQ 지분 50%+1주를 확보했다. 주식 수로는 4만5001주다. 당초 KCC, SJL파트너스와 함께 MOM홀딩컴퍼니(모멘티브)에 직접 출자할 예정이었지만, 거래구조를 바꿔 MOMQ에 투자했다.  
  
이후 2020년 1월 최종적으로 MOMQ가 MOM홀딩컴퍼니가 보유한 모멘티브의 쿼츠 부문 4개사 지분 100%를 취득하며 인수절차를 끝냈다. MOMQ 인수에 함께 참여한 SJL파트너스가 MOMQ의 나머지 지분 50%-1주(주식 수 4만4999주)를 보유하고 있다.

"""

Company = "원익QnC"

Year = 2025

Article =

"""

[**이용한**](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6669) 원익그룹 회장은 [삼성](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8196) 출신 인재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원익그룹을 키우는 용인술울 보이고 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과 견고한 상생관계를 마련하고 반도체와 2차전지 장비라는 원익그룹의 핵심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들을 최고경영자로 발탁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사업을 꾸려나가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히 인맥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넘어서는 셈이다

2025년 기준으로 원익그룹의 주력 계열사들은 대다수가 삼성 출신 인재들이 최고경영자를 맡아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반도체 장비 및 소재, 2차전지 장비 분야를 주축으로 하는 이들 기업들은 삼성 출신 CEO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우선 반도체 증착장비 업체인 원익IPS의 대표이사인 안태혁 사장이 원익그룹의 대표적 삼성 임원 출신으로 꼽힌다.   
  
안 사장은 1962년생으로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한양대 금속공학 석사와 일본 나고야대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삼성전자](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8196) 시스템LSI사업부 제조센터장과 삼성SDI 소형·중대형 전지 사업부장 부사장을 지냈다.   
  
안 사장은 2024년 1월 원익IPS의 대표이사에 선임되어 조직의 연구개발과 생산역량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있다.   
  
안 사장의 임명은 원익IPS가 [삼성](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8196) 반도체 고객사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인재 기용 사례로 꼽힌다.

다음으로 2차전지 장비 업체인 원익피앤이(PNE)의 최고경영자인 이기채 대표도 삼성SDI 출신이다.   
  
이 대표는 삼성SDI에서 배터리 기술팀장과 제조센터장, 소형전지 선행기술 개발센터장을 역임하면서 배터리 분야에 오랜 경력을 쌓은 인물로 배터리 산업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듣는다.   
  
이기채 대표는 원익그룹이 전자부품 제조장비 업체 엔에스를 인수할 당시 엔에스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영입됐고 원익피앤이와 엔에스의 합병을 주도했다.  
  
원익피앤이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둔화하는 이른바 캐즘(일시적 성장정체)으로 인해 2차전지 분야에서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이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익그룹의 사업형 지주회사인 원익홀딩스에도 삼성그룹 출신들이 활약하고 있다. 

조남성 부회장과 장성대 부사장이 각각 투자와 사업 각자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들 역시 [삼성](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8196) 출신이다.   
  
조 부회장은 1983년 삼성에 입사해 30여년간 반도체, [전자](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8196) 소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고, [삼성전자](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8196) 일본본사 법인장, 메모리 사업부 마케팅팀장, 스토리지 사업부장을 거쳐, 제일모직 대표,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고 장성대 부사장은 [삼성전자](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8196) 인프라기술 총괄 부사장 출신이다.   
  
원익홀딩스는 자회사의 경영전략 및 자금 운영을 총괄하며, [삼성](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8196) 출신 경영진들의 전략적 기획 능력이 그룹 전체의 성장 견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다.  
  
이밖에 이현덕 전 원익ISP 대표이사 역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부사장을 역임한 삼성 출신이다.   
  
**◆ 삼성맨 등용이 가져온 효과와 그룹 내 시너지**

[**이용한**](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6669) 회장이 삼성 출신을 전면에 등용한 전략은 원익그룹의 성장과 시장 경쟁력 강화에 결정적인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우선 이른바 '삼성맨'들이 갖고 있는 조직 운영의 노하우와 기술 전문성은 원익그룹 각 계열사의 안정적 경영과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   
  
원익IPS가 2024년과 2025년 들어 [삼성](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8196) 반도체 고객사의 D램 투자가 확대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상승했고,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의 시장 점유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원익그룹에서 일하는 [삼성](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8196) 출신 경영자들은 삼성 내부의 복잡한 기술 기획과 품질 관리 체계 경험을 갖고 있어, 원익그룹이 삼성이라는 최대 고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수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구조는 원익QnC와 원익머트리얼즈 등 원익그룹 계열사의 소재와 부품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

Company = "티씨케이"

Year = 2022

Article =

"""

티씨케이가 독점하고 있던 SiC(실리콘카바이드)링 시장에 균열이 생길 전망이다. 티씨케이는 디에스테크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일부 승소, 일부 패소했다.   
  
양사 특허분쟁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SiC링 소재·물성 관련 부문과 티씨케이의 제조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법원과 특허심판원은 제조 방법의 경우 티씨케이 특허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반면, 소재·물성 특허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업계는 SiC링 시장에서 소재·물성 관련 특허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후발주자들이 잇따라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내다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특허법원은 티씨케이와 디에스테크노 간 특허소송에서 SiC 링 소재·물성에 관한 부분은 디에스테크노,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는 티씨케이 손을 들어줬다. 이보다 앞선 12일 특허심판원도 SiC 링 제조방법 관련해 티씨케이 특허를 인정했다.   
  
양사 분쟁은 티씨케이가 지난 2019년 11월 디에스테크노를 상대로 SiC링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SiC링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웨이퍼를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소모성 부품이다. 기존에 사용되던 쿼츠나 실리콘 소재보다 내성이 강하다. 때문에 식각챔버 내에 SiC링 등이 주로 탑재되고 있다. 특히 3D 낸드플래시 생산을 위한 필수 부품으로 알려졌다.   
  
티씨케이는 SiC링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해왔다. 기존 보유하고 있던 특허를 기반으로 사실상 시장을 독점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SiC링 시장에 진입하면서 2019년부터 티씨케이는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티씨케이가 소송을 건 특허는 지금까지 총 3건이다.   
  
특허 제1866869호는 SiC링 소재의 물성과 관련된 특허다. 즉, 제품을 만들 때 SiC란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특허 제1914289호는 투과도가 다른 복수의 층을 갖는 SiC 반도체 제조 부품 및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다. 특허 제2208252호 역시 제조 방법과 관련된 특허다.   
  
결국 특허분쟁은 크게 2가지 쟁점, ‘물질 발명(제1항)’과 ‘제법(제조방법) 발명(제9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원과 특허심판원은 티씨케이가 주장한 제조 방법은 인정했지만 소재·물성 특허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티씨케이 측은 ‘완전 승리’라고 주장하며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티씨케이는 "특허 무효소송 및 심판에서 모두 승리"라고 했다. 다만 해당 보도자료에는 티씨케이가 패소한 소재·물성 특허에 대한 판결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반면 디에스테크노는 소재·물성 특허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고 강조한다. 디에스테크노 관계자는 "앞으로 물성·소재 관련해서는 티씨케이가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제조방법이나 장치 등은 다양한 솔루션이 있으며 우리는 티씨케이 제조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티씨케이)특허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앞으로도 관련 특허분쟁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다.   
  
우선 티씨케이 측은 제조방법 특허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지속해서 경쟁 업체가 특허를 침해했는지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사실상 국내 SiC링 시장에서 티씨케이 독점 구조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법원이 소재·물성 특허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디에스테크노나 케이앤제이, 하나머티리얼즈 등 후발업체들은 SiC링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광재 티씨케이 경영전략본부 전무는 "제조 방법 특허가 인정된 만큼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다른 제조 방법으로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Company = "티씨케이"

Year = 2023

Article =

"""

국내 반도체 부품업체 디에스테크노가 티씨케이를 상대로 제기한 SiC(탄화규소) 포커스링 관련 특허 무효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이를 통해 디에스테크노는 SiC링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티씨케이는 이전에 유효성을 인정받은 또 다른 특허로 법적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디에스테크노가 티씨케이를 상대로 제기한 SiC링 물성 관련 특허 무효 소송에 대해 지난 11일 1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특허 제2117888호(CVD 방식으로 형성된 SiC 구조체)의 무효 청구에 관한 것이다. 해당 특허는 SiC링의 열팽창계수(물체의 온도가 1°C 상승했을 때 부피가 얼마나 커지는 지 나타내는 척도)와 관련란 특허다.

앞서 티씨케이는 지난 2021년 디에스테크노를 상대로 제2117888호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디에스테크노는 지난 4월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티씨케이는 이후 7월 일부 항목에 대한 정정청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번 판결로 양사 간 갈등이 완전히 종식되는 것은 아니다. 티씨케이가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제2117888호 외에도 양사 간 소송을 진행 중인 특허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

Company = "티씨케이"

Year = 2024

Article =

"""

티씨케이가 오창민 전 삼성전자재팬 대표이사를 영입한다.   
  
티씨케이는 23일 김영희 각자 대표이사가 사임했다고 공시했다. 김 대표는 사내이사직도 사임했다.   
  
이어 1965년생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삼성전자재팬 대표이사를 역임한 오창민 삼성전자 자문역을 이사로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를 10월8일 개최키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오 자문역은 사장 직책으로 경영전반을 맡게 된다. 김 전 대표이사에서 이어 대표이사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

Company = "티씨케이"

Year = 2025

Article =

"""

티씨케이 가 올해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고객사의 대규모 증설과 삼성전자의 낸드 가동률 상승 등으로 가시적인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12일 키움증권은 이같은 배경에 티씨케이의 목표주가를 13만원으로 18.2% 올렸다. 전날 종가는 10만1900원이었다. 투자의견도 '매수'를 유지했다.

키움증권은 티씨케이의 올해 실적을 매출 3186억원, 영업이익 939억원으로 예상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씩 오르면서 기존 전망치를 웃돌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YMTC가 대규모로 증설하고, 삼성전자가 낸드 가동률을 올리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했다. 반도체 그래파이트의 중국 매출 비중 확대도 호재로 봤다. 특히 올해 하반기 중국 YMTC의 대규모 신공장이 완공되는 것을 주요 호재로 봤다. 최근 반등하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도 티씨케이의 신사업 확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또한 그동안 시장 기대를 모은 TEL의 극저온 에칭 장비가 생각보다 저조한 성능을 보이고 있어 램리서치의 점유율 하락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극저온 에칭 장비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티씨케이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상호관세 이슈가 재차 불거지고 반도체 업황 하방 압력이 강해지겠지만, 티씨케이의 성장 스토리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공급용 HBM3e 12hi 양산, 1cnm D램 양산이 완료되면 주가 상승 탄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Company = "KEC"

Year = 2022

Article =

"""

전력반도체 전문기업 KEC 이종홍 전무가 지난 27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5회 반도체의 날 유공자 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KEC에 따르면 이 전무는 과학기술부 IT원천기술개발 사업, 산업자원부 시스템직접 반도체 기반 기술개발 사업(친환경 자동차용 SiC 기반 전력변환소자개발),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전기자동차 및 신재생 에너지용 1200V급 Trench형 SiC MOSFET 소자개발) 등 정부부처와의 컨소시엄을 이끌며 국산화 기술 확보 및 상용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비메모리 Discrete 분야의 MOSFET, IGBT, SiC 화합물 반도체(SBD, MOSFET) 전력반도체를 개발, 상용화해 국가 반도체 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편,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반도체의 날 유공자 포상은 1994년 제정된 이래 매년 한국수출의 대표적 핵심산업인 반도체산업 발전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한 산·학·연 종사자들에게 수여된다.

"""

Company = "KEC"

Year = 2023

Article =

"""

KEC는 전력반도체 전문 제조업체다. 전력반도체 시장은 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과 동반 성장한다. 전기차 구동 핵심은 모터와 인버터다. 이들이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전력반도체는 인버터에 주로 탑재된다. 전기차 산업에 대한 시장 조망을 통해 전력반도체 시장 성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차(EV) 배터리 생산능력 전망치는 2021년 994Gwh에서 2030년 8247Gwh로 10년간 연평균 26.5% 성장할 전망이다. 글로벌 전력반도체 전문기업들은 Si(실리콘), SiC(실리콘카바이드) 소재 전력반도체 산업의 높은 성장성을 고려해 원재료·웨이퍼·모듈 등 모든 분야에 적극적인 증설을 진행하고 있다. 그만큼 전력반도체 산업 매력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KEC도 전력반도체 산업의 업황을 고려해 Si, SiC 관련 웨이퍼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백종석 IR협의회 연구원은 "이차전지 관련 산업 설비투자는 성장이 명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력반도체 사업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KEC 고객군이 탄탄하다"며 "국내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모비스 등이고 해외에는 파나소닉, 소니, BYD, 테슬라 등이 주요고객"이라고 소개했다.

"""

Company = "KEC"

Year = 2024

Article =

"""

반도체 부품 제조 기업 KEC의 이사회는 활발한 활동과 출석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총 17번의 이사회가 열렸다. 2명의 사내이사와 1명의 사외이사의 평균 출석률은 97%를 기록할 정도로 성실한 참여가 돋보인다.  
  
다만 높은 출석률이 무색할 정도로 이사회 구성과 견제기능, 정보접근성, 평가개선프로세스, 경영성과 5가지 항목에서 2점대의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향후 이사회 운영과 구성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견제기능 미흡, 사추위 운영 만회…경영성과 낙제점**  
  
THE CFO는 평가 툴을 제작해 '2024 이사회 평가'를 실시했다. 지난 5월 발표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2023년 사업보고서, 2024년 반기보고서 등이 기준이다. △구성 △참여도 △견제기능 △정보접근성 △평가 개선 프로세스 △경영성과 등 6개 공통지표로 이사회 구성과 활동을 평가한 결과 KEC는 255점 만점에 80점을 받았다.  
  
모든 항목의 평균 점수가 1점대 또는 2점대를 기록했다. 6개 평가 항목에 대한 평점의 평균은 1.85점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구성(1.4점) △참여도(2.0점) △견제기능(1.4점) △정보접근성(1.7점) △평가 개선 프로세스(1.9점) △경영성과(1.4점) 등으로 집계됐다.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은 견제기능이다. KEC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 관련 항목에서 모두 1점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KEC는 김태호 상근감사를 중심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상근감사는 KEC 종합기획실 인사팀장으로 1983년부터 2004년까지 재직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점수를 만회했다. 관련 항목에서 5점 만점에 3점의 점수가 부여됐다. 다만 사추위가 사내이사 2인(이종홍 대표, 강래훈 본부장)으로 구성됐고, 외부공모나 주주로부터 이사 추천을 받지 않는 점이 지적됐다.  
  
경영성과 또한 5점 만점에 1.4점을 기록했다. KEC는 주가수익률, 매출성장률, 영업이익성장률, ROE, ROA 이자보상배율 항목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1점의 낮은 점수를 부여받았다. KEC는 주가수익률 -12.13%, 매출성장률 -19.22%, 영업이익성장률 -285.05%, ROE -11.43%, ROA -8.91%, 이자보상배율 -12.82배를 기록했다.  
  
이사회 평가의 기본이 되는 구성 항목은 평균 1.4점의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KEC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및 사외이사 1명을 포함한 총 3명으로 구성돼있다. 사내이사는 이종홍 대표와 강래훈 운영본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김태훈 사외이사 또한 이사회 멤버이다.

"""

Company = "KEC"

Year = 2025

Article =

"""

비메모리 반도체 전문업체인 KEC(케이이씨)그룹이 LG(엘지)맨들을 이사회 멤버로 대거 선임할 예정이다. 핵심 원청사인 LG그룹 출신 인사들을 영입해 영업 네트워크를 유지·확대함으로써 2년 연속 적자의 늪에 빠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4일 KEC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가 공시한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따르면 KEC는 오는 27일 서울 서초구 소재 KEC빌딩에서 열릴 2025년도 정기 주총에서 '사내이사 배석홍 신규 선임의 건', '사외이사 최승윤 신규 선임의 건' 등 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배석홍 사내이사 후보자는 LG전자 출신으로 LG CNS(LG씨엔에스) 전략기획팀장, 동부건설 CIO 상무, KPX홀딩스 CIO 전무, 경동탱크터미널 대표이사 CEO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KEC그룹 지주사이자 KEC의 최대주주인 한국전자홀딩스에서 고문 역할을 수행 중이다.  
  
최승윤 사외이사 후보자는 LG전자에서 30여 년간 장기근속하며 동경사무소 팀장, MC사업본부 구매담당·부품개발팀장, HE(현 MS)구매실장, HE본부 상무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같은 날 지주회사인 한국전자홀딩스도 KEC빌딩에서 정기 주총을 개최하고 '사외이사 이용기 신규 선임의 건'을 처리해 LG맨을 영입할 계획이다. 이용기 사외이사 후보자는 LG전자 청주2공장 공장장, LG이노텍 구매센터장 상무 등을 맡은 바 있다.  
  
KEC그룹이 이처럼 LG맨들을 끌어모으는 이유는 영업 역량 강화를 통해 실적 개선을 꾀하기 위해서로 추정된다.   
  
KEC그룹은 반도체 제품 및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LG전자, LG이노텍 등 LG그룹 계열사들의 하청업체다. 협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KEC는 LG이노텍과 LED사업 관련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LG화학과는 전기자동차용 BMS 다이오드 모듈을 공동개발한 적이 있다.  
  
때문에 한때 자본시장 일각에서는 LG그룹이 협력사인 KEC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해당 소문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되긴 했지만, 그만큼 KEC와 LG그룹간 인연이 깊다고 해석할 만한 대목이다.  
  
최근 KEC그룹은 실적 악화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전자홀딩스와 KEC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판매량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적자폭을 줄이긴 했으나, 올해 국내외 경기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태다.  
  
주요 고객사인 LG그룹 계열사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사들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데려와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확대하려는 KEC그룹 차원의 전략으로 풀이되는 이유다.  
  
다만, LG맨의 영입은 KEC그룹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 측면에선 부정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있어 보인다. 중대한 이해관계·거래관계가 있는 업체 출신 사내·사외이사들이 오너일가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감독·견제할 수 있을지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어서다. 이는 국내 대부분 의결권 자문사들이 반대를 권고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일례로 의결권 자문사인 CGCG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2023년 KCC글라스가 정기 주총에 상정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영근 선임의 건' 의안에 대해 "김영근 후보자는 현대차그룹 계열 구매 담당으로 재직했으며, 해당 업체들은 KCC글라스의 주요 매출처다. 더욱이 김 후보자가 선임될 시 사외이사 대부분이 현대차그룹 출신이라는 점에서 사외이사로서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뉴스드림]

"""

Company = "넥스틴"

Year = 2022

Article =

"""

올해 국내 반도체 장비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은 넥스틴이다.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서다. 넥스틴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423억7834만원, 영업이익 234억527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80.7%, 영업이익은 무려 230.7%나 늘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도 942억원, 영업이익은 486억원이다.  
  
영업이익률은 무려 51.6%. 제조업체로서 보기 드문 영업이익률이다. 삼성전자나 TSMC도 50%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건 쉽지 않다. 이미 매출은 지난해 수준(약 571억원)을 훌쩍 뛰어넘었으며 올해 2배 이상 성장이 확실시된다.   
  
박태훈 넥스틴 대표는 17일 《디일렉》과 인터뷰에서 "올해 중국 매출 비중이 약 70%"라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2배 이상 (중국 쪽)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광학검사장비 전문기업인 넥스틴은 다크필드를 활용해 웨이퍼 패턴의 결함(defect)을 검사하는 장비를 생산한다.  
  
넥스틴이 독보적인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닌 기술력이다. 넥스틴이 생산하는 검사 장비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KLA가 독점하고 있는 기술이었지만 넥스틴이 국산화에 성공했다. 박 대표는 "KLA 역시 차별화 된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사실상 독점 구조에서 넥스틴이 진입해 경쟁하고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미국이 반도체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넥스틴은 반사이익을 얻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힌다. 넥스틴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중국 시장 진출을 강화했다.   
  
최근 넥스틴은 잇따라 중국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다. 지난 10월 말과 11월 초, 창신 신챠오 메모리테크놀로지 및 창신 지디앤 메모리테크놀로지와 각각 148억원, 74억원 규모의 웨이퍼 검사 장비 ‘이지스II(AEGIS-II)’ 공급 계약을 맺었다.   
  
넥스틴이 창신 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 거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XMT는 중국 내에서 약진 중인 D램 제조업체로 양쯔 메모리테크놀로지(YMTC), 푸젠진화반도체(JHICC) 등과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다.  
  
중국 매출이 늘어나면서 넥스틴은 올해 지금까지 1201억원 규모 수주실적을 올렸다. 연간 누적 수주액도 1000억원을 돌파했다. 2020년까지만 해도 영창케미칼,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주요 거래처였지만 이후 중국 기업과 거래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지만, 박 대표는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박 대표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규제가 중국 진출 확대에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켜봐야 될 문제"라며 "내년 반도체 시장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넥스틴은 신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넥스틴은 3D 낸드플래시 하층부 검사장비인 ‘아이리스(IRIS)’를 개발해 국내 한 메모리 기업에 납품을 추진하고 있다. 양사 간 테스트는 마무리 단계로 사실상 공급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박 대표는 "신규 장비는 이르면 내년 초 공급할 계획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

Company = "넥스틴"

Year = 2023

Article =

"""

박태훈 넥스틴 대표는 최근 《디일렉》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의 주력 제품인 다크필드 웨이퍼 패턴 결함 검사장비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기존 5%에서 올해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넥스틴은 광학 기반의 웨이퍼 패턴 결함 검사장비 전문업체다. 웨이퍼 패턴 결함 검사장비는 빛을 쬐는 방식에 따라 반사광으로 패턴을 찍는 브라이트필드와 산란광으로 패턴을 찍는 다크필드로 나뉜다. 현재 넥스틴은 브라이트필드에 비해 세밀함은 떨어지지만 검사 속도는 빠른 다크필드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이 시장은 미국 장비업체인 KLA가 90%가 넘는 시장점유율로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후발주자격인 넥스틴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5%에 불과하지만, 올해 1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나아가 향후 3~4년 뒤에는 점유율을 최대 30%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넥스틴이 이처럼 시장 확대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배경은 기술력에 있다. 박 대표는 "경쟁사가 매 2년마다 신규 다크필드 모델을 출시하는 것처럼, 넥스틴도 2년마다 신규 모델을 출시하며 기술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며 "이번 신규 장비인 'AEGIS-III'도 고객사의 반응이 매우 좋아 구매 물량을 늘려나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해외 시장 진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당초 넥스틴의 매출 비중은 국내 특정 고객사가 80%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돼 있었으나, 이를 점차 줄여나가 현재 내수와 수출 비중이 4:6 수준으로 개선됐다. 수년간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해 SMIC, YTMC, CXMT, PXW 등 주요 고객사를 확보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박 대표는 "중국 외에도 미국, 일본, 유럽 고객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최근 주요 낸드 제조업체인 키옥시아와도 논의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사업 다각화를 위해 추진해 온 신규 장비 개발의 성과는 올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최초로 3D 낸드의 하층부 결함을 검사하는 'IRIS II' 장비를 올해 상반기 주요 고객사에 출하하기로 했다. 또한 EUV(극자외선) 공정에 적용될 수 있는 미세 정전기 제거 장비를 올해 상반기부터 고객사와 양산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넥스틴이 개발한 정전기 제거 장비는 현재 경쟁자가 없는 고부가 제품으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는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4~5년 뒤에는 넥스틴의 전체 매출 비중에서 30% 정도는 차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출처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http://www.thelec.kr)

"""

Company = "넥스틴"

Year = 2024

Article =

"""

박 대표는 "반도체 산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 작년 적자를 만회할 만큼 돈을 벌었을 것이다"며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감산 결정과 AI(인공지능) 열풍으로 인한 고부가가치 제품 HBM(고대역폭메모리) 판매 확대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린 장비사다 보니 국내 반도체 빅2가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이익 체력을 회복했다는 건 신규 장비 수요가 그만큼 없었단 얘기다"며 "올해도 쉽지 않은 경영 환경일 것 같다"고 말을 꺼냈다. 다만 "작년 장비 시장이 -22% 역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ASML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은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고 했다. 이어 "선도 업체들은 타격이 없었지만 우리는 지난해 매출 20%대 감소를 피할 수 없었다"며 "결국 실력 있는 곳은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말한 것처럼 ‘어려울 때 실력이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매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하반기 미국 피벗(통화정책방향 전환) 기대감에 경기가 살아나면 메모리 업체들이 감산 회복을 하고 파운드리 업체들도 장비 가동률을 정상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내년 생산 케파 확대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며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내년부터 사정이 나아질 것 같다"고 예측했다. 이어 "우리 회사는 수출 비중이 중국에 편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깨기 위해 미국, 일본, 유럽 등 의미 있는 매출이 발생하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Company = "넥스틴"

Year = 2025

Article =

"""

"반도체 장비 시장은 2년마다 새로운 장비를 내놓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곳입니다. 혁신에는 경계가 있어선 안 됩니다."  
  
지난 13일 경기 화성시 넥스틴 본사에서 만난 박태훈 대표는 "우리의 성장 전략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 KLA와 이스라엘 네게브텍 등 글로벌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를 거친 박 대표는 2010년 넥스틴을 창업해 국내에선 불모지와 같던 반도체 검사 장비 분야에 도전장을 던졌다. 설립 15년 만에 넥스틴은 검사 기술의 핵심 축인 암조명 검사장비(다크필드) 분야에서 사실상 독점 기업인 KLA의 대항마로 자리 잡았다. 박 대표는 고성장의 배경으로 ‘경계 없는 혁신’을 꼽았다. 넥스틴은 2015년 반도체 웨이퍼의 초미세 패턴 결함을 찾아내는 검사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빛 윤곽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산란광을 이용해 이미지를 비교하는 다크필드 시장을 공략했다.  
  
지구 바깥에서 고해상도 이미지 사진을 찍고, 비교하는 첩보위성 기술과 비슷한 것으로 종전까지 KLA와 일본 히타치가 장악한 분야다. 다크필드 검사 장비 시장 규모는 연간 14억달러 수준으로 전체 반도체 전 공정의 광학 장비 시장(50억달러)의 28%를 차지한다.  
  
넥스틴은 설립 초기부터 이스라엘에 연구소를 세워 다크필드 기술을 확보했다. 이미지를 비교하는 데 필요한 웨이퍼 견본의 이미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독일 비영리 연구기관 프라운호퍼연구소와도 손을 잡았다. 이렇게 2014년 개발된 제품이 넥스틴 성장의 일등 공신인 웨이퍼 패턴 결함 검사장비 ‘이지스’다.

◇"오픈 이노베이션만이 답"

이지스는 10년간 5회에 걸쳐 성능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KLA가 90%가량을 차지한 다크필드 장비 시장에서 넥스틴이 히타치를 누르고 점유율 5~6%대의 2위 업체로 올라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SMIC, CXMT 등 중국 반도체업체 상당수가 이지스를 공정에 활용 중이다.  
  
박 대표는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조차도 이 분야에서 KLA와의 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철수했을 정도로 반도체 장비 분야는 따라잡지 못하면 그냥 죽는 시장"이라며 "연구개발(R&D)뿐 아니라 스타트업과의 협업, 인수, 투자까지 혁신을 위한 것에 모든 경계가 없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

Company = "네패스"

Year = 2022

Article =

"""

지난 11월 24일 장 마감 직전, 네패스그룹 계열사 관련 공시 2건이 동시에 올라왔다. 네패스가 자회사 네패스라웨에 300억원 규모의 금전 대여를 결정했다고 내용이었다. 네패스의 또 다른 자회사인 네패스아크도 네패스라웨에 300억원의 금전 대여를 결정했다. 두 건 모두 기간은 1년이며 이율은 4.6%다. 즉, 네패스그룹 차원에서 네패스라웨에 총 600억원의 돈을 빌려준 셈이다.   
  
계열사간 금전 대여는 종종 있는 일이다. 하지만 한 계열사가 다른 두 계열사로부터 한 번에 수백억 원을 빌리는 건 드문 일이다. 게다가 돈을 빌린 주체인 네패스라웨는 지난해(2021년) 매출 407억원에 영업손실 636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에도 네패스라웨는 3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올해도 대규모 영업손실이 확실시된다.   
  
문제는 네패스라웨의 부진이 네패스그룹 전체로 전이될 가능성이다. 네패스라웨로 인해 모기업 네패스의 자금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네패스의 채무 보증금액은 약 7000억원으로 지난해 5월(약 3300억원)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약 7000억원의 채무보증 중 네패스라웨에 빌려준 돈이 무려 5500억원에 이른다.   
  
네패스그룹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

Company = "네패스"

Year = 2023

Article =

"""

네패스(대표 이병구) 이채윤 이사가 '디지털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19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한 '디지털새싹 제2차 컨퍼런스'에서 진행되었으며, 이채윤 이사는 디지털새싹 캠프 사업의 책임자(PM)로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디지털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첨단 반도체 전문기업 네패스는 대한민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디지털 교육 브랜드 '코코아팹'을 런칭한 이래, 차별화된 청소년 디지털 교육을 선보여 왔으며, 2022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추진하는 '디지털새싹 캠프'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국내 디지털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선도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

"""

Company = "네패스"

Year = 2024

Article =

"""

이창우 네패스 부회장이 각자대표로 승진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네패스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 부회장을 대표로 선임, 이병구·이창우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이 부회장은 네패스 창업주 이병구 회장 아들이다. 2010년 네패스에 입사해 14년 만에 대표로 승진했다. 기존에는 미래전략실 업무를 맡아왔다.  
  
이 부회장은 2019년부터 담당하던 자회사 네패스아크 각자 대표도 겸직한다. 네패스아크는 네패스에서 테스트 사업부문을 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당면한 과제는 패널레벨패키지(PLP) 사업 정상화다. 네패스는 세계 최초로 팬아웃(FO)-PLP 양산 기술을 개발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했지만, 고객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패스는 경영효율성 제고와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네패스 최대주주는 이 회장(18.35%)으로 이 부회장 지분율은 1.09%다.

"""

Company = "네패스"

Year = 2025

Article =

"""

충북 음성에 본사를 둔 반도체 패키지·테스트(OSAT) 기업 네패스 이창우 부회장이 최대주주에 올랐다.  
  
네패스는 이병구 회장과 부인 이성자 씨가 장남인 이창우 부회장에게 지분 전량(22.45%)을 증여한다고 지난 16일 공시했다.    
  
공시된 1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이병구 회장과 이성자 씨는 네패스 주식을 각각 423만2134주, 94만4495주를 보유 중이다. 지분율로 환산하면 18.35%, 4.1%이다.  
  
이창우 부회장이 이들 부부의 주식을 증여 받게 되면 네패스 주식과 지분율은 542만6927주, 23.53%로 늘어난다. 이 부회장은 올해 1분기 기준 네패스 주식 25만298주(지분율 1.09%)를 보유하고 있다. 증여는 6월16일 완료된다.  
  
이번 상속으로 인한 세액은 250억원에 육발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이 부회장은 2019년 네패스아크 대표직을 맡았고, 2024년 네패스 대표에 올랐다. 올해 3월부터는 네패스야하드 대표까지 겸직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근 활발한 대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병구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은 이 부회장과 함께 네패스 대표직을 맡고 있다.  이 회장은 1946년생으로 80세의 고령이지만 경영 전반을 이끌고 있다.

"""

Company = "에프에스티"

Year = 2022

Article =

"""

반도체 EUV 펠리클 및 공정장비 제조업체인 에프에스티가 '2세 경영'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에프에스티는 29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유장동 대표이사에 이은 신임 대표이사로 장경빈 상무를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신임 장경빈 대표(40)는 에프에스티 창업주인 장명식 회장의 장남이다. 장경빈 대표는 미국 워싱턴대학교세인트루이스 경제학과, 칭화대-인시아드 경영학석사과정 등을 졸업했다. 그동안 부친인 장명식 회장을 도와 에프에스티의 신사업총괄 담당 임원을 맡아왔다. EUV펠리클 검사장비를 만드는 자회사 이솔의 경영총괄 부사장도 겸직해왔다.  
  
이번 장경빈 대표이사 선임으로 에프에스티는 본격적인 2세 경영시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에프에스티는 한국램리서치 대표이사 출신인 장명식 회장이 1987년 창업한 회사다. 반도체 보호막인 펠리클 및 칠러 장비가 주력사업이다.  
  
계열사도 여럿이다. 오로스테크놀로지와 에스피텍, 화인세라텍, 이솔 등이 주요 자회사다.

"""

Company = "에프에스티"

Year = 2023

Article =

"""

"""

Company = "에프에스티"

Year = 2024

Article =

"""

"""

Company = "에프에스티"

Year = 2025

Article =

"""

에프에스티가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11일 에프에스티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 이상 변동’ 공시를 띄웠다. 회사의 손익구조가 전년 대비 급격하게 증가∙감소했을 때 나오는 공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기준 회사의 매출은 2374억845만원, 영업이익은 22억8727만원이다. 매출 전년 대비 20.1% 올랐으며,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회사는 호실적에 대해 "DUV(Deep Ultraviolet) 펠리클∙장비 매출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이하 연결기준)은 1430억원, 영업 손실은 6억원이었다. ▲펠리클 사업부의 재료사업이 전체 매출의 51%(825억원) ▲칠러∙반도체 공정 장비 사업부의 장비사업이 47%(755억원) ▲임대수입 등 기타 부문이 0.78%(12억원)를 차지한다.  
  
회사는 지난해 3분기 분기 보고서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 결과 국내 업체는 물론 대만, 일본, 미국 등 해외의 유수업체로부터 품질과 가격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도 펠리클 부문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한다. 회사는 "인공지능(AI)과 더불어 데이터센터 서버 시장 확대에 따라 고대역폭메모리(HBM)등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사용량 증대가 지속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기존 Deep UV 용 펠리클 대비 PID(Pellicle-Induced Distortion) 특성이 우수한 신형 펠리클을 개발하여 매출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

Company = "엠케이전자"

Year = 2022

Article =

"""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는 엠케이전자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또한 엠케이전자의 음극재 사업의 순항을 점쳤다.

엠케이전자는 전세계 본딩와이어 시장 내 글로벌 시장점유율(지난해 약 26%추정) 1위 업체다. 고객사는 140여 곳(비메모리&메모리&OSAT업체 등)으로 고객사 다각화를 진행 중이다.

밸류파인더는 엠케이전자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라고 13일 진단했다.

또한 삼성SDI와 실리콘계 음극재 해외 공동 특허 취득하는 등 음극재 사업부가 순항 중이다.

이충헌 밸류파인더 연구원은 "올해 4월부터 7곳(국내 1개 셀 업체, 미국, 중국, 일본 등 2차전지 제조업체) 업체로부터 의뢰 받아 3개월간 테스트에 들어갔다"며 "엠케이전자가 개발하는 소재는 SI-Alloy(실리콘합금)와 SI-C(탄화규소)"라고 말했다.

이어 "SI-Alloy는 동사가 국내 유일 개발하는 소재로 금 제련 노하우 등을 통해 얻은 코팅기술을 활용해 초기효율을 높였다"며 "엠케인전자는 충북 음성 파일럿 시설과 토지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내 퀄 테스트, 내년 양산 계획을 목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Company = "엠케이전자"

Year = 2023

Article =

"""

"""

Company = "엠케이전자"

Year = 2024

Article =

"""

엠케이전자 경영진이 연이어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다. 주주환원 제고 및 책임경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엠케이전자는 16일 최근 한 달 동안 8명의 임원들이 2만5000주의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현기진 대표가 스타트를 끊었다. 1만5000주를 주당 6909원에 사들였다. 뒤이어 문정탁 신사업개발/품질 총괄 상무이사, 송재헌 신사업 영업총괄이사, 홍성재 중국 법인장, 신문섭 중국법인 경영총괄, 신종진 기술연구소장, 장영시 재경이사, 채규욱 이차전지소재 기획영업총괄 이사 등이 동참했다.

엠케이전자 관계자는 "임원진 차원의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치와 책임경영은 물론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엠케이전자는 2020년 코로나19 국면에서도 7만주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도 했다. 통상 자사주를 장내 매수하면 평균 2%의 주가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다.  
  
앞서 엠케이전자는 올 3분기(별도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4208억원, 7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와 34% 증가한 수치다.  
  
엠케이전자는 2025년에도 본딩와이어, 솔더볼 등 기존 사업에 더해 반도체 테스트 포고핀용 팔라듐 와이어, 솔더페이스트,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 사업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법인은 중국 구형(레거시) 반도체와 하이엔드 반도체 시장이 동반 성장하는 데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

Company = "엠케이전자"

Year = 2025

Article =

"""

"""

Company = "유니퀘스트""

Year = 2022

Article =

"""

유니퀘스트는 주가 안정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대신증권과 1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

Company = "유니퀘스트""

Year = 2023

Article =

"""

"""

Company = "유니퀘스트""

Year = 2024

Article =

"""

"""

Company = "유니퀘스트""

Year = 2025

Article =

"""

한국대드론산업협회는 2023년 창립된 국방 드론 및 대드론 중심의 협회로, 양병희 KAIST 교수(예비역 소장)가 회장을 맡고 있다. 현재 50여 개의 국내 드론 및 안티드론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며, 정기적인 세미나와 대드론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유니퀘스트는 엔비디아 젯슨(NVIDIA Jetson) 플랫폼을 포함한 엣지 AI 및 로보틱스 기술을 국내에 공급하며,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팩토리, 국방 및 방산 분야에서 AI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기업이다.

"""

Company = "피델릭스""

Year = 2022

Article =

"""

"""

Company = "피델릭스""

Year = 2023

Article =

"""

중국이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55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피델릭스 등 관련주가 오름세다.  
  
6일 오후 2시 2분 현재 피델릭스는 전 거래일 대비 3.96% 오른 1469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등 반도체 강국과의 경쟁을 위해 3000억위안(약 54조7000억원)에 달하는 새로운 국가 지원 투자 펀드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 투자 분야는 반도체 제조 장비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중국 재무부는 기금 전체 규모의 20%인 600억 위안(약 10조9천억원)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금은 2014년과 2019년에 각각 1387억위안(약 25조3000억원)과 2000억위안(약 36조5000억원)을 모금했던 바 있다.  
  
첨단 반도체 분야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 공세 속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나오자 수혜주 찾기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피델릭스는 중국 최대 반도체 생산 업체인 SMIC과 플래시 메모리 부문에서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최대주주가 중국 반도체 회사인 동심반도체주식유한공사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렸다.

"""

Company = "피델릭스""

Year = 2024

Article =

"""

장중 피델릭스(032580)가 급등세다. 이는 중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는 소식으로 인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 반도체 기업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강한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14시34분 현재 피델릭스는 코스닥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8.59% 상승한 1786원에 거래되고 있다.

금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맞서기 위해 과거 최대 규모인 3440억 위안(약 64조7098억4000만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하기로 발표했다.

이는 인공지능(AI)에 필수적인 반도체를 둘러싸고 미국이 대중 포위망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이에 맞서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기업정보서비스 '기사사'는 지난 24일 새로운 투자펀드 '국가집성전로산업투자기금 3기'가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주주는 중국 재정성으로 출자비율은 17% 가량이다. 국가개발은행 자회사가 10%, 상하이시 정부 산하 투자회사가 9% 등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한편 피델릭스는 중국 최대 반도체 생산 업체인 SMIC과 플래시 메모리 부문에서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 아울러 최대주주가 중국 반도체 회사인 동심반도체주식유한공사라는 점도 부각되며 향후 수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

Company = "피델릭스""

Year = 2025

Article =

"""

피델릭스(032580)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피델릭스의 주가는 오전 10시 5분 기준 전일 대비 29.96% 상승한 15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딥시크가 오픈 AI와 동등한 성능을 자랑하는 AI 모델을 공개하면서 관련주인 피델릭스로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현지시간) CNBC는 중국의 스타트업인 딥시크(DeepSeek)가 최근 오픈AI의 'o1'과 동등한 성능을 자랑하는 최신 추론 모델인 'R1'을 공개했는데, 성능이 떨어지는 칩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뛰어난 AI 모델을 출시하면서 실리콘 밸리 전역에 공포가 퍼졌다고 보도했다.  
  
지난 20일 딥시크는 추론 AI 모델인 딥시크-R1을 출시한지 1주일 만에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순위에서 오픈AI의 챗GPT를 밀어내고 1위에 올라섰다. 이는 지난해 12월 출시한 ‘딥시크-V3’를 조정한 모델로, 오픈AI의 'o1'과 동일한 성능에 추론 비용은 무려 90% 이상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가 이 모델을 훈련하는데 550만달러가 조금 넘는 비용이 들었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선 그동안 AI 인프라에 수십억달러를 지출한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력에 의구심이 제기되며 파장을 일으켰다.  
  
이처럼 딥시크가 몇주새 잇달아 놀라운 모델을 출시했다는 사실에 대해 실리콘 밸리를 대표하는 기술 리더들은 놀라움과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는 "딥시크 모델은 테스트-타임 컴퓨팅을 수행하는 추론 오픈 소스 모델을 실제로 효과적으로 구현한 방식과 슈퍼 컴퓨팅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중국에서의 발전을 매우,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AI 학습용 데이터 기업인 스케일AI 알렉산더 왕 CEO는 중국이 미국을 앞질렀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딥시크의 모델은 가장 성능이 뛰어나거나 미국 최고 모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며 "중국이 AI 모델을 훈련하는 칩 분야에서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딥시크 돌풍으로 미국의 기술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동시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등 미 증시도 강한 충격을 받았다.  
  
이에 관련주인 피델릭스로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피델릭스는 중국 최대 반도체 생산 업체인 SMIC와 플래시 메모리 부문에서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있으며, 최대주주가 중국 반도체 회사인 동심반도체주식유한공사라는 점이 부각되며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피델릭스는 메모리 반도체의 팹리스 업체이며, Mobile DRAM, 초고속메모리, NOR Flash Memory, MCP 등을 개발 및 판매한다. 2015년 6월 동심반도체유한공사로 최대주주가 변경됨에 따라 동방항신그룹(Orient Evertrust Capital Group)에 편입되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 적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 주력해 왔으나 드론 안에 들어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OS의 주기억장치로 사용되는 낸드플래시로 제품 적용범위 확대 되었다. 스마트폰 산업의 수요 개선 및 AI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 출시 확대에 따른 성장 기대된다.

"""

Company = "픽셀플러스""

Year = 2022

Article =

"""

팹리스(반도체설계) 기업 픽셀플러스가 내년 초 처음으로 비포마켓 전용 차량용 CMOS이미지센서(CIS)를 선보인다. 이미 제품 개발을 마쳤으며 고객사에게 ES(엔지니어 샘플) 형태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픽셀플러스가 비포마켓 시장에 진입한 적은 있지만 인증 요건을 갖춘 비포마켓 전용 차량용 CIS를 개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려 10년 동안 연구개발(R&D)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온세미컨덕터, 옴니비전, 소니 등이 주도하는 차량용 CIS 시장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픽셀플러스는 내년 1분기 비포마켓 전용 CIS를 ES 형태로 고객사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김도형 픽셀플러스 전략기획실 상무는 "내년 초부터 고객사에게 샘플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신제품은 내년 하반기부터 대규모 양산에 들어가 2024년 본격적으로 매출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역시 비포마켓과 에프터마켓으로 나뉜다. 비포마켓은 1차 협력사를 거쳐 완성차 기업에게 공급하는 형태다. 에프터마켓은 전장 솔루션을 만드는 파트너 기업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비교적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픽셀플러스는 글로벌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공급하고 있는 비포마켓 제품보다 자동차 안전기능(Automotive Safety Function)을 강화해 개발이 까다로운 비포마켓 전용칩을 개발했다.  
  
비포마켓 전용칩 개발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물리적인 규격이다. 차량용 반도체 신뢰성 테스트 표준인 ‘AEC-Q100’을 만족해야 한다. 두번째로 자동차 기능 안전 국제 표준인 ‘ISO26262’의 ASIL(Automotive Safety Integrity Level) 등급을 확보해야 한다. ASIL 등급은 A~D까지로, D로 갈수록 인증이 까다롭다. 이미지센서는 B~C 등급을 받아야 납품할 수 있다.  
  
픽셀플러스는 이 두 가지 규격을 만족시킨 ‘PK5130KA’란 차량용 CIS 칩을 개발했다. 내년 초 ISO26262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인증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3~6개월. 인증과정을 마치면 내년 말부터 대규모 양산이 가능하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비포마켓 전용 칩 개발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비포마켓이 에프터마켓보다 시장 규모가 더 크다. 또 비포마켓은 진입만 하면 안정적으로 납품처를 확보할 수 있다. 수익성, 즉 영업이익률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비슷한 성능의 제품이라도 비포마켓 전용 칩은 에프터마켓 제품과 비교해 몇 배 더 비싼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인증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 시장 진입 자체가 쉽지 않다. 픽셀플러스는 지난 10년 동안 R&D에 매진한 끝에 그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차량용 CIS 기업은 여럿 있다. 미국 온세미컨덕터와 일본 소니, 중국 옴니비전이 ‘빅3’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픽셀플러스 시장 점유율은 약 5%로 세계 5위 수준이다. 신제품 개발과 함께 픽셀플러스가 빅3 주도의 차량용 CIS 시장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픽셀플러스 관계자는 "차량용 CIS는 해상도와 감도, 픽셀 크기 등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이미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픽셀플러스는 지난해 매출 506억원, 영업이익 3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336억원, 영업이익은 16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올해 전체 매출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Company = "픽셀플러스""

Year = 2023

Article =

"""

픽셀플러스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1분 현재 6.66% 올라 7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급등이후 하락추세에서 빤전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스타 팹리스 프로젝트 선정이 주가에 훈풍을 불어 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스타 팹리스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팹리스를 글로벌 상위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팹리스의 기술 경쟁력 강화, 사업화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팹리스의 핵심 기술 확보, 신제품 개발, 해외 시장 진출 등을 촉진하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픽셀플러스는 이미지센서 및 카메라 모듈 개발, 제조 및 공급을 하고 있다.  
  
CMOS 이미지센서의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이며, CMOS이미지 센서의 웨이퍼 및 패키지 공정을 위탁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같은 시간 보안 관련주인 앤씨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피제이전자 포커스케이치엔에스 씨유박스 등도 동반상승 하고 있다.  
  
현대에이치티 슈프리마 인콘 에스원 아이디스 싸이비원 벨로크 이노뎁 등은 하락중이다.

"""

Company = "픽셀플러스""

Year = 2024

Article =

"""

"자동차에 이어 인공지능(AI)로봇 분야에서도 성과를 낼 계획입니다."  
이서규 픽셀플러스 대표**(사진)**는 10일 "모바일과 보안, 자동차에 이어 AI로봇 분야로 이미지센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픽셀플러스는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 일종인 이미지센서 분야에 주력한다. 이미지센서는 디지털카메라에 들어가 눈 역할을 하는 반도체다. 픽셀플러스는 전 세계 이미지센서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해 일본 소니, 미국 온세미, 중국 옴니비전 등과 경쟁한다.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는 이미지센서 시장이 2023년 193억달러(26조원)에서 오는 2026년 269억달러(36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강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이 대표는 1984년 LG반도체에 입사한 뒤 반도체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그는 업무와 함께 학업도 병행하며 연세대 석사, 포항공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창 시절부터 사회생활까지 '모범생'이었던 그에게 있어 지난 1999년 큰 변화가 찾아왔다.  
  
이 대표는 "외환위기(IMF)로 인한 기업 간 구조조정 '빅딜' 일환으로 LG반도체와 현대전자가 합병해 하이닉스(현 SK하이닉스)로 거듭났다"며 "당시 변화가 큰 회사로부터 벗어나 이미지센서 아이템을 앞세워 창업의 길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대기업이라는 '온실'에서 벗어나 '야생'에 들어선 그에게 있어 창업 초창기는 혹독하기만 했다. 2000년 4월 회사를 설립할 당시 5억원 정도 있던 시드머니는 같은 해 10월이 되자 바닥을 드러냈다. 이미지센서 연구개발(R&D)에 예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다행히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나섰고, 운이 좋게도 정부 과제 수주를 통해 27억원을 조달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2002년 업계 최초로 이미지시그널프로세서(ISP)를 통합한 30만화소 이미지센서를 선보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픽셀플러스가 선보인 30만화소 이미지센서는 당시 휴대폰에 카메라 기능이 들어가는 트렌드와 맞물려 판매가 활발히 이뤄졌다. 특히 삼성전자 휴대폰 모델 '애니콜' 영상통화를 지원하기 위한 카메라에 픽셀플러스 30만화소 이미지센서가 들어갔다.  
  
이 대표는 "이후 '이효리폰' 등에 추가로 130만화소 이미지센서를 공급하며 회사 실적이 빠르게 증가했다"며 "내친김에 2005년 미국 나스닥 시장에 회사를 상장시켰는데, 이는 국내 기업 중 나스닥에 직상장한 첫 사례였다"고 돌이켰다.  
  
하지만 이후 곧바로 위기가 찾아왔다. 모바일용 이미지센서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면서 회사 실적이 매년 하락했다. 매출액은 나스닥에 상장한 그해 389억원에서 4년 만인 2008년 161억원까지 줄었다. 결국 이 대표는 회사가 2009년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이 대표는 나스닥에 상장할 2005년 당시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보안용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센서 개발에 착수했다. 그 결과 3년 만인 2008년 보안용 이미지센서를 처음 선보일 수 있었다. 관련 제품은 2009년부터 국내외 시장에 팔려나가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2013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1494억원, 464억원을 올리며 회사가 완벽히 부활했다.  
  
이 대표는 "당시 일본 소니가 장악한 보안용 이미지센서 시장에 진입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35%까지 끌어올리며 전 세계 1위 자리까지 올랐다"며 "2015년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나스닥 퇴출이란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모바일과 마찬가지로 보안용 이미지센서 역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자동차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수소차 등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전장 중요성이 높아지고, 이 과정에서 카메라와 함께 이미지센서 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표는 "자동차용 이미지센서 개발에 2012년 착수한 이후 5년 만인 2018년에 자동차 후방카메라용 30만화소 이미지센서를 출시할 수 있었다"며 "이후 회사 사업 구조를 보안에서 자동차로 전환했으며, 현재 회사 매출액 중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후방카메라에 이어 전방·측방 카메라에 적용하기 위한 130만화소, 300만화소 이미지센서를 잇달아 출시한 뒤 국내외 유수 완성차, 전장 업체들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그는 내년에 관련 제품 공급에 나서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올해 경기 성남 판교에 연면적 2만1926㎡ 규모로 신사옥을 짓고 입주를 마쳤다"며 "신사옥에서 임직원과 함께 이미지센서 토털솔루션을 공급하는 글로벌 회사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Company = "픽셀플러스""

Year = 2025

Article =

"""

픽셀플러스 관계자는 "대외 환경 리스크로 인해 반도체 수요가 위축됐고, 경제 불확실성 심화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M용 자동차 이미지센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과 응용 기술 개발을 지속 중"이라며 "자체 개발한 신기술인 aIR™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IR™ 기술은 픽셀플러스만의 CNA(Color Noise Adaptation) 기술을 적용해 가시광선(RGB)과 적외선(IR) 영역을 동시에 지원하는 RGB-IR 기술이다. 기존 기술은 가시광선 또는 적외선 모드에서 각각의 이미지만 출력했던 반면, aIR™ 기술은 범용성이 크게 확대돼 차량탑승자 인식, 블랙박스, 보안카메라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차량용 이미지센서 시장은 첨단 ADAS와 자율주행 기술 확산에 따라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차량 1대당 카메라 탑재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 인텔리전스(Yole Intelligence)에 따르면, 2030년 레벨3 자율주행차는 차량당 최대 18개의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픽셀플러스는 고성장이 예상되는 가전 시장 진입 확대를 추진 중이다. 프리미엄 스마트가전, AI 로봇, 보안, 바이오, 물류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신규 적용 모델 확대를 위한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해외 고객사들의 보수적인 구매 기조와 연구개발비 확대에도 고부가가치 제품 매출 확대 및 평균판매단가(ASP) 상승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김도형 픽셀플러스 전략기획본부 상무는 "ADAS용 자동차용 센서, AI, IoT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한 제품을 지속 개발하며 새로운 고객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신규 시장 확장을 통한 외형 성장을 기반으로 수익성과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Company = "제너셈""

Year = 2022

Article =

"""

한복우 제너셈 대표와 권정 삼영순화 대표가 KPCA(한국PCB및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이사회 이사에 선임됐다. 반도체 후공정 장비업체 제너셈과 화학약품업체 삼영순화는 그간 KPCA 회원사로 활동해왔다.   
  
KPCA는 28일 인천에서 개최한 총회에서 한복우 대표에 대해 "제너셈의 대주주로 레이저 기술을 토대로 국내 최초로 인쇄회로기판(PCB) 레이저 제품을 개발했고,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개발해 국내외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다"며 "KPCA 국제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정 대표에 대해서는 "삼영순화는 PCB·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초고순도약품, 고기능성 화학약품을 생산판매한다"며 "KPCA 회원사에 신기술 흐름과 일본·해외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복우 대표는 인사말에서 "그간 한국 PCB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올해부터 임원사로 활동하며 역량을 발휘해 KPCA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권정 대표는 "KPCA 회원사로 20년 이상 활동해왔고, 이번에 이사 역할을 맡아 영광"이라며 "한국 PCB 산업과 KPCA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시돈 KPCA 협회장은 올해 협회 운영방향에 대해 "반도체와 패키징, PCB 전후방 업체 사이 소통을 늘리고, 협회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내실을 다지는 것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 협회장은 "KPCA의 교육 사업 등을 강화하고 회원사에 실제 도움이 되는 사안 위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시돈 협회장은 지난해 3월 9대 KPCA 협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4년이다. 최 협회장은 전임 정철동 8대 협회장의 잔여 임기 1년(2024년 3월~2025년 3월), 9대 협회장 임기 3년(2025년 3월~2028년 3월) 등 4년간 협회장직을 수행한다. 정철동 전임 협회장은 2023년 12월 LG이노텍 사장에서 LG디스플레이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협회장에서 중도 하차했다.   
  
KPCA 안영우 사무총장은 "현재 삼성전기·LG이노텍 등에서 자체 진행하는 PCB 교육을 KPCA 차원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KPCA는 PCB 자격교육 등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PCA는 내년 CES에 참석할 예정이다. 전방 산업인 세트 기술과 제품 동향을 파악해 시장 전망과 위기 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KPCA는 올해부터 태국에서 열리는 PCB 행사도 참석한다. KPCA의 자체 연례행사 KPCA쇼는 오는 9월 3~5일 인천에서 개최한다. KPCA 총회에는 최시돈 협회장과 이경환 비에이치 회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

Company = "제너셈""

Year = 2023

Article =

"""

반도체 후공정 장비 개발 및 제조 전문기업 제너셈은 지난해에 영업이익이 51%, 당기순이익이 133% 각각 증가하는 등 실적이 크게 호전됐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제너셈의 전자기간섭(EMI·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실드(Shield)가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주가가 추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2000년 11월21일 설립된 제너셈은 반도체 제조 후공정에 적용되는 픽앤플레이스(Pick&Place), 검사(Inspection), 테스트 핸들러(Test Handler) 등 다양한 반도체 후공정 검사 및 이송장비를 설계, 제조하는 장비 전문기업이다. 반도체 후공정 자동화 장비의 주력 상품으로는 레이저 마킹(Laser Marking), 테스트 핸들러, 검사 외 자동화 장비가 있다. 대부분의 장비는 커스터마이즈 되어 고객에게 납품된다. 코스닥시장에는 2015년 9월25일 상장됐다.  
  
제너셈의 주요 제품인 쏘우싱귤레이션(Saw singulation)은 SK하이닉스와 함께 약 2년간 개발된 장비다. 후공정 과정에서 다이아몬드 휠을 사용해 반도체 기판(Substrate)을 절단해 개별 제품으로 분리한다. 반도체 패키지의 세척, 건조, 비전검사, 불량 선별, 적재 등을 처리하는 올인원 장비다.  
  
EMI 실드 장비는 고주파수 반도체에서 발생하게 되는 전자파를 차단하는 장비다. 산업이나 과학 의료 등의 여러 정보기기들이 사용하는 주파수의 대역은 정해져 있다. 같은 대역의 주파수 범위에서 동작되는 고출력 전자파 발생 장치로부터의 과도 전자파 영향으로 정보기기는 원치 않은 신호를 수신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고 파손될 수 있다.  
  
지난해 9월말 4700원 안팎에서 거래되던 제너셈은 10월초부터 완만하게 상승하며 11월말 6100원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12월초부터는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 1월초 4700원대로 회귀했다. 이후 급등하며 지난 2월 하순 6900원대로 치솟았으나, 소폭 조정을 받아 3월 중순 6000원대로 내려왔다. 3월 하순부터는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며 최근 8000원대로 올라섰다. 지난 13일에는 전날보다  10.56%(880원) 상승한 9210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 2월2일 제너셈은 신규 장비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주력 제품인 쏘우싱귤레이션의 확장 버전인 'Panel Saw Singulation(UNICON-G7)’과 ‘Saw to Ring for EMI Shielding(VELOCE-G7-r)’이다.  
  
제너셈은 지난해에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596억293만원으로 전년 597억2743만원 대비 0.21% 감소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85억1868만원으로 전년 56억3315만원 대비 51.22%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121억8983만원으로 전년 52억4245만원 대비 132.52% 늘었다.  
  
이와 관련, 증권가는 제너셈에 대해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고 있다. 지난 13일 대신증권은 제너셈의 주요 제품인 쏘우싱귤레이션이 고객사 내에서 점유율을 확대 중이라고 평가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석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제품 라인업은 EMI 실드솔루션, 쏘우싱귤레이션, 레이저장비(Laser Application), 픽앤플레이스, 테스트 핸들러 등"이라며 "2022년 기준 EMI 실드의 매출 기여가 가장 높으며 국내외 종합반도체업체(IDM), 패키징·테스트(OSAT) 업체들이 주요 고객사"라고 밝혔다.  
  
그는 "2018년 매출액은 260억원 수준이었지만 쏘우싱귤레이션, EMI 실드 장비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에 힘입어 2021년 매출액 597억원을 달성했다"며 "2022년 반도체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제품 믹스 개선을 통해 증익에 성공했다"고 짚었다.  
  
이 연구원은 "EMI 실드는 고주파수 반도체에서 발생하게 되는 전자파를 차단하는 장비"라며 "전자제품 고도화, 집적화에 따른 EMI 실딩의 수요 확대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EMI 실드 장비는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기존에는 스마트폰 업체 중 북미 업체에 한정돼 EMI 실딩을 채택했지만 최근 중화권 업체도 EMI 실딩을 채택하는 추세인 점이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쏘우싱귤레이션은 후공정 과정에서 다이아몬드 휠을 사용해 기판을 개별 제품을 분리하는 장비"라며 "반도체 패키지의 절단, 세척 및 건조, 영상검사(Vision Inspection), 불량 선별, 적재까지 처리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객사 내 점유율 확대를 통한 매출 성장이 지속 중"이라며 "2021년 매출액 약 87억원에서 2022년 약 180억원 수준으로 두 배 이상 성장을 기록했다. 고객사 내 점유율 확대와 함께 전방 고객사 다각화를 통한 성장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

Company = "제너셈""

Year = 2024

Article =

"""

반도체 패키지 후공정 종합 장비 전문업체 제너셈이 올해 연간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쏘 싱귤레이션과 전자파간섭(EMI) 차폐 장비 판매 호조세에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을 위한 핵심 장비 매출도 추가됐기 때문이다.   
  
17일 증권가에 따르면 제너셈은 올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500억원 초중반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올 연간으로도 700억원 안팎 혹은 이를 상회하는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내다봤다. 제너셈의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은 지난 2021년 기록한 597억원이었다.  
  
이 같은 호실적 배경은 기존 장비군 매출 확대와 HBM 관련 장비가 신규 매출로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제너셈은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나 칩 업체에 경쟁사를 제치고 쏘 싱귤레이션 설비를 대규모로 수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쏘 싱귤레이션(Saw Singulation) 장비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Wafer)를 개별 칩(die)으로 분리하는 절단 공정을 수행한다. 절단 부품(Saw)을 사용해 웨이퍼에 정밀하게 선을 그어 칩을 분리하게 되며, 이 과정을 싱귤레이션이라고 부른다. 경쟁사는 이 장비를 '비전 플레이스먼트'라 명명하고 있다.   
  
EMI 차폐 관련 장비도 경쟁사 물량 대부분 가져왔다. 칩 제조업체는 전자파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 스퍼터링(Sputtering) 공정을 거친다. 스퍼터링은 진공 상태에서 증착 대상 타겟을 플라즈마로 때려 웨이퍼 위에 얇은 박막을 형성하는 공정을 의미한다. 제너셈 EMI 차폐 관련 장비는 스퍼터링 공정 전후로 쓰인다. 칩을 잘라 재배치하고, 스퍼터링이 끝난 후에 다시 칩을 떼어내는 역할을 한다. 기존 재배치 과정은 두 단계(칩 쏘잉 후 트레이에 옮겼다 다시 PI 필름 위로 일정 간격을 두고 배치)였지만, 제너셈은 트레이로 옮기는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PI 필름 위에 칩을 재배치하며 한 단계의 과정을 생략했다. 공정을 간소화하면서 고객사로부터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HBM 관련 장비는 올해 제너셈 장비군 가운데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장비는 HBM 생산 후공정 과정에서 웨이퍼를 핸들링하기 위한 필름을 붙이고 떼어내는 것이다. 제너셈은 '차세대'라 불리는 하이브리드 본딩용 장비(칩 다이 이송 장비 등)도 HBM 생산 라인에 공급하며 미래 성장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주력이던 쏘 싱귤레이션과 EMI 차폐 관련 장비 매출이 호조세인데다 HBM 관련 장비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실적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Company = "제너셈"

Year = 2025

Article =

"""

한복우 제너셈 대표와 권정 삼영순화 대표가 KPCA(한국PCB및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이사회 이사에 선임됐다. 반도체 후공정 장비업체 제너셈과 화학약품업체 삼영순화는 그간 KPCA 회원사로 활동해왔다.   
  
KPCA는 28일 인천에서 개최한 총회에서 한복우 대표에 대해 "제너셈의 대주주로 레이저 기술을 토대로 국내 최초로 인쇄회로기판(PCB) 레이저 제품을 개발했고,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개발해 국내외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다"며 "KPCA 국제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정 대표에 대해서는 "삼영순화는 PCB·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초고순도약품, 고기능성 화학약품을 생산판매한다"며 "KPCA 회원사에 신기술 흐름과 일본·해외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복우 대표는 인사말에서 "그간 한국 PCB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올해부터 임원사로 활동하며 역량을 발휘해 KPCA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권정 대표는 "KPCA 회원사로 20년 이상 활동해왔고, 이번에 이사 역할을 맡아 영광"이라며 "한국 PCB 산업과 KPCA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시돈 KPCA 협회장은 올해 협회 운영방향에 대해 "반도체와 패키징, PCB 전후방 업체 사이 소통을 늘리고, 협회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내실을 다지는 것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 협회장은 "KPCA의 교육 사업 등을 강화하고 회원사에 실제 도움이 되는 사안 위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시돈 협회장은 지난해 3월 9대 KPCA 협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4년이다. 최 협회장은 전임 정철동 8대 협회장의 잔여 임기 1년(2024년 3월~2025년 3월), 9대 협회장 임기 3년(2025년 3월~2028년 3월) 등 4년간 협회장직을 수행한다. 정철동 전임 협회장은 2023년 12월 LG이노텍 사장에서 LG디스플레이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협회장에서 중도 하차했다.   
  
KPCA 안영우 사무총장은 "현재 삼성전기·LG이노텍 등에서 자체 진행하는 PCB 교육을 KPCA 차원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KPCA는 PCB 자격교육 등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PCA는 내년 CES에 참석할 예정이다. 전방 산업인 세트 기술과 제품 동향을 파악해 시장 전망과 위기 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KPCA는 올해부터 태국에서 열리는 PCB 행사도 참석한다. KPCA의 자체 연례행사 KPCA쇼는 오는 9월 3~5일 인천에서 개최한다. KPCA 총회에는 최시돈 협회장과 이경환 비에이치 회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

Company = "오디텍"

Year = 2022

Article =

"""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와 ㈜오디텍이 지역인재 공동 양성을 목적으로 채용 확정형 트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했다.  
  
이날 원광대 본관 회의실에서 협약식이 진행된 가운데 양 기관은 맞춤형 인력양성·채용 확정형 확대와 더불어 추후 계약학과 추진 등 지역인재 공동 양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창의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재학 중 취업을 확정하는 이 프로그램은 매년 11월 말 전자공학과 3, 4학년 중 5명 이상을 선발해 채용 예비교육을 진행한다. ㈜오디텍은 4학년 하계방학 중 조기취업을 위한 채용 인턴십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진행해 이수자 중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당 해 년도에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교육과정으로 캡스톤디자인·기업 맞춤형 교과목을 개발·운영하며 상호 협력을 통해 이론·현장교육을 시행하고 기업 맞춤형 교육을 위한 전문가 활용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오디텍은 참여 학생들의 현장실무교육을 위해 다양한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맹수 원광대 총장은 "원광대가 지역과 상생하는 친 기업형 캠퍼스로 변화와 혁신을 준비하는 시점에 학생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이 가능한 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디텍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수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대학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디텍과 함께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반도체, 광소자·광센서 모듈 분야에서 최고를 지향하는 ㈜오디텍은 1999년 센서부품회사로 출발해 반도체사업부와 중국 남경법인 등을 통해 내수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

Company = "오디텍"

Year = 2023

Article =

"""

오디텍 주가가 강세다.   
  
11일 오전 10시 32분 기준 현재 오디텍은 전 거래일 대비 13.41% 오른 554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394만 7458주다.  
  
이는 LG이노텍이 테슬라 신규 모델에 탑재되는 카메라모듈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주 규모는 최대 약 1조5000억 원, 공급 기간은 3년 이상으로 이번 수주물량은 아직 출시되지 않은 테슬라 첫 픽업 전기차 모델인 사이버트럭에 탑재될 예정이다.  
  
오디텍이 LG이노텍에 발광다이오드 필수 부품인 제너다이오드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

Company = "오디텍"

Year = 2024

Article =

"""

"""

Company = "오디텍"

Year = 2025

Article =

"""

반도체·센서 기술 전문 기업 오디텍이 2024년 연결 기준 영업손실 64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공시했다. 지난해 43억원보다 약 50% 증가한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매출액은 370억원, 당기순이익은 55억원으로 각각 5.8%, 85.4% 증가했다. 영업손실은 전방 시장 수요 둔화와 원가 상승으로 확대됐으나, 당기순이익은 관계회사 매각과 투자자산 회수에 따른 일회성 이익 영향으로 증가했다.  
  
2024년 말 기준 자산총계는 1369억원, 부채총계는 113억원, 자본총계는 1257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채가 감소하며 재무 안정성이 소폭 개선됐지만,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아있다.  
  
오디텍은 실적 발표와 함께 주당 100원의 현금배당 결정을 발표했다. 총 배당금은 10억원, 시가배당률은 3.18%다. 배당 기준일은 2024년 12월 31일이며, 배당 지급은 3월 21일 주주총회 승인 이후 1개월 이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실적 및 배당은 잠정치로 향후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

Company = "KX하이텍"

Year = 2022

Article =

"""

반도체 부품 소재 및 SSD 케이스 제조 전문기업 KX하이텍은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 1171억 원, 영업이익 10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73%, 영업이익은 63%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12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3% 증가했다.

반도체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KX하이텍의 성장세가 지속된 배경에는 베트남 공장 투자의 가시적인 성과와 연결대상 법인 추가 편입으로 매출의 양적 성장과 이익률 개선이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베트남 법인의 공정 내재화와 생산능력(CAPA) 증대를 위한 투자가 완료 단계에 이르렀으며, 공격적인 투자에도 부채비율은 70%대를 기록하며 재무건전성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상국 KX하이텍 대표이사는 "공급망 리스크 등 불확실한 대외환경을 비롯해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며 "KX하이텍은 이러한 환경에서도 고객 중심의 품질마인드를 최우선으로 두고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선도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Company = "KX하이텍"

Year = 2023

Article =

"""

KX하이텍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 거래일 2.99% 1273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주가는 5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8거래일 연속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AI서버 수요 증가로 내년 역대 최대 매출이 예상 되면서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KX하이텍 주력제품인 Tray의 원재료는 당사의 엄격한 품질기준을 거쳐 국내 업체가 개발한 Resin을 사용한다.  
  
재료사업 부문의 제품은 대부분 후공정재료에 해당하며, 전공정의 재료부문 또한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여 영업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 거래일 SSD 관련주인 하나마이크론 심텍 삼성전자 SFA반도체 SK하이닉스 SGA KX하이텍은 상승 마감했다.  
  
SSD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대체, 데이터센터의 성장,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 5G의 상용화 등이 SSD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

Company = "KX하이텍"

Year = 2024

Article =

"""

KX이노베이션은 지난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126억원, 영업이익 238억원, 당기순이익 985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은 3.6%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918.9% 늘었다. 지난 9월 떼제베CC 골프장 매각으로 800억원 규모의 매각 효과가 발생하면서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고 올들어 3분기까지 매출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모든 주요 지표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KX이노베이션의 올들어 3분기까지 연결 실적 기준 매출은 3082억원, 영업이익은 568억원, 당기순이익 117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4.3%, 영업이익은 12.7% 늘었으며 당기순이익은 36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X이노베이션은 레저사업 분야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고 핵심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골프장을 매각, 재무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사업에 투자를 늘려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KX이노베이션의 반도체 제조 종속회사인 KX하이텍은 글로벌 반도체 업황 침체 영향을 극복하면서 그룹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베트남 현지법인으로 국내 생산라인을 이전하는 등 자원관리와 공정 효율화, 주요 고객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레저 분야에서는 신라CC와 파주CC 등 고급 골프장 운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클럽72 골프장은 인천공항과 가까운 접근 편의성을 바탕으로 수도권 골퍼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한찬수 KX이노베이션 대표는 "지난 몇 년간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며 "향후로도 방송, 레저, 반도체 등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X이노베이션은 2000년 설립 이후 방송 송출 사업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 현재 국내 송출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송출 서비스 외에도 레저, 반도체 재료 등의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각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Company = "KX하이텍"

Year = 2025

Article =

"""

 KX하이텍이 공시를 통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KX하이텍은 전년 2분기부터 이어온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KX하이텍에 따르면 금번1분기 실적은 셋톱박스를 주력으로 하는 자회사 KX인텍의 업황 부진에 따라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그러나 원사업인 반도체 재료 부문의 별도기준 매출213억원, 영업이익 29.8억원으로 전년 동기비 각각 9%, 215%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 또한 21억 원으로, 2.5배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적 배경에는 전년1분기 기저효과와 함께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Micron)의 SSD 케이스 판매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KX하이텍은 중장기 성장전략 과제 실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시장 내 공급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신규 거래선을 발굴하고 있으며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KX하이텍은 지난해 베트남 박닌에 SSD 일관 생산 공정을 구축완료 하였으며, 수율향상과 생산성 극대화를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KX하이텍 관계자는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비하여 제조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거래선을 다변화하여 중장기 경영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

Company = "엔투텍"

Year = 2022

Article = """

반도체 장비 부품 업체 엔투텍은 보유 중인 드라마제작사 에이스팩토리의 지분 일부를 매각해 넷마블에프앤씨의 주식과 교환했다. 지분 매각 이후 회사는 넷마블에프앤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엔투텍은 에이스팩토리의 주식 5만4646주를 넷마블에프앤씨에 132억6000만원에 매각한다고 5일 밝혔다. 자기자본 대비 14.77%에 해당하는 규모다. 매각 이후 소유주식수는 5만2503주(16.33%)다. 또 매각 자금으로 넷마블에프앤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취득 예정 주식수는 9만4719주(0.74%)다.

회사 관계자는 "에이스팩토리 주식 일부를 넷마블에프앤씨에 매각하고, 동시에 주식을 취득하는 거래"라며 "넷마블에프앤씨와의 에이스팩토리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거래로 엔투텍은 에이스팩토리 주식 처분 이익 92억원이 발생했다. 처분 이익은 올해 영업외이익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특히 엔투텍은 지난 4월에도 에이스팩토리 주식을 매각해 62억원의 처분 이익을 올린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취득원가 기준 총 250억에 인수했지만 현재 일부 매각한 처분 대가만 262억원으로 처분이익은 155억원에 달한다"면서 "250억원에 취득한 에이스팩토리의 기업가치를 521억원 수준으로 밸류업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엔투텍이 취득하는 넷마블에프앤씨는 3분기 말 기준 넷마블이 83.54%의 지분을 보유한 게임 개발사다. 수집형 RPG(역할수행게임) '데미스 리본'을 개발하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설립된 VFX(시각특수효과) 전문업체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지분율 49.0%), 메타버스월드(80%) 등을 보유하고 있다. 메타버스엔터는 디지털 휴먼을 제작해 버추얼 아이돌 매니지먼트 사업을, 메타버스월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대체불가토큰) 상품과 메타버스 세계관을 만들고 있다.

엔투텍은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변동에 대비한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드라마 제작·연예인 기획사 에이스팩토리를 인수한 뒤 기업가치 밸류업·지분 매각을 통한 현금 확보를 했고, 오는 21일 코스닥 상장사 지엔원에너지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엔투텍은 9월 말 기준 기준 자산총액 1121억원, 부채총액 273억원으로 부채비율 32%의 우수한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며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지엔원에너지를 인수한 뒤 미래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와 지열에너지 사업을 통한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Company = "엔투텍"

Year = 2023

Article = """

엔투텍 주가가 꿈틀 거리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 거래일 1.31% 올라 62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주가는 하락추세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20거래일 외국인은 대량의 매도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내년부터 반도체 경기의 본격 회복 기대감이 주가에 훈풍을 불어 넣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 거래일 모더나 관련주인 녹십자 소마젠 파미셀 대한뉴팜 바른손 바른손이앤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엔투텍 에이비프로바이오는 대부분 상승했다.

반면 파미셀 에이비오프로바이오는 하락했다.

엔투텍은 반도체 공정용 진공밸브 제조에서 엔터테인먼트, 마스크OEM, 백신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는 기업이다.

주요 사업부문으로는 반도체장비부품 사업부문,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문, LED응원봉 및 MD상품 사업부문, 마스크제조 사업부문이 있다.

매출구성은 진공밸브 20%, 반도체 장비부품 17%, LED,발광제품 외 62%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Company = "엔투텍"

Year = 2024

Article = """

엔투텍(227950)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 중인 지오릿에너지(270520) 주식 2734만9049주를 410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양도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36.52%다. 양도후 소유 지분비율은 2.14%다. 양도예정일은 오는 2025년 1월9일이다. 거래상대방은 에이프로젠(007460), 지베이스 등이다.

지오릿에너지는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최대주주가 엔투텍에서 에이프로젠 외 1인으로 변경된다고 공시했다. 변경예정 최대주주의 지분비율은 17.22%다.

"""

Company = "엔투텍"

Year = 2025

Article = """

엔투텍(227950)은 김정민 대표이사의 일신상 사유에 따른 대표이사직 사임 및 신규 각자 대표이사 선임으로 김재섭 이욱재 각자대표로 변경된다고 31일 공시했다.

"""

Company = "아이텍"

Year = 2022

Article = """

아이텍(119830)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약 38억2000만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신주발행가액은 6260원이며 납입일은 오는 12월8일, 신주 상장예정일은 오는 12월23일이다. 발행대상자는 아이텍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인 최현식 씨로 주식은 1년간 전량 보호예수된다.

"""

Company = "아이텍"

Year = 2023

Article = """

아이텍(119830)은 31일 신규 도입한 5나노미터(nm)급 반도체 검사장비 가동을 시작해 고객사들의 초미세 공정 반도체 제품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장비는 아이텍이 어드반테스트(Advantest)사로부터 도입한 장비(V93K-PS5000)로 5nm 이하급 반도체 제품에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회사 관계자는 "퀄컴, 엔비디아, AMD 등 해외 유수의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테스트를 위해 사용하는 장비와 동일한 것으로 국내외 초미세 반도체 제품 테스트 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텍은 기존 모델에서 생산하던 차량용 반도체 제품들도 신규 장비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집 중이다. 또한 AI(인공지능)·자율주행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및 차세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할 계획이다.

아이텍은 반도체 제조 과정 중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후공정 테스트 기업이다. 이미 다양한 고객사에서 생산한 반도체에 대한 프로브 테스트 및 패키지 테스트를 진행한 실적과 경험이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차량용 반도체 시장 성장과 확대에 따른 국내외 차량용 반도체 제조기업들과의 협력 관계 구축에 핵심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차량의 전장화 추세와 자율주행 기능이 더해지며 차량용 반도체가 미세화 되고 있다"며 "5nm 반도체까지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자율주행용, 서버용 등 초미세 반도체 제품들까지 공격적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Company = "아이텍"

Year = 2024

Article = """

아이텍(119830) 최대주주 최현식 회장이 지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통해 지분율을 14.92%까지 끌어올렸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아이텍 주식 3만주를 앞서 12일 장내매수했다. 취득단가는 1주당 5671원이다. 지난 9일에도 주식 1만 7681주를 매입한 바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최근 최 회장과 포틀랜드아시아가 사들인 자사주 규모는 총 6억여원 가량이다. 추가적인 지분 매입에 따라 최 회장과 우호지분인 포틀랜드아시아를 포함한 아이텍 지분은 총 14.92%로 늘어났다.

이번 최회장의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며 책임경영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라고 아이텍 측은 전했다.

사 측은 "최근 반도체 산업의 4분기 피크론에 따른 산업 불확실성으로 급격히 조정 받은 기업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경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이텍 관계자는 이어 "최근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은 회사의 적정가치보다 과도하게 낮게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라며 "아이텍은 최대주주의 추가적인 자사주 매수 등을 통해 회사의 미래 성장 전망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를 보여줘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Company = "아이텍"

Year = 2025

Article = """

반도체 테스트하우스 아이텍이 기존의 반도체 테스트 고객사에 이어 인공지능과 오토모티브 반도체, 온디바이스AI 분야로 사업영역과 고객이 확대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집적회로 설계에서 시작해 웨이퍼 제조, 장치 제조, 테스트, 패키징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아이텍의 사업영역은 2005년 창업 이래 웨이퍼 테스트와 패키지 테스트가 중심이었다. 웨이퍼 테스트는 팹에서 나온 웨이퍼를 조립하기 전 양품을 판별하는 절차이며, 패키지 테스트는 제작 된 반도체 칩의 전기적 동작 검사를 통한 최종 불량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현재 아이텍의 주요 고객으로는 텔레칩스, LG전자, 아나패스, 동운아나텍, 웰랑, 넥스트칩, 엘엑스세미콘 등 국내 주요 팹리스 기업과 에이직랜드, 에이디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코아시아 등 반도체 디자인하우스를 비롯해 167개 기업에 달한다.

아이텍은 유수의 팹리스 기업과 디자인하우스 고객사들에게 맞춤형 반도체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 및 로봇관련 등 AI산업의 성장으로 아이텍의 사업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 자동차 전장 등에 적용되는 반도체는 기존 반도체와는 다른 매우 높은 성능이 요구된다. 고성능 반도체는 집적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미세회로를 구현해야 하며, 이에 따른 발열 문제로 각 공정별 추가테스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동차 전장분야는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 엄격한 제작과 테스트가 필요하다. 기존의 웨이퍼 제조 단계에서부터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후공정 일부가 아닌 공정 전반에 대해 테스트가 이뤄진다. 엄격한 테스트와 함께 테스트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전장 반도체 테스트 사업으로의 확장은 아이텍의 실적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또한, 아이텍은 인공지능 반도체 고객을 위한 ‘시스템-레벨 테스트(SLT)’라 불리는 양산 테스트도 이미 테스트하우스 중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다. ‘시스템-레벨 테스트’는 응용 시스템에 연결해 반도체의 전체 기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오토모티브 제품처럼 고 신뢰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가 주로 무인화 및 자동화 기기에 사용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제품 안정성이 요구되어 모든 제품에 시스템-레벨 테스트를 적용하고 있다.

아이텍 관계자는 "아이텍의 신규고객 중에는 팹리스 AI 스타트업 기업이 많으며, 이들과의 협업으로 아이텍의 사업영역이 인공지능, 전장, 데이터센터 서버 및 온디바이스AI 관련사업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며 "인공지능과 전장 분야 반도체 테스트는 ‘시스템-레벨 테스트’에 대한 중요도가 한층 부각되며 이뤄지고, 온디바이스 AI기업과는 전 과정의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새로운 고객사의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어드반테스트’사로부터 장비를 추가로 구매해 테스트 캐파를 증설하는 중이다. 4월에는 AI칩 테스트관련 필수장비인 ATC 핸들러 장비(능동형 열제어 장비)를 총 3대 이상 보유하게 되며, 이는 국내 테스트 하우스 중에서는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

Company = "싸이맥스"

Year = 2022

Article = """

싸이맥스(160980)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17억3475만원으로 전년보다 38.1% 증가했다고 10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422억5645만원으로 40.1%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52억5016만원으로 9.8% 늘었다.

회사 측은 "전방산업 투자증가에 따른 수주 증가, 매출액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영향"이라고 전했다.

"""

Company = "싸이맥스"

Year = 2023

Article = """

싸이맥스(160980)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34.7% 줄어든 21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공시했다. 같은기간 매출액은 19.5% 줄어든 1950억원, 당기순이익은 70.4% 줄어든 71억원으로 집계됐다.

"""

Company = "싸이맥스"

Year = 2024

Article = """

싸이맥스(160980)는 2분기 연결 영업이익 56억3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86억2200만원으로 1.6% 늘었고, 순이익은 36억2300만원으로 24.8% 줄었다.

"""

Company = "싸이맥스"

Year = 2025

Article = """

싸이맥스 주가가 강세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싸이맥스(160980)는 오전 9시40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21.31%(2250원) 올라 1만28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회사는 장 초반 상한가로 직행하기도 했다.

이는 전년 대비 큰 폭의 실적 개선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싸이맥스는 전날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33억384만원으로 전년대비 227.6%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4% 증가한 1650억5842만원, 당기순이익은 31.1% 증가한 155억103만원으로 집계됐다.

회사는 실적 개선 주요 원인은 반도체 전방산업의 투자 확대와 수주 증가라고 분석했다. 고객사들의 설비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매출이 자연스럽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삼성전자를 포함한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최근 AI와 반도체 전략을 적극 논의하며 향후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만나 2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움직임은 싸이맥스를 비롯한 국내 장비업체들에게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

Company = "서플러스글로벌"

Year = 2022

Article = """

서플러스글로벌(140070)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를 위해 5612만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처분예정주식수는 1만8700주다. 처분예정기간은 내달 2일부터 2024년 2월17일까지다.

"""

Company = "서플러스글로벌"

Year = 2023

Article = """

서플러스글로벌(140070)은 주가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대신증권과 체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

Company = "서플러스글로벌"

Year = 2024

Article = """

서플러스글로벌 주가가 초강세를 보였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 거래일 13.10% 올라 341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주가는 장기 횡보장세에서 벗어나 장대양봉을 만들고 있다.

서플러스글로벌이 중국의 사상 최대 규모 반도체 장비 투자에 실적개선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정부가 향후 3년간 300mm 웨이퍼 기준 10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플러스글로벌은 전 세계 1000여 개 레거시 반도체 장비 업체 중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투자 확대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

서플러스글로벌은 23년간 약 6만 대 이상의 중고 반도체 장비를 전 세계 50여 개국에 거래하며 레거시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왔다.

중국 시장에서의 높은 인지도와 신뢰도를 바탕으로 이번 투자 확대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

Company = "서플러스글로벌"

Year = 2025

Article = """

반도체 레거시 장비 글로벌 선도 기업 서플러스글로벌(대표 김정웅)이 독일 뮌헨에 유럽 지사 SurplusGLOBAL GmbH를 설립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유럽 지사 설립을 통해 현지 고객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솔루션을 신속하게 제공할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서플러스글로벌은 유럽 지사의 운영과 사업 확장을 이끌어갈 현지 지사장(EMEA Manager)으로 안드레아스 베르젠티스(Andreas Berdzentis)를 영입했다. 안드레아스 베르젠티스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폼팩터, 안리쓰에서 근무한 경험을 포함해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산업에서 2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업계 전문가다. 그는 유럽 시장 내 폭넓은 네트워크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AI 기반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세미마켓의 유럽 시장 확산을 주도할 예정이다. 또 서플러스글로벌의 반도체 장비 및 부품 공급망 구축을 강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플러스글로벌은 이번 유럽 지사 설립과 지사장 영입을 통해 유럽 내 반도체 장비 및 부품의 현지 소싱과 판매를 강화하는 한편, 계열사인 이큐글로벌과 협력을 바탕으로 수리 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갈 방침이다.

"""

Company = "테스"

Year = 2022

Article = """

DB금융투자는 21일 테스(095610)에 대해 단기 실적 추정치 하향분이 이미 주가에 반영돼있다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는 최근 메모리 업체의 투자 축소 및 지연에 따른 하반기 실적 추정치 하향분을 반영해 기존 4만원에서 3만2000원으로 하향했다.

DB금융투자에 따르면 테스의 올해 2분기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대비 각각 0.9% 하락한 1028억원, 12.5% 감소한 195억원으로 1분기 수주 받은 SK하이닉스 M15, M16 신규투자 장비 잔여분의 매출인식과 삼성전자 평택 P3 3D NAND 장비 신규 슈주로 기대 보다 호실적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 상승도 동사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어규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감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IT 수요 약세가 메모리 업체들의 신규투자 지연과 축소로 연결되고 있다"며 "하반기 동사의 실적 부진이 불가피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동사의 올해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각각 1.1% 오른 3792억원, 5.6% 증가한 659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라며 "삼성전자 신규 DRAM 투자의 지연을 가정해도 상반기 국내 메모리 업체의 신규 투자 확대와 Gas Etch 장비의 파운드리 사업 진출, 여기에 기존 PECVD 장비의 신규 막질 진입 등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

Company = "테스"

Year = 2023

Article = """

테스(095610)는 연구개발 시설 확충을 위해 636억2200만 원 규모의 신규시설 투자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20.75%에 해당한다. 투자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25년 7월31일까지다.

"""

Company = "테스"

Year = 2024

Article = """

테스(095610)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테스는 26일 오후 1시 22분 현재 26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종가대비 3750원(+16.82%) 오른 것이다.

테스는 앞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후 2거래일 연속 상승한 셈이다.

테스는 금일장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 고가로 26500원까지 올랐다.

테스가 좋은 흐름을 이어갈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한편 테스는 지난 25일 외국인이 1600여주를 기관이 9000여주를 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1만3800여주를 매도했다.

"""

Company = "테스"

Year = 2025

Article = """

22일 테스(095610)의 주가가 전일 대비 6.3% 상승한 1만91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SK하이닉스와 체결한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테스는 21일 SK하이닉스와 약 291억6200만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은 테스의 최근 연결 기준 매출액 1469억원의 약 19.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당한 매출 기여가 예상된다.

계약에 따르면 공급 지역은 대한민국이며, 계약 기간은 2025년 1월 21일부터 2월 17일까지다. 대금 지급 조건은 장비 반입 후 90%를 지급하고, 셋업(Set-up)이 완료되면 나머지 10%를 지급하는 구조다. 이 장비는 100% 자체 생산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테스는 반도체 소자의 전공정 장비 제조를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으며, 주요 제품으로 PECVD(플라즈마 강화 화학기상증착)와 Gas Phase Etcher(건식식각장비)를 포함하고 있다. 회사는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와 UVC LED용 장비도 개발 및 공급 중이다. 2024년 3분기 연결 기준 테스의 누적 매출액은 1535억원, 영업이익은 165억원, 당기순이익은 223억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테스의 실적 향상은 반도체 시장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AI,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산업에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테스는 반도체 장비 산업 특성상 고객 맞춤형 주문 제작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공정 요구 사항에 최적화된 장비를 설계·제작하며, 기술력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구축해왔다.

회사는 최근 몇 년간 핵심 장비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왔으며, 이를 통해 PECVD와 Gas Phase Etcher 등 주요 제품군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했다. 연구개발비는 2024년 3분기 기준 310억원 이상으로,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약 20.2%에 달한다.

한편, 테스는 반도체 장비 제조뿐 아니라 디스플레이와 UVC LED 장비 시장으로도 사업을 확대 중이다. 회사는 기술 내재화와 고객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

Company = "원익IPS"

Year = 2022

Article = """

원익IPS(240810) 주가가 강세다.

11일 오후 12시 10분 현재 원익IPS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50원이 오른 39,900원에 거래 중이다. 등락률은 +4.04%이다.

원익IPS 주가의 최근 5 거래일 흐름을 보면 지난 3일 +2.63%, 4일 -1.96%, 6일 -4.74%, 9일 -0.39%, 10일 +0.79%를 기록했다.

한편 원익IPS는 지난 1분기 연결 매출액 2087억원, 영업이익 22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02%, 9.15% 감소한 수치다.

이에 대해 주요 장비 부품 공급난이 지속되면서 원익IPS 장비의 인도 시점 역시 지연돼 매출 반영 시점이 2분기로 밀린 탓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디램 14나노미터(㎚), 낸드 7세대에서 원익IPS의 점유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분기가 실적 바닥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

Company = "원익IPS"

Year = 2023

Article = """

반도체 불황의 여파로 국내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 원익IPS(240810)의 영업 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원익IPS는 2분기 연결 기준 잠정실적(공정공시)으로 매출 1346억 원, 영업손실 182억 원, 순손실 71억 원을 기록했다고 9일 공시했다. 올 1분기와 비교해 매출이 10.5%(157억 원) 감소했고 영업손실과 순손실은 각각 70.1%(75억 원), 5.3%(67억 원) 늘어났다. 지난해 2분기 원익IPS는 매출 1998억 원, 영업이익 185억 원, 순이익 244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원익IPS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에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 증착 공정은 반도체 웨이퍼나 디스플레이용 유리가 전기적 특성을 갖도록 화학 물질을 투입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공정이다. 원익IPS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조 115억 원의 절반에 달하는 5051억 원이 삼정전자를 통해 발생했다.

"""

Company = "원익IPS"

Year = 2024

Article = """

키움증권은 5일 원익IPS(240810)에 대해 메모리 반도체 설비투자(CapEx) 조정을 반영해 실적 전망치를 하향했다며 목표주가를 4만 3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23% 내려 잡았다. 투자의견 ‘매수’는 유지했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2025년 메모리 반도체 CapEx가 하향 조정될 것"이라며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_의 양산 검증 지연과 컨슈머 수요 부진이 메모리 업체들의 HBM 증설 속도를 늦출 것으로 보이고, 증설의 방식도 신규 장비 도입이 아닌 기존 DDR4 장비의 활용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유악 연구원은 "NAND 역시 대부분의 CapEx가 기존 장비의 업그레이드(공정 전환)에 투입되고, 신규 장비에는 극히 제한될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문은 보수적이었던 우리의 예상보다도 더욱 가파른 가동률 하락이 단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어, 당분간 신규 투자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원익IPS의 2025년 실적은 고객사의 CapEx 하향 조정으로 인해, 당초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예상보다 부진하기는 하지만 2025년 원익IPS의 실적은 매출액 8845억원, 영업이익 72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8%, 302% 증가할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공정 업그레이드가 반도체 장비 부문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디스플레이 부문의 원가 절감 노력이 전사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방 수요 변화’에 따라서 ‘고객사의 공정 업그레이드 일정’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원익IPS의 분기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은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며 "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반등이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 원익IPS의 주가 반등 모멘텀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며, 긴 호흡으로 비중을 확대해 나아가는 전략을 추천한다"고 했다.

"""

Company = "원익IPS"

Year = 2025

Article = """

NH투자증권은 27일 원익IPS(240810)에 대해 양호한 디스플레이 수주와 주요 고객사 전환투자 등이 이뤄지며 실적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3만 3000원으로 상향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2만 6350원이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원익IPS의 4분기 매출액은 29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0.8% 늘고, 영업이익은 260억원으로 전년보다 115.6% 증가했다. 매출액은 시장예상에 부합하였으나 영업이익은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 반영에 따라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

1분기는 반도체 부분의 매출 인식 시점의 차이로 1520억원으로 예상됐다. 원익IPS는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2025년 매출액 9146억원을 달성할 전망이다.

류 연구원은 "올해 메모리 업체들의 신규 라인 투자는 제한적이나 전환 투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며 "디램(DRAM)의 경우 중국의 공격적인 케파 확장에 따라 레거시 라인 전환 투자에 집중한다"며 "낸드(NAND)는 공급 제한을 위해 단순한 가동률 감소보다는 공정 전환을 통한 자연적 감산 효과를 누리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환투자는 과거 대비 더 많은 장비 투입이 이루어져 단위당 매출은 증가하고 있고 기존 라인에 장비를 공급한 동사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게 류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최근 시장에는 글로벌 장비 업체들 제재에 따른 중국향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나 동사의 경우 글로벌 장비사들 만큼 중국 매출 비중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전체 매출에서 중국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자릿수 초반 수준으로 보수적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

Company = "한미반도체"

Year = 2022

Article = """

한미반도체(042700)는 곽동신 부회장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개인 자격으로 1억원을 기부하면서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2007년 출범한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회지도층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눔 운동에 참여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제창한 ‘개인 고객 기부자’ 모임이다. 1억원 이상 기부하거나 5년간 매년 2000만원씩 기탁할 경우 회원이 될 수 있다.

곽 부회장은 반도체 장비기업 한미반도체 대표이사로 평소 지역 초등학교 장학금지원과 저소득 아동복지기관 등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을 꾸준히 이어왔다. 2018년에는 자본재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곽 부회장은 "나눔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도움과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반도체는 1980년 설립한 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장비회사로 성장했다. 지난 5월 반도체 시장조사기관 테크인사이츠가 발표한 ‘2022년 고객만족도 조사 부문 THE BEST 반도체 장비업체’에서 국내 회사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

Company = "한미반도체"

Year = 2023

Article = """

한미반도체(042700)가 2거래일 하락후 반등하고 있다.

한미반도체는 27일 오후 12시 38분 현재 61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대비 3800원(+6.60%) 상승한 것이다.

한미반도체는 앞서 지난 22일과 26일 2거래일 연속 하락마감한 바 있다.

금일 상승이 반가운 것은 6만원대를 회복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 이슈로 반도체 관련주들을 향한 관심이 쏠린다. 연말 어떤 마침표를 찍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10거래일 연속 외국인은 '사자'로 일관했다.

"""

Company = "한미반도체"

Year = 2024

Article = """

곽동신 한미반도체(042700) 부회장이 17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창업자 곽노권 회장의 아들인 곽 회장은 인공지능(AI) 반도체에 필요한 고대역폭메모리(HBM) 제조 시 필수 장비인 TC 본더 개발을 이끌고 회사의 시가총액을 8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곽 회장은 1998년 한미반도체 입사 이후 현재까지 26년 넘게 근무하며 회사 성장을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힘썼다. 생산 품질 측면에서는 생산 과정의 치밀함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다듬었다. 장비 1대를 완성하기에 앞서 25년 이상 숙련된 장인이 가공·조립·배선·테스트 등 각 단계별로 6번의 검수를 거쳐 총 1000가지 검사를 통과한 후 고객사에 장비를 인도하도록 체계를 정립하게 했다.

주주가치 제고에도 집중하고 있다. 그는 올해에만 2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고 최근 3년 동안 28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약 373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시장에서 직접 취득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곽 회장은 AI 반도체용 HBM 필수 공정 장비인 TC 본더 개발을 성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 시가총액을 8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곽 회장은 "향후 미국 빅테크 기업의 AI 전용칩 수요가 확장할 것에 대비해 미국 현지 고객 밀착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미국 법인 설립과 미국 현지 고객사에 AS를 제공할 에이전트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반도체는 이날 차세대 HBM 생산용 신규 장비인 ‘TC 본더 그리핀 슈퍼 본딩 헤드(TC BONDER GRIFFIN SB 1.0)’를 발표했다. 이 제품은 새로운 본딩 헤드가 적용돼 반도체 칩을 적층하는 생산성과 정밀도가 대폭 향상된 점이 특징이다. 회사는 이 제품이 글로벌 반도체 고객사의 차세대 HBM 생산에 적극 활용돼 내년도 매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미반도체 관계자는 "AI 시장의 급성장으로 전 세계 HBM 시장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AI 반도체 리더인 엔비디아의 차세대 제품 블랙웰도 한미반도체 TC 본더로 생산하고 있다"며 "HBM TC 본더 세계 점유율 1위인 한미반도체의 위상과 경쟁력은 계속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Company = "한미반도체"

Year = 2025

Article = """

한미반도체(042700)가 10%대 하락하며 52주 저가를 기록했다.

31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21분 현재 한미반도체는 전 거래일 대비 10.07%(7700원) 내린 6만8800원에 거래중이다. 장중 6만8000원까지 밀리며 52주 저가를 갈아치웠다.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기업 중심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95% 급락했다. 지수 구성 종목 30개가 모두 주저앉았으며 퀄컴과 AMD, Arm, 인텔은 3% 안팎으로 밀렸다.

한미반도체는 이날 올해 1분기 연결재무제표기준 매출 1400억원, 영업이익 686억원을 전망한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81%, 영업이익 139%가 각각 증가한 실적이다.

한미반도체는 2025년 1분기 매출 중 해외 고객사 비중이 9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해외 고객사의 매출 비중 증가는 지난해부터 고대역폭메모리(HBM)을 생산하는 북미 메모리 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의 수주가 대폭 늘어난 결과다.

관계자는 "최근 폭발적인 HBM 수요 증가에 따라 해외 주요 고객사가 캐파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TC 본더 발주를 적극 늘리고 있다"라며 "한미반도체는 세계 최대 HBM TC본더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시장 성장세와 함께 올해 남은 기간에도 견고한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

Company = "엔시트론"

Year = 2022

Article = """

비메모리 음향반도체 전문기업 엔시트론(101400)은 3분기 연결 기준 누적 매출액이 167억원이라고 14일 밝혔다. 엔시트론은 3분기만에 전년도 연간 매출액(158억원)을 뛰어넘었다고 강조했다.

개별 기준 누적 매출액은 145억원, 영업이익은 2억원이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15억원이다.

회사 측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메이저TV 업체향 음향 반도체 매출이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쿠팡과 진행 중인 B2B(기업간거래) 양곡유통사업이 전년 동기 대비 고성장을 보였다는 판단이다.

회사 관계자는 "주력사업인 TV용 음향 반도체 사업이 영업망 강화 및 안정적인 공급물량 확보로 외형성장을 이끌고 있다"며 "반도체는 중화권 업체를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어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엔시트론은 외형 성장과 함께 높은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선제적으로 저수익 사업을 정리하고 대규모 자금조달을 완료했다. 3분기말 기준 현금을 포함한 유동성 자산은 300억원을 웃돈다.

엔시트론 관계자는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일부 기업들의 재무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지만 엔시트론은 오히려 이자 수익 증가 수혜를 보고 있다"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Company = "엔시트론"

Year = 2023

Article = """

엔시트론은 주력 사업인 시스템반도체 판매가 중국 리오프닝 수혜 등으로 올해 1분기에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엔시트론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1분기 중국에 약 616만개의 반도체칩을 수출했다. 올해 1분기 판매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 관계자는 "리오프닝에 따른 TV 생산량 증가, AI(인공지능) 음성 서비스 시장 확대 등으로 음향용 오디오 시스템반도체 매출이 꾸준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글로벌 반도체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차별화된 제품군과 탄탄한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실적이 증가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력 제품인 음향용 반도체는 한번 채택되면 해당 제품의 생산 종료 시점까지 꾸준히 매출이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며 "기존 중국 메이저 IT기기 제조사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AI 음성인식 관련 제품 적용 확대를 위해 영업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엔시트론은 음향 관련 시스템반도체 전문기업이다. 국내와 중국의 글로벌 IT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

Company = "엔시트론"

Year = 2024

Article = """

엔시트론(101400)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4억2078만3780원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358억6923만0492원으로 전년 대비 44.36% 증가했고, 당기 순이익은 10억6799만7958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회사는 "반도체칩 매출과 로얄티 수익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

Company = "엔시트론"

Year = 2025

Article = """

엔시트론(101400)은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24억 5966만 7040원 손실로 전년 대비 적자전환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23% 증가한 363억 1156만 2492원, 당기순손실은 적자전환한 20억 7099만 3839원으로 집계됐다.

"""

Company = "티이엠씨씨엔에스"

Year = 2022

Article = """

티이엠씨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을 마치고 기업공개(IPO) 절차에 착수한다. 내년 11일까지 수요예측과 청약을 완료한다는 방안이다. 티이엠씨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용 특수가스 전문 소재기업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이엠씨는 이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IPO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알렸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티이엠씨는 이번 IPO를 통해 총 1105만4364주를 상장한다. 이 중 공모예정 주식은 220만주로 희망공모가 범위는 3만2000~3만8000원이다. 이에 따른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약 3537억~4201억원이다. 내년 1월 4~5일 수요예측을 실시한 후 같은 달 10~11일 일반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는 한화투자증권이다.

티이엠씨는 이른바 '소부장 기술특례'를 적용한 상장에 나서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은 탄탄하다. 최근 3년 간 연평균 55%가 넘는 매출 성장률로 2021년 기준 88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도 지난 3·4분기 기준 지난해의 두 배를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영업이익 또한 지난해 124억원에서 올해 3·4분기 기준 3배 상승했다.

티이엠씨는 반도체 핵심 공정에 사용되는 다양한 특수가스를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엑시머 레이저 가스(Excimer Laser gas), 제논(Xe), 크립톤(Kr) 등 희귀가스부터 에칭 공정용 CF 계열과 일산화탄소(CO), 황화카보닐(COS) 등이 대표적이다. 또 증착 공정용 혼합가스인 B2H6(디보란)까지 다양한 특수가스 제품을 양산하고 있다.

티이엠씨는 현재 글로벌 레이저 장비업체들로부터의 인증 및 대기업을 포함한 주요 반도체 칩메이커들과 레퍼런스를 가졌다. 이를 활용해 내년부터는 해외에 직접 진출할 계획이다.

유원양 티이엠씨 대표이사는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원재료 수급부터 품질 보증까지 전 공정을 국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끊임없는 기술 개발 및 사업모델 구축을 통해 규모의 성장뿐만 아니라 ESG 경영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

Company = "티이엠씨씨엔에스"

Year = 2023

Article = """

티이엠씨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62% 올라 4만 9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바닥에서 벗어나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기관은 20거래일 대량매수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100% 무상증자 결정과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훈풍을 불어 넣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티이엠씨는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다.

가스 합성 및 수전해 기술, 희귀가스를 추출 및 분리하는 기술, 특수가스를 정제ㆍ혼합ㆍ충전하는 기술을 비롯하여 특수가스 제조의 모든 공정을 내재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

Company = "티이엠씨씨엔에스"

Year = 2024

Article = """

티이엠씨(TEMC)가 한국메티슨특수가스로부터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으로 피소됐다고 7일 공시했다. 관할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이며 청구금액은 151억7,866만원이다.

원고인 한국메티슨특수가스는 피고인 티이엠씨와 A모씨에게 자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원고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될 것과 함께, 관련 제품 및 반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피고들이 보관하고 있는 기밀 정보, 제품 및 반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보유하는 설비들을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 약 150억7,866만원을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티이엠씨는 이번 소송을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Company = "티이엠씨씨엔에스"

Year = 2025

Article = """

한화투자증권은 5일 티이엠씨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녹록지 않은 업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1만60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이 증권사 김광진 연구원은 "최근 중국의 '이구환신(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정책 효과로 정보기술(IT) 기기의 강한 수요와 일부 낸드 제품의 가격 반등으로 업황 조기 반등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하지만 "D램과 달리 여전히 높은 제조사들의 낸드 재고 수준(약 15주 내외)과 감산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절되는 공급량을 고려할 때 낸드 업황의 정상화를 기대하기엔 너무 이른 시기"라고 판단했다.

또 "주요 고객사의 원가 절감을 위한 제논 가스 사용량 축소 기조도 티이엠씨에는 악재"라며 "올해도 녹록지 않은 업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화투자증권은 티이엠씨의 올해 연결기준 매출액을 전년 대비 4% 감소한 3016억원, 영업이익은 12% 증가한 252억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의미 있는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김 연구원의 판단이다.

그는 "희귀가스의 경우 네온가스는 마이크론으로의 공급 효과로 전년 대비 성장하겠지만 제논과 크립톤 매출은 고객사들의 감산 기조 지속과 원가 절감

목적의 사용량 축소 영향으로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수가스 사업은 올 하반기 삼성전자로의 10% 디보란, SK하이닉스로의 PH3·GeH4 공급 개시 및 D2 공급 증가 등의 성장 요소들이 존재한다"며 "하지만 기존 키옥시아로의 C4F6 공급이 자국 소재 선호 기조로 감소함에 따라 성장이 제한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

Company = "엑사이엔씨"

Year = 2022

Article = """

전날 하락한 엑사이엔씨의 거래량이 급등하자 주가가 반등하고 있다.

17일 오전 11시 24분 엑사이엔씨 거래량은 153만6085주로 전일 거래량 12만9248주의 약 12배에 달한다.

이에 힘입어 주가는 전일보다 5.12% 상승한 1,335원을 나타내고 있다.

정확한 상승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1분기 실적 발표 시즌, 엑사이엔씨의 호실적과 흑자전환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엑사이엔씨는 1991년이 설립된 인테리어 기업으로 도배, 실내장식, 내장 목공사업 등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6일 엑사이엔씨는 1.17% 하락한 1,270원에 거래를 마쳤다.

"""

Company = "엑사이엔씨"

Year = 2023

Article = """

엑사이엔씨 주가가 큰폭으로 오르고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7.91% 올라 1047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있다.

외국인은 2거래일 대량 매수하고 있다. 탄소나노튜브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리며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영업이익 등 실적개선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엑사이엔씨는 전자부품의 제조ㆍ판매 및 수처리 관련 환경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 부문은 클린룸 수장 인테리어 파티션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부문과 온도보상형 수정발진기(TCXO)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제조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속회사로는 스피커 오디오를 제조하는 엠소닉과 사물인터넷 관련 HOME SECURITY 장비를 제조하는 올리브앤도브가 있다.

이날 같은 시간 탄소나노튜브(CNT) 관련주인 오픈베이스 금호석유 상보 엑사이엔씨는 상승 중이다.

반면 오픈베이스 LG화학 금호석유는 하락중이다.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는 원기둥 모양의 나노구조를 지니는 탄소의 동소체이다

"""

Company = "엑사이엔씨"

Year = 2024

Article = """

엑사이엔씨 주가가 시간외서 폭등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 전거래일 9.91% 올라 8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지나치게 하락했다는 인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엑사이엔씨는 클린룸, 수처리 시설 건설 등 환경 사업과 함께 온도보상형 수정발진기(TCXO) 등 전자부품 제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주목받고 있다.

엑사이엔씨는 초기에는 전자부품 제조 및 수처리 관련 환경 사업에 집중했다. 하지만 꾸준한 연구 개발과 투자를 통해 클린룸, 수장 시설, 인테리어, 파티션 공사 등 건설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종합적인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성장했다.

"""

Company = "엑사이엔씨"

Year = 2025

Article = """

엑사이엔씨(054940)는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3.6% 증가한 82억 4200만원을 기록했다고 20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5.9% 증가한 2086억 7100만원, 당기순이익은 흑자전환한 68억 1900만원으로 집계됐다.

"""

Company = "메카로"

Year = 2022

Article = """

메카로가 독일 소재 업체 머크에 화학사업 부문을 매각하기로 하면서 주가가 강세다.

1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17분 메카로(241770)는 전거래일 대비 18.25% 1만4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에는 24%대까지 치솟았다.

메카로가 장 초반부터 급등하는 건 독일 머크사가 메카로의 화학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메카로의 화학사업은 반도체 박막 증착에 사용되는 전구체 생산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인수 금액은 1460억원으로 추정된다. 머크는 메카로의 충북 음성 제조시설 및 대전 연구·개발(R&D) 시설을 확보한다. 인수 작업은 오는 4분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

Company = "메카로"

Year = 2023

Article = """

코스닥 상장사 메카로[241770]는 태양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 생산 외 종속회사 메카로에너지의 주식 2천385만주를 약 130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5일 공시했다.

주식 취득 뒤 메카로의 메카로에너지 지분율은 100%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공시 당일이다.

메카로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메카로에너지 박막태양전지 사업화를 위한 투자"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연합인포맥스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 데이터를 토대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

Company = "메카로"

Year = 2024

Article = """

메카로(241770)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84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407억원으로 전년보다 24.5% 줄었다. 당기순손실은 23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

Company = "메카로"

Year = 2025

Article = """

메카로(241770)는 작년 영업이익 41억 515만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11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28억 5821만원으로 54.2% 증가하고, 순이익은 55억 8066만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회사 측은 "해외 매출 증가와 환율효과 따른 매출액 및 손익 증대"라고 설명했다.

"""

Company = "디엔에프"

Year = 2022

Article = """

신한금융투자는 13일 디엔에프(092070)에 대해 하이케이(High-K) 등 주력 반도체 소재 수요 증가 추세가 나타나면서 하반기도 호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전거래일 종가는 1만5400원이다.

황성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디엔에프의 올해 상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2% 증가한 690억원, 영업이익은 137.7% 늘어난 88억원을 시현했다"며 "실적 개선은 High-K 등 주력 소재 공급 증가와 반도체 신규 소재 공급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미세패턴 구현을 위한 패터니용 희생막 재료 더블패터닝(DPT)을 비롯해, 캐파시터(Capaitor) 유전막 및 메탈 게이트(Metal gate) 절연막으로 사용되는 High-K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품목별 상반기 매출액은 DPT부문이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4억원, High-K 부문이 22.5% 늘어난 125억원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DPT 물량이 증가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끌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D램 생산 공정에서 미세선폭 공정이 많아지면서 멀티 패터니용 희생막 재료 DPT와 유전율이 높은 High-K 전구체 수요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방 고객사의 지분 투자 이후 주요 소재 공급 증가 추세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향후 더블데이터레이트(DDR)5를 중심으로 한 미세공정 수요 증가에 큰 폭의 수혜가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이에 올해 연간 매출액은 전년보다 15.6% 늘어난 1469억원, 영업이익은 80.1% 증가한 200억원을 추정했다. 내년 생산능력(CAPA) 확대, 2024년 신규 아이템 확장으로 안정적인 외형 성장과 더불어 이익 모멘텀이 확대되는 구간에 돌입한다는 전망이다.

황 연구원은 "High-K 부문에선 전방 고객사의 국산화 비중이 낮은 만큼 향후 전방 수요 증가 수혜는 물론 점유율 확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며 "디스플레이 소재, 반도체 신규 소재 등 다양한 부문에서 선행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Company = "디엔에프"

Year = 2023

Article = """

반도체 소재 업체 디엔에프(092070)의 경영권 매각설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요동쳤다. 디엔에프는 삼성전자가 주요주주로 있는 곳으로, 올해 초 대비 80% 이상 주가가 상승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디엔에프는 오후 2시30분 경영권 매각설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기록했다. 장중 전일 종가(2만 6250원) 대비 최대 10% 가량 상승하기도 했으나, 이후 다시 8.76% 하락한 2만 39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디엔에프는 연초 대비 80% 이상 주가가 상승하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은 종목이다.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탈 중국 움직임 속 '전구체 내재화' 분위기가 주가 상승에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부석된다.

이날 주가가 급등락은 기록한 배경으로는 디엔에프의 경영권 매각설이 불거진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한 언론은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기업 솔브레인(357780)이 디엔에프와 인수·합병(M&A)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솔브레인이 주당 5만원에 디엔에프 창업자 김명운 대표의 최대주주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이며, 총 인수금액은 1140억 원에 달한다.

2001년 설립된 디엔에프는 반도체 소자 형성용 박막 재료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2021년 삼성전자가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210억 원을 투자하며 주목받았다. 삼성정자는 디엔에프 지분 7%를 보유해, 김 대표(16.35%)에 이어 2대주주로 있다.

이번 M&A는 솔브레인의 정지완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나우아이비캐피탈(나우IB(293580))이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우IB는 약 1조 원 수준의 운용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벤처투자는 물론 M&A펀드를 통해 바이아웃(경영권 인수) 투자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나우IB 관계자는 "이번 거래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

Company = "디엔에프"

Year = 2024

Article = """

디엔에프(092070)는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2025년 6월19일까지다. 계약체결기관은 KB증권이다.

"""

Company = "디엔에프"

Year = 2025

Article = """

디엔에프(092070)는 주당 10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1.1%, 배당금총액은 11억5568만5800원이다.

"""

Company = "LB세미콘"

Year = 2022

Article =

"""

**"잘하는 사업은 영역을 확대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규 사업도 덧붙여 2027년에는 '매출 1조 클럽'을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김남석 엘비세미콘(LB세미콘) 대표(사진)는 지난 20일 "'Non-DDI' 비즈니스로 사업 영역의 균형을 맞춰 OSAT 글로벌 톱10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OSAT) 등 후공정 전문기업인 LB세미콘은 올해 초 김 대표를 앞세워 새로운 변화를 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메이커 출신으로 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그는 2020년 초 LB세미콘에 합류한 지 2년 만에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됐다.  
김 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최근 칩 설계나 제조에서 부딪힌 한계를 후공정 부문에서 보완하고 있다"며 "올해는 전방 고객사 상황에 맞춰 조금 보수적이지만 경쟁사와 비교해 선제적 대비 전략을 앞세워 지난해보다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LB세미콘은 지난해 9월 비메모리 테스트 공장 증축에 950억원을 투자하는 등 최근까지 대내외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증축 중인 경기도 안성공장뿐 아니라 평택본사도 시설투자를 확대해 생산능력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매출 비중이 디스플레이 구동칩(DDI)에 일부 편중된 구조를 이미센서(CIS)와 전력관리 반도체(PMIC)를 비롯해 다각화하는 데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구성원 스스로 LB세미콘을 움직이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톱다운이 아닌 임직원이 변화를 만들어 가는 방식이다. 김 대표 취임 후 목표·핵심결과지표(OKR, Objectives and Key Results)를 도입한 게 대표적이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를 도출하는 과정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그는 "매 분기 '비전 선포식'을 통해 경영진이 구상하는 전략과 방향성을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개인과 기업이 결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모두 성장하는 선순환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을 만드는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LB세미콘 평택 본사에서 일부 엿볼 수 있었다. 1층에 마련된 카페가 대표적이다. 김 대표는 취임 후 작업장과 본사로 이어지는 1층을 전면 개조해 카페로 탈바꿈시켰다. 기존에는 작업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작업화로 갈아신는 공간이었다. 또 건물 전체를 밝은 조명으로 교체해 근무 환경도 개선했다. 그 외에도 구내식당이나 기숙사 등 직원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고쳐나갔다.  
김 대표는 "조직의 문화를 변화시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변화는 품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실제로 매출액 증가와 수익성 개선 같은 선순환을 비롯해 고객사 이미지 제고로 가격 협상이나 수주 다각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LB세미콘은 올해 1분기(연결 기준) 매출액 1327억원, 영업이익 170억원을 달성했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16.5%, 영업이익 59.4% 증가한 수준이다. 업황 개선의 영향과 맞물려 투자와 조직문화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란 해석이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5000억원에 조금 못 미쳤지만 5년 내 1조원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LB세미콘은 내부 가용자원을 비롯해 인수합병(M&A) 등 전략적 투자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연결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도 640억원을 웃돈다. 이와 관련 오너인 구본천 LB그룹 수석부회장 등 오너일가가 이사회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LB그룹은 크게 △금융(LB인베스트먼트·LB프라이빗에쿼티·LB자산운용) △제조(LB세미콘·LB루셈) △서비스(LB휴넷·유세스파트너스) 등으로 구분된다. VC와 PE 등 금융투자에 밝은 기업들이 LB그룹 내 포진된 만큼 향후 LB세미콘과 유기적 혹은 물리적 결합이 가능한 기업과의 시너지 창출에 협업할 수 있는 것이다.  
김 대표는 끝으로 "한 번에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완급조절을 하면서 점점 기업의 규모나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구성원을 비롯해 주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기업으로 가치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Company = "LB세미콘"

Year = 2023

Article =

"""

27년간 1조 7000억원을 547개 기업에 투자했고, 이 중 111개 기업은 성공적으로 증시에 상장했다.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초기 단계부터 꾸준히 투자하며 하이브, 펄어비스와 같은 유니콘 기업을 키워냈다. 벤처캐피털 회사로서 스타트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 국내 1세대 벤처캐피털 LB인베스트먼트 얘기다.   
LB인베스트먼트 스스로도 지난 3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그 중심엔 박기호 LB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있었다. 앞으로는 싱가포르 사무소 설립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시장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LB인베스트먼트는 지속적으로 펀드 규모를 늘리며 내년엔 5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LB인베스트먼트 본사에서 박기호 대표를 만나 LB인베스트먼트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목표를 들어봤다.   
BTS 없던 시절 LB인베스트먼트는 하이브의 ‘이것’을 봤다

1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발굴해낸 LB인베스트먼트의 수장 박기호 대표는 VC계의 황금손으로 불린다. 하이브·카카오게임즈·펄어비스·무신사·직방 등 수많은 유니콘 기업들을 발굴해내며 ‘유니콘을 보는 눈’이란 별칭을 얻기도 했다.   
LB인베스트먼트는 잠재력 있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4가지 요소를 살핀다. ▲창업자와 창업팀 ▲핵심 경쟁력 ▲타깃 시장의 성장 가능성 ▲회수 가능성 등이다. 박 대표는 무엇보다도 창업자와 그 구성원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꼽았다.  
박 대표는 LB인베스트먼트의 대표 성공 투자 사례로 하이브와 펄어비스를 소개했다. 하이브에 총 2회에 걸쳐 65억원을 투자해 1151억원을 회수했다. 해외 투자자 유치에도 직접 나서며 하이브의 성장에 기여하기도 했다. 온라인 게임 ‘검은사막’을 제작한 펄어비스에는 개발 단계에서 50억원을 투자해 780억원의 투자 성과를 달성했다.

"""

Company = "LB세미콘"

Year = 2024

Article =

"""

LB세미콘이 향후 3~4년 뒤 회사의 매출을 1조원까지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글로벌 OSAT(외주반도체패키징테스트)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규모다.

동시에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고객사를 다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LB세미콘은 LB루셈과의 합병을 통해 전력반도체 사업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며, 메모리 및 플립칩 패키징 등 신규 사업으로의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김남석 LB세미콘 대표는 26일 서울 양재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사의 향후 성장 전략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남석 LB세미콘 대표(사진=LB세미콘)

LB세미콘은 국내 OSAT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외 고객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범핑·테스트·백엔드(Back-End) 등의 공정을 수행한다. 주력 사업 분야로는 DDI(디스플레이구동칩)·모바일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CIS(CMOS 이미지센서)·PMIC(전력관리반도체) 등이 있다.

특히 DDI는 LB세미콘의 전체 매출에서 60~70%를 담당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다만 DDI 시장은 스마트폰 및 PC 시장의 부진으로 최근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LB세미콘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회사의 신(新)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 AI·자동차 등 고전력 산업에 필요한 전력반도체 패키징 ▲ D램 등 메모리용 범핑 ▲ 플립칩 패키징 등이 핵심으로 꼽힌다.

김 대표는 "패키징 사업 분야 확대와 신사업 추진 등으로 오는 2027~2028년 매출 1조원과 글로벌 OSAT 기업 순위 10위권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라며 "해외 고객사 영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해외 매출 비중이 기존 10%에서 4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고객사를 밝힐 수는 없으나, 해외 주요 고객사 몇 곳과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다"며 "새해에는 소규모지만 내후년부터 사업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LB루셈과 합병해 전력반도체 시장 공략…日 고객사 공급 유력**

먼저 전력반도체 패키징은 자회사 LB루셈과의 합병으로 주요 고객사에 '턴키(Turn-key)'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LB세미콘은 지난 10월 사업 간 시너지 효과 도모, 재무 건전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LB루셈을 흡수합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B루셈은 전력반도체 공정을 위한 ENIG(무전해 도금) 공정 설치와 타이코(TAIKO) 그라인딩 공정에 투자해 왔다. 타이코 그라인딩은 일본 디스코사가 개발한 기술로, 웨이퍼의 가장자리를 남기고 연삭해 웨이퍼의 강도를 높인다.

이를 기반으로 LB세미콘은 BGBM(Back Grinding Back Metal)·RDL(재배선)·ENIG·타이코 그라인딩·MOSFET 웨이퍼 테스트에 이르는 전력반도체용 턴키 공정을 구축해, 해외 고객사와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BGBM은 실리콘 웨이퍼를 얇게 연삭한 뒤, 후면에 전기회로 역할을 하는 금속을 증착해주는 공정이다. LB루셈의 BGBM은 웨이퍼를 30마이크로미터(um), 도금을 50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매우 얇게 구현할 수 있다.

SiC(탄화규소)·GaN(질화갈륨) 등 차세대 전력반도체 시장도 공략한다. 이달 국내 파운드리 기업 DB하이텍과 협력해, 이들 반도체를 위한 패키징 및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LB루셈과의 합병으로 전력반도체용 패키징 솔루션을 턴키로 고객사에 제공할 수 있게 됐는데, 현재 상용화와 관련해 굉장히 빠른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내후년 일본 주요 고객사로부터 양산이 시작될 것이고, 국내 기업들과도 협력해 공급량을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메모리 시장으로의 진출도 기대된다. 현재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메모리 기업들은 AI 산업의 성장에 맞춰 HBM(고대역폭메모리) 생산능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범용 D램용 설비를 HBM에 할당하는 추세다.

이 경우 범용 D램의 패키징 공정은 외부에 맡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LB세미콘은 이러한 전망 하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로부터 DDR 및 GDDR(그래픽 D램) 모듈용 범프 공정을 수주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플립칩 시장 진출은 국내 또 다른 OSAT인 하나마이크론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플립칩은 칩 위에 범프를 형성한 뒤 뒤집어 기판과 연결하는 패키징 기술로, 기존 와이어 본딩 대비 전기적 특성이 우수하다.

김 대표는 "국내 메모리 입장에서는 HBM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늘리려면 기존 D램을 외주로 돌릴 수 밖에 없어, 윈-윈 효과를 기대하고 시장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플립칩 패키징을 위한 범프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기업도 현재로선 국내에 LB세미콘 말고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LB세미콘은 기존 및 신사업 확대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설비투자도 준비하고 있다. 올해 평택 소재 일진디스플레이 공장을 인수해, 현재 라인 구축을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

Company = "LB세미콘"

Year = 2025

Article =

"""

구미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서 전달식  
복지사업·산불피해 구호에 이어 지속적 나눔

LB세미콘이 22일 경북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총 23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기탁하고 있다. LB세미콘

구미의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 LB세미콘(대표 김남석)이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실천에 나섰다.  
LB세미콘은 지난 22일 경북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총 23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구미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됐으며, 기탁된 후원금은 지역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전달된 2000만 원은 구미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쓰이며, 앞서 지난 3월에는 경북 산불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기부한 바 있다.  
전달식에 참석한 노승길 관리본부장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LB세미콘은 창립 이후 매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024년 지역사회 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

Company = " 뉴파워프라즈마"

Year = 2022

Article =

"""

최대규 뉴파워프라즈마 회장은 한국 디스플레이 장치·부품 국산화를 선도하고 품격을 향상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탑 산업훈장 영예를 안았다.  
뉴파워프라즈마는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중시하며 1200여 개의 특허출원과 연 수천억원 매출 달성으로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최 회장은 회사가 2010년부터 외산 장비(AMAT)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지원해 연간 200억 이상 해외 매출을 연계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뉴파워프라즈마는 2002년 국내 최초이자 세계 2번째로 플라스마 전원장치(RPG)를 개발했다.  
최 회장은 노사 화합과 인재 양성도 강조했다. 회사는 분기별 노사협의회를 열어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제도에 반영했다.

고용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최 회장은 2001년 사업장 이전 후 매년 30명 이상 고용을 확대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 기부, 수해 지역 주민을 위한 성금 모금도 진행했다.

"""

Company = " 뉴파워프라즈마"

Year = 2023

Article =

"""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10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핵심 기술 국산화와 신공법 개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최국영 뉴파워프라즈마 상무는 국내 최초 디스플레이 분야 대용량 원격 플라즈마 장치(RPG) 개발에 참여, 화학기상증착(CVD) 공정 이후 챔버 세정의 핵심이 되는 장비 국산화에 기여했다.

김진선 동진쎄미켐 부장은 100도 이하 저온에서 경화 가능한 저온유기막 개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저온경화유기막 재료는 2016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에 납품 및 양산 적용됐다.

손석기 성도이엔지 상무는 지속적으로 클린룸 시스템을 구축해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탰다. 디스플레이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패널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했다.

조유호 에스티아이 상무는 선진 잉크젯 기술을 개발해 중국으로부터 기술 진입장벽을 높였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감압 점착제(P[SA](javascript:;)) 공정 대체를 위한 프린팅 기술 개발 상용화도 견인했다.

윤필상 LG디스플레이 팀장은 액정표시정치(LCD)와 [유기발광다이오드](javascript:;)([OLED](javascript:;)) 구동 핵심 기술인 박막트랜지스터(TFT) 소자 분야 원천 기술 확보와 혁신 기술 개발을 통해 디스플레이 시장 선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용찬 LG전자 상무는 옵티컬 본딩과 고정도 본더 등 신기술과 신공법을 적기 개발, 자사와 계열사의 신제품 출시에 앞장선 공적을 인정받아 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박기춘 원익[IPS](javascript:;) 연구위원은 G8 팹 기획부터 양산까지 성공적인 셋업을 통해 LG디스플레이 제품의 점유율 1위 달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원태 주성엔지니어링 수석은 세계 최초로 대면적 원자층증착(ALD) 장비 기술을 개발, 회사와 고객사의 차량용 OLED 매출을 높였다.

김희근 탑엔지니어링 책임은 액정 디스펜서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핵심 장비를 국산화, 해외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

"""

Company = " 뉴파워프라즈마"

Year = 2024

Article =

"""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10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 국산화와 개발에 앞장서 장관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명용 뉴파워프라즈마 수석은 국내 최초로 무선주파수(RF) 제너레이터 및 RF 매쳐를 개발, 국산화에 기여했다. RF 제너레이터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전자기파를 생성하는 장치로, 플라즈마 형성 핵심 장비다. 국산화로 외화 유출방지와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

구본용 삼성디스플레이 프로는 모바일 및 정보기술(IT) 분야 신기술 개발을 통해 최고 화질, 신규 [폼팩터](javascript:;), 고주사율, 저전력 구동, 고해상도 등 경쟁 우위 기술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장동한 성도이엔지 전무는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공장의 유틸리티를 분석해 친환경 및 생산성 우수 공장 건설을 지원했고, 성도이엔지의 종합건설사 도약을 위한 영업 및 공사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했다.

박기홍 세메스 수석은 세계 최초로 [유기발광다이오드](javascript:;)([OLED](javascript:;)) 생산에 필요한 일체형 OLED 노광 설비, 플렉시블 기판용 코팅 설비 등 핵심 설비를 개발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

김병훈 LG디스플레이 상무는 국내 최초 차량용 저온다결정실리콘(LTPS) 기술 개발 및 제품 양산에 참여했다. 올해 CES 2024에서 혁신상을 받은 단일 패널 세계 최대 크기 차량용 디스플레이인 차량용 57인치 필러투필러(P2P) 액정표시장치(LCD) 개발을 총괄했다.

박상태 LG전자 실장은 마이크로 발광디스플레이(LED), 투명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 초박형 LED TV 등 핵심 기술 및 차별화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했다.

장희섭 원익[IPS](javascript:;) 부장은 국내 최초로 OLED 열처리 설비 양산에 성공, 디스플레이 기술력 향상 및 설비 수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동섭 주성엔지니어링 팀장은 세계 최초로 원자층증착(ALD)과 화학기상증착(CVD) 공정을 한 개 챔버에서 가능한 대면적 하이브리드 장비를 개발해 기술 초격차를 지킨 공로로 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상범 필옵틱스 상무는 레이저 장비의 핵심요소인 레이저, 커팅 스테이지, 스캐너, 광학부품의 공급망을 공고히 해서 기술 협력 및 원가경쟁력 확보에 역할을 했다.

하성민 한솔케미칼 상무는 양자점(QD) 대량 합성 기술 세계 최초로 확보해 디스플레이용 발광 소재의 국산화를 실현했다. 이 소재는 QD-OLED 디스플레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

Company = " 뉴파워프라즈마"

Year = 2025

Article =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용 플라즈마 기업 [뉴파워프라즈마](https://search.mt.co.kr/?kwd=144960&search_type=m) (5,340원 ▲10 +0.19%)는 1분기 개별 기준 매출 391억원, 영업이익 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9%, 47.9%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9.8% 증가한 56억원을 기록했다.  
뉴파워프리즈마는 반도체 공정 미세화 트렌드에 따라 플라즈마 기반 공정 장비에 대한 수요 확대를 실적 호조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뉴파워프라즈마는 핵심 제품군인 플라즈마 세정 장비, RF 전원장치, 매처 등의 안정적 공급을 바탕으로 국내외 거래처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공정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플라즈마 기반 장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고객 기반을 중심으로 수주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출시로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파워프라즈마는 지난해 UTG(초박막 강화유리) 전문기업 도우인시스를 인수하며 디스플레이 산업 내 포트폴리오를 확장했고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외 타 산업으로의 진출도 모색 중이다.

"""

Company = " 한솔아이원스"

Year = 2022

Article =

"""

제지와 건자재, 물류 중심의 그룹 사업 영토를 반도체 분야 등 첨단 산업으로 확대하려는 한솔 그룹의 투자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계열사 가운데 유일하게 장비 및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한솔테크닉스가 올해 초 반도체 전공정 장비 부품 제조와 세정·코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아이원스(현 한솔아이원스)를 인수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크게 넓힌 것이 흑자 전환과 역대 최고 매출액 달성이라는 최상의 성적표로 이어지고 있다. 그룹의 지속 가능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조동길(사진) 한솔그룹 회장이 반도체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밀어 붙인 뚝심 경영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한솔홀딩스와 한솔테크닉스에 따르면 올 1월 한솔아이원스를 자회사로 편입한 한솔테크닉스는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09억5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했다. 적자였던 지난해와 비교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만 46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924억 원. 올해 누적 매출액은 1조2000억 원을 넘어섰다. 호황기인 4분기를 고려하면 올해 매출액은 1조7000억 원대를 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호실적의 배경에 대해 시장은 한솔아이원스 인수효과로 평가하고 있다. 한솔테크닉스는 기존에 LCD TV의 핵심부품인 파워보드와 LCM(LCD Module, 액정디스플레이모듈), 휴대폰 부품, 태양광모듈 등을 생산했다. 한솔아이원스를 인수를 통해 디스플레이에 더해 반도체 장비부품 라인업까지 사업분야를 확대했다. 1월에 자회사 편입을 마무리한 이후 3분기까지 반도체 정밀 가공과 정밀 세정 부문 모두 전년대비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영업이익률도 25%에 달할 만큼 높은 수익을 거뒀다.

"""

Company = " 한솔아이원스"

Year = 2023

Article =

"""

한솔아이원스가 ERP시스템 개선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 회사는 23일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투명성 제고 계획을 밝혔다. 반도체부품 정밀가공 및 세정·코팅 전문업체인 아이원스는 2021년 12월 한솔그룹에 인수됐다. 인수되기 전 발생한 회계상 오류가 있었으며,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수정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이원스는 "해당 회계오류에 대한 정정 및 그로 인한 재무제표 수정은 장기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바로잡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ERP(전사자원관리) 전면 개선과 결산업무에 대한 모니터링절차를 개선 중이다. 이를 통해 2023 회계연도에는 내부회계제도 적정의견을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아이원스는 반도체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매출 1639억원, 영업이익 36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영업실적 1638억, 366억원과 비슷한 수치다.

"""

Company = " 한솔아이원스"

Year = 2024

Article =

"""

한솔그룹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계열사인 한솔아이원스가 올해 2분기에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주요 고객사 수요가 급증한 덕분이다. 반도체 불황이었던 지난해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한솔아이원스는 새 글로벌 고객사 확보를 앞세워 2년 전 수준으로 실적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한솔아이원스는 올해 2분기에 매출 395억원, 영업이익 72억원을 기록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5%, 영업이익은 319% 늘어났다. 당기순이익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박인래 한솔아이원스 대표는 24일 전화인터뷰에서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로 공급하는 정밀가공 분야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적자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했다"며 "불황이었던 지난해에 생산성을 향상 차원으로 대비했던 공정 반자동화 등이 효과를 냈다"고 말했다.

한솔아이원스는 반도체 초정밀부품 가공과 세정·코팅 부문의 기술력 보유한 회사다. 특히 반도체 장비 세계 1위인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MAT)에 식각(웨이퍼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공)장비 챔버(각 공정 장비마다 탑재된 웨이퍼 가공 공간) 주요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한솔아이원스는 올해 네덜란드 노광장비 제조기업을 새 고객사로 확보했다. 극자외선 노광장비 파츠 재사용(Re-Use) 사업을 시작해 매출을 일으켰다. 박 대표는 "반도체 회사에서 쓰던 노광장비 사용연한이 다 되면 부품이나 모듈을 과거에는 수거해서 폐기했는데 이를 가져와 고치고 닦는 작업을 통해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라며 "아직 유의미한 수준의 매출은 아니지만,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해 이 분야에 진입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솔아이원스 기술연구소. 한솔아이원스 제공반도체장비 부품 핵심 소재인 ‘아이코닉’ 개발은 한솔아이원스의 차세대 먹거리다. 한솔아이원스가 한국세라믹기술원과 3년여 연구를 통해 개발한 아이코닉은 반도체 제조 식각 공정 장비 소모품인 포커스링으로 사용 가능한 소재다. 한솔아이원스는 지난해 화성 동탄연구소에 파일럿 라인을 구축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3차에 걸친 샘플 시험을 완료했다. 박 대표는 "라인에서의 실증 테스트는 아니고 연구실에서 진행중인 시험"이라며 "현재까지 테스트가 만족스럽기 때문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장비시험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솔아이원스는 지난해 10월 안성에 세정·코팅 신공장을 완공했다. 개당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반도체 생산 장비 부품 중엔 마모되거나 오염이 되면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코팅하거나 세정하는 방식으로 부품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에서 한솔아이원스가 두각을 보이고 있다. 한솔아이원스는 신공장 완공을 계기로 기존 식각 중심 세정·코팅에서 증착과 임플란트 영역으로 사업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박 대표는 "세정코팅 사업은 삼성전자와 주로 거래했는데, 다른 반도체 회사도 고객사로 수주하려고 준비중"이라며 "3~4분기에는 관련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추세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2022년 수준으로 다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박 대표는 "2022년 매출이 1639억원이었는데 그정도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과 고객 상황에 따른 성과의 시간차는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기 위한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

Company = " 한솔아이원스"

Year = 2025

Article =

"""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아이원스는 반도체 초정밀 부품 가공과 세정·코팅 부문에서 탁월한 기술력 보유한 글로벌 종합부품 장비 전문 기업이다.  
한솔아이원스는 반도체 장비 세계 1위인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에 식각 장비(웨이퍼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공정)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국내 메모리 반도체 주요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부품 세정·코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재사용(Re-use) 기술을 개발해 지난해부터 네덜란드 노광장비 제조기업을 새 고객사로 확보했다. 노광장비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빛으로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데 사용된다.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덕분에 시장에서는 한솔아이원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2022년 한솔그룹의 일원이 된 한솔아이원스는 지난 3년간 반도체산업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음에도 지속 성장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경영 체계 및 사업 구조 개선도 일궈냈다. 또 인수 전 발생한 회계상 리스크를 모두 해소했고 부실 사업 정리와 성장 사업을 위한 투자를 병행해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강소기업으로 변모했다.  
사업의 핵심축인 정밀가공 사업은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의 높은 시장 점유율 상승과 더불어 동반 성장하고 있다. 주요 부품의 물량 증가에도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불황이던 재작년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준비한 공정 반자동화 등이 효과를 내 이익률을 높였다.

특히 그동안 외부에 의존했던 일부 공정에 대한 내재화 투자를 단행하면서 가공-코팅-세정-리페어-분석-포장-배송 등 고객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 체계를 완성해 가고 있다. 한솔아이원스는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역에 미국 법인을 설립했다. 새너제이는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밀집해 있다.  
한솔아이원스는 "기존 고객인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와 사업 확대를 도모하고, 글로벌 기업 고객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미국 법인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세정·코팅사업은 2023년 경기 안성 2공장 신축을 완료하고 생산능력 증대에 대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과 거래를 시작하는 등 장기적 성장을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네덜란드 노광장비사를 위한 신규 서비스도 집중하고 있다. 노광장비 핵심 부품의 재사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객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기여할 뿐 아니라, 원가 경쟁력 확보에도 일조해 양사 간 시너지를 얻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가공과 세정 분야에서도 고객과의 사업 확대를 적극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 성장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한 한솔아이원스의 방향성은 기존 정밀 가공, 세정·코팅 사업에 소재를 추가하기 위한 노력에서도 엿보인다. 4년째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식각용 소재사업은 국내외 장비사와의 협업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 한솔아이원스는 "이와 관련한 사업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며 시장에서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인래 한솔아이원스 대표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해 가는 강소기업이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한 사업과 기술 분야에서만 특화된 기업이 아니라 복수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획득함으로써 변동성이 강한 반도체업계에서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Company = " 한양디지텍"

Year = 2022

Article =

"""

[헤럴드경제=증권부] 한양디지텍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00억1253만원으로 전년대비 333.4% 증가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031억721만원으로 89.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은 235억255만원으로 419.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Company = " 한양디지텍"

Year = 2023

Article =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양디지텍(078350)은 종속사인 ‘한양 디지텍 비나 컴퍼니 리미티드’(HANYANG DIGITECH VINA COMPANY LIMITED)에 65억원 규모의 금전대여를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5.3%다. 이율은 5%다. 대여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28년 7월10일까지다. 회사 측은 금전대여 목적에 대해 "손자회사 투자계획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

Company = " 한양디지텍"

Year = 2024

Article =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양디지텍(078350)](javascript:;)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91억원으로 전년 대비 63..8% 줄었다고 14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4788억원으로 전년보다 1.2%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125억원으로 66.3% 감소했다.

"""

Company = " 한양디지텍"

Year = 2025

Article =

"""

"""

Company = "씨앤지하이테크"

Year = 2022

Article =

"""

반도체 장비 제조사 씨앤지하이테크가 ‘화학약품 저장탱크 라이닝 시트’ 국산화를 위한 시제품 생산에 들어갔다.  
씨앤지하이테크(264660)는 21일 "라이닝 시트의 최종 생산 단계 도입을 위한 시설장비 투자를 마치고 현재 시제품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시제품 생산이 끝나면 고객사의 품질 확인을 거쳐 제품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씨앤지하이테크는 최근까지 관련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글로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단계별로 라이닝 시트의 국산화를 진행해왔다.  
라이닝 시트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등에서 쓰이는 화학약품을 보관하는 저장용기(탱크) 내면에 접착 시공, 탱크 내부 화학약품의 오염·부식을 차단하고 고순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회사 관계자는 "고순도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를 시작으로 향후 화학산업 분야 등 전방산업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 말했다. 이어 "해당 제품의 국산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분야의 연구활동을 통해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Company = "씨앤지하이테크"

Year = 2023

Article =

"""

김경택 기자 = 반도체 장비제조 전문기업 씨앤지하이테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제12기 KIST 패밀리기업(K-Club)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씨앤지하이테크는 지난 21일 서울 KIST 국제협력관에서 개최된 KIST 패밀리기업 관련 행사에서 제12기 신규회원사로 선정돼 인증서를 받았다.  
패밀리기업은 KIST가 보유한 인적·기술적 자원 및 관계기관의 자원을 연계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KIST는 매년 엄선된 K-Club 회원사에 기술·마케팅·자금,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KIST 패밀리기업 선정은 회사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KIST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

Company = "씨앤지하이테크"

Year = 2024

Article =

"""

반도체 장비 전문기업 씨앤지하이테크는 스마트 투시 윈도우 패널 제조 기업 '인투시'와 30억원 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씨앤지하이테크는 인투시 주식 30억원을 인수하며 이는 경영 참여가 아닌 단순 지분 투자 목적이다.  
인투시는 문을 열지 않고서도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스마트 투시 윈도우 패널을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다. 이 기술은 LED 빛 반사율에 따라 투과도가 변하는 디스플레이 패널에 첨단 센서를 장착해 평상시 패널은 불투명의 검은색이지만 외부 동작이나 소리를 감지하면 내부가 밝아지면서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미 해당 기술을 활용한 제품도 여러가지로 인테리어 가구, 소형가전, 납골 안치단 등 다양하다.  
씨앤지하이테크 관계자는 "인투시의 독창적인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다면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경영 참여는 하지 않더라도 사업 파트너로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Company = "씨앤지하이테크"

Year = 2025

Article =

"""

반도체 장비 전문기업 씨앤지하이테크는 차세대 유리기판(Glass PCB) 관통홀(TGV) 내벽에 신규 물리적 박막 증착(PVD) 기술을 적용한 구리 박막 형성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유리 기판의 관통홀 종횡비 1대 10까지 내벽에 균일한 구리 박막을 형성하는 것으로, 업계의 주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씨앤지하이테크가 독자 개발한 M-PVD(Magnetron-PVD) 공법은 금속 원자에 에너지를 조절해 관통홀 내벽으로 금속 원자를 효율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기존 화학적 무전해 도금 및 전해 도금 공정을 대체할 수 있다.  
기존의 PVD 공정(DC 스퍼터링)은 친환경적이고 고결정성 박막 형성이 가능하지만, 복잡한 구조에서는 균일한 박막 형성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반해 M-PVD 기술은 종횡비 1대 10을 넘어 1대 15 이상의 관통홀에서도 균일한 구리 박막 형성이 가능해 유리기판 제조에 있어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된다.  
씨앤지하이테크는 이미 구리 박막과 유리기판 간 접착력 7N/㎝ 이상을 확보하고 종횡비 1대 5 대면적화에 성공한 바 있으며, 현재는 양산화 체계를 구축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끊임없는 응용 신제품 개발과 국제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국내외 차세대 유리기판 소재 산업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기술 집약적인 업계 선두주자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